I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일제 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 북 아 역 사 재 단 편

I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일제 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 간 사

고구려를 대표하는 주요 유적들은 일제시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바 있습니다. 고구려의 위상을 대변하는 태왕릉과 장군총, 고구려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생생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 무용총과 각저총, 그리고 고구려 예술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강서 대묘 등이 그것들입니다.

일본인들은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90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단을 구성, 조선인을 인부로 동원해 평양일대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고구려 고분들을 발굴했습니다.

이때 고구려 유물 발굴 조사에 참여한 일본인 학자들은 고구려 고분에서 수집한 유물의 상당수를 일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조선에 파견되어 있던 관리나, 골동품상, 유물 애호가들도 고구려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이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또는 그 후손들이 대학이나 박물관에 그 유물들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여러 지역의 대학과 박물관에는 상당량의 고구려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문헌 사료가 부족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데 있어 고고학 자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려인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들은 고구려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고, 고구려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함은 물론이지만, 이에 앞서 고고학 자료들이 잘 보존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재단에서는 장기 계획 아래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고구려 유물에 대한 연구와 정리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유물들이 발굴된 과정, 즉 일제시기 고구려 유적 조사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작업의 첫 번째 결과물로서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고구려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 학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연구논문을 작성해준 정인성, 早乙女雅博 교수와 유물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신 後藤直, 大貫靜夫, 藤井惠介, 角田眞弓, 谷豊信, 高柳智, 高久健二, 笹田朋孝, 服部敬史, 川添修司 등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고구려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유물 사진을 생생하게 찍어준 김광섭 작가, 사진 촬영과 일본 현지에서의 조사에 도움을 준 도쿄대학 박사과정의 주홍규, 정창희 선생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8년 5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일러두기

1 본 도록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구려 유적의 조사 과정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일본에 소재하는 고구려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 일본 소재 고구려 자료 중 관동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리 · 수록하였다. 그러나 관동지역 소재 유물의 양이 가장 많아 두 차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본 도록에는 1차분을 수록하였다.

3 관동지역 고구려 관련 유물에 대한 사전 조사, 현지와의 협의, 조사의 진행은 김현숙 · 정인성이 맡았으며 주홍규 · 정창희가 보조하였다. 또한 현지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준 아래의 연구자들께 감사드린다.

도쿄대학 문학부 : 後藤直, 大貫靜夫
도쿄대학 공학부 : 藤井惠介, 角田眞弓
도쿄박물관 : 谷豊信
도쿄예술대학 : 高柳智
와코대학 : 服部敬史, 川添修司
릿쿄대학 : 笹田朋孝
사이타마대학 : 高久健二

4 정인성의 논문에 삽입된 세키노 자료와 이와이 도면 등은 정인성이 이들 자료의 정리 과정에서 직접 촬영해 둔 것을 도쿄대학의 허가를 얻어 수록하였다.

5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사도는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과 도쿄예술대학에서 게재 허가를 받아 필름을 대여하여 수록하였다.

6 유물 촬영 작업은 김광섭이 담당하였다. 단 도쿄박물관 소장 자료는 谷豊信의 주도로 도쿄박물관이 촬영하였다.

7 유물 설명은 정인성과 주홍규가 작성하였다.

8 일부 자료 중 크기 정보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이는 일본 현지 상황과 부족한 조사 시간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1 논문편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 연구 재검토 Ⅰ —— 12
–1913년까지 평양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중심으로

1945年以前の高句麗壁塘古墳の調査 Ⅰ —— 138

1945년 이전의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사 연구 Ⅰ —— 164

2 유물편

도쿄대학 —— 200

도쿄박물관 —— 272

도쿄예술대학 —— 304

와코대학 —— 358

릿쿄대학 —— 370

사이타마대학 —— 378

3 유물설명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 소장 유물 —— 392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 소장 고구려 벽화 모사도 —— 396

도쿄대학 문학부 소장 유물 —— 402

도쿄박물관 소장 유물 —— 405

도쿄예술대학 소장 벽화 모사도 —— 412

도쿄예술대학 소장 와전 유물 —— 414

와코대학 소장 유물 —— 420

릿쿄대학 소장 유물 —— 422

사이타마대학 소장 유물 —— 4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편 도판 목록

圖 1_ 강서지역 고구려 고분의 분포 20
圖 2_ 사동 고분군 원경 1 23
圖 3_ 사동 고분군 원경 2 23
圖 4_ 조사 중인 사동 고분 23
圖 5_ 출토 유물 23
圖 6_ 드러난 천장석 23
圖 7_ 석실 측면 23
圖 8_ 석실 천장 23
圖 9_ 석실 바닥 23
圖 10_ 황산 고분군 전경 26
圖 11_ 노출된 고구려 고분 26
圖 12_ 노출된 고구려 고분 26
圖 13_ 휴식 중인 조사원 26
圖 14_ 노출된 고구려 고분 26
圖 15_ 용강 고분 원경 26
圖 16_ 노출된 용강 고분 26
圖 17_ 황산 고분과 토성 위치도 27
圖 18_ 용강 고분 석실 내부 27
圖 19_ 용강 고분 석실 외형 27
圖 20_ 황산 고분 현장 기록 27
圖 21_ 용강 고분 현장 기록 27
圖 22_ 용강 고분 천장석 28
圖 23_ 용강 고분 석실 내부 28
圖 24_ 석실 내부 도면 34
圖 25_ 한왕묘와 주변 고분 분포도 34
圖 26_ 발굴 전 모습 34
圖 27_ 봉토 굴착 작업 중 34
圖 28_ 한왕묘 앞 조사원 34
圖 29_ 석실 천장 상태 34
圖 30_ 현실에서 바라본 연도부 천장 35
圖 31_ 조사에 동행한 경찰들 35
圖 32_ 석실 천장이 드러난 상태 35
圖 33_ 석실 내부에서 본 연도부 35
圖 34_ 한왕묘 봉분에서 출토된 유물 35
圖 35_ 한왕묘 현장 기록 36
圖 36_ 한왕묘 현장 기록 36
圖 37_ 한왕묘 현장 기록 36
圖 38_ 한왕묘 주변 고분 분포도 37
圖 39_ 한왕묘 내부 구조 37
圖 40_ 한왕묘 석실 측면 38
圖 41_ 한왕묘 석비 38
圖 42_ 한왕묘 주변 고분 39
圖 43_ 한왕묘 연도 폐쇄 상태 (석실 내부에서) 39
圖 44~54_ 한왕묘 봉토에서 출토된 각종 기와 41
圖 55~57_ 현재의 한왕묘(google earth) 41
圖 58_ 강서 삼묘 전경 사진 46
圖 59_ 강서 대묘의 내부 구조 실측도 46
圖 60_ 조사 후의 강서 대묘(철책이 둘러쳐져 있음) 47
圖 61_ 강서 대묘의 내부 투시도 47
圖 62_ 남벽 동측의 주작(사진) 48
圖 63_ 남벽 서측의 주작(사진) 48
圖 64_ 동벽의 청룡(사진) 48
圖 65_ 동벽의 청룡(모사도) 48
圖 66_ 서벽의 백호(사진) 49
圖 67_ 북벽의 현무(사진) 49
圖 68_ 북벽의 현무(모사도) 49
圖 69_ 북측 천장 평행모줄임부의 비천(모사도) 50
圖 70_ 천장 모줄임부의 여러 그림 (모사도) 50
圖 71_ 강서 삼묘 현장 기록 51
圖 72_ 강서 삼묘 현장 기록 51
圖 73_ 강서 대묘 석실 실측도 51
圖 74_ 강서 대묘 현장 기록 51
圖 75_ 강서 대묘 벽화 스케치 51
圖 76_ 강서 대묘 보존 방침 메모 51
圖 77_ 강서 대묘 보존 방침 메모 52
圖 78_ 강서 대묘 보존 방침 메모 52
圖 79_ 강서 대묘 석비의 벽화(사진) 52
圖 80_ 강서 대묘의 분구 및 석실 측량도 (이와이 작성) 53
圖 81_ 석실 실측도 54
圖 82_ 동벽의 청룡 55
圖 83_ 남벽의 주작 55
圖 84_ 서벽의 백호 55
圖 85_ 북벽의 현무 55
圖 86_ 모줄임부 괴조 55
圖 87_ 천장의 황룡 56
圖 88_ 석비의 벽화 56
圖 89_ 모줄임부의 보상화문 56
圖 90_ 모줄임부의 초화문 56
圖 91_ 강서 대묘 근경(남에서) 57
圖 92_ 강서 대묘 입구(남에서) 57
圖 93_ 강서 대묘(남동에서) 57
圖 94_ 남벽 좌측의 주작 58
圖 95_ 모줄임부의 벽화 58
圖 96_ 천장의 벽화 58
圖 97_ 청룡 58
圖 98_ 강서 대묘 천장 58
圖 99~100_ 강서 대묘의 모줄임부 벽화 59
圖 101_ 출입구 바닥의 레일 흔적 (일제강점기 설치) 59
圖 102_ 출입구 바닥의 레일 흔적 (일제강점기 설치) 59
圖 103_ 조사 후 출입구가 복원된 강서 중묘 61
圖 104_ 내부 실측 도면 62
圖 105_ 강서 중묘의 청룡(사진) 62
圖 106_ 남벽의 동쪽 주작(사진) 63
圖 107_ 남벽의 서쪽 주작(모사도) 63
圖 108_ 강서 중묘 서벽의 백호(모사도) 63
圖 109_ 강서 중묘 현실 동북 모서리(사진) 64
圖 110_ 현실 북벽 내어쌓기면의 인동당초(사진) 64
圖 111_ 현실 북벽 내어쌓기면의 벽화(사진) 64
圖 112~114_ 중묘 현실 내어쌓기면의 벽화(모사도) 65
圖 115_ 현실의 천장 65
圖 116_ 강서 중묘 측단면도(위)와 천장도(아래) 66
圖 117_ 세키노의 현장 기록 66
圖 118_ 강서 중묘 현실 측단면도 66
圖 119_ 강서 중묘 현실 각 부분의 벽화 66
圖 120_ 강서 중묘 분구 측량도 67
圖 121_ 석실 내부 실측도 67
圖 122_ 강서 중묘의 청룡(모사도) 68
圖 123_ 강서 중묘의 백호(모사도) 68
圖 124_ 강서 중묘의 주작 1(모사도) 68
圖 125_ 강서 중묘의 주작 2(모사도) 68
圖 126_ 강서 중묘의 현무(모사도) 68
圖 127_ 강서 중묘의 천장 68
圖 128_ 서북쪽에서 본 강서 중묘 69
圖 129_ 동북쪽에서 본 강서 중묘 69
圖 130_ 남쪽에서 본 강서 중묘 69
圖 131_ 강서 중묘의 천장 70
圖 132_ 천장의 연화문 70
圖 133_ 바닥에서 확인되는 레일 흔적 (일제강점기에 설치) 70
圖 134_ 조사 전 상태 72
圖 135_ 석실 측단면도 72
圖 136_ 석실 천장도 72
圖 137_ 강서 소묘의 현장 조사 기록 73
圖 138_ 세키노가 그린 소묘의 측단면도와 천장도 73
圖 139_ 강서 중묘에서 바라본 소묘 74
圖 140_ 강서 소묘 입구 74
圖 141_ 동남쪽에서 본 소묘 74
圖 142_ 서남쪽에서 본 소묘 74
圖 143_ 강서 소묘의 천장 75
圖 144_ 서벽 축조 상태 75
圖 145_ 연도 동벽 축조 상태 75
圖 146_ 문미석의 장부 구멍 75
圖 147_ 연도 벽석 세부 75
圖 148_ 분구 측량도 79
圖 149_ 석실 내부 실측도 79
圖 150_ 간성리 연화총 발굴 전 상태 80

圖 151_ 현실 천장부 80
圖 152_ 연도 형태 80
圖 153_ 삼각고임부 벽화와 출토 유물 80
圖 154_ 현실 천장의 벽화 80
圖 155_ 간성리 연화총 현장 메모 81
圖 156_ 간성리 연화총 약측도 81
圖 157_ 간성리 연화총 벽화 81
圖 158_ 간성리 연화총 벽화 81
圖 159_ 간성리 연화총의 분구 측량도 82
圖 160_ 간성리 연화총 석실 평면도 83
圖 161_ 간성리 연화총 측단면도 1 83
圖 162_ 간성리 연화총 측단면도 2 83
圖 163_ 매산리 고분군 분포도 87
圖 164_ 매산리 고분군의 원경 87
圖 165_ 조사 중인 매산리 사신총 87
圖 166_ 매산리 사신총 석실 도면 87
圖 167_ 매산리 사신총 측단면도 87
圖 168_ 매산리 사신총의 모줄임부 벽화(사진) 88
圖 169_ 사신총의 인물도(사진) 88
圖 170_ 사신총의 인물도(모사도) 88
圖 171_ 사신총의 인물 세부 88
圖 172_ 현실 북벽의 말 끄는 인물 88
圖 173_ 사신총의 청룡(사진) 89
圖 174_ 기마 인물상(사진) 89
圖 175_ 수렵도(사진) 89
圖 176_ 매산리 사신총 남벽의 주작(사진) 89
圖 177_ 세키노가 작성한 매산리 고분군 분포도 89
圖 178_ 현장 조사 기록 90
圖 179_ 사신총 현실의 천장 90
圖 180_ 사신총의 측단면도 90
圖 181_ 매산리 사신총의 평면도 91
圖 182_ 매산리 사신총의 남벽(왼쪽)과 동벽(오른쪽) 91
圖 183_ 매산리 사신총의 북벽(왼쪽)과 서벽(오른쪽) 92
圖 184_ 사신총의 천장 실측도 92
圖 185_ 매산리 사신총의 청룡 93
圖 186_ 사신총의 주작 93
圖 187_ 사신총의 인물상 93
圖 188_ 사신총의 수렵도 93
圖 189_ 세키노가 약측한 매산리 남총 94
圖 190_ 매산리 중총의 측단면도 95
圖 191_ 매산리 중총의 천장도 96
圖 192_ 북총의 측단면도 97
圖 193_ 북총의 천장도 97
圖 194_ 화상리 고분군의 분포도 101
圖 195_ 화상리 고분군의 원경 101
圖 196_ 화상리 대연화총 발굴 광경 101
圖 197_ 대연화총의 실측도 각종 102
圖 198_ 대연화총의 내부 투시도 102
圖 199_ 인물상(사진) 103
圖 200_ 동쪽 감실(사진) 103
圖 201_ 현실 남벽 상부의 주작(사진) 103
圖 202_ 인물상(모사도) 103
圖 203_ 주인공 좌상(모사도) 103
圖 204_ 서쪽 감실 좌 · 우벽의 인물상(모사도) 104
圖 205_ 전실 북벽 서측의 인물상(모사도) 104
圖 206_ 서쪽 연도의 기마 인물상(모사도) 104
圖 207_ 전실 남벽 서측의 인물상(모사도) 104
圖 208_ 각종 인물상(모사도) 104
圖 209~210_ 세키노의 현장 기록 105
圖 211_ 석실 천장도 105
圖 212_ 측단면도 105
圖 213_ 대연화총 부분 벽화 105
圖 214_ 대연화총 인물 105
圖 215_ 대연화총 벽화 105
圖 216_ 대연화총의 측단면도 106
圖 217_ 대연화총의 실측 도면 107
圖 218_ 오바의 대연화총 모사도 108
圖 219_ 화상리 성총 연도부 굴착 110
圖 220_ 성총 남벽의 주작 110
圖 221_ 천장과 모서리의 벽화 110
圖 222_ 성총 석실 실측도 111
圖 223_ 석실 내부 투시도(현실에서 바라본 연도) 111
圖 224_ 화상리 고분군의 분포도 112
圖 225_ 화상리 성총의 메모 112
圖 226_ 남벽 서남 모서리에 그려진 벽화 113
圖 227_ 동벽에 그려진 벽화 113
圖 228_ 화상리 성총의 실측도 각종 114
圖 229_ 안성동 대총 원경 117
圖 230_ 안성동 대총 근경 117
圖 231_ 발굴 전의 안성동 대총(왼쪽)과 발굴 후의 안성동 대총(오른쪽) 117
圖 232_ 석실 도면 117
圖 233_ 용강 대총 내부 투시도 118
圖 234_ 드러난 입구 118
圖 235_ 천장부 118
圖 236_ 전실에서 바로 본 연문 118
圖 237_ 석실 모서리 118
圖 238_ 용강 대총 조사 기록 118
圖 239_ 용강 대총 세부 기록 118
圖 240_ 용강 대총 석실 평면도 119
圖 241_ 측단면도 119
圖 242_ 안성동 대총 천장도 120
圖 243_ 안성동 대총 분구 측량도 120
圖 244_ 안성동 대총 벽화 모사 121
圖 245_ 안성동 고분군 위성사진 121
圖 246_ 쌍영총에서 바라본 안성동 대총 121
圖 247_ 남쪽에서 본 안성동 대총 121
圖 248_ 발굴 당시 풍경 123
圖 249_ 쌍기둥 123
圖 250~252_ 쌍영총의 인물도(모사도) 123
圖 253_ 천장 모서리의 벽화(사진) 124
圖 254_ 천장의 연화(사진) 124
圖 255_ 인물도(사진) 124
圖 256_ 현실 모서리의 벽화(사진) 124
圖 257_ 삼각고임돌의 벽화(삼족오) 124
圖 258_ 삼각고임돌의 벽화(사진) 124
圖 259_ 조사 후 복원 상태 125
圖 260_ 쌍영총 내부 투시도 125
圖 261_ 세키노의 현장 조사 기록 126
圖 262_ 세키노의 현장 조사 기록 126
圖 263_ 쌍영총의 천장 약측도 126
圖 264_ 쌍영총의 연문 약측도 126
圖 265_ 쌍영총의 벽화(현실 북벽) 127
圖 266_ 쌍영총의 벽화(현실 북벽) 127
圖 267_ 쌍영총의 벽화(입구 측벽) 127
圖 268_ 쌍영총의 벽화(현실 후벽) 127
圖 269_ 쌍영총의 벽화 약측 127
圖 270_ 쌍영총의 분구 측량도 128
圖 271_ 쌍영총의 평면도 129
圖 272_ 쌍영총의 천장도 129
圖 273_ 쌍영총의 측단면도 1 130
圖 274_ 쌍영총의 부분 실측 130
圖 275_ 쌍영총의 부분 실측 130
圖 276_ 쌍영총의 측단면도 2 131
圖 277_ 쌍영총의 입구 132
圖 278_ 현실 남벽 132
圖 279_ 현실 북벽의 인물 132
圖 280_ 현실 입구의 쌍기둥 132
圖 281_ 전실 동벽의 청룡 132
圖 282_ 전실 벽화와 내부 투시도 133
세키노 다다스의 강서 대묘 기록 191
세키노 다다스의 용강 대총 기록 192
세키노 다다스의 매산리 고분 기록 193
세키노 다다스의 쌍영총 기록 194
세키노 다다스의 매산리 성총 기록 195
세키노 다다스의 안성동 대총 기록 196
세키노 다다스의 쌍영총 기록 197

A RELIC OF KOGURYO IN THE JAPAN LOCATION



논문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Ⅰ

1913년까지 평양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중심으로

정 인성 _ 영남대학교

Ⅰ.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의 개요
Ⅱ. '세키노 다다스(關野貞) 조사단'
Ⅲ. 1910년도의 조사
Ⅳ. 1911년도의 조사
Ⅴ. 1912년도의 조사
Ⅵ. 1913년도의 조사
Ⅶ. 마무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의 개요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서북지역에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중요 고분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한 · 중 양국에 걸친 고구려 고분군은 그 학술적인 중요성과 예술성이 동시에 인정되어 2004년 7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은 주로 중국의 집안, 북한의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 대동군, 황해남도 안악군 등지에 분포하며, 최근 문제가 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들 고구려 유적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특히 고구려 고분군 중에서 대중과 연구자의 관심이 높은 것이 벽화고분인데,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고구려 벽화고분을 소개하는 다양한 연구서와 도록이 출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 고구려 고분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학자들에 의해 조사되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사된 고구려 고분은 대부분 간단한 설명과 도면 · 사진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 정식으로 보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일제강점 초기에 조선에서 '고적 조사(古蹟調査)'를 주도했던 세키노 다다스(關野貞)가 1929년 작성한 『고구려시대의 유적(高句麗時代之遺跡)』에도 1916년 이후에 조사된 일부 고분과 채집 고구려 기와의 도면 · 도판만이 게재되었을 뿐 조사 경과와 내용은 전부 누락되었다. 이는 『낙랑군시대의 유적(樂浪郡時代之遺跡)』이 도면과 도판이 출간된 직후 본문이 충실하게 보충되었던 사례나 『채협총(彩篋塚)』, 『왕광묘(王光墓)』, 『왕우묘(王旴墓)』 등 단일 낙랑 고분의 조사 결과가 비교적 충실하게 보고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라 하겠다.

한왕묘, 강서 삼묘, 쌍영총 등의 유명 고구려 고분이 언제 조사되었으며, 조사 주체가 누구였는지, 조사 경과와 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출토 유물이 있었다면 그 유물의 귀속과 현재 소재는 어디인지에 대한 기초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방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인 연구자들이 조사한 고구려 고분의 주요 내용은 물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조차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총괄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수많은 고구려 고분의 조사 · 연구 내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 첫 작업으로 우선 고구려 고분이 처음으로 조사되기 시작하는 강제병합 전후부터 중요 고구려 고분의 발굴이 집중되는 1913년까지의 조사 경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한 주 자료는『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Ⅱ에 공개된 사진과 도면, 세키노가 중심이 되어 일본학계에 발표한 논문과 강연회 기록, 도쿄대학에 남아있는 세키노가 현장에서 기록한 야장(필드 카드)이다. 여기에 도쿄대학 소장의 고구려 고분 측량도와 실측도, 벽화고분 모사 등도 참고하였다.

먼저 일제강점기 동안 이루어진 고구려 고분의 조사 사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통해 안악 고분군과 덕흥리 벽화고분 등을 제외한 유명 고구려 벽화고분 대부분이 이미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구려 고분 굴착이 국권이 강탈된 1910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근대에 가장 먼저 고구려 고분을 굴착한 사람은 강서군수였던 이우영(李宇榮)으로, 1904년 강서에 있는 고구려 무덤을 굴착한 사실이 확인된다.[1] 이우영은 당시 대묘와 중묘를 굴착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강서에 주둔하던 일본군 오타 후쿠조(太田福藏)이다. 오타는 1905년부터 일본군 제15사단 제58연대 제3대대에 배속되어 위생병으로 평양에 머물렀는데, 강서에도 8개월 간 파견되었다(內田, 2001; 早乙女, 2006). 군수 이우영이 이전에 강서 고분을 굴착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오타는 부대장을 설득하고 이우영 군수의 허락을 받아 동료군인과 자신이 가르치던 조선인 학생들을 동원하여 1906년 11월 26일 굴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굴착 시작한지 3일 만에 고분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석실 안으로 들어갈 때 현지인들을 대동하였는데, 이는 무덤의 굴착을 금기시하는 당시 조선 사회의 분위기를 의식한 행동이며, 대한제국의 국권이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실 안에서 유물은 찾을 수 없었고, 네 벽면과 천장에 벽화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스케치하였다.

강점기 초기에 고구려 고분을 포함한 각종 '고적 조사'를 주도한 세키노가 오타의 스케치를 확인한 것은 1911년 12월이었다. 당시 제대 후 도쿄미술학교[2]에 복학한 오타는 강의를 나왔던 세키노에게 그 스케치를 보여 주었고, 세키노는 이를 고구려 고분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강서 삼묘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는 계기였다.

그 후 1906년에 강서에 주재하던 일본인 오카무라 코이치(岡村幸一)가 군수와 접촉하여 자비로 강서 대묘와 중묘를 굴착하고 벽화무덤을 확인하였는데, 이때 출토된 석비의 파편을 오카무라가 가져갔다고 한다. 오카무라가 군수 이우영과 접촉하여 강서 고분을 굴착했다는 것은, 1904년의 굴착도 이우영이 단독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조상 무덤의 굴착을 금기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그것도 동네에서 조망이 좋은 들판 한가운데에 있

1 사오토메의 정리(甲乙女雅博, 2006)에서 1902년이라 한 부분을 인용하여 필자도 1902년 설을 따른 바 있으나(정인성, 2006), 1913년도에 간행된 잡지에서 세키노가 1911년을 기준으로 7년 전이라 했으므로 1904년일 가능성이 높다.

2 현재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위치한 도쿄예술대학의 전신이다.

는 고분을 조선인 군수가 단독으로 파헤쳤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 마을의 고분을 예로부터 왕후묘로 판단하여 군수가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아마도 당시 개성과 강화도에서 일어난 이주 일본인 주도의 고분 도굴과 관련이 깊으며, 일본인들의 이같은 요구에 이우영이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다.[3] 또한 1904년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해로, 고분이 위치하는 강서지역은 진남포에 상륙한 일본군이 평양으로 진군

표 1 _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고구려 관련 유적

번호	유적 이름	조사 일시	유적의 소재	조사자	참고 문헌
1	대성산성 고분 (사동고분)	1910. 10	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谷井(關野, 栗山)	關野 外 1911
2	용강 고분	1910. 10	平安南道 江洞郡 용강	關野, 谷井	關野 1914a, 關野 야장자료
3	한왕묘	1911. 10	平安南道 江東郡 馬山面	關野, 谷井, 栗山	關野 外 1914a · 1927, 谷井 1911b
4	간성리	1912. 9. 25	평안남도 강서군 학림리	關野, 谷井	關野 1914
5	강서 삼묘	1912. 9	平安南道 江西郡 江西面	關野, 谷井 太田, 小場	太田, 小場 · 太田 1913, 關野 1913a · 1913b · 1913c · 1914a · 1914e · 1915b, 關野 外 1914b, 谷井 1912b
6	매산리 사신총 (狩塚)	1912. 10 1913. 9	平安南道 南浦府 大上面	岩井, 太田, 關野	關野 1913b · 1914a · 1914e · 1914g
7	매산리 중총	1913. 9	平安南道 南浦府 大上面	野,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a · 1914e · 1914g, 關野 外 1927
8	매산리 대연화총	1913. 9	平安南道 龍岡郡	野, 谷井, 栗山 今西, 太田, 小場	野 1914a · 1914g · 1915a, 關野 外 1927
9	매산리 남총	1913. 9	평안남도 용강군	關野, 谷井, 栗山	關野 1914a · 1914g · 1915a, 關野 外 1927
10	매산리 북총	1913. 9	평안남도 용강군	關野, 谷井, 栗山	關野 1914a · 1914g · 1915a, 關野 外 1927
11	화상리 성총 (新北面)	1913. 9. 24	평안남도 용강군	關野, 栗山, 今西 太田, 小場	關野 1914a · 1914g · 1915a, 關野 外 1927
12	화상리 대연화총 (감신총)	1913. 9. 25	평안남도 용강군	關野, 栗山, 今西 太田, 小場	關野 1914a · 1914g · 1915a, 關野 外 1927
13	안성리 대총 (용강 대총)	1913. 9	평안남도 용강군	關野, 谷井, 栗山 今西, 小場	關野 1914a · 1914g · 1915a · 1915b, 關野 外 1927, 谷井 1914c
14	쌍영총	1913. 9	평안남도 용강군	關野,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a · 1914g · 1915a · 1915b, 關野 外 1927, 谷井 1914c
15	장군총	1913. 10	(중국) 집안	關野,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f · 1914g
16	천추총	1913. 10	(중국) 집안	關野,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f · 1914g
17	태왕릉	1913. 10	(중국) 집안	關野,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f · 1914g
18	절 천정총	1913. 10	(중국) 집안	關野,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f
19	사아 천정총	1913. 10	(중국) 집안	關野, 谷井 栗山, 今西	關野1914f

번호	유적 이름	조사 일시	유적의 소재	조사자	참고 문헌
20	오회분 제4총	1913. 10	(중국) 집안	關野,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f
21	삼실총	1913. 10	(중국) 집안	野守,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e · 1914f
22	연화총	1913. 10	(중국) 집안	野守,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e · 1914f
23	귀갑총	1913. 10	(중국) 집안	野守,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e · 1914f
24	미인총	1913. 10	(중국) 집안	野守,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e
25	문악리 고분		平安北道 江界郡 文玉面	野守, 谷井, 栗山, 今西	關野 1914f
26	노산리 개총, 내리 고분, 토포리 고분 호남리 사신총, 금사총 등	1916. 10. 11	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	野守	關野 1917, 關野 外 1930
27	황산 남록 삼실총 황산 남록 이실총	1916. 10. 11	平安南道 龍岡郡 海雲面	野守	關野 1917, 關野 外 1930
28	검산동 고분	1916. 11	平安南道 順川郡 仙沼面	野守	關野 1917, 關野 外 1930
29	용강 두룩산 고구려 고분	1916. 8	平安南道 龍岡郡	黒板	黒板 1917
30	매산리 고분군	1916. 8	평안남도 용강군	黒板	黒板 1917
31	만달산 고분 1, 2, 3호	1917. 3	平安南道 江東郡 晩達面	谷井	谷井 1917
32	대고력 묘자 이실총	1917. 7	(중국) 집안	關野	關野 外 1929
33	무개총	1917. 7	(중국) 집안	關野	關野 外 1929
34	고총	1917. 7	(중국) 집안	關野	關野 外 1929
35	석곽 노출총	1917. 7	(중국) 집안	關野	關野 外 1929
36	대총	1917. 7	(중국) 집안	關野	關野 外 1929
37	삼실총	1917. 7	(중국) 집안	關野	關野 外 1929
38	환도성	1917. 7	(중국) 집안	關野	關野 外 1929
39	평양 역전 고분	1932	平壤府	樋本, 野守	樋本 外 1933
40	평양성 나성, 평양 만수대	1935	平壤府	小泉	小泉 1938b · 1986
41	광개토대왕비 태왕릉, 장군총 무용총, 각저총 삼실총, 천추총 모두루총 등	1935	(중국) 집안	池内, 浜田, 梅原	通溝 1938 · 1940
42	호남리 고분 1, 3호	1936. 10	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	小場, 有光, 澤	小場 外 1937
43	내리 고분군 1, 3호	1936. 10	평안남도 대동군 자족면	小場, 有光, 澤	小場 外 1937
44	고산리 고분군	1936. 10	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小場, 有光, 澤	小場 外 1937
45	상리 고분군	1936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小場, 有光	小場 外 1937
46	산성자 주변 고분군	1936	(中國) 輯安	梅原, 水野, 池内	通溝 1938 · 1940
47	고산리 고분 2기 대보면 고분 2기	1937. 9	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 大宝面	小場, 澤, 田窪	小場 1938
48	만달 산록 고분 18기	1937. 10	平安南道 江東 晩達面	野守, 樋本, 田窪, 澤 1938	野守 外

하는 길목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즉, 고구려 고분의 굴착행위는 강제병합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조선 사람을 대동하고 임의로 굴착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키노 다다스(關野貞) 조사단'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 고구려 고분의 발굴 조사와 보고는 대부분 세키노가 독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고구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초기에 조선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고적 조사의 중심에는 세키노와 그의 조수들이 있었다. 이를 본고에는 '세키노 조사단'이라 하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단의 중심 인물인 세키노 다다스와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세키노 다다스(關野貞, 1867~1935)

세키노는 1867년 일본 동북지방인 니가타(新潟)현에서 태어났다. 1895년에 도쿄대학 공과대학 조가학과(造家學科)[4]를 졸업하고 나라(奈良)현에서 고건축 등을 조사하는 기사(技師)를 거쳐 1901년 도쿄대학 공과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1902년에는 대학의 명령으로 한반도의 고건축과 각종 유적을 조사하였다. 이후 강점 초기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고적 조사 사업과 조사단 인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세키노는 한국의 고고학은 물론 건축사나 미술사와 관련된 연구사(研究史)를 정리할때면 언제나 첫머리에 오는 인물로, 그가 1902년 조사를 기초로 1904년 제출한 『한국건축조

3 이우영은 러일전쟁 때 적(러시아측)의 정보를 적절하게 일본군에게 전한 공을 인정받은 1908년경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는 당시 이우영이 일본 군부와 강하게 밀착되 있었음을 알려준다. 강서 고분의 발굴도 실제 오타처럼 고대 고분과 그 출토 유물에 관심이 있던 일본인의 요구에 이우영이 협조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4 지금의 도쿄대학 공과대 건축학연구실에 해당한다.



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가 위에서 언급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학술 보고이기 때문이다. 세키노는 1909년부터 매년 한반도에 대한 고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한일합방이 되고 난 후까지 이어졌다. 1916년 조선총독부령의 「고적 및 유적보존규칙」이 시행되면서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촉탁되어 한군현(漢郡縣)과 고구려(高句麗)와 관련된 조사를 총괄 담당하였다. 1918~1920년 서양 유학 이후에는 직접 발굴 조사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한국으로 건너와 조사를 계속하였다. 또한 초창기 그가 조직한 조사단에 속했던 연구자들이 1930년대까지 각종 고적 조사 사업을 독점한 사실은 그가 강점기의 고적 조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조사 성과를 수록한 『조선고적도보』를 제작하여 유학 중 프랑스에서 쥴리앙 상을 수상하였고, 『조선예술의 연구(朝鮮藝術之研究)』, 『조선미술사(朝鮮美術史)』 등의 조사 보고서와 저서를 집필하였다. 특히 낙랑군과 고구려 유적의 조사 · 연구에도 공을 들여 『낙랑군시대의 유적』의 도면 · 도판 · 본문, 『고구려시대의 유적』의 도면 · 도판을 간행하였다.

세키노가 남긴 방대한 양의 논문과 저서를 살펴보면, 당시의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미술(예술)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아류라고 판단한 점과 통일신라시대에 절정을 이루고 점차 퇴보하여 조선 시대에는 볼 것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점 등은 세키노 역시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본 문화의 이해라는 큰 명제에서 한반도를 단순히 중국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다리 역할 정도로 판단한 그의 한국관은 식민지 전 기간은 물론이고, 해방 후에도 일본 연구자들의 한국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야쓰이 세이이치 (谷井濟一, 1880~1959)



야쓰이 세이이치는 1880년 와카야마현(和歌山縣)에서 태어났다. 1907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교토제국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지만, 1908년 도쿄로 돌아와 도쿄제실박물관의 수장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1909년 세키노의 한국 조사에 조수로 내정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다른 조사에 참가중인 관계로 야쓰이가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이때 야쓰이의 사진 촬영 기술이 인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 세키노가 서양으로 유학하기 전까지 실시한 거의 모든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조선고적도보』의 편집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09년도부터 많은 유적을 굴착 조사하였는데, 1913년의 고구려 유적 조사, 1916년의 낙랑 고분 발굴 조사를 현장에서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여 능산리 고분, 나주 반남면 고분군의 발굴 조사로도 알려져 있다. 총독부가 실시하는 정식 조사 이외 울산 등지에 산재한 왜성(倭城) 연구에도 힘을 쏟았다. 1921년 부친의 병으로 일본에 돌아간 후 와카야마시의 공안위원, 시의 문화재 보호위원, 회사 간부 등을 역임하다가 1959년(80세)에 사망하였다.

야쓰이의 한국관은 1909년 『한홍엽(韓紅葉)』에 실린 「상세(上世)의 일한관계(日韓關係)」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반도는 고대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고, 소위 『일본서기(日本書紀)』, 『고사기(古事記)』의 '신공황후 신라정벌설(神功皇后 新羅征伐說)'에 기초한 일선동조론에 가까운 역사관을 드러냈다. 나주 옹관묘 발굴을 마친 후 그 보고에서 피장자를 왜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왜성 연구 역시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관계 맺기'를 통한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창출과 관계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에 쌓여진 왜성을 부각시켜 한국합병의 정당성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다. 야쓰이가 남긴 글을 보면, 제국이 식민 지배하는 한반도의 고적조사 현장에서 활약하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인시키고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자신을 일체화시켜 그들만을 위한 굴절된 애국을 실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야쓰이의 한국관은 그의 스승이 쿠로사카 가쓰미(黒坂勝美)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형성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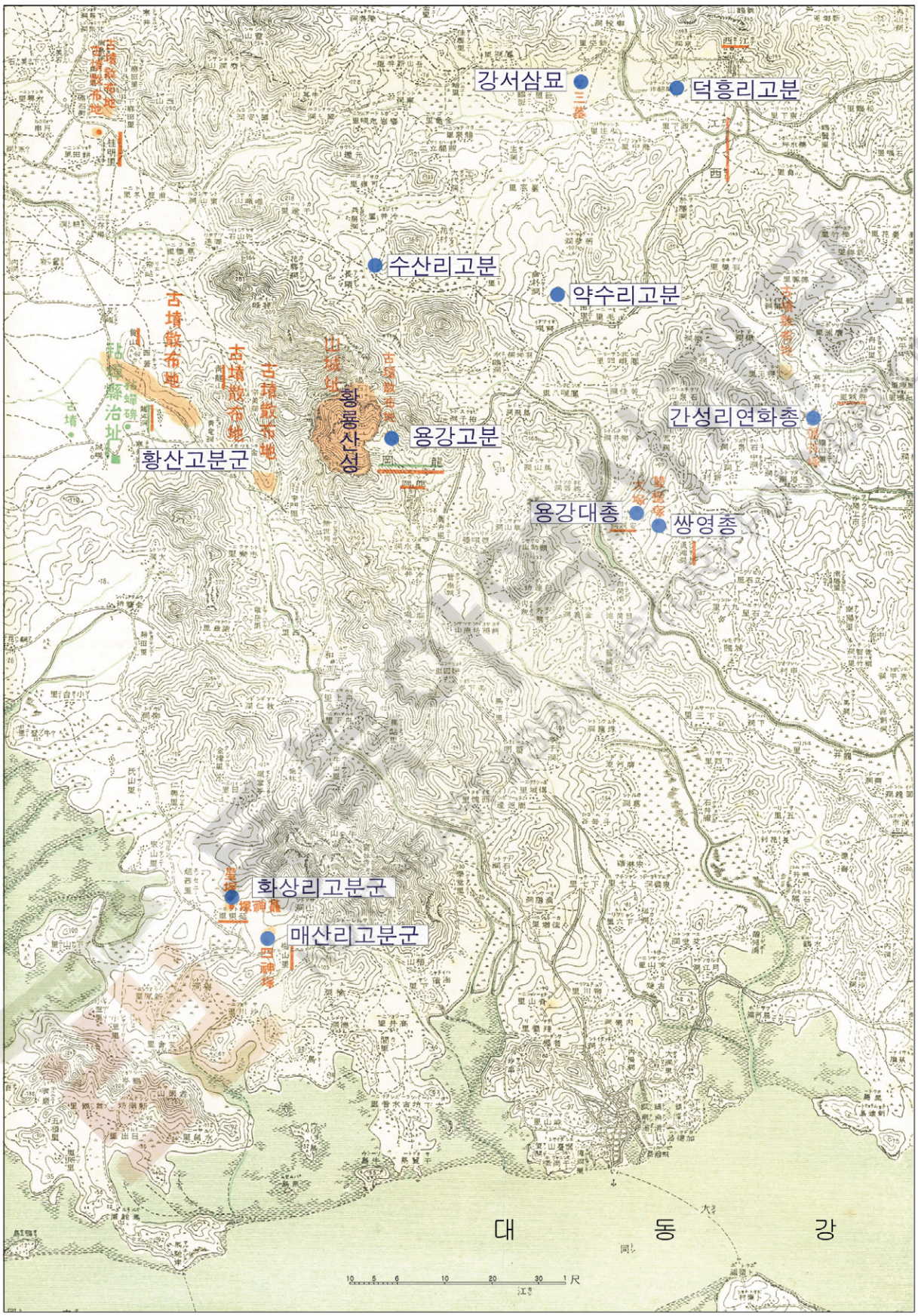


圖1 _ 강서지역 고구려 고분의 분포

1910년도의 조사

1. 1910년도 '고적 조사'의 개요

형식상 한국정부 탁지부의 위촉을 받은 세키노(關野貞) 조사단은 1909년 10월부터 각지에서 고적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때의 고적 조사는 한국정부의 위촉을 받았다고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정책 입안을 일본인 고문이 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탁지부 위촉일 뿐, 실제 모든 결정은 일본인들이 하였다. 이 해에는 평양 대동강변에서 석암동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전형적인 낙랑 전실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구려 고분으로 판단하고 발표하였다. 당시 조사단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 해에 경주에서는 황남리 남총과 서악리 석침총을 조사하였다.

1910년이 되면 조사단의 신분이 조선총독부 위촉으로 바뀌면서 고적 조사 사업도 탄력적으로 실시되었다. 표 1에서 본 것처럼 연구자에 의해 고구려 고분 내부가 처음으로 조사된 것도 이 해이다. 고적 조사 단원은 세키노와 야쓰이 그리고 구리야마이다. 1910년의 대표적인 조사로는 평양 대동강변에서의 낙랑 고분(東墳, 西墳), 임원면의 고구려의 고분인 사동 고분(寺洞古墳), 경상남도 고령군의 주산 고분, 진주에서 실시된 수정봉 · 옥봉 고분 조사를 들 수 있다.

한편 세키노 조사단과는 별도로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의 하기노와 이마니시가 임원면 도원동에서 고분군을 조사하였고, 강동(江東)에서 황제릉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왕묘(황제릉)가 추위로 땅이 얼어붙어 굴착이 어렵자, 평양으로 돌아가 낙랑 고분인 대동강변 을(乙)분 조사에 전념하였다.

2. 사동 고분의 조사

1) 조사의 경과

1910년 당시 세키노 조사단은 대동강변에서 낙랑 고분 2기를 굴착 조사하고, 임원면(林原面)에서는 고구려 고분, 일명 사동 고분(寺洞古墳)을 조사하였다. 이때가 10월 6일로, 야쓰이(谷井)는 분명히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나, 세키노(關野)와 구리야마가 이 발굴에 참

5 이하 개별 유적의 조사 경과에 대해서도 高橋와 內田의 연구 성과를 참조한 부분이 많음을 밝혀 둔다.

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高橋 2001; 內田 2001).[5]

조사 당시의 사진을 관찰하면 굴착에 동원된 조선인 인부들 사이로 양복을 입은 3인의 일본인이 확인되는데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圖 4). 도쿄대학이 보관하는 세키노 컬렉션에도 사동 고분과 관련된 세키노의 개인 야장이 확인되지 않아 세키노는 이 발굴에 참가하지 않고 그의 조수들만이 현지에서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동 고분은 대성산성의 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이 평탄해지는 지점에 위치하며, 조사 전에는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인 인부들을 동원해 고분 정상부 굴착을 시도하였으며, 천장석을 노출시킨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천장석을 걷어내고 석실 내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圖 6). 당시 봉토 조사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장 주체부를 확인하고 출토 유물을 획득하는 이상의 조사 목적은 인지되지 않는다.

사진으로 보아 조사에 동원된 인부는 10여 명으로 모두 흰 두건을 쓰고 있다. 주위에서 구경하는 조선아이들과 어른들은 두건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작업에 고용된 사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두건을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6]

2) 고분의 구조

고분은 연도가 남쪽 중앙에 달린 단실묘이다. 장방형의 평면형에 바닥면보다 한 단 높게 설치된 시상이 좌우 쌍으로 설치되어 있다(圖 9). 천장의 형태는 전형적인 고구려 석실분과 마찬가지로 고임천장이다. 우선 평행으로 3단을 내어쌓기 하고, 그 위의 모서리를 2단에 걸쳐 삼각고임한 다음 천장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다(圖 8). 고분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남아있지 않지만, 도면에서 천장 고임석의 모서리 이음선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圖 8), 사동 고분은 석실을 돌로 쌓아 올린 후 석회를 두껍게 발라 벽면을 마무리했음을 알 수 있다. 천장석은 석실 내부에서 보아 정연하지만 뒷면을 어떻게 조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석실의 규모는 바닥의 길이가 294cm이고 폭이 225cm 정도이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162cm이다. 연문의 문턱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맛돌은 연도보다 낮게 설치되었다.

3) 출토 유물

출토 유물은 쇠못 2점이 전부이며, 현실에서 출토되었다(圖 5). 머리가 원형이며 몸통이 단면 사각형인 이 철못은 현재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고적도보』Ⅱ에 실려있는 사진 설명에는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소장이라고 적혀 있다. 즉 당시 세키노의 소속인 도쿄제국대학 건축학연구실로 가져갔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도쿄대학에서 다방면으로 조사하였으나 유물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6 세키노가 주도한 다른 고적 조사에 동원된 조선인 인부들도 대개 머리에 흰 수건이나 두건을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圖2 _ 사동 고분군 원경 1



圖3 _ 사동 고분군 원경 2



圖4 _ 조사 중인 사동 고분



圖5 _ 출토 유물



圖6 _ 드러난 천장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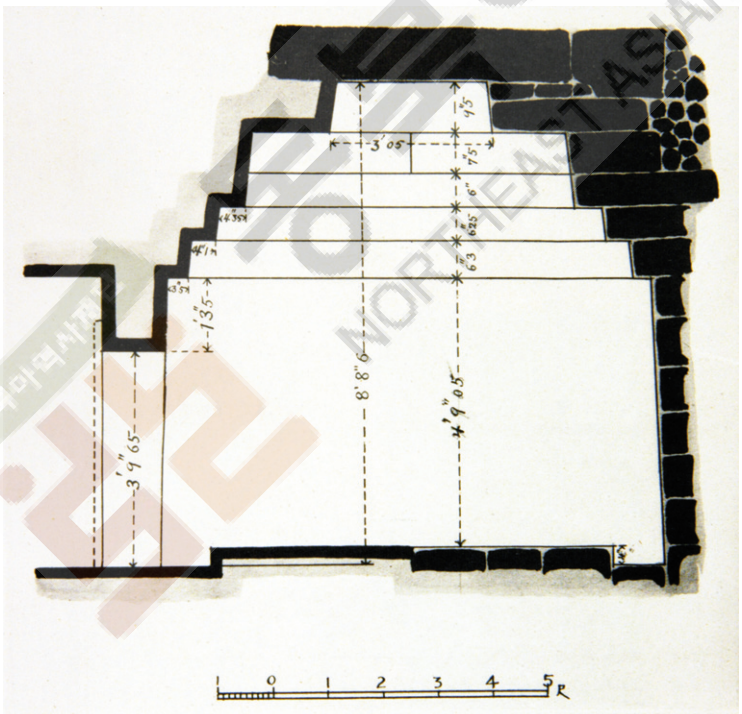


圖7 _ 석실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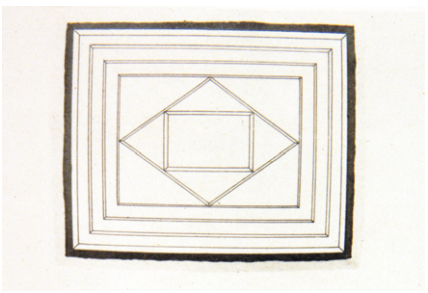


圖8 _ 석실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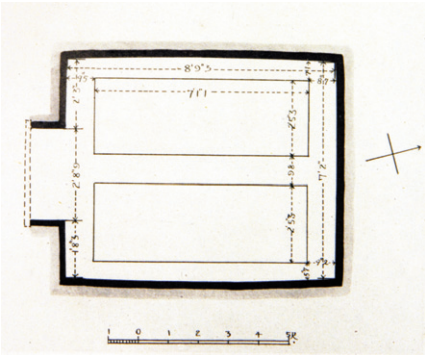


圖9 _ 석실 바닥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사동 고분의 사진과 도면

1911년도의 조사

1. 1911년도 '고적 조사'의 개요

'세키노 조사단'에 의한 1911년의 고적 조사는 9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에 참가한 사람은 세키노, 야쓰이, 구리야마[7]이고, 조선총독부의 기사인 기쿄 토모타카(木子智隆)와 조선인 하급관리인 李아무개가 수행하였다(高橋 2001). 경기도 일원에서 시작하여 개성, 평양, 용강, 강서, 강동 황해도 봉산을 조사한 다음 경상도로 내려와 대구, 경주, 울산, 양산 등지를 조사하였는데, 도중 조사단을 2개로 나누어 조사의 효율을 꾀하기도 하였다.

특히 평안남도 강서에서는 여러 곳의 고구려 고분을 답사하였다. 9월 29일에 황룡산성을 견학하고 그 주변 황산록의 고분군을 관찰하였다. 고구려 유적 조사에는 당시 평양일보사의 사주인 시라카와 쇼지(白川正治)도 동행하였다. 9월 30일에는 주변의 황산 고분군을 관찰하고 그 내부를 약측했음이 세키노 야장을 통해 확인된다. 10월 4일 강동에 도착하여 5일부터 10일까지 한왕묘 발굴을 시도하였지만, 10일 절개한 고분 봉토가 붕괴되면서 조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다 10월 16일에 조사를 재개하여 18일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2. 황산·용강 고분군

1) 조사 경과와 내용

원래 세키노 조사단은 용강에 갈 계획이 없었다. 강동의 한왕묘로 가려고 하였으나, 비로 인해 도로사정이 나빠져 진남포로 가 주변의 유적을 답사하였다. 29일 기차로 진남포에 도착하여 도기(陶器) 공장을 견학한 후 용강(龍岡)의 숙사(宿舍)에서 용강 군수 전덕용(田德龍)과 서기(書記)로부터 용강 서쪽에 있는 황산 주변에 고분이 산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곳을 답사하였다. 이 황산 고분군에 대한 조사 내용은 『조선고적도보』Ⅱ에 약간의 사진이 게재되었을 뿐(圖 10~16),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보고는 존재하지 않

7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건축학연구실 출신으로 세키노의 제자이다.

는다. 세키노의 고구려에 관한 강연과 논문에서도 황산 고분의 조사 내용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세키노 컬렉션에 있는 야장에 조사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조선고적도보』Ⅱ의 사진과 야장을 통해 황산 남록에 넓게 산재하는 고분군의 전경을 알 수 있고, 일부 석재가 노출된 고분군 사이에서 헌병을 대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조사원들의 모습에서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용강군 해운면에 위치한 황산 남록에서 확인된 고분들은 대개 소형이며 다곽묘이다.[8] 황룡산 서남록의 고분군을 조사하고 용강읍 부근에서 촬영한 고구려 고분 사진도 있는데, 천장돌이 약하거나 파괴된 고분을 골라서 내부로 들어가 도면을 작성한 것이다. 9월 30일에 작성된 야장에는 '용강 고분(龍岡古墳)'이라고 적은 고분 약측도가 있는데, 이는 용강의 고구려 고분 중 천장석 일부가 노출된 고분의 상부를 봉토 바깥에서 그린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삼각고임천장의 아래로 3단의 평행고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석실 내부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면 석재 가공에 공을 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圖 22). 야장의 뒷면에는 "용강에서 북방으로 약 7~8점 떨어진 황룡산성과 높은 구릉 사이에 다수의 고분이 존재한다. 이들 고분은 상부가 파괴되어 개석의 아래가 보이기도 하는데 내부는 토석으로 충전되어 있다. 그 구조는 거의 대성산성 아래에 있는 고분과 내부 구조와 석재면에서 비교된다"라고 적혀 있다.

9월 30일 작성된 야장에는 석실의 평면 플랜과 석벽, 천장 구조가 확인되는 고분이 있는데 '용강 고분'이라 적혀 있다. 이 고분은 연도가 중앙에 달린 단실묘로 벽은 상하가 곧게 축조되었으며 최소 3단의 고임석으로 평면을 줄인 것이 확인되나 천장 마무리 돌은 야장에 그려지지 않다(圖 23). 벽돌처럼 가공된 석재를 이용하여 석실을 축조하였다. 석실 벽면이 석회로 마감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약측도의 뒷면에는 연도가 남쪽 중앙으로 뻗었고 석곽의 바깥은 흙으로 봉토를 만들었다는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갈겨 쓴 글씨라 정확히 읽을 수 없다.

황산 고분군은 평안남도 해운면과 용월면에 걸쳐서 자리한 황산의 남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고구려 고분군임에 틀림없으나, 정식 보고가 없고 현장에서 작성된 야장을 통해서도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황산 일대에서 소형의 다곽식 고구려 고분이 이미 1911년에 조사되었다는 점, 중앙 연도를 가진 단실구조의 고구려 고분이 혼재한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8 1930년도에 출판된 『高句麗時代之遺蹟』에 황산 주변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발굴 사진과 도면이 실렸는데 이는 1910년의 조사와는 관계 없다. 1916년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실린 황산 고분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면 대부분이 소형이고 다곽식이다.



圖 10 _ 황산 고분군 전경



圖 11 _ 노출된 고구려 고분



圖 12 _ 노출된 고구려 고분



圖 13 _ 휴식 중인 조사원



圖 14 _ 노출된 고구려 고분



圖 15 _ 용강 고분 원경



圖 16 _ 노출된 용강 고분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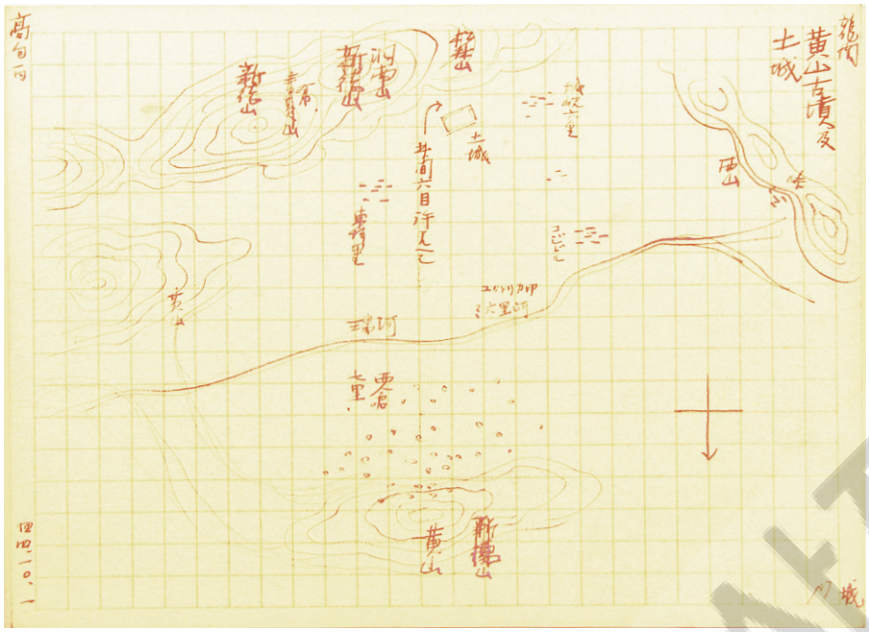


圖17 _ 황산 고분과 토성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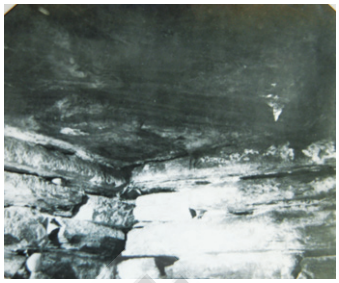


圖18 _ 용강 고분 석실 내부



圖19 _ 용강 고분 석실 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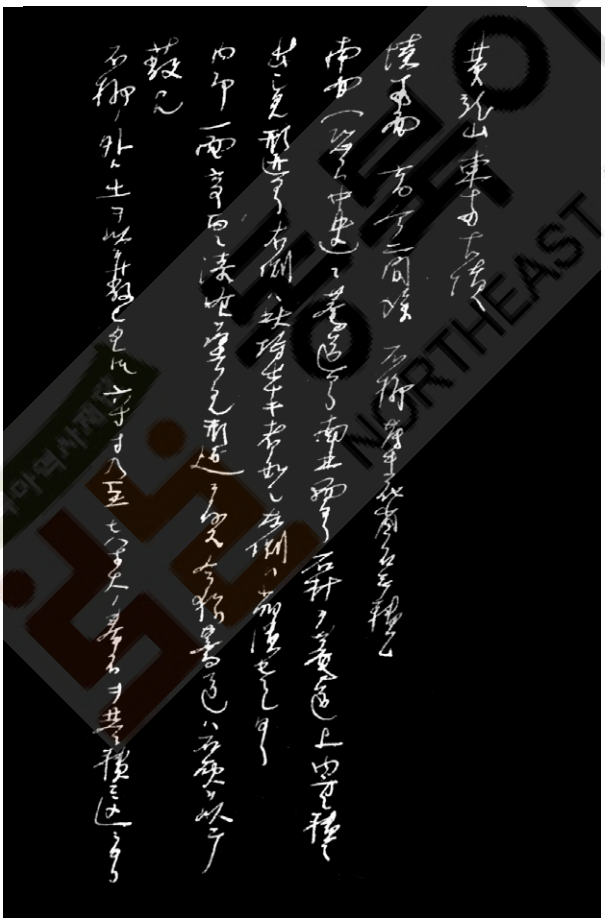


圖20 _ 황산 고분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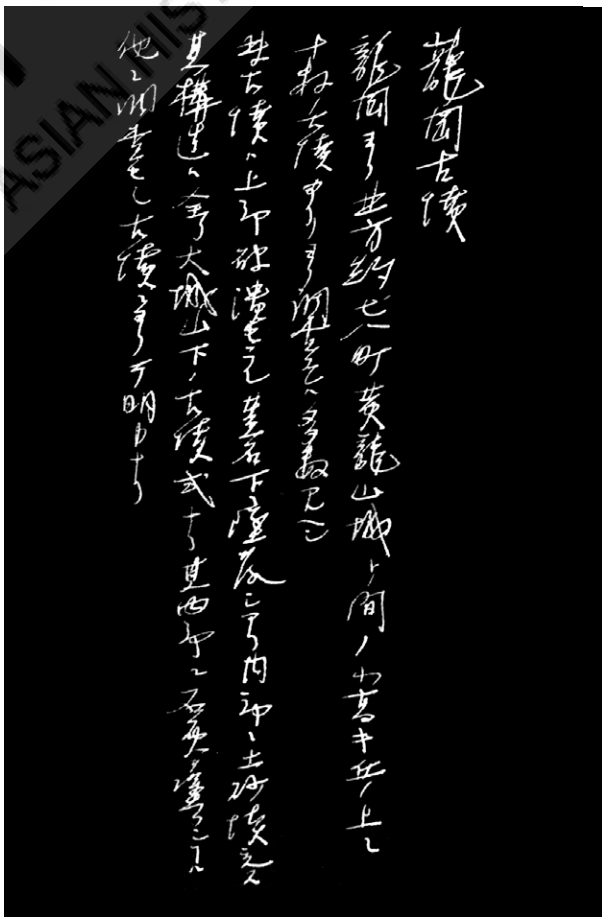


圖21 _ 용강 고분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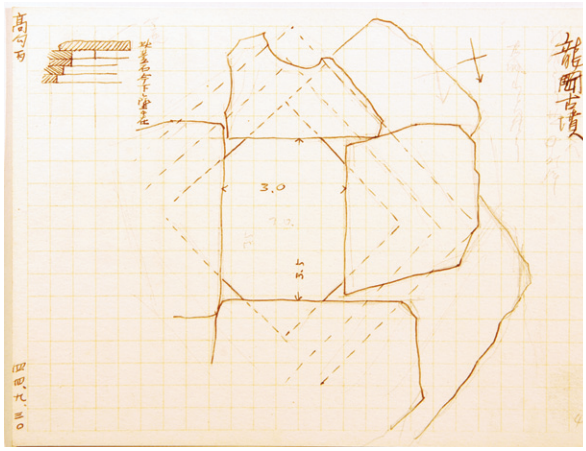


圖22 _ 용강 고분 천장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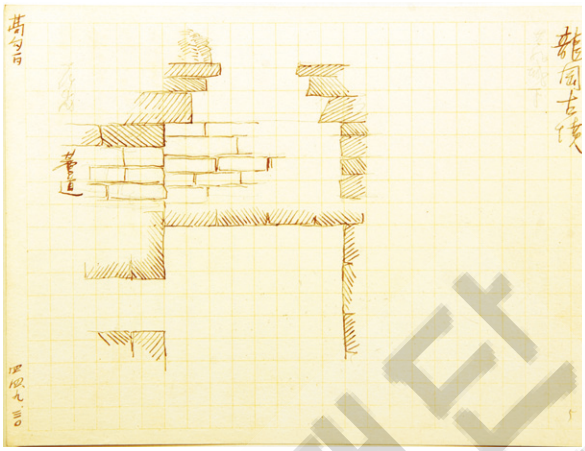


圖23 _ 용강 고분 석실 내부

3. 한왕묘의 조사

1) 조사 경과

1911년 이루어진 고구려 유적 조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왕묘(漢王墓)의 발굴이다. 일명 황제묘, 혹은 한평동 고분이라고도 불리던 고분으로 당시 강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를 경신리 1호라고 부른다.[9]

한왕묘는 이미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09년 도쿄제국대학 사학과의 하기노와 이마니시가 굴착 조사를 시도하다 실패한 고분이다. 1909년 형식적으로 한국정부의 촉탁을 받아 평양에서 고적을 조사 중이던 세키노에게 고분의 존재를 알려 준 것은 평양일보 사장인 시라타와 쇼지(白川正治)였다. 그렇지만 당시 세키노는 다른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

세키노가 한왕묘의 조사를 시도한 것은 1911년 10월 5일로, 현지 관헌의 도움을 받았다.[10] 매장 주체부인 현실을 확인한 것은 18일인데, 이처럼 봉토 굴착에 시간이 걸린 것은 봉토 절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10일 수직으로 굴착하던 봉토가 붕괴되면서 작업에 동원된 조선인 인부 1명이 매몰되고 2명이 허리까지 묻히고 말았다. 이에 인

9 김형직이 만든 경신중학교가 근처에 있어 행정 구역을 경신리로 바꾸고, 고분도 경신리 1호라고 하였다.

10 '세키노 컬렉션'의 관련 야장에는 그가 조사 한달 전인 1911년 9월 5일에 일명 『吳州誌』라고 불리는 『강동군지』에서 한왕묘에 관한 기사를 발췌해서 정리해 둔 카드가 있다. 치밀하게 조사 준비를 했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부들은 고분을 파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모두 돌아가 버렸다.[11] 결국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주변의 다른 유적을 답사한 후 평양으로 돌아갔다. 16일 평양에서 조선인 인부 10여 명을 확보하여 그들을 데리고 강동의 조사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결국 18일 현실 내부로 들어가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19일) 아침에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

2) 조사 방법

한왕묘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으나, 『조선고적도보』Ⅱ의 사진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봉토 상부를 굴착하여 평탄면을 만드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봉토 사면에 버렸다(圖 27). 봉토 상부에 평탄면을 확보한 다음에는 매장 주체부를 확인하기 위해 봉토의 중앙을 수직에 가깝게 파내려 갔는데, 인부가 매몰된 것은 절개면이 수직이면서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圖 32).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음은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한왕묘의 조사에서도 사동 고분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작업 인부들에게 흰 두건을 씌워 임금 지급을 포함한 현장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圖 32).

현실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 야쓰이는 연도를 통해서라고 했지만, 사진으로 볼 때 현실의 천장을 통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장에서 세키노가 작성한 도면의 연도에 토사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도 증명된다(圖 25, 39). 석실에서 연도 쪽을 보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 역시 연도를 통해 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圖 43). 즉 연도의 석비(石扉) 상단 모서리가 깨져 빛이 들어오는 사진으로, 이를 참고하면 세키노는 봉토를 수직으로 굴착해서 찾은 현실로 먼저 들어간 다음, 연도를 확인하고 토사 일부를 제거한 후 석실의 내부 구조를 관찰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왕묘 조사에서는 아직 고구려 봉토분의 연도가 남쪽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 내용

한왕묘는 강동읍에서 서남으로 약 1.56km 정도 떨어진 대동강변에 위치한다. 동북쪽으로 진행하던 대동강이 크게 꺾이고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폭이 좁은 산등성이에 위치한 향산(向山)의 남사면을 야트막한 구릉이 감싸는 곳에 형성되었다. 향산 자락에는 18기 정도의 고구려 고분이 분포하는데 고분군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한왕묘는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사진으로 미루어 보건데 조사 당시 한왕묘의 주변은 넓게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圖 26, 27).

11 야장에 기입된 날짜로 보아 인부가 작업을 거부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 세키노는 한왕묘 주변의 지형도를 그리고 향산 자락에 분포하는 고분을 조사하였다.

고분은 2단 기단 위에 봉토를 쌓아 올린 기단식 봉토분이다(圖 28). 기단은 평면에서 볼 때 사각형으로, 전면과 서쪽면은 높이 30cm 정도의 돌을 나열하여 쌓았고, 동쪽 면은 지세가 약간 높기 때문에 1단으로 하고, 북쪽 면은 봉토가 형성되는 기반토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기단을 만들지 않았다. 기단이 있는 봉토의 크기는 직경이 약 54m, 높이가 약 12m 정도이며, 묘(墓)의 남방에는 직사각형으로 긴 돌을 나열해서 공간을 만들었다(圖 24).

봉토를 굴착하면서 표토 아래 30cm 지점에서 암키와, 수키와, 막새기와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세키노는 이를 빗물이 고분의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하였다. 현실은 방형인데 동서가 345cm, 남북이 337cm이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3.47m이다. 네 벽은 돌로 쌓고 그 위에 회를 발라 마무리 하였는데, 평행고임을 2번 하고 다시 삼각고임을 2번 한 다음 그 위로 면이 깔끔하게 조정된 마감돌을 올려놓았다. 네 벽과 고임돌의 표면에는 석회를 깨끗하게 발랐지만 벽화는 확인되지 않았다(圖 29, 30). 세키노는 원래 벽화가 있었던 것이 벗겨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도는 남쪽에 달았는데 폭이 151cm, 길이가 5.38cm 정도이며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구조이다. 야장에 그려진 도면으로 보건데 연도는 3군데에서 폐쇄하였다. 현실에 면한 연문에 문턱과 이마를 만들고 장부 구멍이 설치된 돌문을 달았으며, 연도가 길게 시작되는 곳에는 2장의 판석을 세워 폐쇄하였는데 그 바깥 쪽에는 토사가 가득 차 있었다. 연도의 바깥은 큰 판석을 기대 세우고 그 바깥에 돌을 쌓아 막음하였다. 세키노 일행이 현실로 들어갔을 때 이미 연도의 돌문들이 파괴되어 있었다. 연도의 벽과 천장에도 석회가 깨끗하게 발라져 있었다(圖 25, 39, 40).

현실 내에는 2개의 두꺼운 시상대가 있는데 좌우로 나란히 배열하였다. 시상에는 면을 깨끗이 가공한 다리가 붙어있다(圖 40). 세키노가 현실에 들어갔을 때는 돌 시상 위에 목관 파편이 동서방향으로 겹쳐 있었다고 한다. 목관의 내부에는 붉은 칠과 검은 칠을 한 흔적이 있다.

연도에 달린 문짝과 축은 한 몸으로 된 돌을 가공하여 만들었고 손잡이를 고정하던 둥근 구멍이 각각 5개씩 나 있다. 세키노의 야장에는 천장 막음석의 상면에 일정한 두께의 자갈층이 확인되는데 이는 석회에다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처럼 만들어 쓰운 것이라고 한다(關野 1914). 벽 천장 등도 석회로 충전하였기 때문에 무척 견고하였다.

4) 출토 유물

현실에서 부장품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키노는 이미 한왕묘가 도굴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봉토 30cm 지점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토의 90cm 깊이에서는 완형 토기 1점도 출토되었다(圖 34). 세키노는 봉토에서 출토된 토기가 형태나 소성면에서 신라나 가야의 것과 다르고 오히려 낙랑 토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關野 1914). 이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아도 예리한 판단인데 이미 석암리

등지에서 실시했던 발굴 조사를 통해 낙랑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판단이었다. 봉토에서 출토된 토기는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봉토의 표면 아래 30cm 깊이에서 출토된 기와류는 『조선고적도보』Ⅱ에 공개되었는데, 막새기와 3점, 암키와 1점, 수키와 1점이다(圖 34). 조사 후에는 도쿄제국대학의 세키노 소속 공학부로 반출하였다. 그런데 도쿄대학 공학부 건축학연구실을 조사한 결과 당시 한왕묘에서 출토된 기와 중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된 기와가 보고에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암키와는 1점이 아니라 12점이었으며, 수키와는 2점이었다(圖 44~54). 다만 막새는 원래 건축학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 중 1점이 문학부 고고학연구실로 옮겨졌고 나머지 2점은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때 문학부에 소장되었던 고고 자료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공학부에 보관된 자료 대부분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도쿄대학의 어딘가에 이 막새기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한왕묘에서 출토된 수막새기와는 막새면의 문양이 집안의 왕묘에서 출토된 막새와 유사하며, 평양 토성리 출토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식이다. 이들 와당은 문양 구성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문양 구성인 막새 2점과 와당면 제작에 사용된 거푸집은 서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 모두가 동일한 거푸집으로 제작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키와는 내면에 포흔이 뚜렷하지만 모골의 흔적은 없다. 외면에는 성형(成形) 과정에 이루어진 타날에 의한 노끈 흔적이 뚜렷하다. 즉 노끈을 감은 타날구로 두드려서 1차 성형하였음이 분명한데 그 외면을 목판 조정하여 타날흔을 지우면서 마무리하였다.

암키와는 내면에 모골과 포흔, 점토띠 접합흔이 뚜렷한 것이 많다. 외면에는 단판이나 중판 정도의 타날구에 노끈을 감아 두드린 것이 확인되고 1차적으로 성형이 마무리된 후에는 굵은 조선(條線)을 횡으로 돌려가며 남겼다. 기와의 네 모서리를 잘라서 조정하고 상 · 하단도 깎아 조정하였다. 이러한 제작 공정은 서로 유사하지만 성형에 사용된 타날구는 서로 다른 것이 대부분이다. 색조 역시 동일하지 않아서 서로 다른 소성 환경에서 구워졌음을 알 수 있다. 표면에 고운 모래가 뿌려진 것이 있는 반면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것도 있어 이러한 기와들이 한왕묘의 축조를 위해 일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수키와를 포함하여 한왕묘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요면(凹面)과 이음 부위에 석회가 묻어 있는데, 이 역시 출토 기와들이 실제로는 건축 부재로 사용되었던 것이었으나 전용된 결과임을 말해 준다.

끝으로 한왕묘에서 출토된 목관 파편도 현재 도쿄대학 총합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5) 조사자 의견

조사 후 세키노는 무덤의 규모가 큰 점, 그 구조와 형식이 평양지역 고구려 무덤 중에서는 가장 완비된 점을 들어 국내성 부근의 분묘 형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와당의 문양은 세키노가 광개토왕의 무덤이라고 판단한 집안현 장군총에서 출토된 것과 형식은 같지만 시기가 약간 늦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오주지(吳州誌)』 즉 『강동읍지(江東邑誌)』의 한왕묘 기사를 통해 고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皇帝墓 …… 漢王墓, 혹은 황제묘라고 부르는 그 곳. 지금은 마산면 한평동이라고 하지만 舊 전포리 漢岱洞이라고도 부르는데 『오주지』의 설에는 그 고분을 동천왕의 묘라고 추정하였다. 조선 역사에서는 동천왕이 魏의 관구검 때문에 그 도성 환도성이 함락되어 평양으로 일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평양에는 낙랑군이 융성하고 있었기에 동천왕은 평양까지 오지 않고 환도로 돌아 갔다. 그 무덤은 아마도 환도 부근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왕묘를 동천왕이라 비정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 연대는 아마 1500년 전(1911년 기준)에 가까워야 하는데 장수왕 전후의 왕묘로 비정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통해 한왕묘를 장수왕의 무덤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한왕묘의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조선고적도보』Ⅱ에는 도면과 도판만을 실어 보고하였다. 이후 추가된 『조선고적도보 해설(朝鮮古蹟圖譜解說)』에 그 설명이 소략하게 소개되었는데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평안남도 강동군 마산면 한평동 강동을 서서북으로 멀어지기 약 4리. 대동강 우안의 소구릉지에 (고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황제묘라고 불린다. 방형 2층의 기단 위에 쌓은 것인데 커다란 圓墳이며 남으로 면한다. 직경이 약 23間이고 높이는 약 6間이다. 묘의 남쪽으로는 돌로 열을 세우고 전후로 긴 사각형의 前庭을 만들어 두었다.
>
> 봉토의 표면에서 깊이 1척(30.03cm) 정도 되는 지점에는 1면에 평와와 환와(수키와), 와당 등의 파편을 가지런히 깔아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았다.
>
> 玄室은 方形으로 사벽의 평행고임 2단, 삼각고임 3단으로 가공한 돌을 걸쳐서 줄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위에 돌 하나를 덮어 절묘하게 천장을 짰다. 그 형식은 통구 지방의 토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의 남면에 연도와 통하는 입구를 만들어 두었다.
>
> 연도를 길게 하여 안 · 가운데 · 바깥의 세 군데에 돌문, 혹은 돌을 세워서 폐쇄시켰다. 현실과 연도의 벽 천정에는 두껍게 석회를 발랐다. 玄室 내에는 좌우 각 2개의 석재 관대를 나열시켜 두고 그 위에 원래 동서로 길게 목관을 두었는데 지금은 거의 흔적만 남았다.
>
> 목관의 내부에는 주칠을 하고 외부에는 흑칠을 한 흔적이 있다. 이 고분은 일찍이 도굴된 것이기 때문에 부장품이 남아 있지 않는데 극히 일부 봉토에서 도제 광구의 소호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강동군의 읍지인 『吳州誌』에는 그 고분을 東川王의 무덤이라고 하였지만 맞지 않다. 묘 위에서 출토된 기와의 수법은 집안의 장군총에서 출토된 것과 가깝기에 아마도 장수왕 혹은 그것에서 멀지 않은 시대의 능묘로 볼 수 있다.

6) 기타

세키노가 현장에서 작성한 야장에 그려진 고분의 약측도를 보면, 『조선고적도보』Ⅱ에 실린 도면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조선고적도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한왕묘의 각종 도면은 세키노가 현장에서 작성한 것을 약간 손질하여 그대로 사용했음이 분명하다. 세키노의 야장 작성 방법은 우선 현장에서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두고 이를 숙소에서 만년필 등으로 정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키노의 야장에 그려진 각종 도면에는 미처 지워지지 않은 연필 밑그림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야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채색을 하기도 하였다(도 38, 39 참조).

4. 한왕묘 부근 노출 석곽분

세키노의 야장을 참조하면 한왕묘 부근에는 18기 정도의 고분이 더 분포하고 있다. 『조선고적도보』Ⅱ에는 노출된 석곽 사진 1장 만이 실려있는데, 그 내부를 약측한 도면이 '세키노 컬렉션'에 야장의 형태로 남아 있다. 야장에는 내부에 흙이 차 있지만 천장부의 삼각고임을 단면으로 표현하고 그 바깥쪽에 돌들을 그렸다(도 42). 이를 보면 석실 내부에서 보아 정연하게 가공된 석재일지라도 석실 내부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왕묘는 대동강변의 원래 자리에 단독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따로 보존 시설 등을 설치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을 관찰해 보아도 세키노가 보고한 한왕묘 주변에서 분구가 관찰되는 고구려 고분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모두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도 5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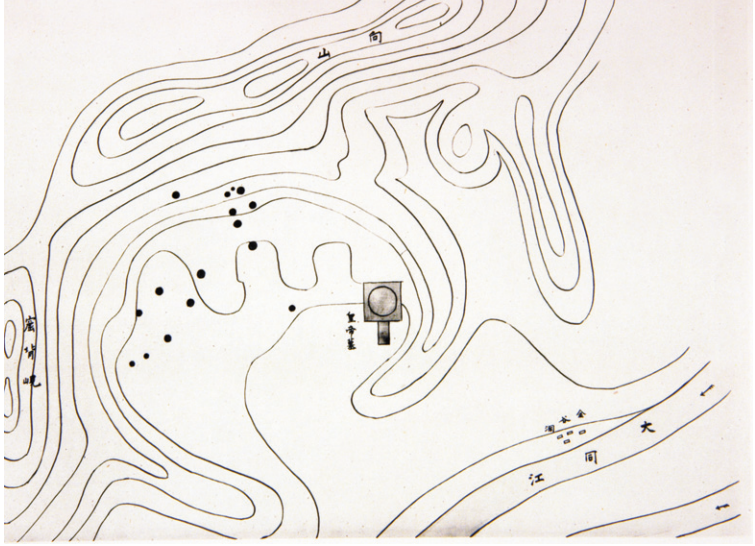


圖 24 _ 석실 내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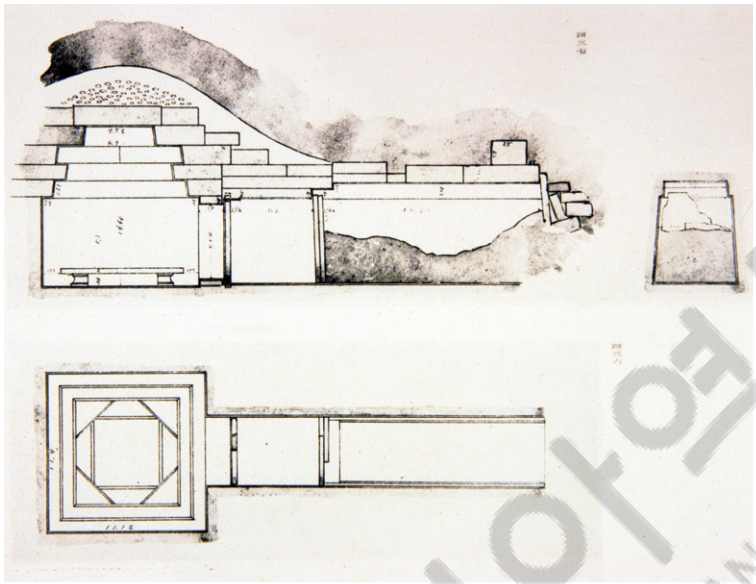


圖 25 _ 한왕묘와 주변 고분 분포도



圖 26 _ 발굴 전 모습



圖 27 _ 봉토 굴착 작업 중



圖 28 _ 한왕묘 앞 조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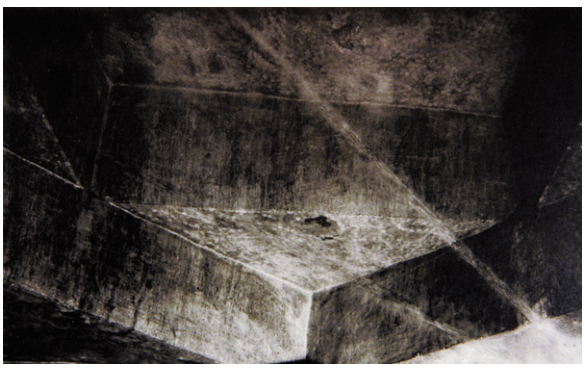


圖 29 _ 석실 천장 상태

동북아역사재단 THE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30 _ 현실에서 바라본 연도부 천장



圖31 _ 조사에 동행한 경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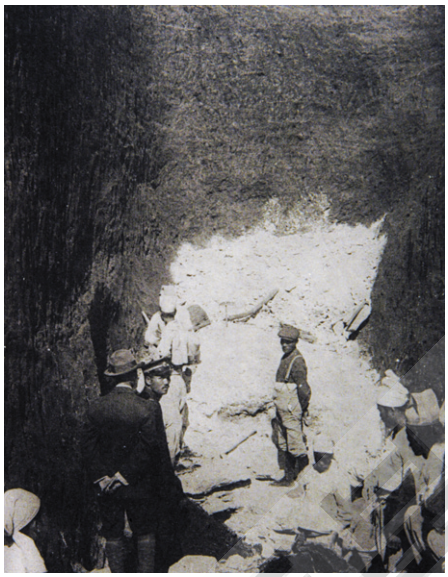


圖32 _ 석실 천장이 드러난 상태



圖33 _ 석실 내부에서 본 연도부







圖34 _ 한왕묘 봉분에서 출토된 유물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한왕묘 사진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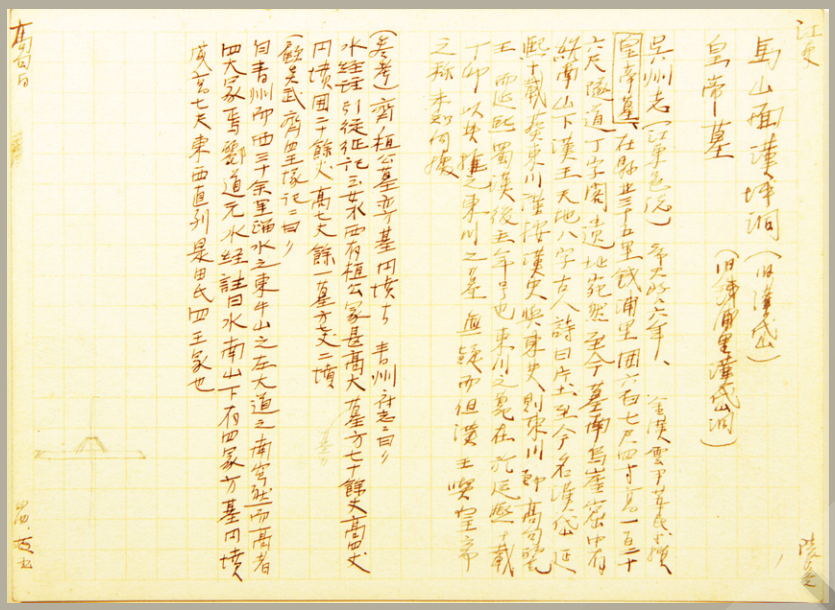


圖35 _ 한왕묘 현장 기록



圖36 _ 한왕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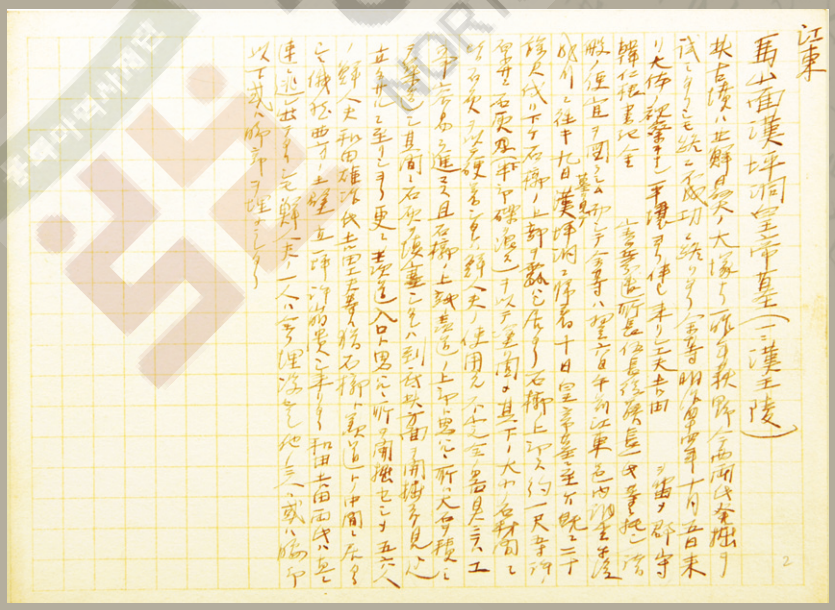


圖37 _ 한왕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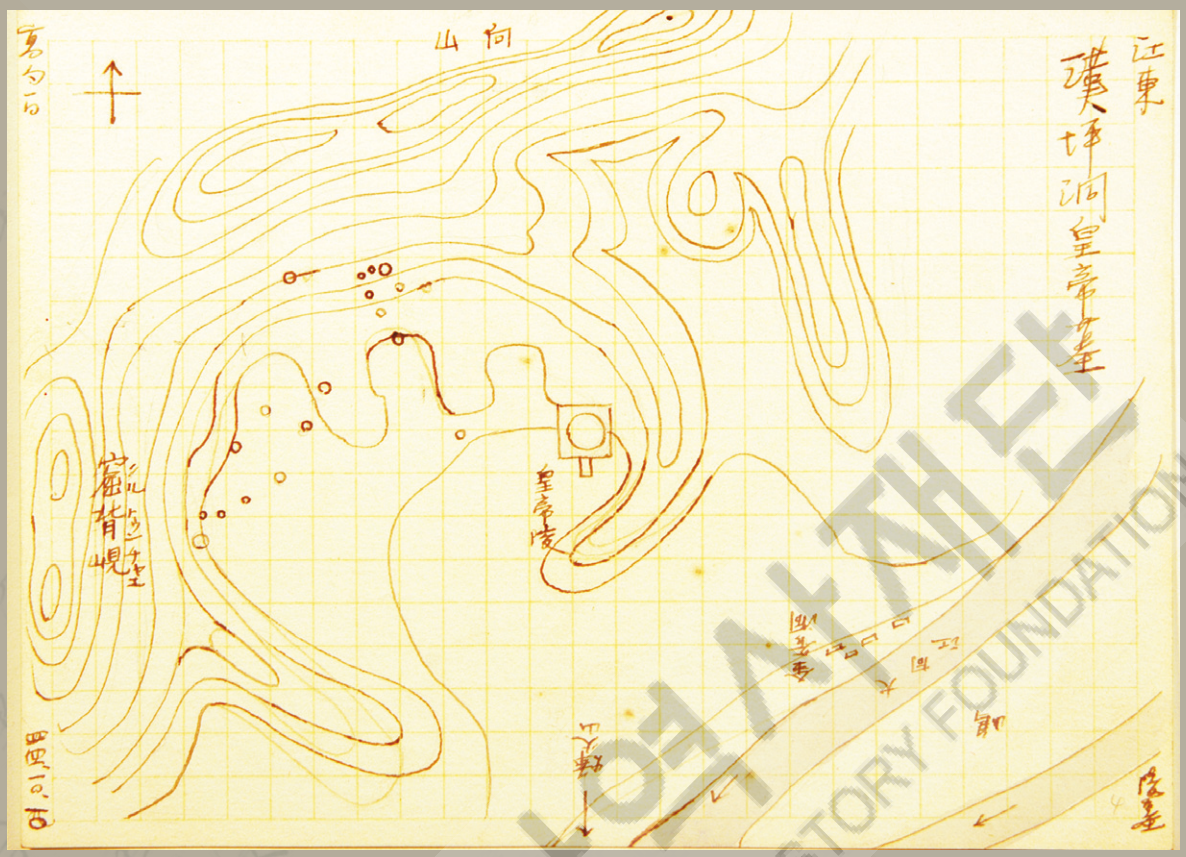


圖 38 _ 한왕묘 주변 고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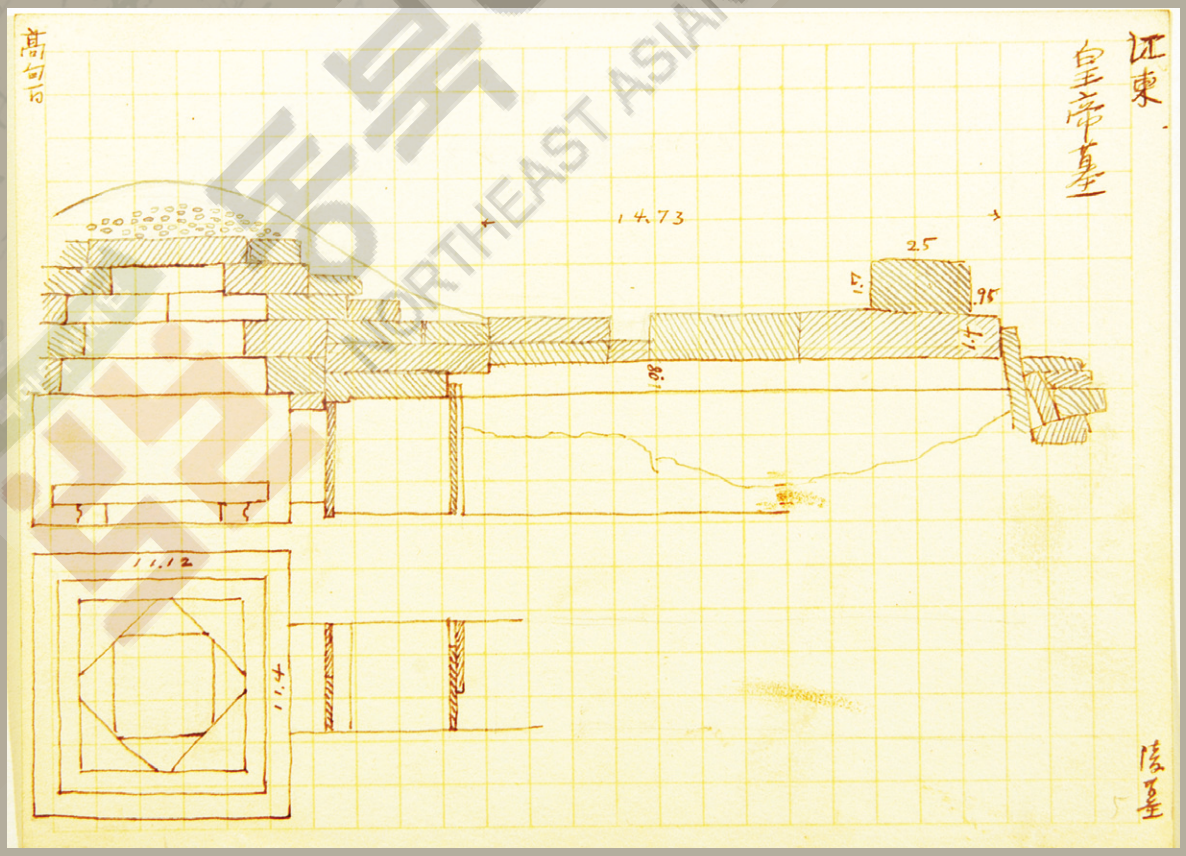


圖 39 _ 한왕묘 내부 구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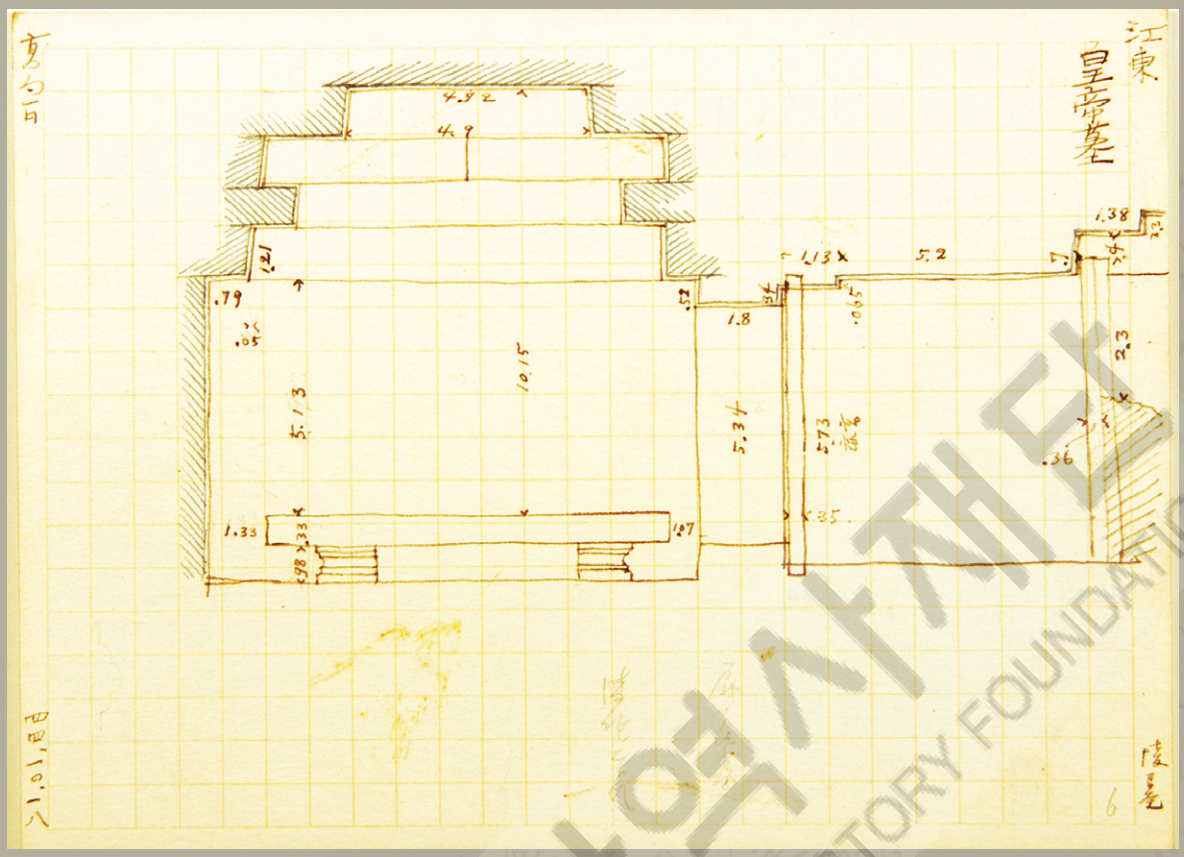


圖 40 _ 한왕묘 석실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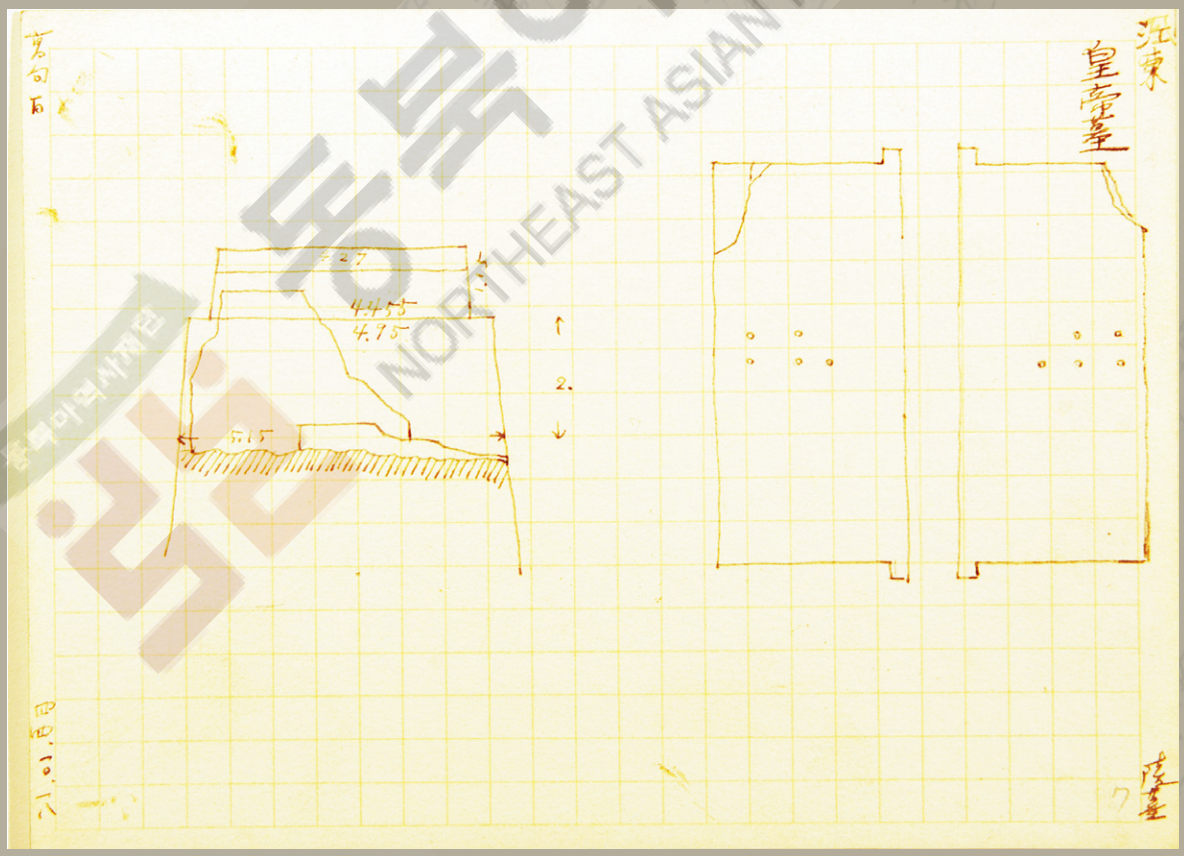


圖 41 _ 한왕묘 석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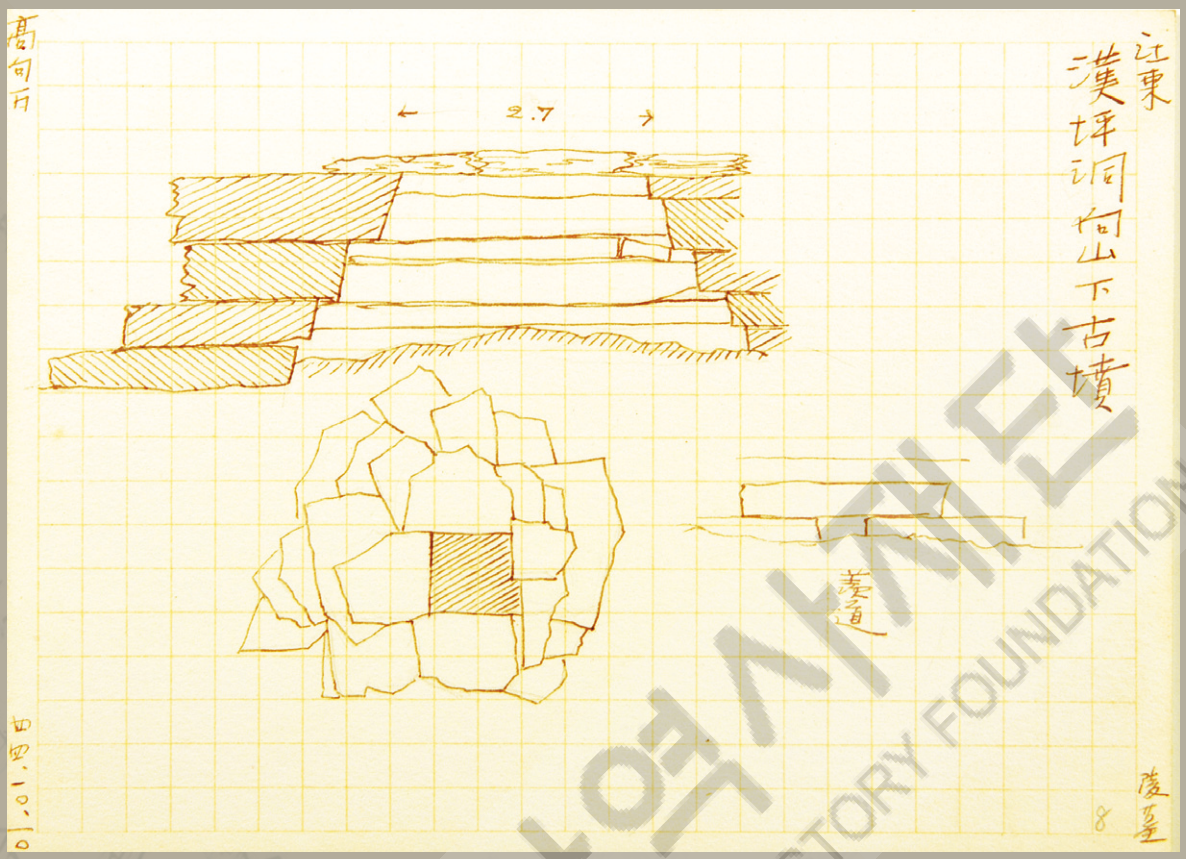


圖 42 _ 한왕묘 주변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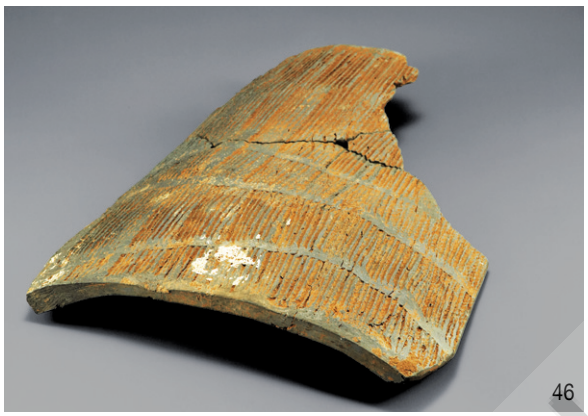
圖 43 _ 한왕묘 연도 폐쇄 상태(석실 내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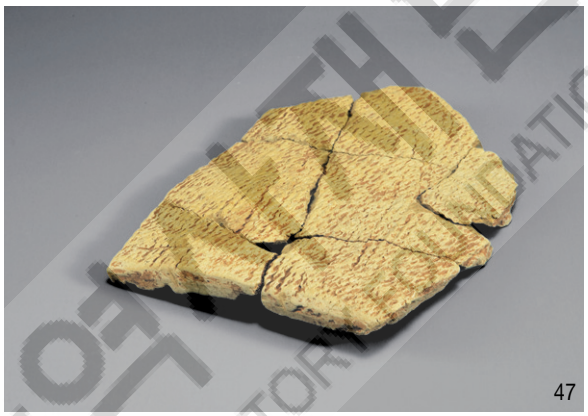
세키노의 한왕묘 조사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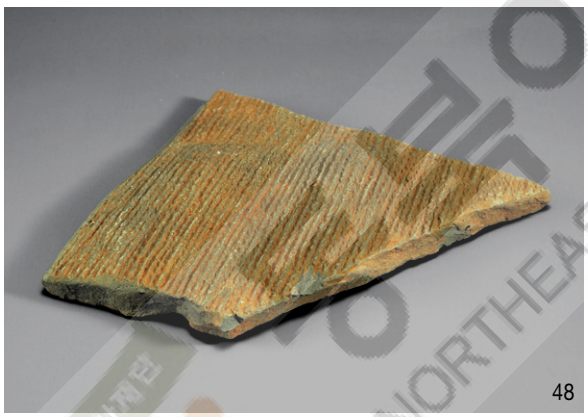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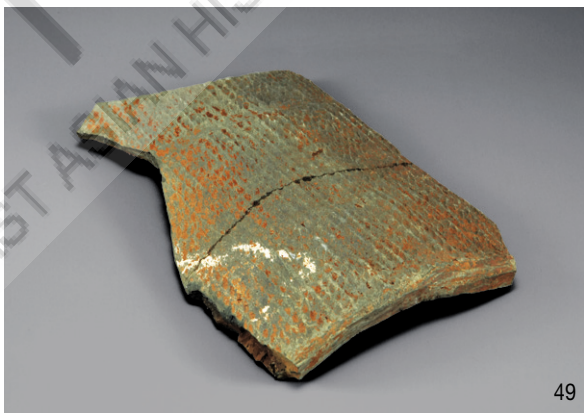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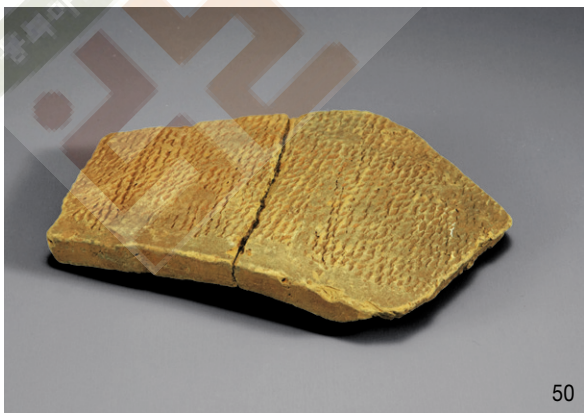

45


46


47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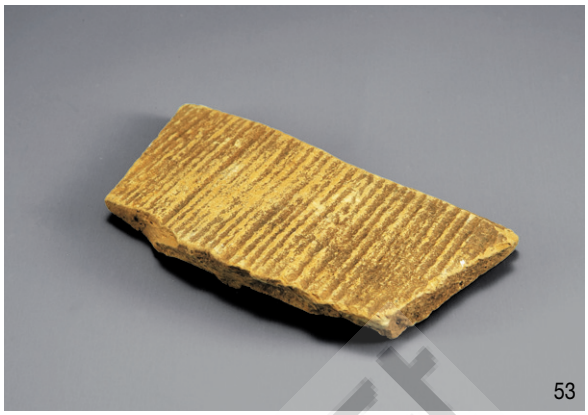

49


50


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2


53


54

圖 44~54 _ 한왕묘 봉토에서 출토된 각종 기와

도쿄대학 소장 한왕묘 유물


56

圖 55~57 _ 현재의 한왕묘(google earth)


55


5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12년도의 조사

1. 1912년도 '고적 조사'의 개요

1912년도에는 1911년과 같은 조사단으로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강서 삼묘를 조사하고 대방태수 장무이묘, 강서군 보림면 간성리 연화총을 조사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매산리 사신총이 처음 내부가 조사된 것도 이 해이다. 벽화고분의 조사에는 모사를 위해 도쿄예술대학의 오타 후쿠조와 오바 쓰네키치가 이왕가박물관의 촉탁이라는 신분으로 참가하였다. 이들이 이러한 신분으로 조사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도쿄미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알게 된 세키노 다다스의 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1912년에 이루어진 매산리 고분의 조사는 세키노가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받은 조선총독부 영선과 기수(技手)인 이와이 초사부로(岩井長三朗)와 강서 삼묘의 벽화모사를 작성하던 오타가 대신하였다.

2. 강서 삼묘의 조사

강서 삼묘의 조사 결과 역시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조선고적도보』Ⅱ에 약간의 사진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강서 삼묘의 발굴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세키노가 1913년 1월 고고학회 열회(列會)에서 강연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같은해 『미술신보(美術新報)』12-4에 「새로 발견된 고구려시대의 벽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키노의 강연과 보고를 충실히 참고하면서 비록 본문은 없지만 『조선고적도보』Ⅱ의 사진, 그리고 세키노의 야장 자료 등을 비교하면서 강서 삼묘의 조사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 경과

1909년 세키노는 고적 조사를 위해 평양에 체재하였는데, 이때 평양일보 사주인 시라카와로 부터 평양 남쪽 5리(약 2km)에 있는 강서군 우현리(遇賢里)에 3개의 대형 고분이 있고 이를 군수가 굴착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그렇지만 일정상 조사할 수가 없었다. 1911년 한왕묘 조사 과정에서 내린 폭우로 강동에 있는 한왕묘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틈을 타 3일 간 강서 삼묘를 방문하고 군수가 발굴할 당시를 기억하는 인부들을 수배하여 그들로부

터 고분의 내부 구조에 대해 청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토 유물은 없었으나 해골 하나가 현실에 있어 이를 군수가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12] 그리고 대묘와 중묘는 네 벽을 돌로 정교하게 쌓았고, 천장은 정교한데 벽에 회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부들은 현실벽에 칠장생이 그려져 있다고 세키노에게 진술하였는데 더 상세하게 묻는 세키노에게 인부들은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런데 강서에 군인으로 주둔한 적이 있는 도쿄미술학교 일본화과 학생인 오타 후쿠조가 1904년 경에 군수가 강서 고분을 발굴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동료 병사들과 같이 그 고분을 굴착하고 그려온 스케치를 1911년 12월에 세키노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보여준 스케치는 연필로 그린 거친 그림이었지만 세키노는 이것이 고구려 시대의 것임을 알았다. 이것이 결정적인 발굴 동기가 되었으며, 세키노는 이 고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벽화를 모사하려고 마음먹었다. 1912년 9월 16일 일본을 출발하여 경성을 거쳐 9월 22일 강서에 도착하여 9월 23일부터 발굴 조사를 시작하였다.

강서 삼묘는 삼묘리 마을 앞으로 넓게 펼쳐진 평야 한가운데에 조영된 것이다. 그 남쪽의 것이 가장 크고 서북 쪽의 것이 그 다음으로 크고 동북쪽의 것이 가장 작다. 이를 크기에 따라 대묘(大墓), 중묘(中墓), 소묘(小墓)라 한 것인데, 발굴 당시의 야장에는 제1총, 제2총, 제3총으로 적혀있다.

조사에 착수할 당시 세키노는, 강서군수와 오타, 그리고 1906년 일본인 우체국장이 다시 굴착한 것으로 전하는 대묘와 중묘보다는 아직 도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소묘 조사에서 유물 출토를 기대하였다. 발굴은 3기를 동시에 굴착하여 중묘는 2일째, 대묘는 3일째, 소묘는 좀 더 품이 들어 5일째 오후가 되어서야 현실에 도달할 수 있었다. 대묘와 중묘의 경우 이미 여러 번 굴착된 것이라서 작업이 비교적 빨리 진행된 결과이다. 그러나 소묘를 발굴한 결과, 출토 유물은 물론 벽화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실망한 세키노는 이들 고분이 이미 1,000년 전 발해 때에 도굴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 강서 대묘

세키노에 의해서 강서 삼묘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1912년 9월 22일에서 27일 사이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내어 간성리 연화총도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강서 대묘 조사 당시 이와이가 작성한 측량 도면에 의하면 조사는 봉토의 정상에서 남쪽

12 출토된 두개골은 군수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이를 땅에 묻어버렸다고 하는데, 이를 평양교회의 학교 생도가 다시 가져가 세키노가 조사할 당시에는 이것이 학교에 보관되어 있었다.

연도를 따라 길게 굴착하며 진행하였다.[13] 이미 천장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우영과 오타가 굴착할 때 만들어진 구멍일 가능성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세키노의 조사에서는 석실 상면과 연도 앞을 말끔하게 깎아낸 다음 연도를 통해서 출입하며 내부를 조사하고 벽화를 모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분의 크기는 봉토의 직경이 53m이고 높이가 9m 정도이다. 봉토의 거의 중심에 석실을 설치하고 남쪽을 향해 연도를 달아냈다. 현실은 사방 3m 정도이고 천장 높이는 3.48m이다. 구조는 네 벽 모두 정연하게 조정된 큰 돌로 쌓았는데 북쪽 벽은 2개의 돌로, 좌우 벽은 3개의 돌로 벽을 만들었다. 남벽의 중앙에는 연도 입구가 있는데 그 좌우는 각각 1매의 돌로 만들었다. 벽의 높이는 2.15m이다. 벽의 상부는 30cm 정도 안으로 기울었고 천장은 정교하게 기교를 부린 구조이다. 먼저 벽면에서 이중의 평행고임으로 모줄임하고 하단 고임석의 모서리를 경사지게 가공하여 결구한 정교한 구조이다. 세 번째 고임석은 네 모서리에 경사지게 네 장의 돌을 덮어 만들었고 네 번째 고임석은 벽면과 평행하게 쌓고 마지막으로 천장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는데 조사 시에 이미 모서리가 깨진 상태였다(圖 59, 73, 80, 81).

연도의 바깥쪽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는데 현실 입구는 5장의 큰 돌을 겹겹이 쌓아서 막았음이 확인되나 조사 당시에는 4장만 남아 있었다. 원래 연도의 입구와 중간 부분, 연도의 바깥쪽 모두를 폐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시에는 파괴되어 분명히 확인할 수 없었다. 세키노는 당시 한왕묘 등의 발굴 경험을 통해 고구려 고분의 현실 입구는 돌문을 세워 막는 것이 보통이라 판단하였지만, 강서 대묘는 보다 견고하게 막기 위해서 큰 돌을 겹쳐 쌓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천장의 머릿돌에는 당시 사방 60cm 정도의 구멍이 나 있었는데, 도굴 과정에서 생긴 것이 분명하다.

현실의 내부는 점토가 깔린 상태로 부장 유물은 없었고, 나무와 칠파편이 산란했다. 바닥 가장자리에는 사방 벽에 붙여서 돌을 돌렸고, 중앙은 석재 시상을 두 개 놓았는데 다리가 있었다(圖 59, 81). 그리고 조사 시에는 천장석 상부의 덮힌 흙에서 칠파편을 확인하였다. 칠파편은 오바와 오타가 모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인데 수습하여 경성박물관에 두었다. 세키노는 고분의 당초 상태를 생각하여 도굴자가 시상 위에 있던 목관을 도굴하여 부장품을 석실 밖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석실 내부는 강동의 한왕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關野 1914a, 1914d).

석실 내부는 석회를 바르지 않고 천장은 평행고임으로 내어쌓기하고 모서리도 삼각고임돌로 모를 죽였다. 강서 대묘는 벽면에 석회를 바르지 않고 커다란 화강석 만으로 만들었는

13 강서 대묘의 측량도에는 봉토 외면을 따라 평판을 옮겨가며 삼각 측량한 흔적이 붉은 색으로 남아있다. 봉토의 높낮이도 적절하게 표현되었는데 필적으로 보아 총독부 영선과의 이와이가 작성한 것이다(圖 80 참조).

데 그 표면은 정으로 정성스럽게 쪼아 평평하게 만들었다(圖 62, 64, 65). 세키노는 일본에서도 구하기 힘든 양질의 석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평평하게 만든 석면 위에 곧바로 벽화를 그린 것이다. 그것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박락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돌 틈 사이로 오랜 기간 물이 침투하여 벽면을 타고 내리기 때문에 화면이 더러워진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圖 62, 64).

벽화 그림에서 현실 남면의 입구 주연(周緣)에는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을, 그 좌우에는 주작(朱雀, 서로 마주보는 鳳凰)을, 동벽(東壁)에는 청룡(青龍), 서벽(西壁)에는 백호(白虎), 북벽에는 현무(玄武)를 그렸다. 천장의 고임돌 측면에는 초화(草花), 천인(天人) 등 여러 종류의 그림을 그렸다. 첫 번째 내어쌓기 면에는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이 그려졌는데 그 기법을 법륭사 몽전관음(夢殿觀音)의 광배와 닮았다 하였다. 두 번째 고임돌에는 천인과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세키노는 이를 십이지신(十二支神)과 관련이 있다 판단하였다. 세 번째 내어쌓기 면의 아래 턱 부분에는 연화와 봉황을 그리고, 그 측면에는 서로 마주 보는 기린을 그렸다. 네 번째 고임돌의 아래 부분에는 연화(蓮花)와 당초(唐草)를, 측면(側面)에는 봉황(鳳凰) 두 마리를 마주 보게 그렸다. 천장의 마감석에는 용을 그렸는데 조사 당시 이미 심하게 박락된 상태였다(關野 1914a, 1914d)(圖 61~70).

조사 성과를 총괄하면서 세키노는 강서 대묘에 출토 유물이 없는 이유를 『수서(隋書)』에 나오는 고구려의 장례 풍습을 들어 원래 고구려 무덤은 박장(薄葬)이라고 판단하였다(關野 1914a, 1914d). 그는 대묘에서 확인된 천장의 황룡이 중국 양(梁)의 숙시중신도비(肅侍中神道碑) 조각에서 보이는 문양과 동일하다 판단하고 봉황도 법륭사(法隆寺) 천개(天蓋)의 봉황 및 옥충주자(玉蟲廚子)의 그것과 닮았다고 보았다. 천인은 북위 때 만들어진 중국 낙양(洛陽) 용문석굴(龍門石窟) 조각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여겼다. 강서 대묘의 벽화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양과 북위, 일본 아스카 시대의 것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 세키노의 판단이었다.

고분의 연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지만 1350년(1912년 기준) 전으로 보아 한왕묘보다 150년 정도 늦는 것으로 보았다. 연대와 규모로 보아 대묘는 왕릉이 틀림없다 판단하여 국왕의 추호를 평원왕의 무덤으로 비정하였다. 고구려는 많은 경우 소재지의 이름에서 국왕의 추호를 따는데, 평원왕이란 아마도 평원에 묻었다는 의미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묘는 그러한 입지를 나타낸다 보았다. 평원왕은 수 초에 사망했는데 선왕인 양원왕이 고지나 남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묘의 입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아 평원왕 설을 고수하였다(關野 1914a, 1914d).



圖58 _ 강서 삼묘 전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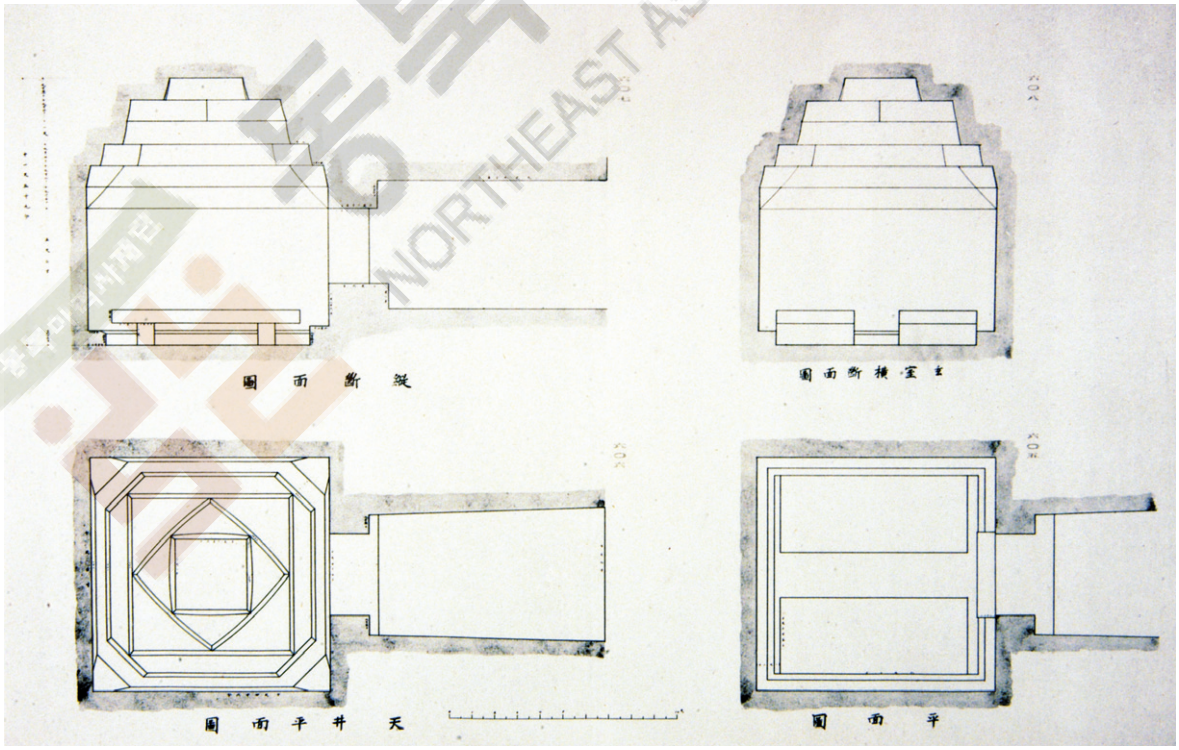


圖59 _ 강서 대묘의 내부 구조 실측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60 _ 조사 후의 강서 대묘(철책이 둘러쳐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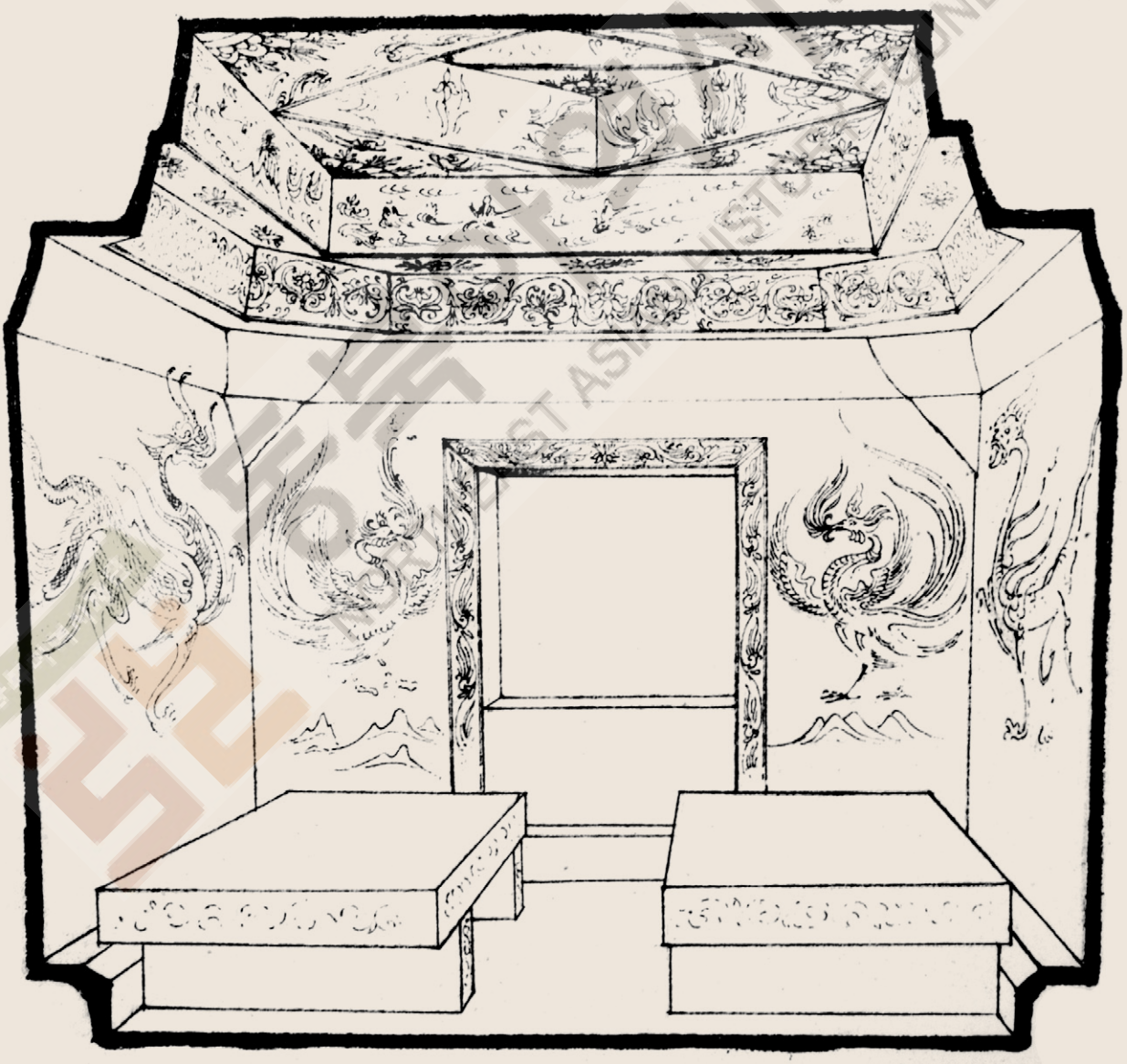


圖 61 _ 강서 대묘의 내부 투시도



圖 62 _ 남벽 동측의 주작(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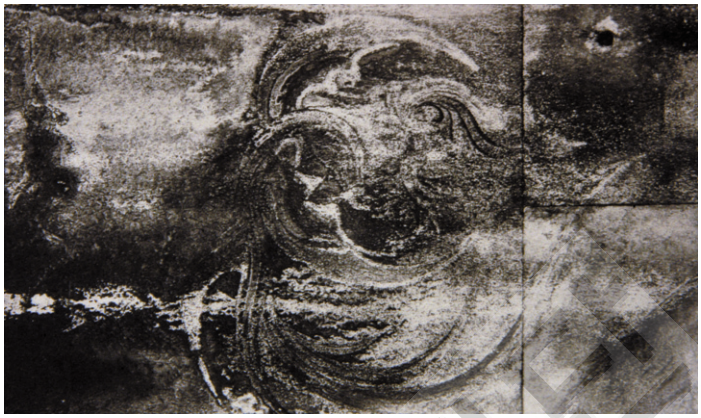


圖 63 _ 남벽 서측의 주작(사진)



圖 64 _ 동벽의 청룡(사진)



圖 65 _ 동벽의 청룡(모사도)



圖 66 _ 서벽의 백호(사진)



圖 67 _ 북벽의 현무(사진)



圖 68 _ 북벽의 현무(모사도)



圖 69 _ 북측 천장 평행모줄임부의 비천(모사도)



圖 70 _ 천장 모줄임부의 여러 그림(모사도)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강서 대묘 도면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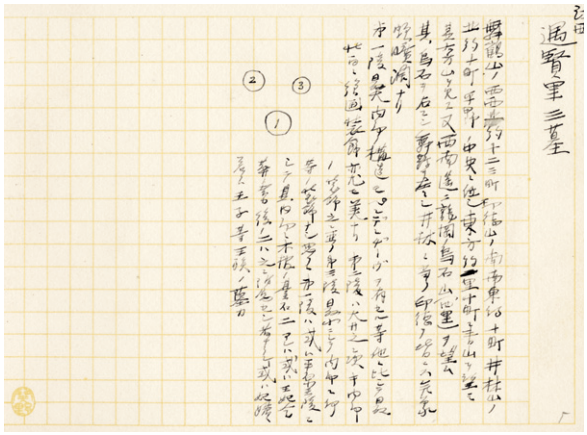


圖71 _ 강서 삼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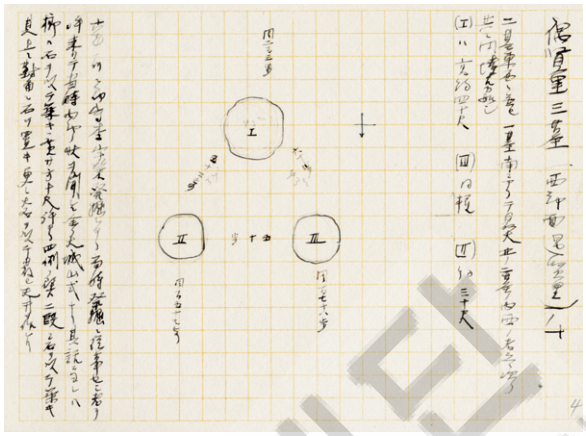


圖72 _ 강서 삼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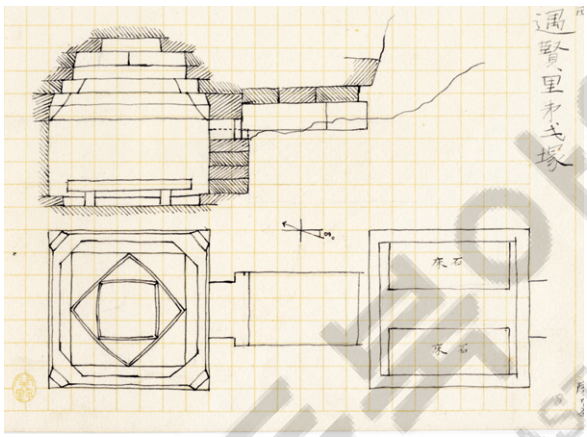


圖73 _ 강서 대묘 석실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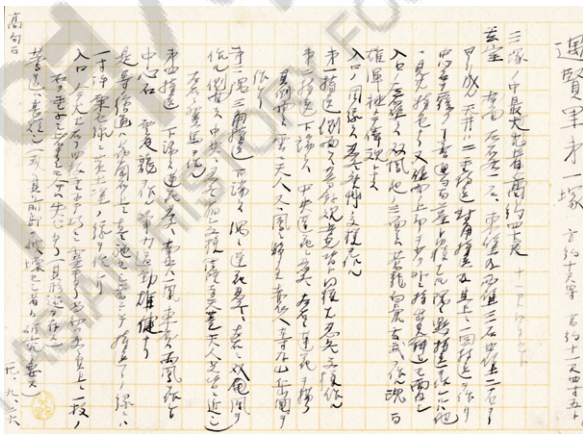


圖74 _ 강서 대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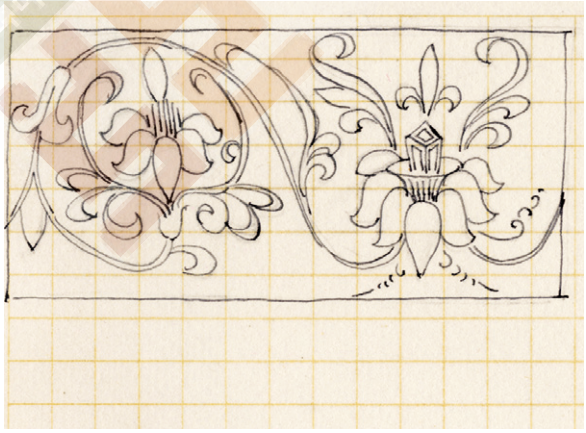


圖75 _ 강서 대묘 벽화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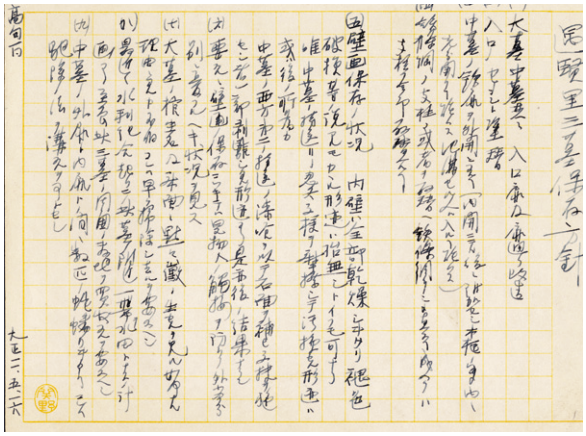


圖76 _ 강서 대묘 보존 방침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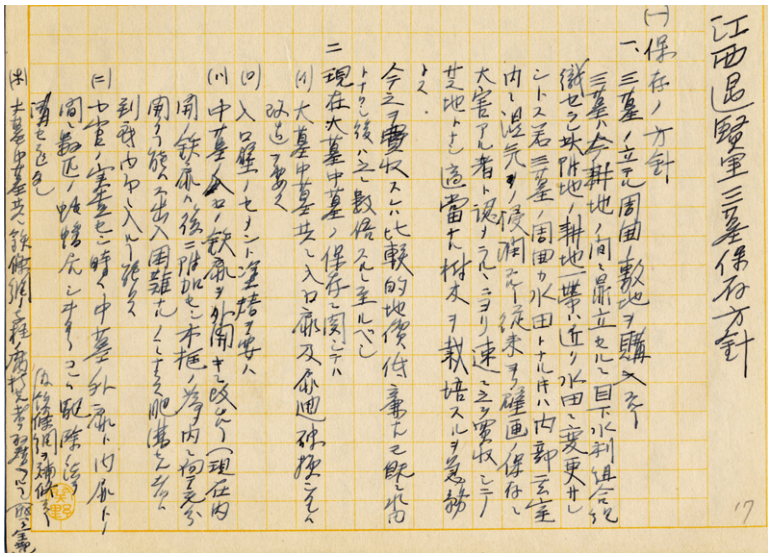


圖 77 _ 강서 대묘 보존 방침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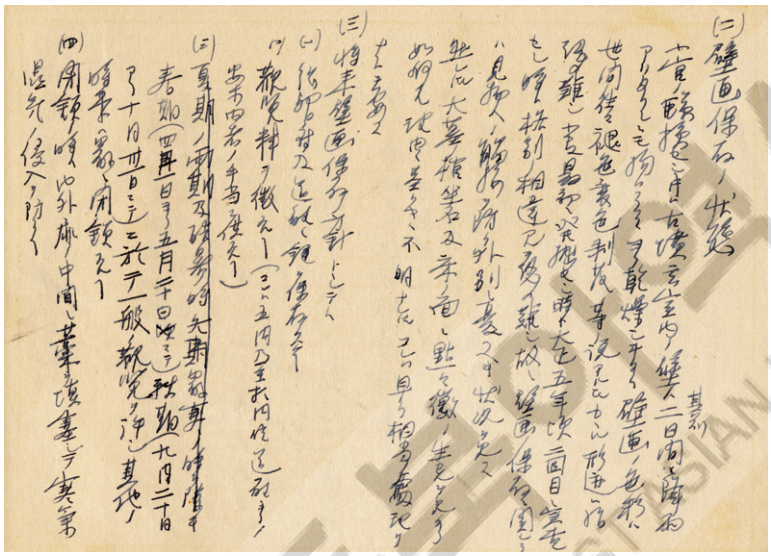


圖 78 _ 강서 대묘 보존 방침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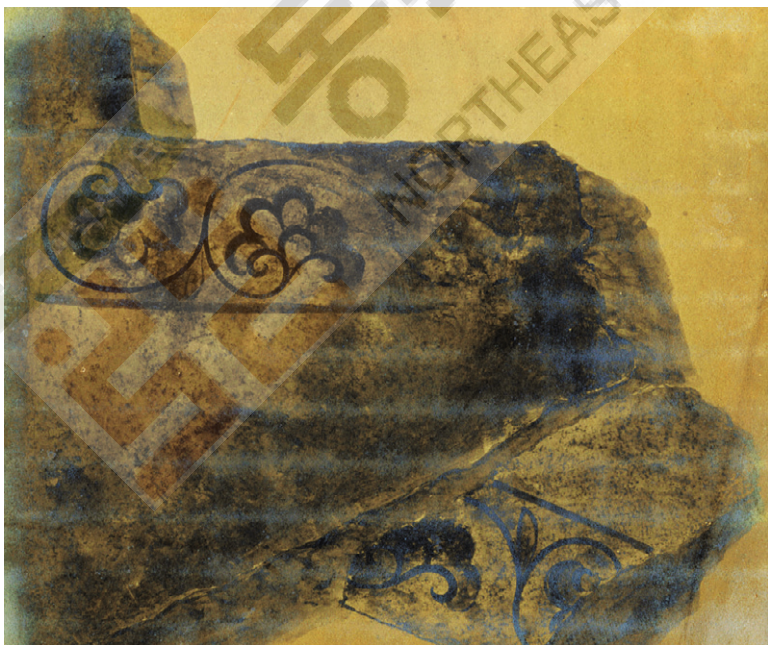


圖 79 _ 강서 대묘 석비의 벽화(사진)

세키노의 강서 대묘 조사 당시 현장 기록



圖 80 _ 강서 대묘의 분구 및 석실 측량도(이와이 작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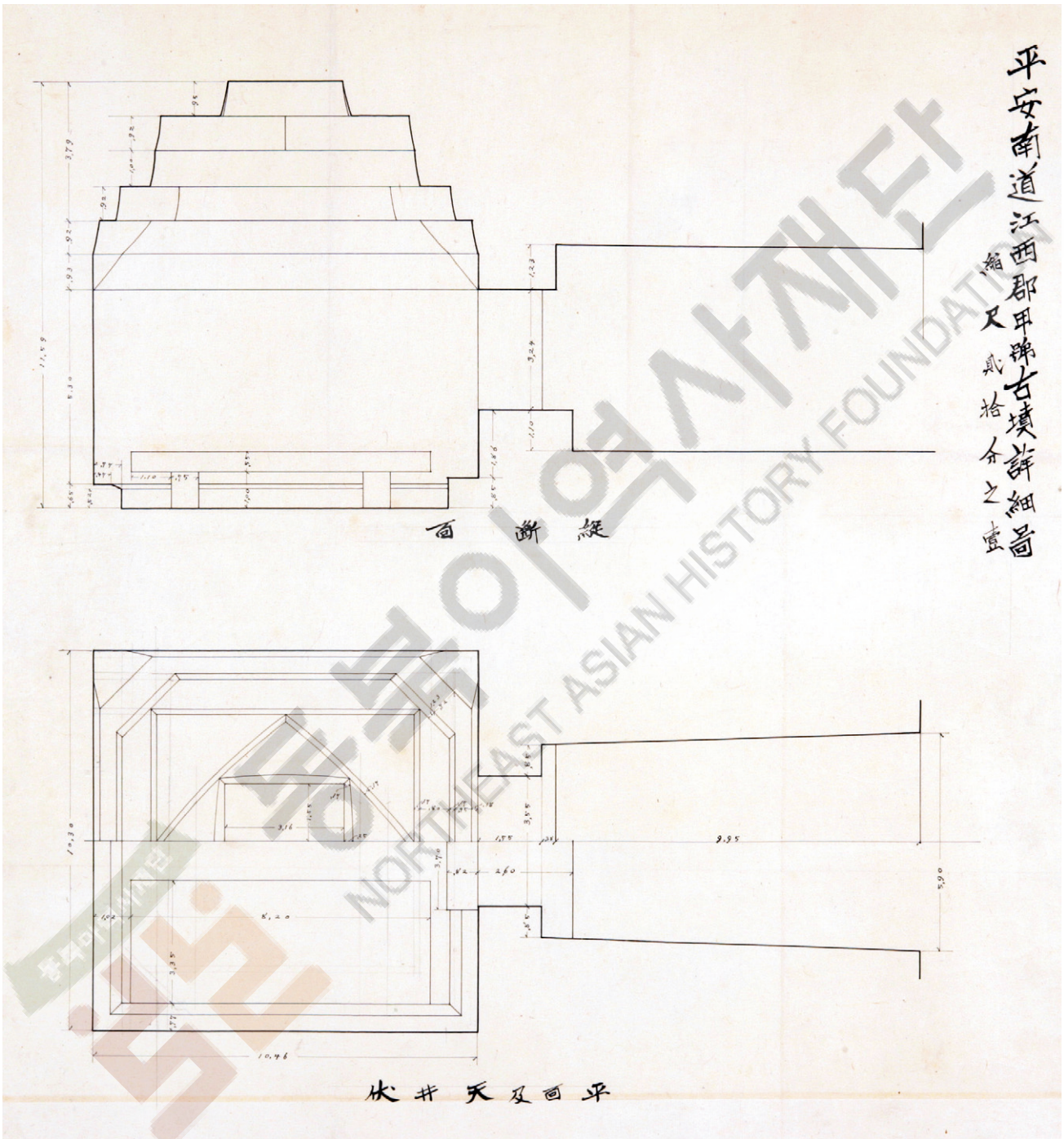


圖81 _ 석실 실측도

이와이의 강서 대묘 도면



圖 82 _ 동벽의 청룡



圖 83 _ 남벽의 주작



圖 84 _ 서벽의 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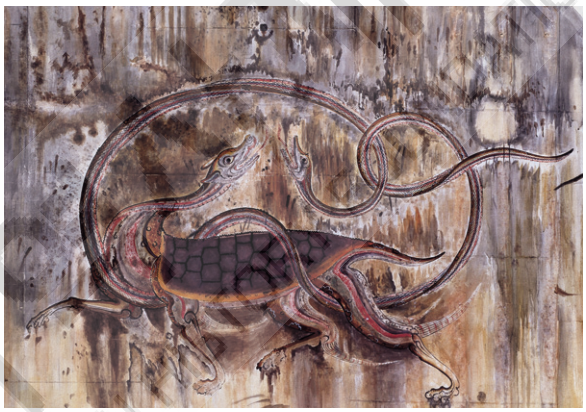


圖 85 _ 북벽의 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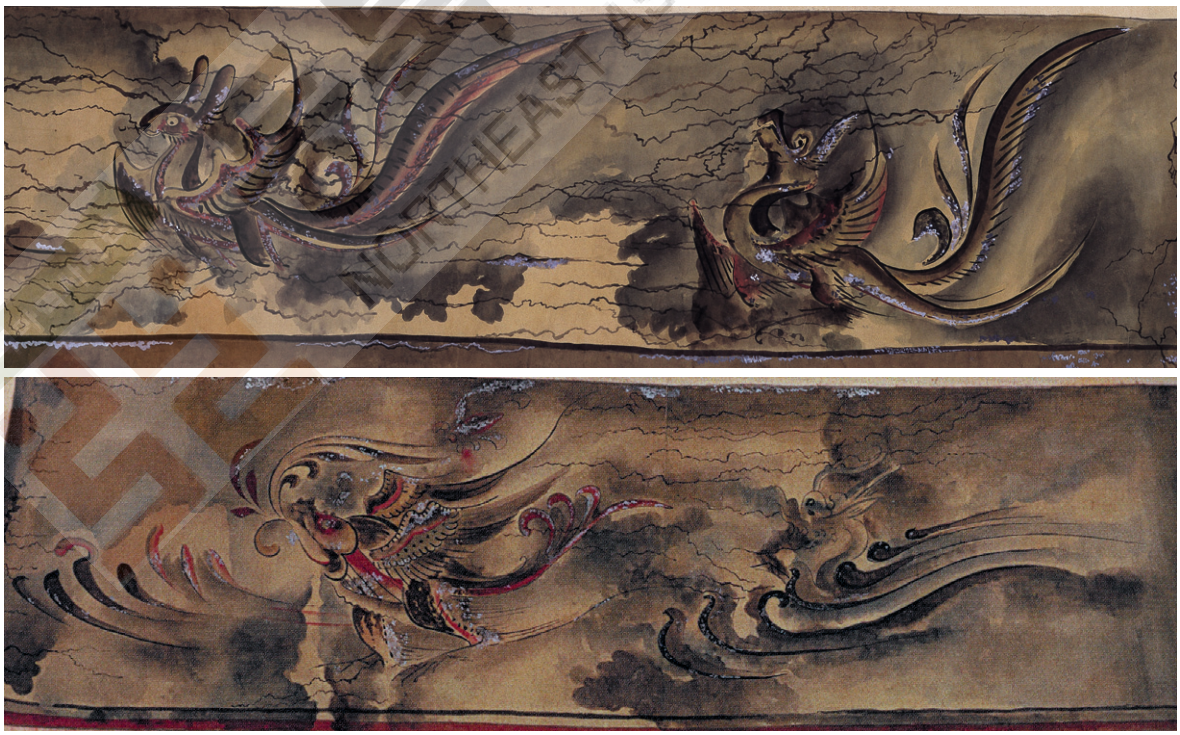


圖 86 _ 모줄임부 괴조



圖87 _ 천장의 황룡



圖88 _ 석비의 벽화



圖89 _ 모줄임부의 보상화문







圖90 _ 모줄임부의 초화문

오바의 강서 대묘 벽화 모사도



圖 91 _ 강서 대묘 근경(남에서)



圖 92 _ 강서 대묘 입구(남에서)



圖 93 _ 강서 대묘(남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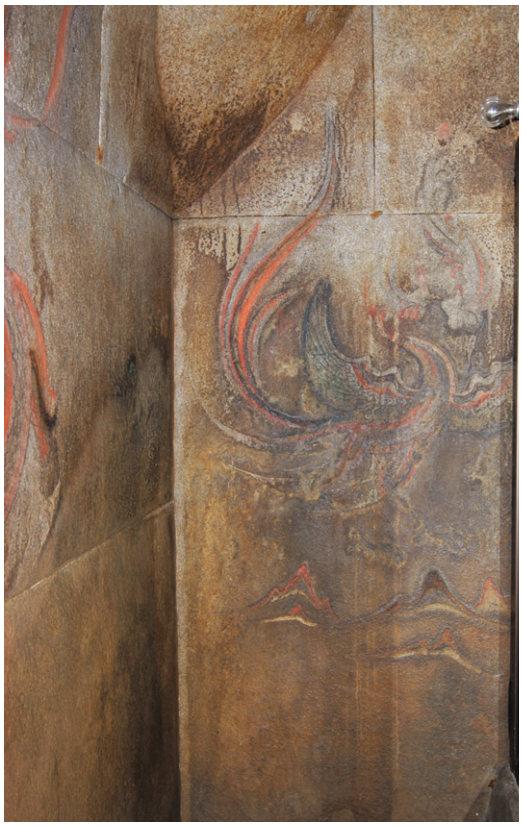


圖 94 _ 남벽 좌측의 주작



圖 95 _ 모줄임부의 벽화



圖 96 _ 천장의 벽화



圖 97 _ 청룡



圖 98 _ 강서 대묘 천장





圖 99~100 _ 강서 대묘의 모줄임부 벽화



圖 101 _ 출입구 바닥의 레일 흔적(일제강점기 설치)



圖 102 _ 출입구 바닥의 레일 흔적(일제강점기 설치)

현재의 강서 대묘(2006년 정인성 촬영)

(2) 강서 중묘

강서 대묘와 동시에 굴착한 중묘는 대묘와는 달리 연도부 만을 굴착하였다. 한왕묘와 강서 대묘의 경험을 통해서 고구려 봉토 석실분의 연도가 남으로 달린다는 것을 주지하고 굴착했을 가능성이 높다.[14] 세키노의 야장을 보면 9월 24일에 중묘의 내부를 약측했는데 이는 대묘의 내부를 약측한 것보다 3일이나 빠르다. 상면을 제외한 연도부가 토사로 채워진 것으로 표현된 도면을 볼 때(圖 116), 세키노가 현실 내부로 들어간 방법은 연도의 토사를 전부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확보된 연도 공간을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총독부 건축 기수인 이와이가 그린 도면에는 연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마무리 단계에는 연도의 토사를 전부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서 중묘는 대묘보다 약간 작고 내부 천장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 현실의 넓이는 동서가 3.3m, 남북이 3.4m이며 연도의 길이는 7.63m 정도이다. 현실벽은 사면을 모두 1장의 돌로 만들었는데 2번에 걸쳐 고임돌을 사용하여 평행내어쌓기를 하고 천장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이는 모서리를 삼각고임한 다음 천장석으로 마무리하는 대묘와 다른 점이다. 내어쌓기 고임돌과 천장석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석회가 사용된 점도 대묘와는 다른 점이다. 현실 바닥의 시상은 1매석으로 만들었다. 현실 입구에는 원래 2장의 돌로된 문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파손되었다. 문의 전방 90cm 지점에도 큰 돌을 세워서 막은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방에도 문주석을 세우고 석비를 달아서 연도를 폐쇄할 수 있게 하였지만 모두가 파괴되어서 조사 당시에는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강서 중묘의 현실 내에는 대묘와 마찬가지로 부장 유물이 없고 단지 목관파편과 칠파편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圖 104~127).

현실 내부의 벽화는 강서 대묘와 유사한데, 세키노는 두 묘의 조성 연대는 비슷하지만 축조 기술면에서 대묘가 앞선다고 보았다(關野 1914a, 1914e). 네 면의 벽에는 남쪽에 주작,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북쪽에 현무를 그렸다. 첫 번째 고임돌과 두 번째 고임돌에는 당초문을 그렸는데, 세키노는 이것이 일본 법륭사 등에서 관찰되는 아스카 시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천장 중앙의 마감석은 그 중앙에 연화를 그리고 그 주변에 일월의 공간을 각각 둥글게 만들어 삼족오와 두꺼비를 그려 넣었다. 세키노의 보고에 의하면 중묘의 벽화도 대묘와 마찬가지로 중국 회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 판단하였고, 강서 대묘 피장자인 왕의 비빈(妃嬪)이나 왕자의 무덤이라 하였다(關野 1913b).

2006년에는 필자도 강서 중묘에 들어가서 그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세키노의 관찰과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 우선 천장의 중앙에 연꽃이 그려져 있

14 이미 연도를 따라 여러 번 굴착되기 때문에 세키노도 굴착 후에 연도부를 되메우기한 흙만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그 가운데 네모난 홈이 있다. 홈은 바깥보다 안쪽이 더 넓어 무엇인가를 끼워서 걸 수 있는 구조이지만 분명히는 알 수 없다(圖 131, 132). 홈에는 부분적으로 석회가 묻어 있다. 천장은 대묘보다 낮으나 천장 중심에 그려진 연꽃과 천장 네 모서리를 잇는 선을 따라 홈이 파였는데 가장자리가 깊고 중앙으로 갈수록 얕아진다(圖 131). 이는 천장을 높게 보이려는 고안이다. 현실 바닥은 상면을 가공한 큰 돌을 깔았는데, 시상은 남아있지 않다.

연도와 연결되는 현실의 바깥에는 1매석으로 가공한 문주석과 턱을 높인 문지방이 설치되었다. 좌 · 우의 문주석에는 석비를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한 장부 구멍이 관찰된다. 장부 구멍은 바깥에서 볼 때 오른쪽 것이 파손된 상태이다. 원래 쌍여닫이 문을 달기 위한 장치이지만 문 안쪽을 두꺼운 판석으로 폐쇄하고 그 모서리를 석회로 보강한 흔적이 남아 있다. 고분 축조 당시에는 쌍여닫이 문을 달려고 하였으나 장부 구멍이 파손되어 대형 판석으로 바꾸어 연도를 폐쇄했을 가능성이 있다.



圖 103 _ 조사 후 출입구가 복원된 강서 중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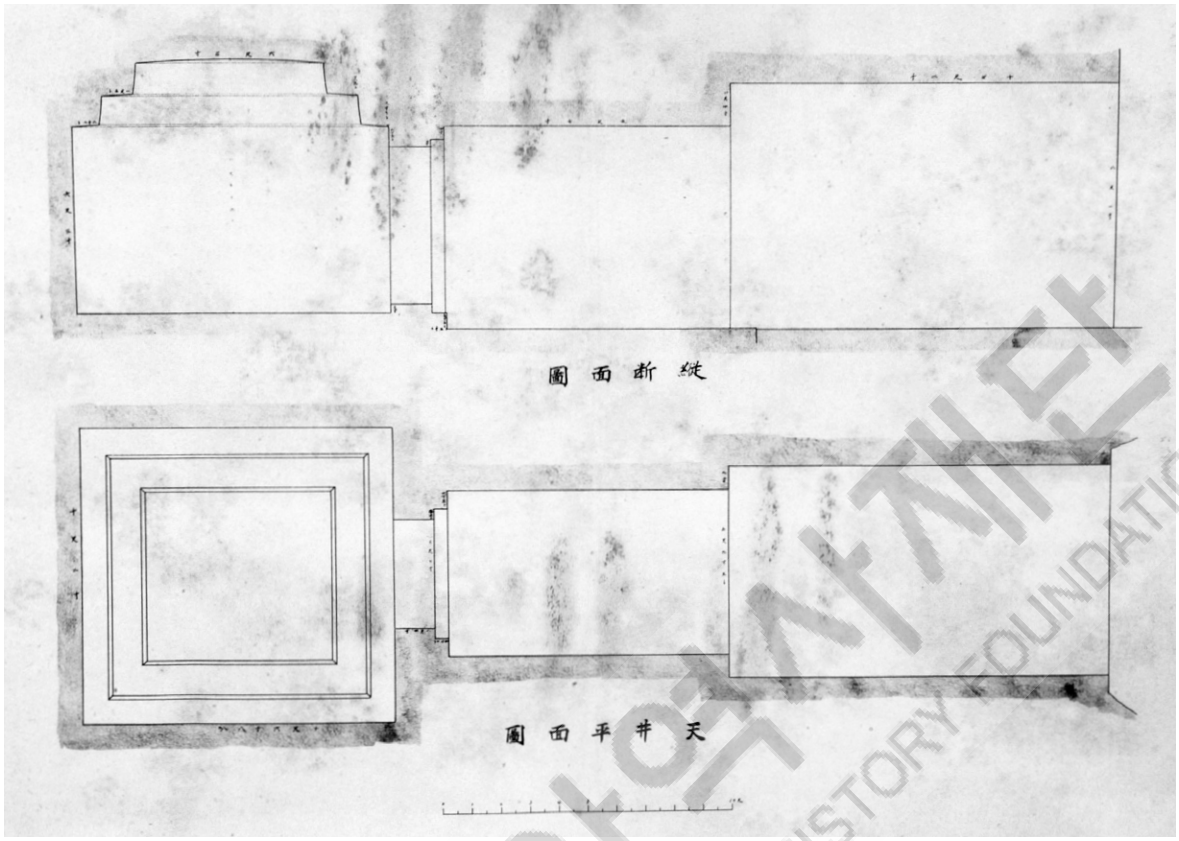


圖 104 _ 내부 실측 도면



圖 105 _ 강서 중묘의 청룡(사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106 _ 남벽의 동쪽 주작(사진)



圖 107 _ 남벽의 서쪽 주작(모사도)



圖 108 _ 강서 중묘 서벽의 백호(모사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109 _ 강서 중묘 현실 동북 모서리(사진)



圖 110 _ 현실 북벽 내어쌓기면의 인동당초(사진)



圖 111 _ 현실 북벽 내어쌓기면의 벽화(사진)







圖 112~114 _ 중묘 현실 내어쌓기면의 벽화(모사도)



圖 115 _ 현실의 천장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강서 중묘의 사진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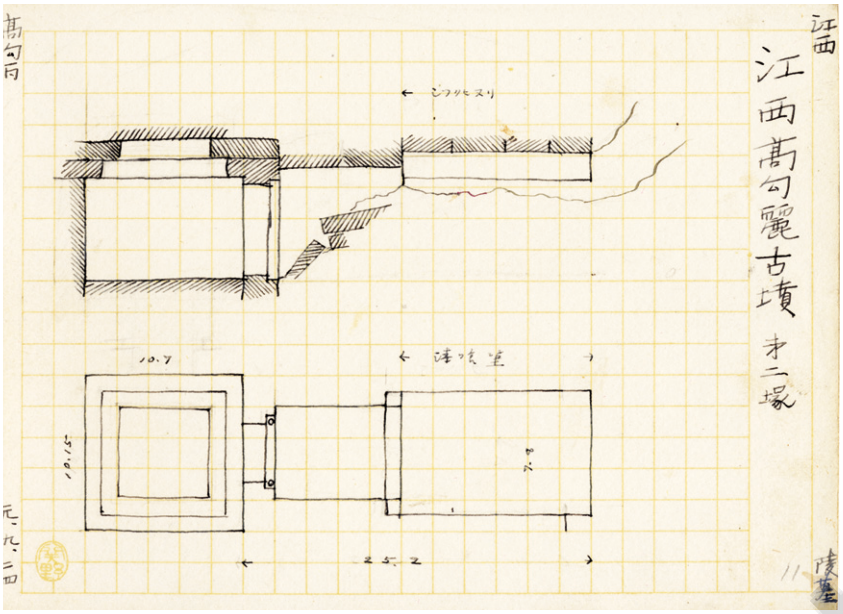


圖116 _ 강서 중묘 측단면도(위)와 천장도(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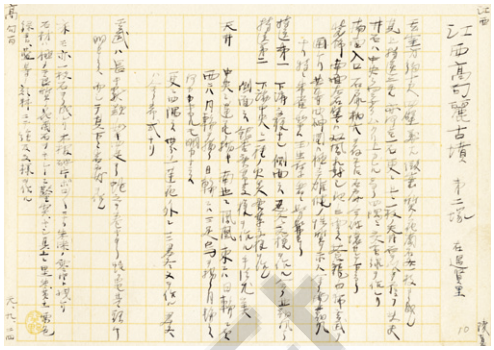


圖117 _ 세키노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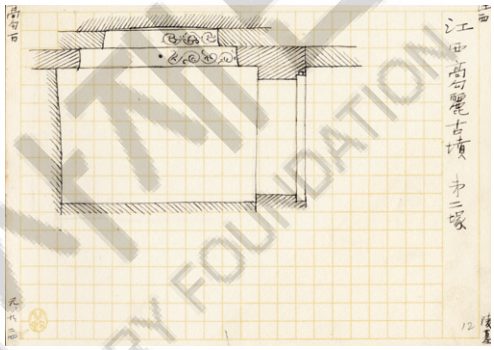


圖118 _ 강서 중묘 현실 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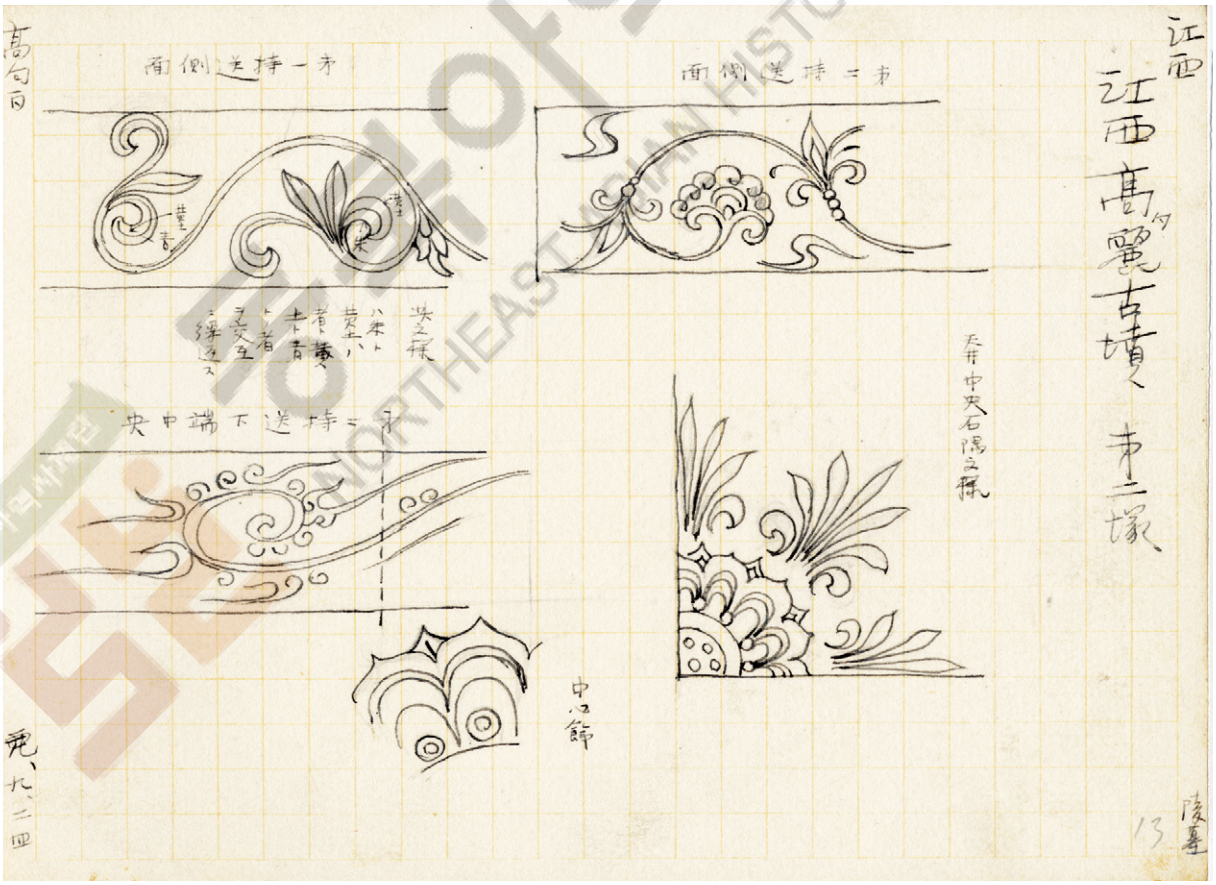


圖119 _ 강서 중묘 현실 각 부분의 벽화

세키노의 강서 중묘 현장 기록



圖 120 _ 강서 중묘 분구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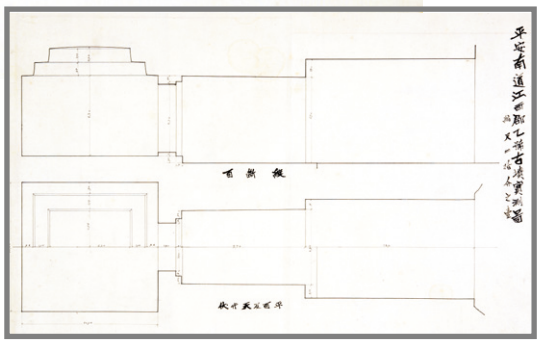


圖 121 _ 석실 내부 실측도

이와이의 강서 중묘 측량 도면



圖 122 _ 강서 중묘의 청룡(모사도)



圖 123 _ 강서 중묘의 백호(모사도)



圖 124 _ 강서 중묘의 주작 1(모사도)



圖 125 _ 강서 중묘의 주작 2(모사도)



圖 126 _ 강서 중묘의 현무(모사도)



圖 127 _ 강서 중묘의 천장

오바의 강서 중묘 벽화 모사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128 _ 서북쪽에서 본 강서 중묘



圖 129 _ 동북쪽에서 본 강서 중묘



圖 130 _ 남쪽에서 본 강서 중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131 _ 강서 중묘의 천장



圖 132 _ 천장의 연화문



圖 133 _ 바닥에서 확인되는 레일 흔적
(일제강점기에 설치)

현재의 강서 중묘(2006년 정인성 촬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강서 소묘

강서 소묘는 방형 현실의 남쪽에 중앙 연도가 달린 단실묘인데 세키노의 기대와는 달리 부장 유물은 물론 벽화도 발견되지 않았다. 봉토는 대묘 · 중묘와 마찬가지로 기저부가 방대형이고 분정(墳頂)은 봉토의 약간 뒤쪽에 위치한다. 연도부 바닥에는 상면이 가공된 두꺼운 판석을 깔았고 양 벽은 세장 방형으로 가공된 석재를 눕혀서 쌓았다. 천장에는 아래 면이 고르게 가공된 두꺼운 판석을 덮어서 마무리하였다. 개별 석재의 가공은 대묘나 중묘에 비해 거친 편인데 축조 과정에서 생겨난 틈에는 석회를 먹였다. 연도의 양쪽 벽면보다 돌출되게 설치된 문주석은 연도가 설치된 쪽의 좌우 현실벽의 돌과 같은 몸이다. 둥근 장부 구멍이 같은 몸에 좌우로 설치된 문미석이 횡으로 길게 문주석 위에 걸쳐져 있다(圖 135, 136, 138).

현실의 네 벽은 장방형으로 가공된 비교적 큰 석재로 축조했는데 사방의 벽 상면을 경사지게 하여 면적을 줄인 다음, 다시 평행고임돌로 내어쌓기를 세 번하고 그 위로 삼각고임돌을 한 단 얹은 다음 천장돌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현실과 연도의 축조에는 석재 사이에 석회를 채워 넣었는데 이는 천장에서도 관찰된다. 석재의 가공 기술과 축조 방법은 대묘 · 중묘를 닮았으나 상대적으로 석재의 가공이 거칠고 소재의 규격성도 떨어진다. 연도에는 현실 연문 바깥에 폐쇄석을 설치한 흔적이 있었다. 연도의 바깥쪽에도 폐쇄 시설이 있었을 것이나 조사 당시에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강서 소묘는 조사 후에 대묘, 중묘와는 달리 봉토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실에 대한 실측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세키노의 야장에 그려진 약측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가 끝난 후 대묘와 중묘에는 봉토의 남쪽을 크게 절개하고 입구에 출입시설을 달았지만 소묘에는 그렇게 하지않았다. 그러다 해방 후 출입시설을 마련하였다(圖 140).

강서 대묘와 중묘는 오바 쓰네키치가 주도하여 70여일 간에 걸친 작업 끝에 현실 내부 각 화면 벽화의 모사를 작성하였다. 완성된 벽화 모사는 그 비용을 부담한 이왕가박물관에 제출하였으나, 1913년 거행된 도쿄제국대학 각 분과대학 졸업증서 수여식에 황족이 참석한다 하여 이중 일부를 도쿄제국대학이 대여해갔다. 1913년 7월 10일 황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세키노가 고구려 고분에 대한 강연을 마치고, 다음날인 11일 오전에는 관련 인사들을 초대하여 관람하게 하였다.[15] 지금 도쿄제국대학에 소장된 벽화 모사도 이때 대여된 상태에서 이왕가박물관으로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인지 추후 보강 조사할 필요가 있다.

15 필자 미상, 1913. 8. 5,「朝鮮 江西古墳壁畵模寫御覽」,『考古學雜誌』3卷 第12號.



圖 134 _ 조사 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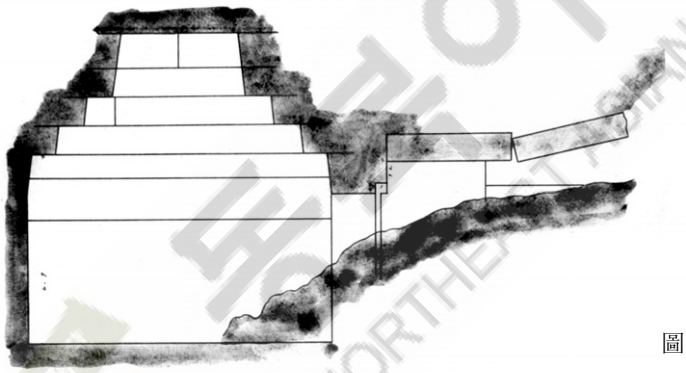


圖 135 _ 석실 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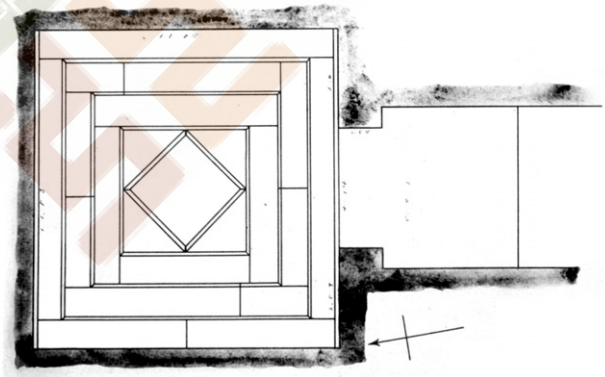


圖 136 _ 석실 천장도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강서 소묘의 사진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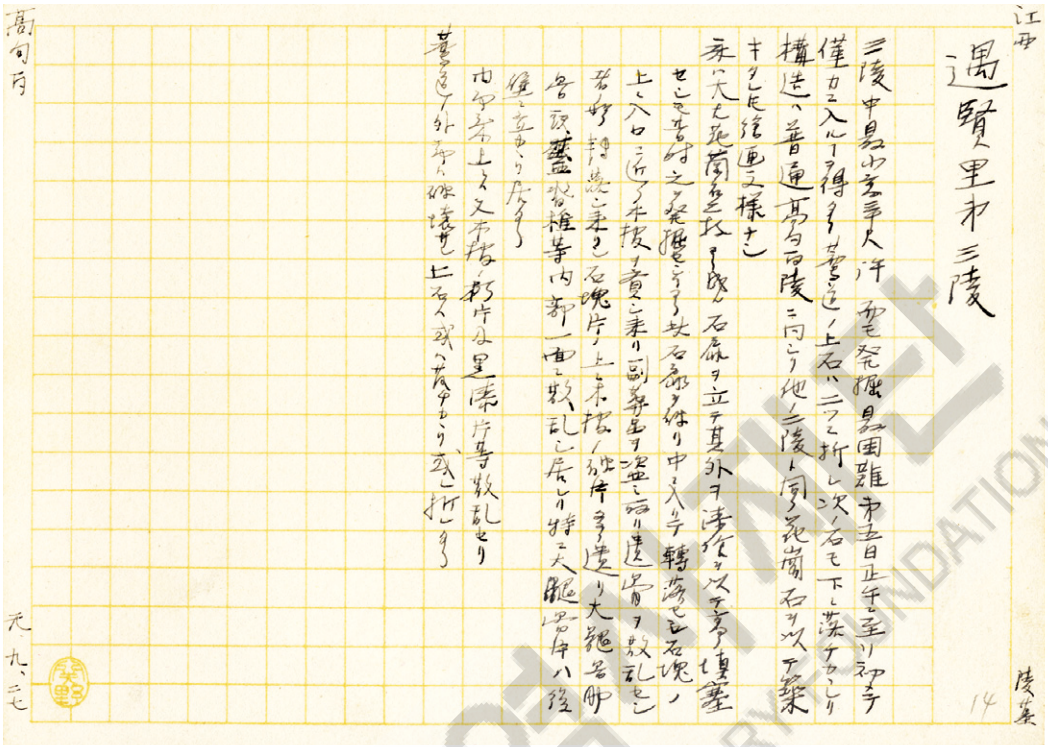


圖 137 _ 강서 소묘의 현장 조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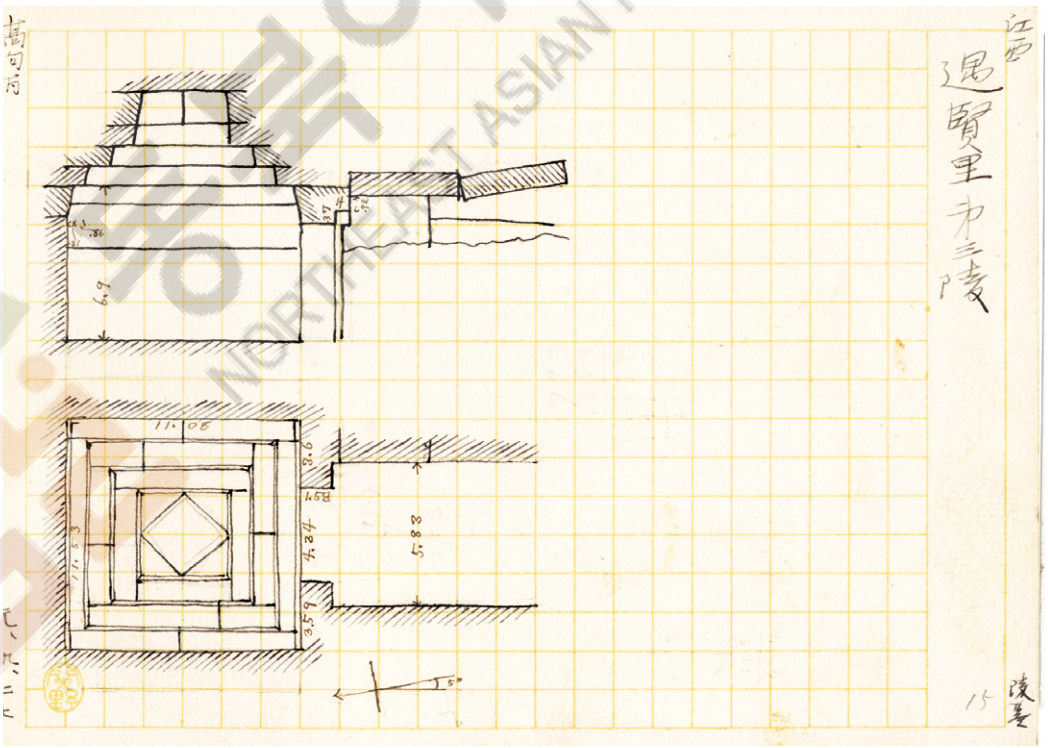


圖 138 _ 세키노가 그린 소묘의 측단면도와 천장도

세키노의 강서 소묘 현장 기록



圖 139 _ 강서 중묘에서 바라본 소묘



圖 140 _ 강서 소묘 입구



圖 141 _ 동남쪽에서 본 소묘



圖 142 _ 서남쪽에서 본 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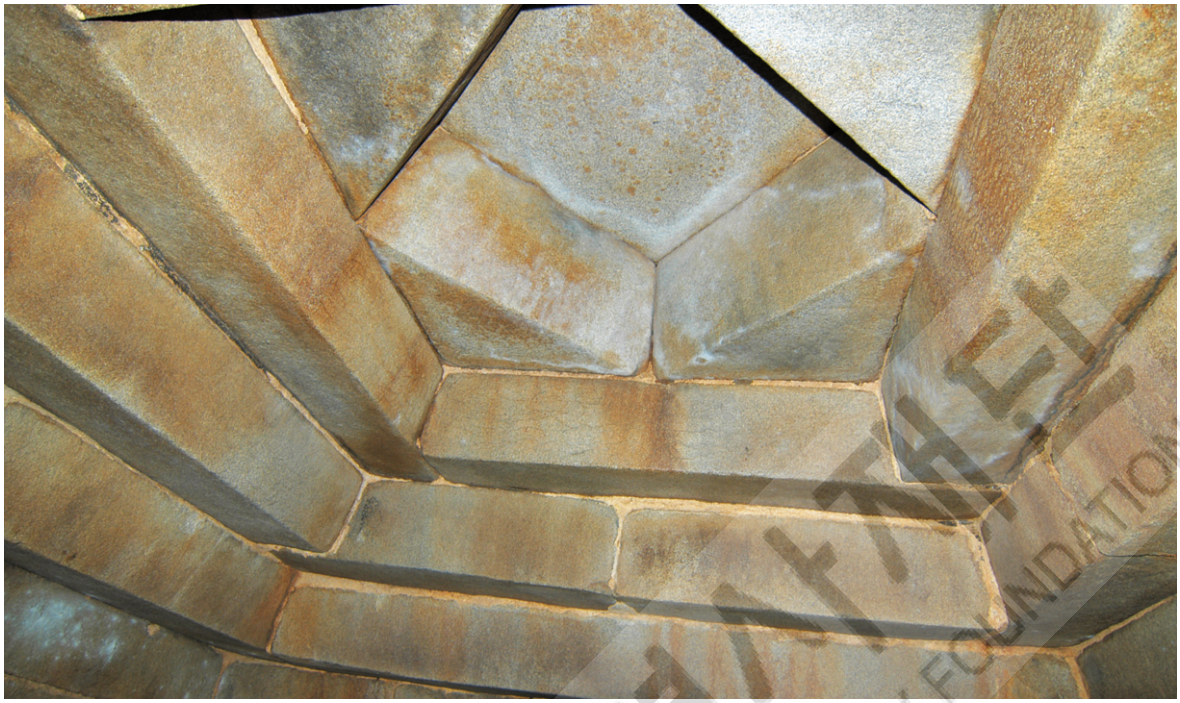


圖 143 _ 강서 소묘의 천장



圖 144 _ 서벽 축조 상태



圖 145 _ 연도 동벽 축조 상태



圖 146 _ 문미석의 장부 구멍



圖 147 _ 연도 벽석 세부

현재의 강서 소묘(2006년 촬영)

강서 삼묘는 조사 후 제한적인 내부 공개를 목적으로 복원되었다. 우선 벽화가 없는 소묘는 봉토를 원래대로 복구하였고 대묘와 중묘는 봉토의 전방 절개구를 그대로 두고 연도부에 출입구 시설을 한 다음 열쇠를 달아 관헌이 맡아서 관리하게 하였다(圖 103). 복원과 관련된 기본 안을 세운 것은 세키노이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한 것은 세키노의 고적 조사를 수행하던 조선총독부 토목국 영선과의 이와이(岩井) 기수였다. 물론 세키노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출신인 이와이는 대총과 중총의 연도 입구에 철제문을 달고 현실에서 가까운 곳에는 목제 문을 만드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고분의 바깥에는 외부와 단절시키는 철조망을 쳐서 관리하였다(圖 103). 이 때 만들어진 설계도의 청사진이 현재 도쿄대학박물관에 보관된 '세키노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2006년 필자도 현지를 방문해서 이 고분을 관찰했는데 연도의 바닥에는 이 때 만들어진 문을 개폐하기 위한 바닥 레일이 호선(弧線)을 그리면서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圖 102, 133). 물론 지금은 연도를 바깥쪽으로 더 달아내고, 그 바깥에 새로이 여러 겹의 밀폐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당시의 레일은 사용되지 않는다.

3. 간성리 연화총

1) 조사 경과

고분은 강서에서 남남동으로 780m 정도 떨어진 원산(園山)이라고 불리는 작은 산의 남쪽에 있으며, 남쪽에서 서쪽으로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간성리 연화총은 간성리 고분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는 간성리 연화총이라 하겠다. 세키노는 간성리 연화총을 강서 삼묘의 조사가 끝난 다음 조사하였다고 하였으나 세키노의 야장에는 석실 내부에 대한 약측과 문양 스케치가 9월 25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기되어 있다. 세키노가 간성리 고분의 정보를 전해 들은 것은 강서 삼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이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도굴되어 석실 내부로 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서 삼묘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조사한 것이다. 간성리 고분의 조사에도 총독부박물관의 토목기수인 이와이 초사부로가 동행하였다. 도쿄대학에는 1913년 조사 당시 이와이가 작성한 고분의 측량도와 내부 도면이 보관되어 있는데(圖 159~162), 이는 『조선고적도보』Ⅱ에 일부 흑백으로 게재된 도면(圖 148, 149)의 원본이다.

2) 조사 내용

조사 전의 간성리 고분은 봉토에 노출된 석재가 없이 언덕을 이루고 있었고, 봉토 사면을 따라 조선시대 묘들이 조영되어 있는 상태였다(圖 150). 조사 지원을 위해 총독부 영선과에서 나온 이와이 기사가 작성한 측량도를 보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어지는 구릉에 축조

된 고분임을 알 수 있다. 이와이의 봉토 측량도에는 2m 높이 간격의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데(圖 159), 이는 봉토 외연선 만을 삼각측량했던 강서 대묘 · 중묘와는 다른 것이다. 아마도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고분 조사 중에서 등고선을 그려넣어 봉토의 형태를 측량 실측한 가장 이른 사례로 판단된다.

이와이의 도면을 참고하면 봉토의 남쪽 기저에서 분정(墳頂)까지는 26m 정도이고, 북쪽 구릉사면에서의 높이는 8m 정도이다. 석실은 연도를 남쪽 중앙으로 달아낸 것으로 전실(前室)과 후실(後室)로 구성된다. 굴착은 연도부를 노려 봉토를 파내고 전실 천장의 흙도 같이 걷어내면서 진행되었다. 20분의 1로 작성된 석실 실측도를 보면 조사 과정에서 전실의 천장석까지 굴착했음이 확인되며 천장석에도 구멍이 나 있다. 이것이 조사 이전의 도굴구인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석실 내로 빛을 모으기 위해 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세키노가 9월 25일에 작성한 야장에 그려진 도면을 보면 연도부와 전실, 그리고 현실의 흙을 전부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실 내로 들어가 조사를 진행했음이 인정된다(圖 156). 그러나 이와이의 석실 내부 실측도를 검토하면 석실과 연도부 바닥까지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圖 161, 162). 세키노가 현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와이는 실측 도면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부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하 고분의 내부 형태에 대해서는 세키노의 보고를 충실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關野 1914a). 고분은 전실과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실의 남쪽 중앙에는 출입할 수 있는 연도가 있다. 전실의 너비는 동서가 512cm 정도, 남북이 248cm이고, 천장 높이가 348cm이다. 현실은 방형에 가까운데 한 변이 348cm, 높이가 415cm이다. 전실에는 현실로 통하는 통로의 좌우벽과 동서벽의 전방(남쪽)에 각각 방형의 감(龕)을 만들었다. 전실의 천장은 전후벽에만 2단의 평행고임돌을 놓고 그 위를 3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각 구획 내부를 방형으로 한 단씩 높게 처리하였다. 현실 천장은 평행고임돌을 3번 쌓고 삼각고임을 2번한 다음 천장석 한 매를 덮어 마무리하였다. 벽은 두께 6cm나 14cm 정도의 안산암재로 쌓고, 입구와 감의 주위는 거친 화강암 석재로 만들었다. 벽 전면은 천장에 이르기까지 석회를 3번에 걸쳐 겹쳐 바르고 그 위로 약간의 채색을 하거나 간단한 문양을 그려서 회화를 작성하였다. 전실의 벽과 천장 등에는 흑색과 갈색으로 문양을 그렸다.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뱀처럼 생긴 형상을 그린 것으로 보이나 훼손되어 그 윗면만이 간신히 남아 있다. 입구의 서쪽 감실에는 인물상이 있다. 얼굴은 훼손되었지만 복식은 식별할 수 있다. 인물의 위로 남북조식의 천개가 그려져 있고 아래에 화염문을 그렸다. 다른 감실 내에도 그림이 있었으나 박락되어 분명하지 않다. 천장 각 구의 중심에는 각각 커다란 연화를 그렸는데 서쪽 구획의 것은 확실히 남아있다. 연화문은 연판의 끝이 날카롭지만 우아하다. 조사 당시 중앙의 천장석이 없어진 상태였는데 이곳을 통해 내부로 출입하였다. 동쪽의 천장석은 박락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현실은 조사 시 너무 어두워서 촛불로 비추어 보았으나 벽과 천장을 정확히

관찰할 수가 없었다. 남벽 입구 위에는 두꺼운 검은 띠로 삼각형 윤곽을 만들고 그 안에는 봉황을, 그 위에는 뱀 같은 것을 그렸다. 동쪽에는 기린같은 것(다리만 남았음)을 그리고, 서쪽에는 천인을 그려 놓았다. 벽의 사방에는 기둥과 두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기둥머리에는 명판(皿板)이 있다. 천장의 3중 삼각고임돌에는 흑색이나 갈색으로 두꺼운 띠를 만들었다. 모서리와 삼각형고임돌의 아래에는 삼족오, 파문, 봉황같은 것을 그려 놓았지만 희미하다. 천장의 중심 장식으로 커다란 연화를 그린 것 같다.

이 고분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장식(벽화)이 간단하지만, 전후 이실(二室)이고 북위식(北魏式)에 가까운 두공과 천개모양의 연화문으로 볼 때 약 1,400년전(1912년 기준)의 것으로 여겨지며 강서 삼묘보다 고식이다(關野 1914a).

간성리 연화총에서는 한 점의 철못이 출토되었는데 못머리가 둥글고 몸 단면은 사각형이다(圖 153). 조사 후 총독부박물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도면과 야장의 정보

여기서는 세키노의 보고에 의한 간성리 고분 설명과 이와이의 도면, 세키노의 야장 약측도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추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이와이의 도면 자료에는 전실과 현실의 사이에 전실 쪽에 붙여서 양쪽으로 돌문을 달아 회전할 수 있게 장부 구멍을 만들어 두었음이 관찰된다(圖 149). 묘도와 연결되는 연도 부분에도 판석으로 된 폐쇄석을 세워둔 흔적이 관찰된다(圖 150). 전실 천정의 각 구(區)를 높이는 방법은 천장부에 두껍게 석회를 발랐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연도와 전실, 현실 네 벽 모두에도 두껍게 회를 칠했는데, 조사 당시 곳곳에 박락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도면을 통해 알 수 있다(圖 161, 162). 이와이의 석실 입단면도에는 고분의 굴착 방법과 벽의 축조 상황이 잘 나타난다. 연도 벽은 석회를 먹이고 자연석을 놓으면서 쌓았고, 석실 네 벽은 비교적 대형 석재로 조립하고 그 위에 회를 바른 정황을 알 수 있다(圖 162). 전실에 설치된 감은 그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었다. 현실의 서벽 남쪽 모서리에 그려진 두공과 현실 천장의 동남 삼각형고임돌 아래에 그려진 바람개비 모양의 벽화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학술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圖 157). 천장 부분의 벽화도 흐린 사진만 보고되었었기 때문에 세키노가 야장에 그려둔 스케치는 자료적 가치가 높다(圖 158). 봉토의 등고를 작성하고 봉토와 석실의 단면을 측량한 점은 이후 전개되는 공식적인 '고적 조사'의 기본 조사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圖 148 _ 분구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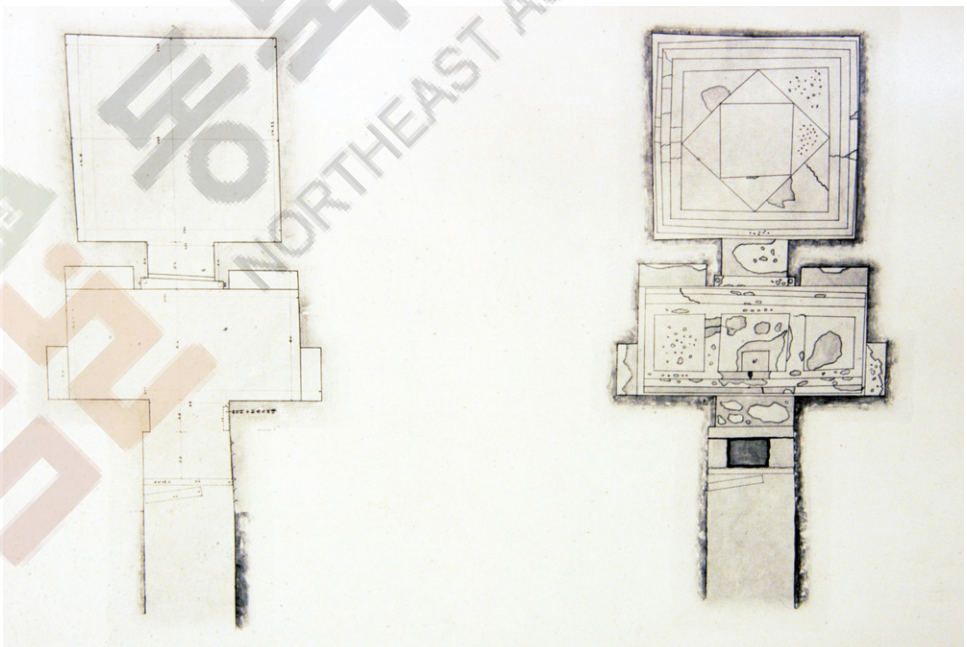


圖 149 _ 석실 내부 실측도

『조선고적도보』의 사진과 도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150 _ 간성리 연화총 발굴 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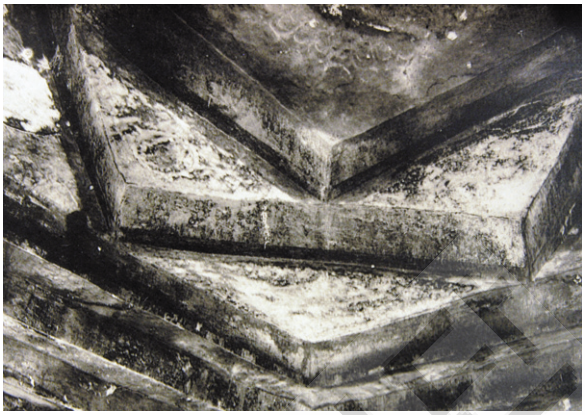


圖 151 _ 현실 천장부



圖 152 _ 연도 형태



圖 153 _ 삼각고임부 벽화와 출토 유물



圖 154 _ 현실 천장의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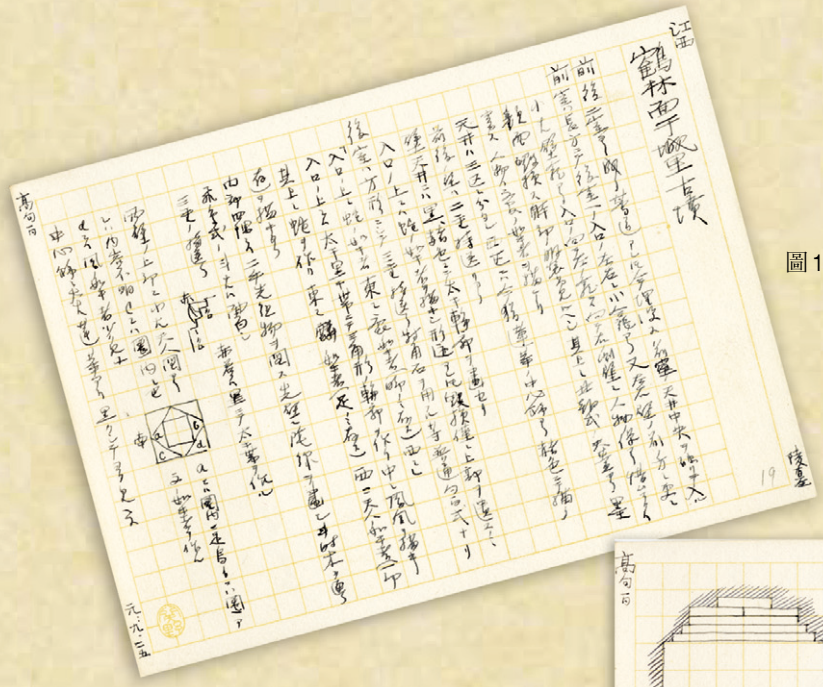


圖 155 _ 간성리 연화총 현장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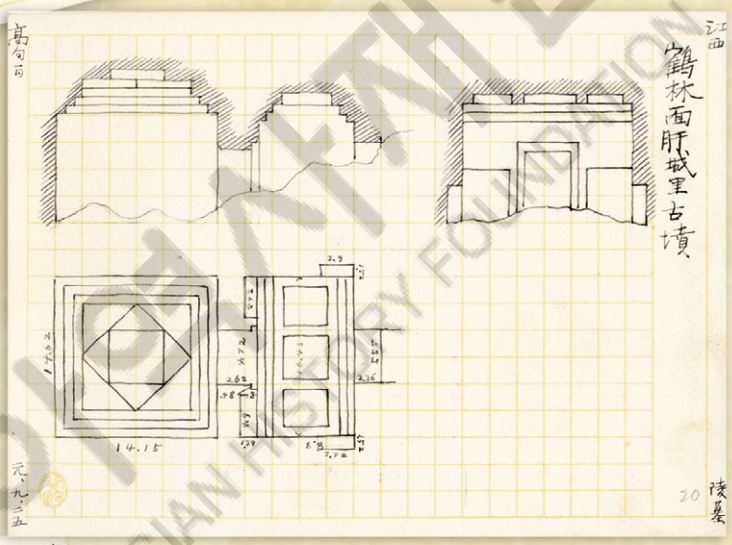


圖 156 _ 간성리 연화총 약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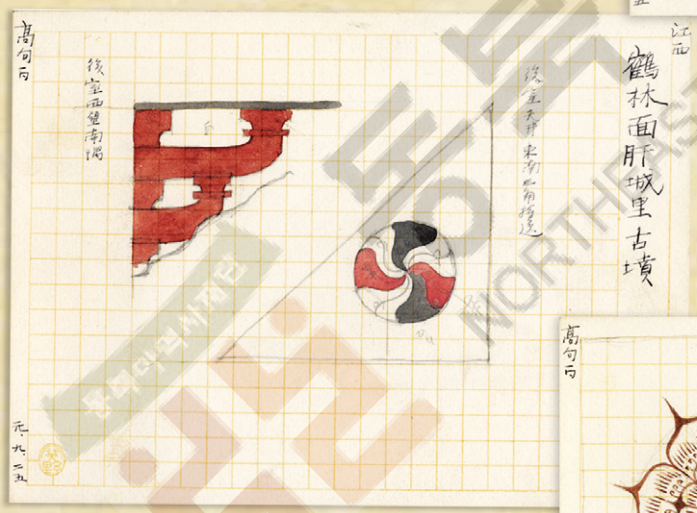


圖 157 _ 간성리 연화총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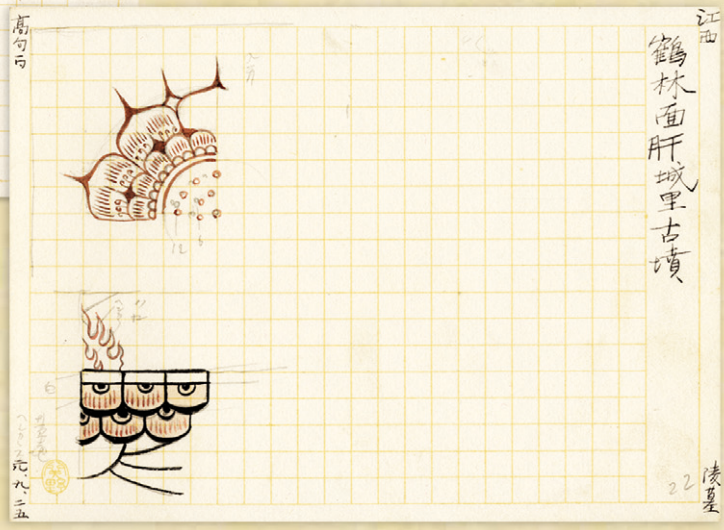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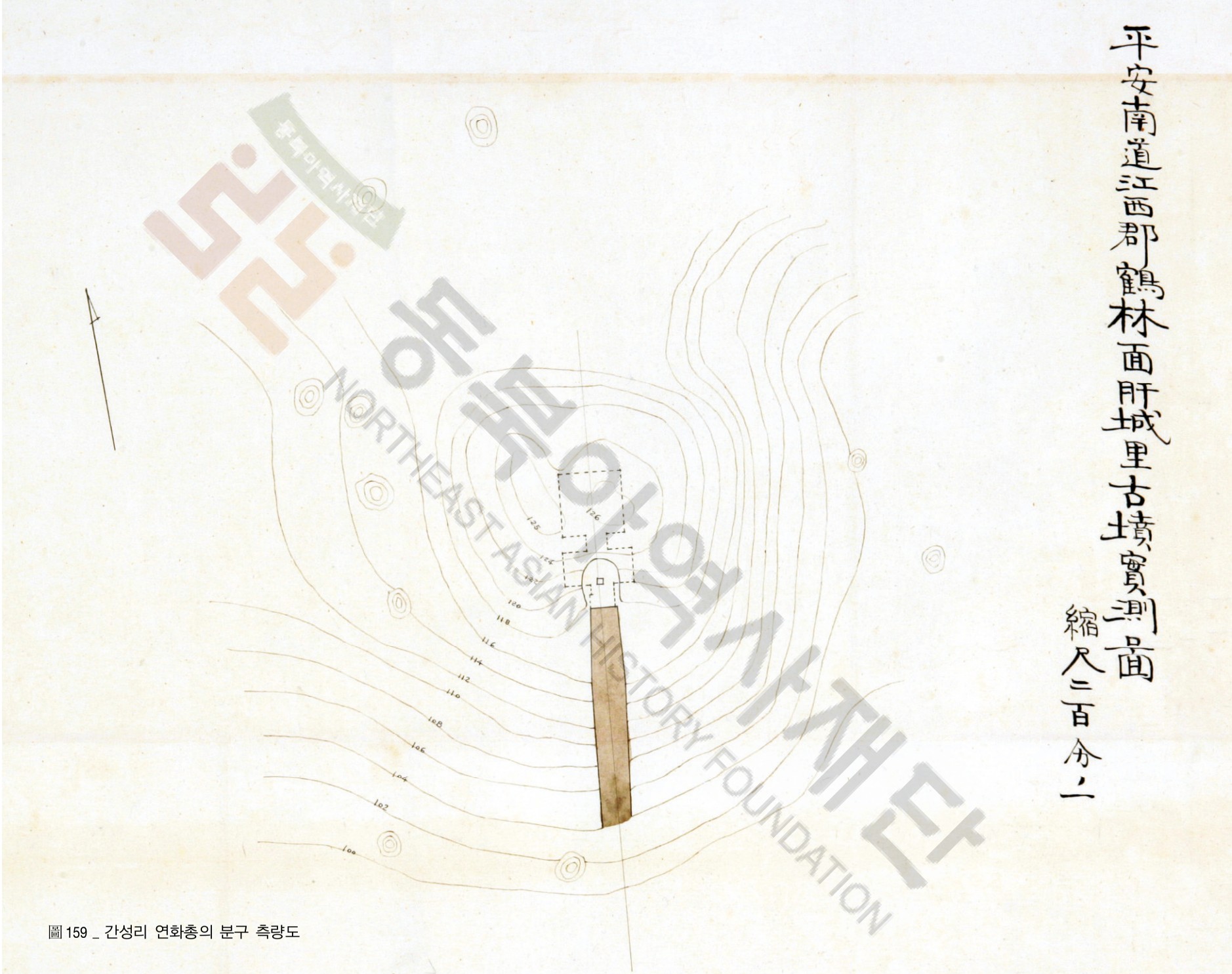


圖 158 _ 간성리 연화총 벽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159 _ 간성리 연화총의 분구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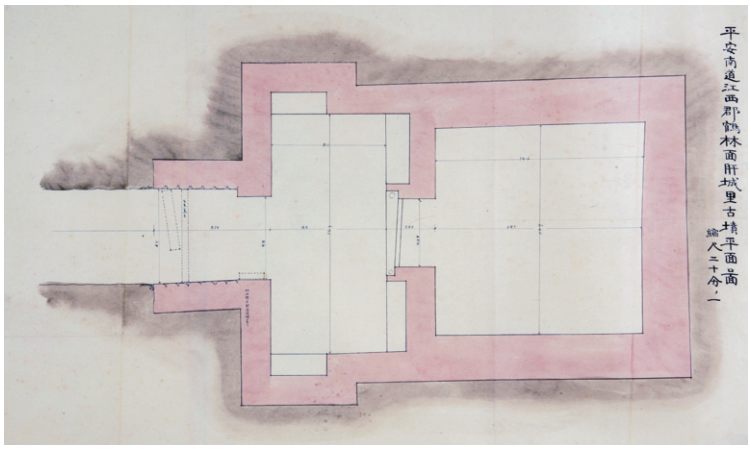


圖 160 _ 간성리 연화총 석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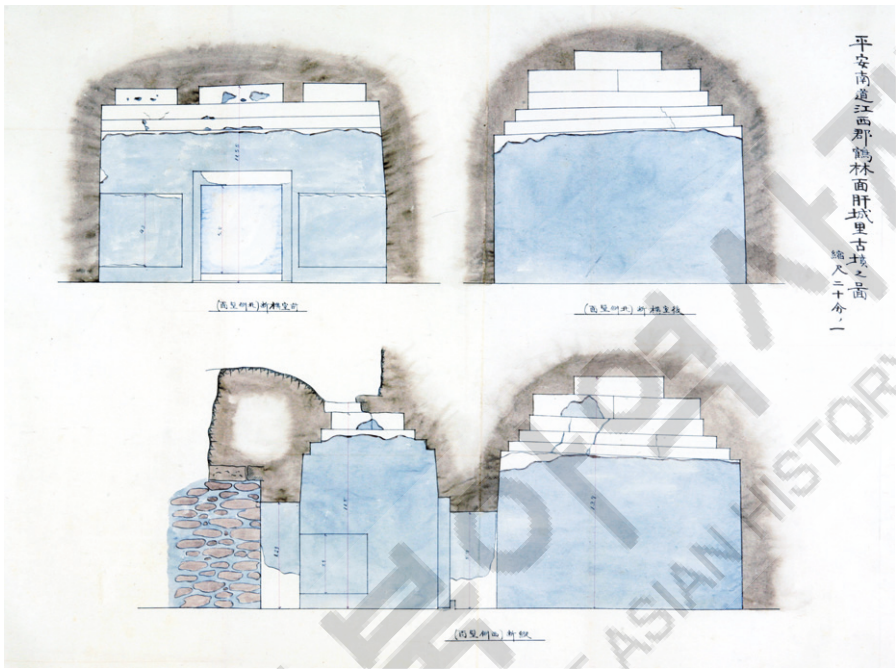


圖 161 _ 간성리 연화총
측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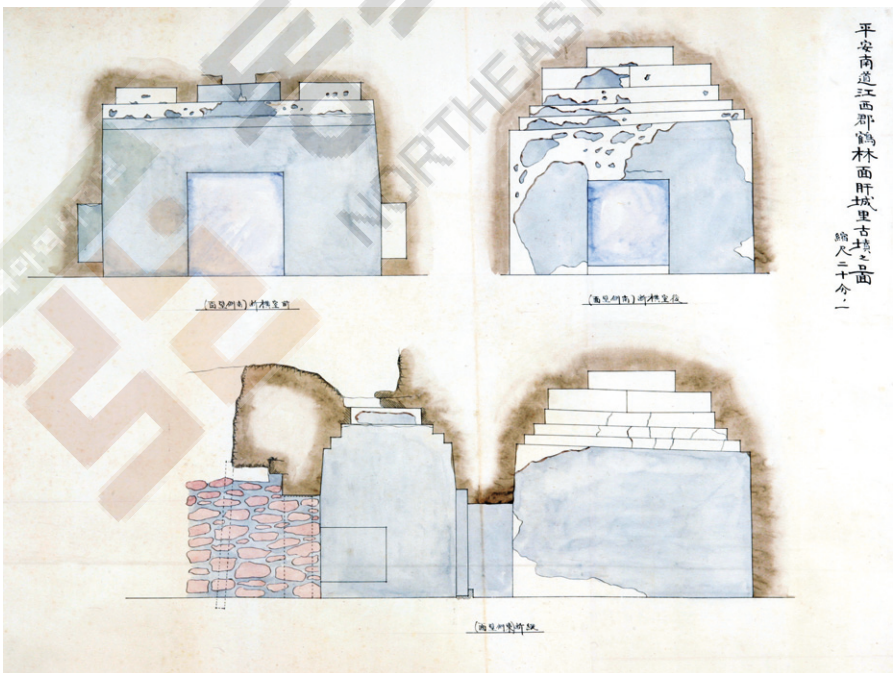


圖 162 _ 간성리 연화총
측단면도 2

이와이의 측량 실측

1913년도의 조사

1. 1913년도 고적 조사의 개요

1913년도에 이루어진 고적 조사의 중심 조사 대상은 고구려 고분이었다. 이 해의 고적 조사는 9월 중순에서 12월 4일까지 이루어졌는데, 9월 23일에서 25일까지는 매산리 고분군, 화산리의 대연화총과 성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안성동 대총, 쌍영총을 조사하였다. 그 후 집안으로 건너가 11일간 체재하면서 통구성, 산성자성, 장군총, 후방석총, 태왕릉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 때 집안에서 세키노가 작성한 고구려 고분의 도면과 조사 일지 등은 돌아오는 기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 소실되고 말았다.

1913년의 조사에서도 '세키노 조사단'의 세키노, 야쓰이, 구리야마가 주축이 되었지만, 1912년과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 영선과 소속의 이와이, 이왕가박물관의 촉탁 신분인 오타와 오바 쓰네키치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1913년의 조사에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의 '교과서 편찬을 위한 역사자료 수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사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진남포 방면을 조사할 때는 조선총독부 기수인 아이자와(相澤啓治)가 수행하였다.

한편 1913년 7월 10일에는 조선총독부 훈령 제43호가 발령되어 고분을 발굴하는 경우 경찰을 경유하여 조선총독부에 신청해야만 했다(內田 2001).[16] 세키노 조사단이 조사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 매산리 고분군

1) 매산리 고분군의 조사 경과

매산리 고분군은 진남포에서 서쪽으로 약 780m 정도 떨어진 구릉 위에 위치하며 행정구

16 우치다가 언급한 이 훈령을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內田 2001).

조선총독부 훈령 제43호

고분 발굴을 출원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갖추어 경무총장을 거쳐 총독부에 신청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출원자의 성명 2. 발굴 목적 3. 고분 소재지 4. 고분으로 명칭이 있는 것은 그 명칭 및 유래 전설 등 5. 관리자의 유무 및 있을 경우 승낙 6. 고분에 대한 그 지방 인민의 감상과 기타 참고할 사항

1913년 7월 10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역상 온천군 화도리에 속한다.

조사 당시 약 20여기의 봉토가 확인되었다(圖 177). 2기나 4기씩 짝을 이루어 동서로 늘어섰는데 세키노는 이러한 고분의 분포가 국내성 주변의 고분 분포와 닮았다고 판단하였다(關野 1914a).

매산리 고분군은 남쪽에서부터 동서로 몇 기의 고분이 나란히 늘어선 분포를 보인다(圖 163). 가장 남쪽에 2기가 열을 이루고 두 번째 행(行)은 고분 3기가 동서로 배열되었는데 가장 동쪽의 것이 사신총(狩塚)이고, 두 번째 행의 중간에 위치하는 고분이 남총(南塚)이다. 3번째 행도 3기가 동서로 열을 이루는데 그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은 석실이 드러나 있었다. 그 내부를 조사하고 이름을 중총(中塚)이라 하였다. 다섯번째 열에서 비교적 대형 고분 2기가 열을 이루나 서북쪽의 고분만이 석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조사하고 북총(北塚)이라 명명하였다. 고분군의 가장 북쪽에는 4기의 고분이 서북으로 약간씩 치우치며 늘어서 있다. 매산리 고분군을 찍은 원경사진을 보면 논으로 경작되는 계단식 사면 위에 형성된 구릉에 고분이 열을 지어 있어 한 눈에 고대의 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圖 164, 165).

원래 『조선고적도보』Ⅱ에는 사신총(四神塚, 狩塚) 사진만이 게재되어 단독으로 고분이 조사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세키노가 작성한 야장의 고분 배치도를 관찰하면 당시 모두 5기의 고분을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사되지 않은 나머지 고분들은 석실 자체가 붕괴되어 대규모 굴착 작업 없이는 내부 조사가 불가능한 것들이었다(圖 177). 이 중 4기의 고분에는 각각 이름을 지어주고 석실 내부를 간단히 그렸지만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고분은 조사했다는 표시가 있을 뿐으로 자세한 기록은 없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키노의 고분 약측도는 특히 학술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모두 소개하고자 한다.

2) 매산리 사신총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산리 사신총은 조사 후 일시적으로 수총(狩塚)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매산리 고분군 중에서 유일하게 벽화가 확인된 것이다. 매산리 고분군 중에서 사신총(狩塚) 발굴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에서 이루어졌다. 매산리 고분군을 세키노에게 처음 제보한 사람은 당시 진남포에 출장 중이던 전매국장 우에바야시 케이지로(上林敬次郎)이다. 그는 1912년에 매산리에 벽화가 있는 고분이 있다 하며 조사를 의뢰했지만, 세키노는 일정이 맞지 않아 당시 총독부 영선과 기사인 이와이와 오타에게 대신 발굴을 부탁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이 때 작성된 사진과 도면, 그리고 벽화의 모사를 본 세키노는 1913년의 고적 조사에서 가장 먼저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는 9월 23일 개시되었으며, 세키노는 구리야마와 함께 평양을 출발하여 진남포에 도착한 후 동리산 수도수원사무소 관사에 여장을 풀고 조사에 들어갔다. 다른 반으로 나뉘어져 흑교리에서 세형동검과 그 공반 유물을 조사하고 낙랑토성을 답사하던 야쓰이와 이마니시도 다음 날인 24일

매산리 현지에 도착하여 조사에 합류하였다(內田 2001; 高橋 2001).

사신총의 조사 내용 역시 세키노의 보고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關野 1913).

조사 시 세키노는 매산리 사신총 봉토의 외형이 흙만두와 같다고 하였다.

『조선고적도보』Ⅱ의 사진을 보면 연도가 있는 봉토의 일부에 약간의 굴착흔이 있다. 물론 1912년에 1차 조사가 있기 전에 전매국장이 벽화의 유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이미 도굴되었음이 분명하다. 세키노가 내부를 조사하고 약측한 것은 23일이다. 이는 조사에 착수하여 곧바로 석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세키노가 조사할 당시 이미 현실 남벽의 일부가 파괴되어 있어 그 구멍을 통해 겨우 석실 내부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圖 165).

이 고분의 현실은 연도가 동쪽으로 치우쳐 설치된 단실묘인데, 동서 길이 333cm, 남북 길이 305cm, 높이 132cm의 장방형 석실이다. 연도는 길이가 115cm, 너비가 약 100cm, 높이가 약 132cm이다. 현실은 네 벽을 곡선적으로 축약시킨 다음 평행으로 3단 내어쌓기를 하고 그 위에 2번에 걸쳐 삼각고임돌을 놓고 천장석으로 마감하였다. 벽은 적당한 크기의 석재를 쌓아서 만들었는데 석재의 틈새에는 석회를 섞은 점토로 충전하였다(圖 166, 167, 181~184). 벽면은 석회를 4번 겹쳐서 발랐는데 3번째 발라진 석회까지는 짚을 섞었음이 확인된다. 가장 바깥쪽의 화면에는 고운 석회만을 발랐다(關野 1913a, b).

현실의 네 벽에는 소위 사신도를 그렸는데, 넓은 면에는 인물과 말을, 남벽에는 주작을 서로 마주보게 그려 넣었다. 동벽에는 청룡을, 뒤의 약간 높은 곳에는 기마 인물을, 중앙의 위에는 태양, 즉 삼족오를 그려 넣었다. 서벽에는 백호를 그리고, 중앙 상부에 수렵도가 있다. 말을 탄 사람이 앞서 달리는 두 마리의 사슴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 위에는 태음, 즉 두꺼비를 그렸다. 북벽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네 사람이 상 위에 앉았는데 그 좌우에는 기둥을 세워 그 기둥이 천개와 같은 것을 받치고 휘장을 쳐서 중앙과 좌우 단에 한식(幹飾)을 만들었다. 그 사이에 흰 봉의 끝에 방울을 매단 형상을 표현하였다. 네 명의 인물 중에서 동쪽의 한 사람은 남자인데 가장 크고 정중하게 앉아 있다. 아마 이 사람이 주인공일 것이다. 다른 세 사람은 부인이거나 첩일 것이다. 사람의 동쪽에는 사람이 말을 끄는 모습을, 서쪽에는 현무를, 그리고 그 위쪽에는 북두칠성을 그렸다. 천장 아래의 두 번째 고임돌에는 일종의 운문을 세 군데씩 만들었다. 세 번째 고임돌에는 연속하는 당초문과 같은 것을 만들어 두었다(關野 1913a, 1913b).

조사 당시 각 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벽을 타고 내린 누수된 빗물로 인해 훼손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도쿄대학에 남아 있는 고분 석실의 실측도로 보아 연도는 적당한 크기의 돌로 쌓아서 만든 다음 그 위를 석회로 발라 마무리했음을 알 수 있다. 네 벽의 벽면에 발린 석회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나 하단을 따라 박락이 진행되는 부분도 관찰된다(圖 173~176).

조사 후 세키노는 매산리 사신도를 1913년 기준으로 1500년 전이라 하여 당시 발견된 고구려 벽화고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 판단하였다(關野 19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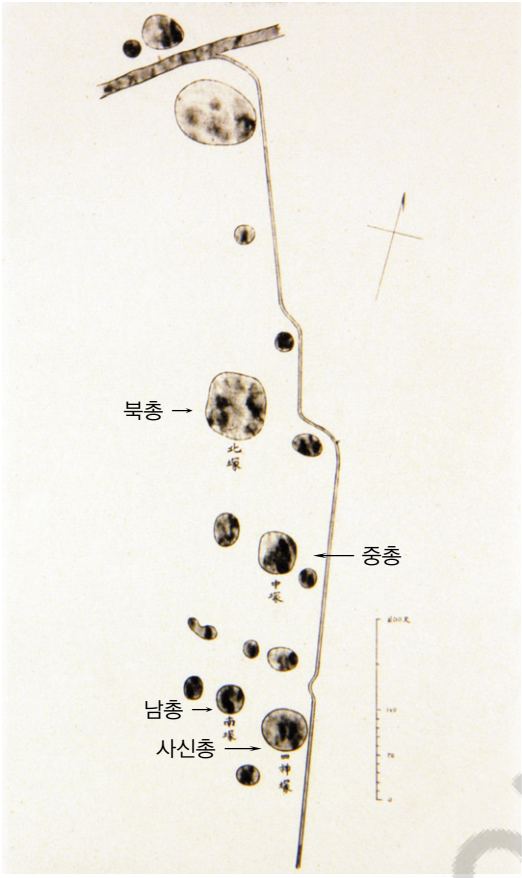


圖 163 _ 매산리 고분군 분포도



圖 164 _ 매산리 고분군의 원경



圖 165 _ 조사 중인 매산리 사신총



圖 166 _ 매산리 사신총 석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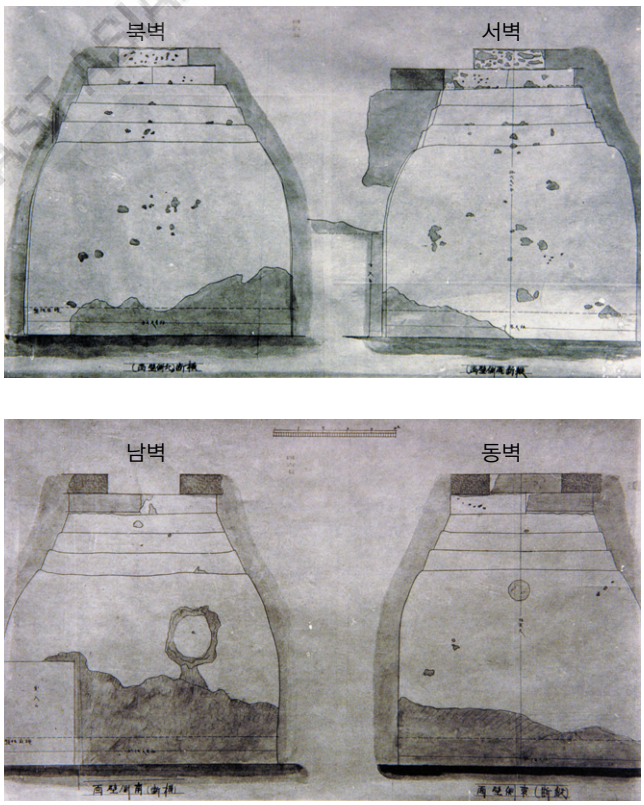


圖 167 _ 매산리 사신총 측단면도



圖 168 _ 매산리 사신총의 모줄임부 벽화(사진)



圖 169 _ 사신총의 인물도(사진)



圖 170 _ 사신총의 인물도(모사도)



圖 171 _ 사신총의 인물 세부



圖 172 _ 현실 북벽의 말 끄는 인물



圖 173 _ 사신총의 청룡(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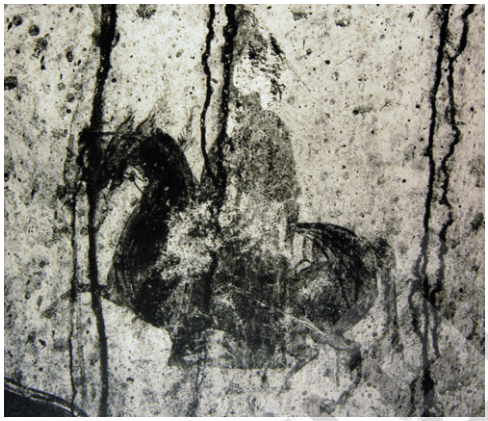


圖 174 _ 기마 인물상(사진)



圖 175 _ 수렵도(사진)



圖 176 _ 매산리 사신총 남벽의 주작(사진)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사신총(수총)의 사진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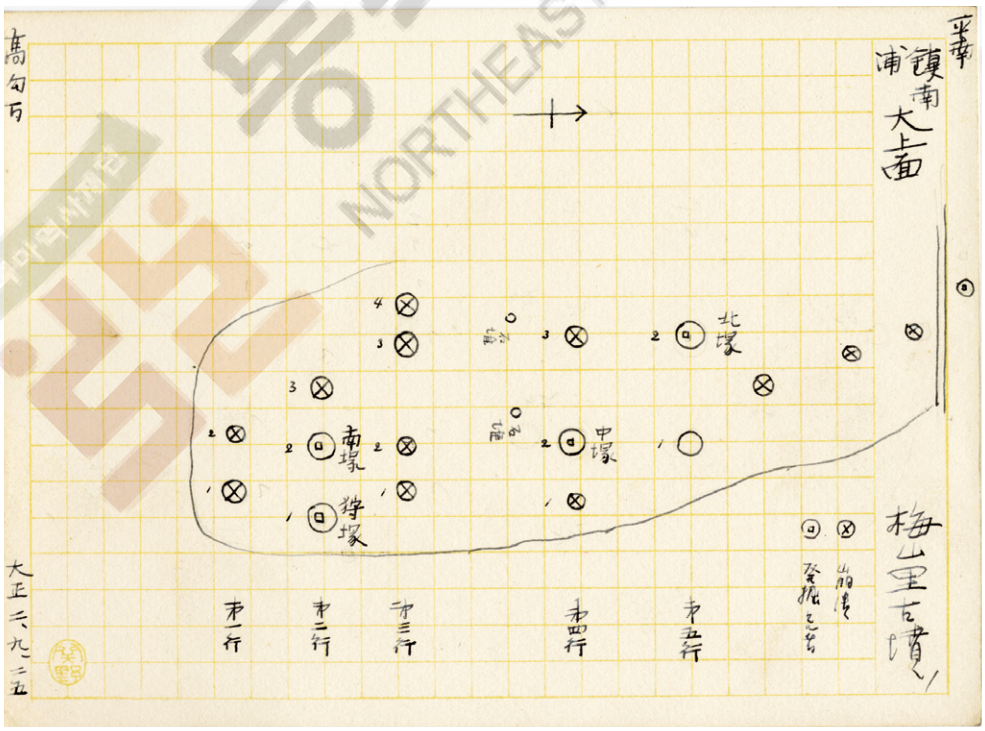


圖 177 _ 세키노가 작성한 매산리 고분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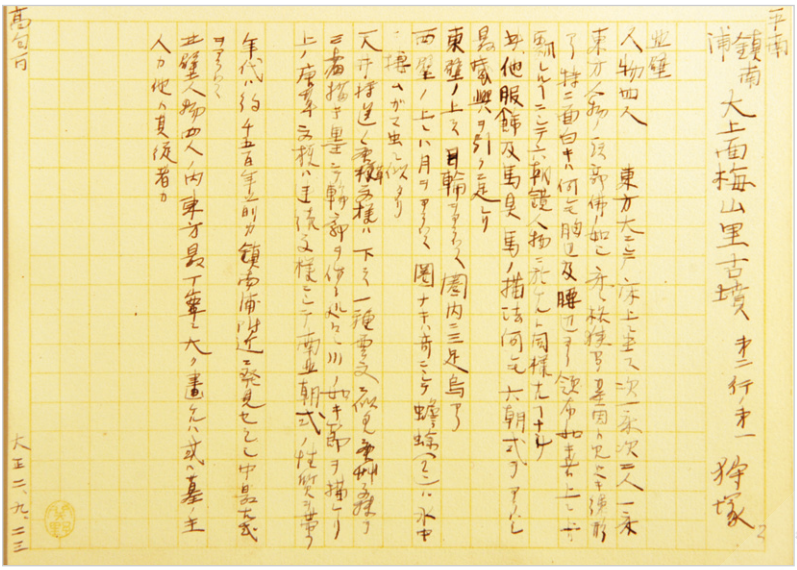


圖 178 _ 현장 조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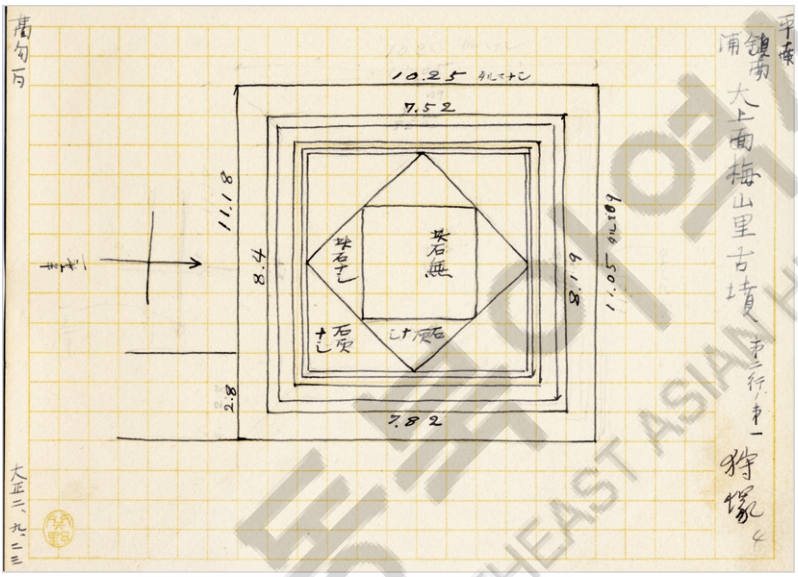


圖 179 _ 사신총 현실의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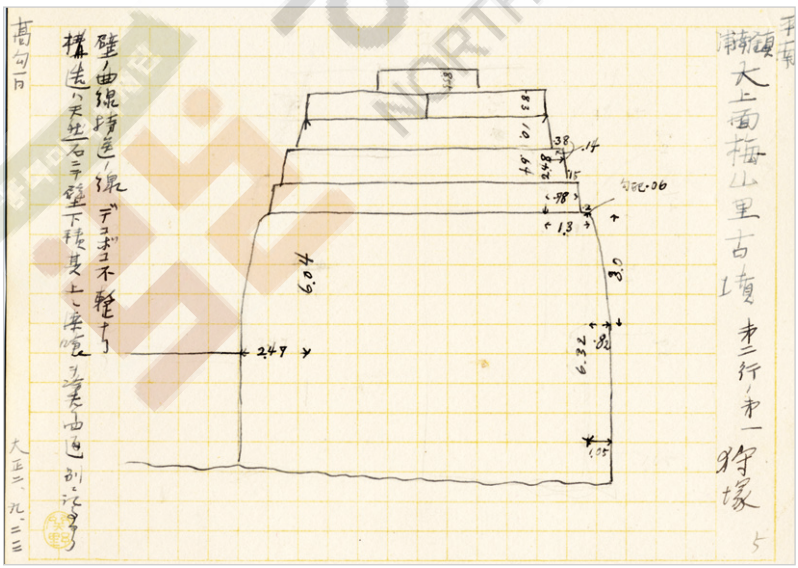


圖 180 _ 사신총의 측단면도

세키노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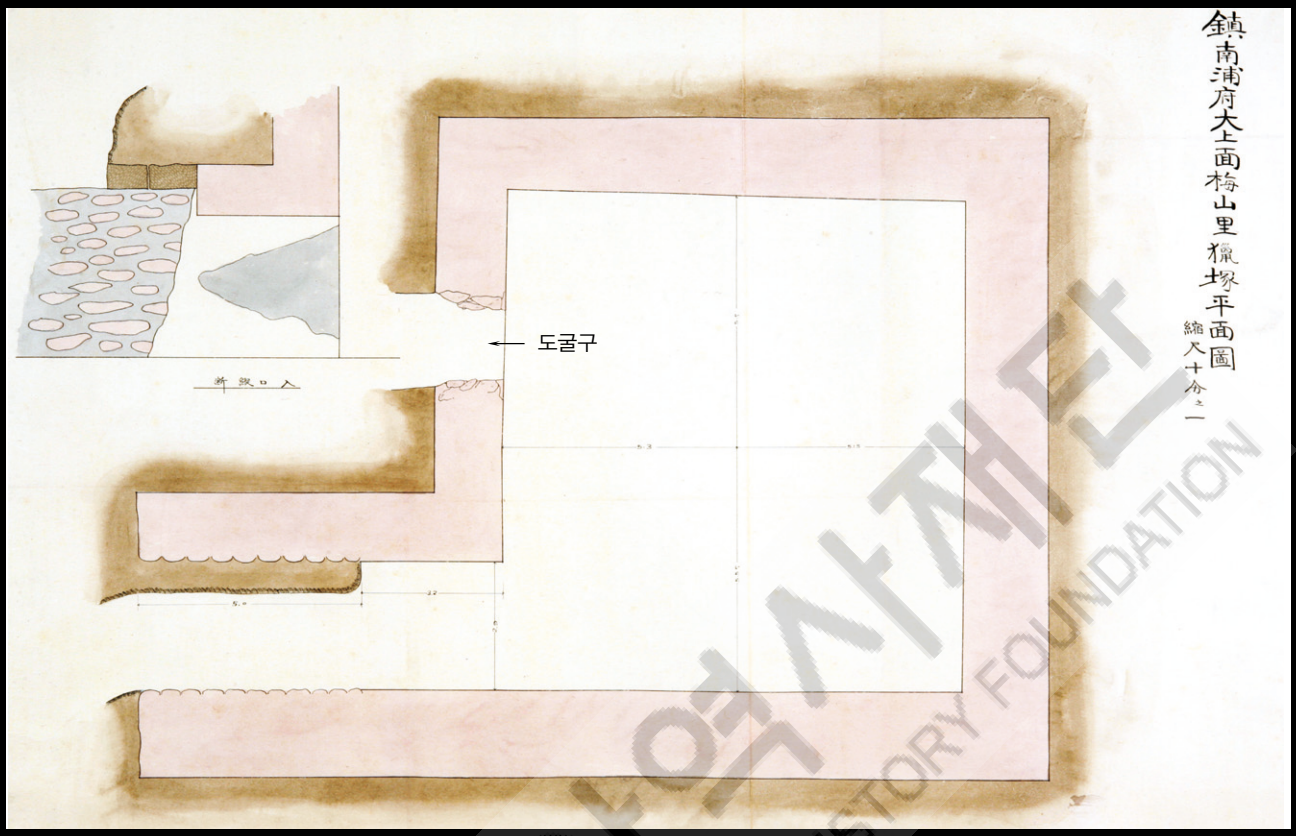


圖 181 _ 매산리 사신총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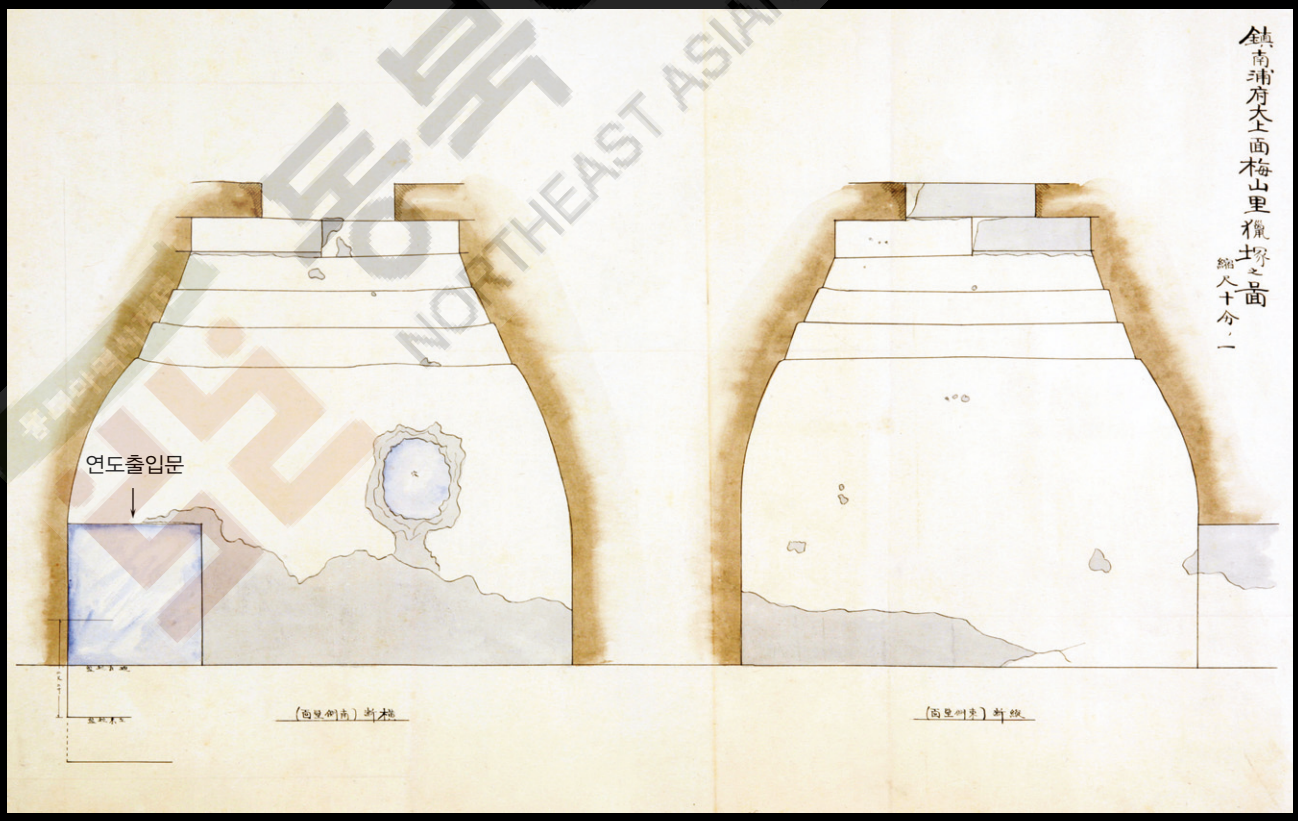


圖 182 _ 매산리 사신총의 남벽(왼쪽)과 동벽(오른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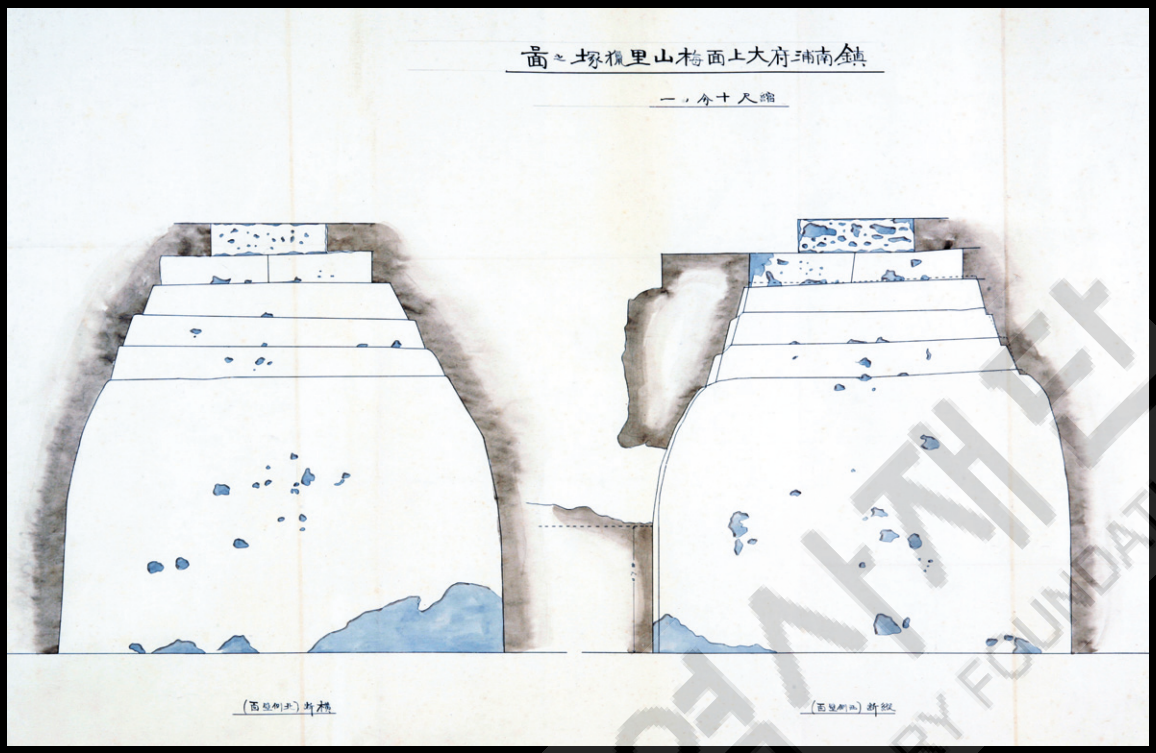


圖 183 _ 매산리 사신총의 북벽(왼쪽)과 서벽(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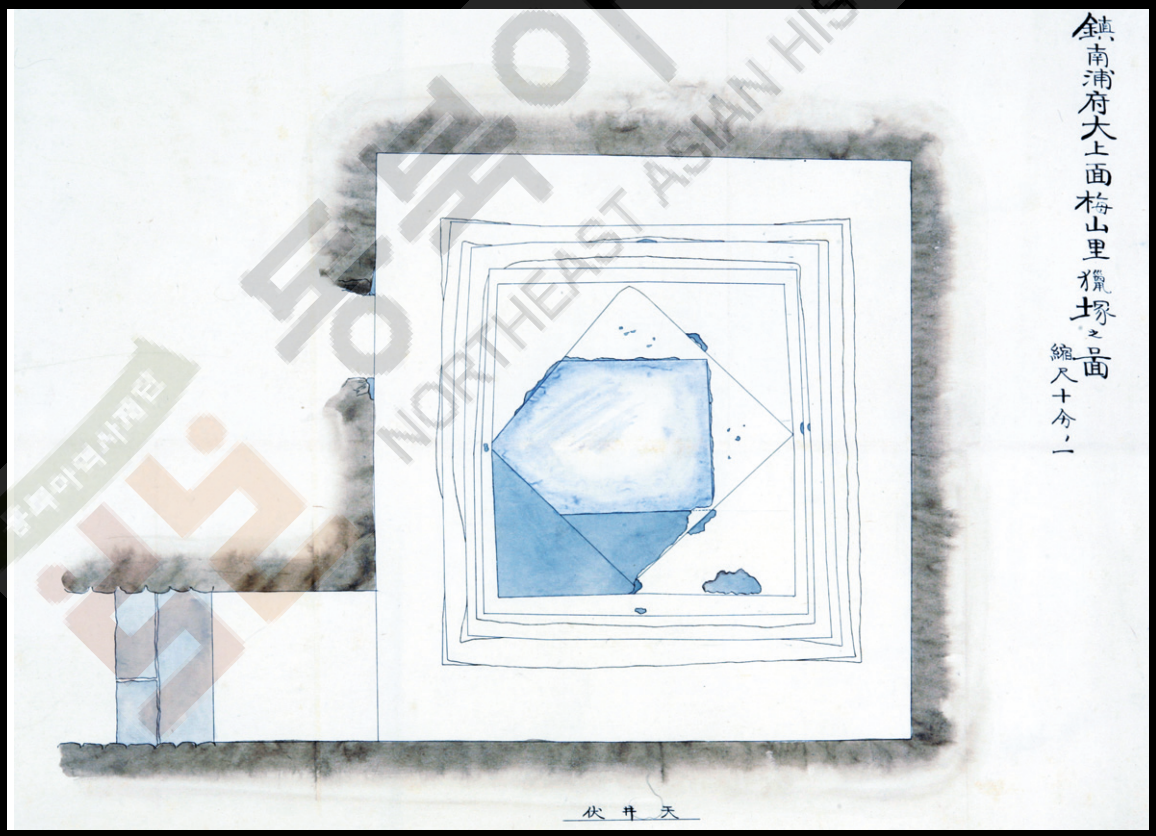


圖 184 _ 사신총의 천장 실측도

이와이의 석실 도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185 _ 매산리 사신총의 청룡



圖 186 _ 사신총의 주작



圖 187 _ 사신총의 인물상



圖 188 _ 사신총의 수렵도

오바의 벽화 모사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매산리 남총

매산리 남총(南塚)에 대한 보고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세키노가 1913년 9월 25일 작성한 야장에 그려진 약측도(圖 189)를 바탕으로 고분의 성격을 살피기로 한다.

세키노가 그린 남총의 야장에는 동서 방향의 입단면도와 천장도가 그려져 있다. 이를 관찰하면 고분은 연도가 동쪽으로 치우친 단실묘임을 알 수 있다. 고분의 축조에는 적당한 크기의 돌이 사용되었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 것이 분명하다. 현실벽은 거의 수직벽으로 축조되었고 남쪽과 북쪽의 천장에는 네 번 단을 주면서 면을 좁혔고 동서는 두 번 단을 만들었다. 그 위에는 두 번에 걸쳐 모서리를 삼각모죽임한 다음 천장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세키노의 야장에 표현된 석실 모서리 부분에 석재의 이음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석실 안쪽의 천장부 전체에 석회를 두껍게 발랐음을 알 수 있다.

연도와 현실이 만나는 연문에는 이맛돌이 연도보다 한 단 낮게 설치되었다. 석실은 남북 길이가 250cm, 동서 길이가 182cm이다. 연문의 폭은 86cm이다. 조사 당시 연도와 석실 내부에는 토사가 절반 이상 차 있었는데 현실 천장이 뚫렸다는 기록이 없고 도면에도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도를 통해 석실로 들어가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장에는 "지금 석회는 거의 전부가 박락되어 일부만이 남은 석면(石面)이 노출되었음"이라는 관찰 소견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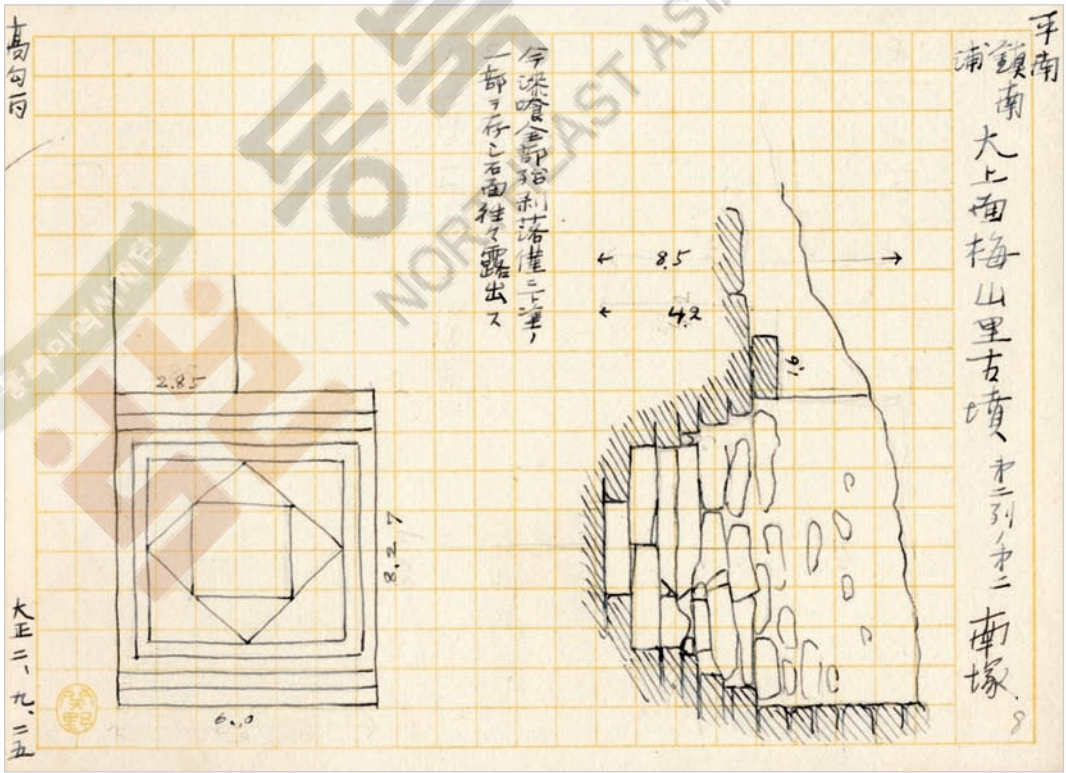


圖 189 _ 세키노가 약측한 매산리 남총

4) 매산리 중총

매산리 중총(中塚) 역시 『조선고적도보』 Ⅱ 는 물론 어디에도 보고가 확인되지 않는 고분인데, 세키노가 남긴 야장 자료에 고분 약측도 2장의 남아 있다(圖 190, 191).

야장에 1913년 9월 24일이라는 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총보다 하루 일찍 조사된 것이다. 고분은 연도를 동쪽으로 치우쳐 달아낸 단실묘이다. 현실의 평면형은 장방형으로 동서 길이가 247cm, 남북 길이가 283cm이다. 연문의 폭은 83cm이고, 문 시설의 길이는 87cm이다.

조사 당시 현실 바닥에는 토사가 3분의 2 이상 찬 상태였는데, 현실 천장과 토사의 상면은 227cm 정도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네 벽은 거의 수직벽으로 천장은 고임돌을 3단 내어쌓기하여 면적을 줄인 다음 그 위는 두 번의 삼각고임으로 모서리를 줄인 다음 천장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고분은 네 벽과 천장 표면을 석회가 곱게 화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천장석 아래에 바른 석회는 박락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야장에는 "전부 석회를 칠했는데 잘 남아 있다. 네 번에 걸쳐 석회를 발랐는데 약간 회색을 띤다"라는 관찰 소견이 적혀 있다.

석실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벽화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사진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출토 유물에 대한 언급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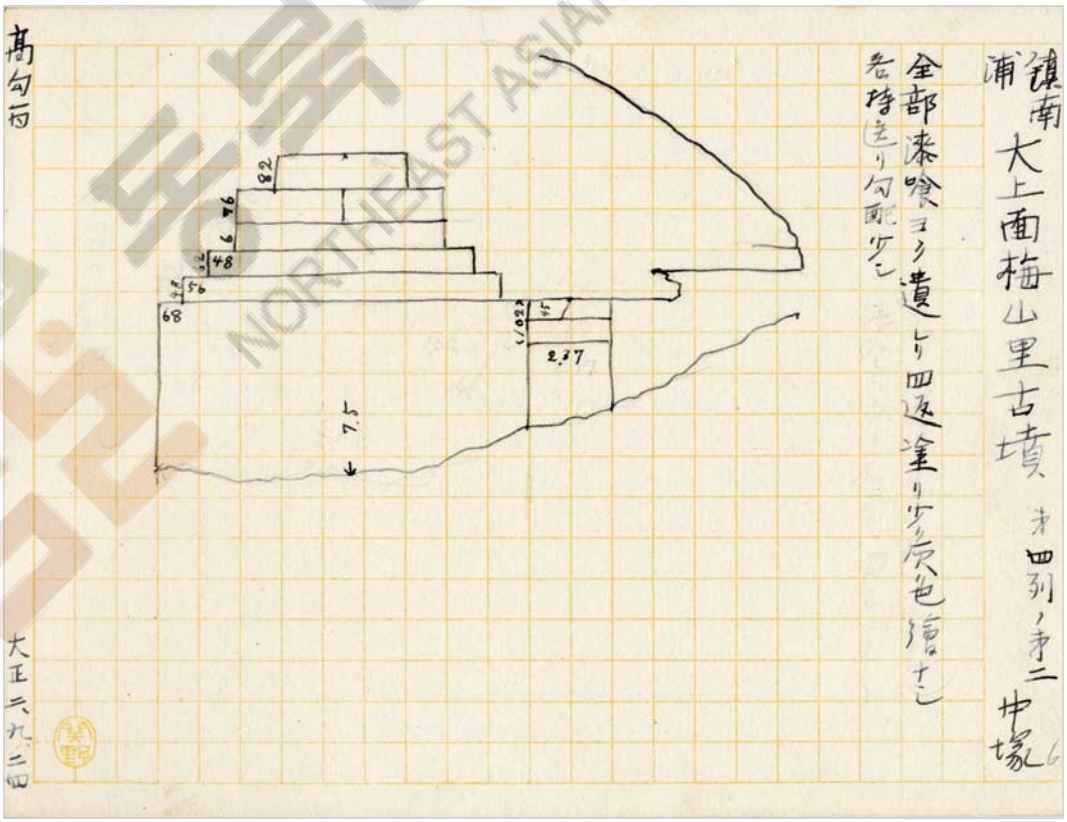


圖 190 _ 매산리 중총의 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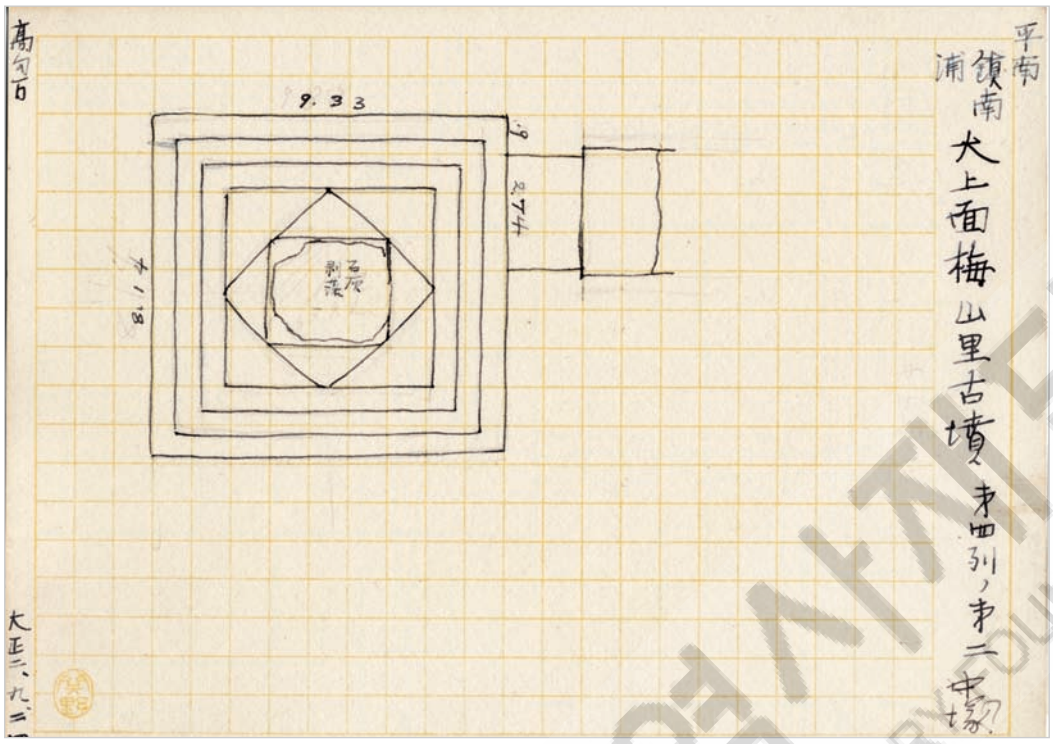


圖 191 _ 매산리 중총의 천장도

5) 매산리 북총

매산리 북총(中塚)도 세키노 야장에 석실의 입단면도와 천장 그림이 남아 있다.

고분은 연도를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달아낸 단실분인데, 현실은 남북이 동서보다 긴 장방형이다. 현실의 네 벽은 수직벽인데 천장은 남총, 중총과 거의 유사하게 3단으로 평행내어쌓기하여 면을 줄이고 모서리에도 2단으로 고임석을 놓아 면을 줄인 다음 천장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천장의 표현 방법으로 보아 석실 내부는 축조를 끝낸 후 석회로 표면을 곱게 발랐음을 알 수 있다(圖 193).

현실의 크기 정보는 약측도의 해당 부위에 적어 두지 않았다. 그런데 천장도의 모서리에 연필로 써둔 척 단위의 수치가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현실의 남북이 264cm, 동서가 약 232cm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의 크기를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연도는 현실의 천장보다 낮게 축조하고 연문의 이맛돌은 그 아래로 더욱 내려서 결구하였다.

북총 역시 연도에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토사가 현실의 일부를 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키노 일행은 남쪽의 연도로 난 좁은 도굴갱을 따라 현실로 들어가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봉토에는 연도를 향해 거의 수직으로 도굴갱이 형성되어 있었다.

매산리의 다른 고분과 마찬가지로 출토 유물에 대한 정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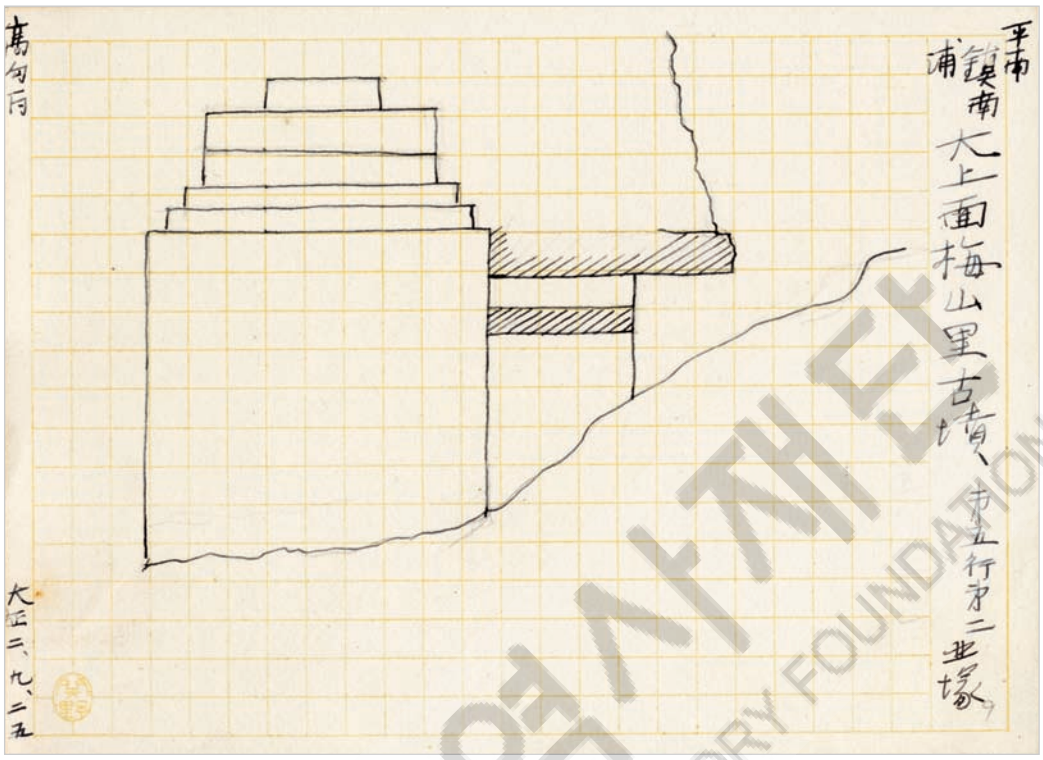


圖 192 _ 북총의 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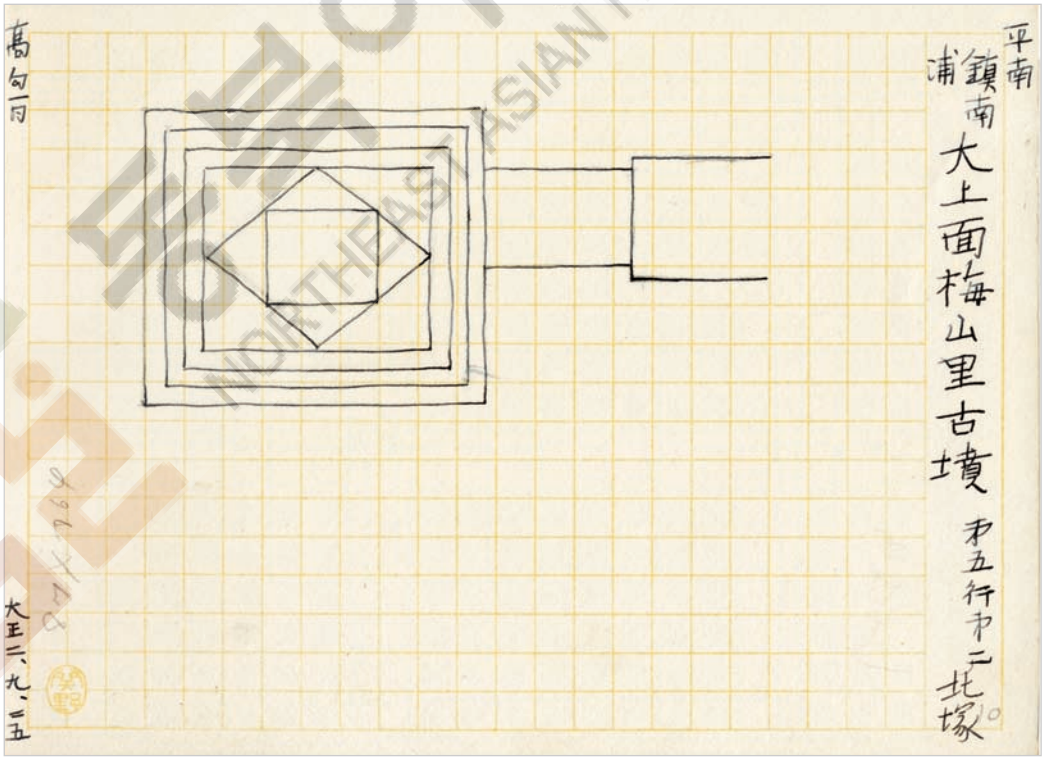


圖 193 _ 북총의 천장도

세키노의 매산리 고분 조사 현장 기록

3. 신북면 화상리 고분군

화상리 고분군에 대해서도 『조선고적도보』Ⅱ에 약간의 도면과 사진이 소개되었을 뿐 정작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조사 경과와 내용은 세키노가 1914년 2월자 『건축잡지(建築雜誌)』 326호에 실은 「朝鮮江西の高句麗古墳」이 가장 자세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도보의 사진과 세키노 야장을 참조하여 조사 내용을 정리한다.

화상리 고분군은 위에서 설명한 매산리 고분군에서 서북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화상리의 구릉 위에 수십 기로 이루어진 고분군이다(圖 195). 사진을 통해 보면 매산리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구릉 위에 다수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이 멀리서도 보인다. 그 분포를 보면 남쪽에 4기가 동서로 열을 이루며 배열되고, 그 다음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4기가 다시 서쪽으로 가면서 열을 만들고 있다. 가장 북쪽에도 3기가 동서 방향에 가깝게 열을 이루고 있다(圖 194).

두 번째 열의 동쪽에 위치하는 고분이 가장 크고 현실 내에 벽화도 확인되는데 벽화의 일부에 연화문이 있기 때문에 조사단은 이를 '대연화총(大蓮花塚)'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감신총으로 통용되는 고분이다. 대연화총에서 북쪽으로 16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4 · 5기의 고분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서쪽 고분 현실에 벽화가 있다. 그런데 고분의 천장에 별모양의 문양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성총(星塚)'이라 하였다(圖 194).

1) 조사 경과

화상리의 고구려 고분은 세키노가 조사하기 한 해 전인 1912년에 이왕직 사무차관인 스에마쓰 쿠마히코(末松熊彦)가 굴착해서 보고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불분명하다(關野 1914a).

고분군의 조사에는 세키노, 구리야마, 야쓰이, 이마니시가 참가하고 총독부에서 파견된 이와이가 고분의 실측을 맡았으며 이왕가박물관 촉탁의 신분으로 수행한 오타와 오바가 고분벽화의 모사를 담당하였다. 세키노가 고려한 고구려 벽화고분 조사 시의 전공에 따른 역할분담이다. 세키노의 야장에는 1913년 9월 24일과 25일에 작성된 화상리 대연화총의 약측도가 남아 있다(圖 209~214). 즉 화상리 고분군 조사는 상술한 매산리 고분군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세키노 조사단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두 고분군을 작업 진행 상황에 맞추어 왕래하면서 동시에 내부 조사를 진행했음이 틀림없다.

고분에는 세키노 일행이 조사에 착수하였을 때 이미 석실로 통하는 출입구(도굴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고적도보』Ⅱ의 사진에는 석실 내부에서 퍼 낸 것으로 보이는 토사 무더기가 봉토 앞에 쌓여 있다(圖 196). 그런데 세키노의 야장에는 연도와 석실 내부에 토사가 차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圖 212) 세키노에 의한 고분의 내부 관찰이 끝난 다음에, 도면과 벽화의 모사 작성을 위해 오바와 이와이가 석실 내부의 토사 반출과 정리 작업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석실 내부로 유입된 토사 때문에 세키노가 그리지 못

한 석실 바닥과 벽면 하단을 이와이는 자신의 도면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圖 216, 217). 쌍영총과 안성리 대총(용강 대총)의 조사가 이미 26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세키노에 의한 화상리 고분의 조사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로 한정되었을 것이다.

2) 대연화총

대연화총(大蓮花塚)은 그 내부가 현실과 전실로 이루어진 이실묘인데 전실의 남쪽 거의 중앙부에 긴 연도가 달린다(圖 197~211, 212). 전실은 장방형으로 크기가 작은 편인데, 동서 약 242cm이고, 남북 152cm 정도이다. 전실 좌우벽에는 장방형 감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고분이 감신총으로도 불리는 이유이다. 감실은 세키노의 야장에서 그 크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벽의 감은 상부 폭이 60cm, 하단 폭이 약 75cm, 높이가 110cm 정도이다. 반대쪽(서쪽)의 감실은 이보다 약간 작아서 상단 폭이 59cm, 하단 폭이 69cm, 높이가 약 108cm이다. 전실의 네벽은 모두 위로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만곡하며 천장에 도달한다. 전실 천장은 곡선적으로 좁아져 오던 벽을 방형으로 마무리하였다. 전실 벽면 전체가 석회로 미장되어서 고임돌에 의한 모줄임 시설은 관찰할 수 없다. 전실 천장의 높이는 토사가 바닥에 깔려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217cm 정도이다. 벽면과 천장에는 전면에 회를 바르고 각 화면에는 여러 주제의 벽화를 그려 넣었다. 네 벽 모서리에는 굵은 기둥이 그려져 있고 기둥 머리 위에 이중으로 두홍을 얹었다. 남벽의 서쪽 아래에는 마차 바퀴가 그려져 있고 가까이에 인물이 표현되었다. 전실 서쪽의 감 안에는 인물이 대좌 위에 앉아 있다. 대좌의 아래에는 연좌(蓮座)와 같은 장식이 그려져 있고 그 좌우에는 각각 시자(侍者)들이 늘어서 있다. 감실(龕室) 내 인물의 상방에는 휘장을 묶은 듯한 문양이 있고 그 좌우 공간은 '王' 자로 채웠다. 감의 좌우 측벽에는 시자 2인이 아래 · 위로 그려졌다. 또한 감실의 좌우 벽에도 상 · 하로 부인 입상을 배치하였다. 동벽 쪽의 감 안에도 동일하게 인물을 그려 두었는데 역시 좌우에 시종이 늘어서 있다. 왼쪽에 공물(供物)을 들고 오른쪽에는 깃발 같은 것을 들었다. 인물 위로 걷어둔 휘장이 표현되었으며 그 뒤쪽으로 일종의 화염문을 배치하였다. 측벽에는 또한 각각 두 인물이 있다. 감 좌우 벽에 있는 2인 중 위의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두 손을 맞잡고 서있고 왼쪽의 인물은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 아래의 인물은 화면이 박락되어 분명하지 않다. 북벽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 서쪽 아래에는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공양하는 모습을 그렸다. 상부 및 동쪽은 박락되어 분명하지 않다.

전실 네 모서리의 두공(斗拱) 위에는 4면에 들보가 걸쳐진 상태를 그렸는데 들보면에는 당초문을 그리고 그 위로 일종의 화염문을 장식하였다. 북벽에는 연화를 그리고 양쪽으로 주작을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마주보는 주작 사이에는 작은 새가 여러 마리 표현되어 있다. 전실의 연도에서 입구 좌우 벽과 동쪽 벽은 박락이 심하고 서쪽에는 기마 인물

4명이 표현되어 있으나 식별이 어렵다. 전실과 현실의 중간 입구 동벽에는 커다란 인물이 그려졌지만 분명하지 않고 서벽은 박락되어 식별하기 힘들다.

현실은 전실과 연결 통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위치하는데, 동서가 262cm이고 남북이 261cm로 정방형에 가깝다. 현실벽도 전실과 마찬가지로 곡선을 그리며 천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위에 고임돌을 이용하여 2단으로 평행내어쌓기 하고 그 위에 천장석을 덮어서 마무리하였다. 현실의 벽면 전체에는 두껍게 석회를 발랐으나 군데군데 박락이 진행되었다. 현실의 네 모서리에는 두공을 얹은 기둥이 그려진 벽화가 있다. 그 위에 들보를 올린 점은 전실과 같으며, 남벽은 이 들보 위에 화염문을 장식하였다. 운기문을 그리고 그 중앙에 주작을 그렸지만 박락되고 다리만이 보일 뿐이다. 서쪽에는 소나무가 표현되었고 동쪽은 박락되었다. 동벽은 전부 붕괴되었고 서벽은 들보(梁) 위에 소나무 같은 것을 그리고 아래에 산과 수목을 도안하였다. 말을 타고 시위를 당기는 수렵 장면이 그려져 있다(關野 1913b).

현실과 전실을 연결하는 통로는 자연석에 석회를 먹이면서 쌓았다. 통로의 천장은 전실에 설치한 감실과 그 높이를 같이 하였는데 통로의 벽면도 석회로 마무리 미장한 것이다. 전실의 동벽에는 도굴 구멍이 나 있는데 세키노는 이 구멍을 통해서 고분 내부로 들어갔을 것이다. 세키노의 야장에는 고분 바닥면이 그려져 있지 않다. 이는 연도와 석실 내부로 일정 정도 토사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이의 실측도에는 바닥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세키노의 조사 뒤에 이와이에 의한 추가 조사가 계속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연도를 포함한 전실, 현실의 축조에는 적당한 크기의 돌들이 사용되었는데 축조 과정에서 석회를 먹인 것이 관찰된다. 바닥 부분의 실측도에도 폐쇄 시설은 관찰되지 않는다.

세키노의 야장에는 전실의 감 서면에 있었던 기둥과 인물상을 채색하여 그린 것이 있다. 전실 서쪽 감실의 북쪽 벽에 설치된 기둥 사이의 여인, 주인공이 앉은 곳의 연화문 대좌, 전실 북벽 상부에 그려진 연화문 등도 채색되어 남아 있다(圖 213~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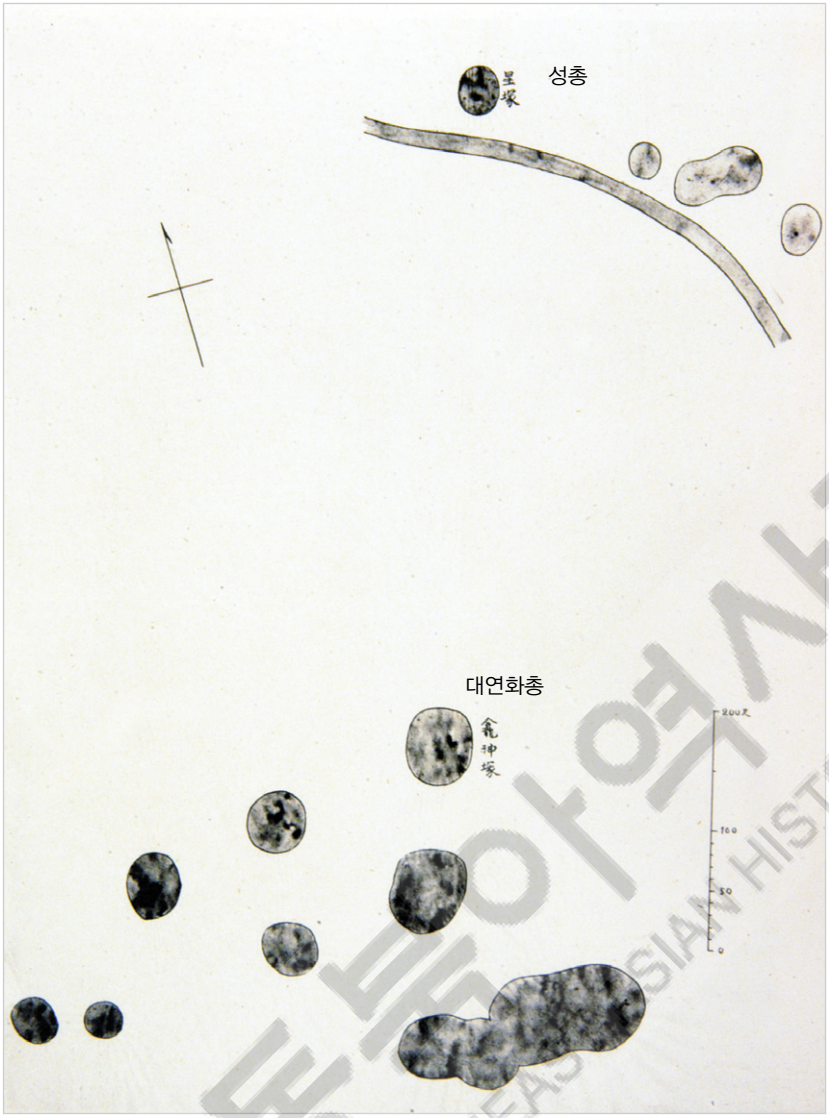


圖 194 _ 화상리 고분군의 분포도



圖 195 _ 화상리 고분군의 원경



圖 196 _ 화상리 대연화총 발굴 광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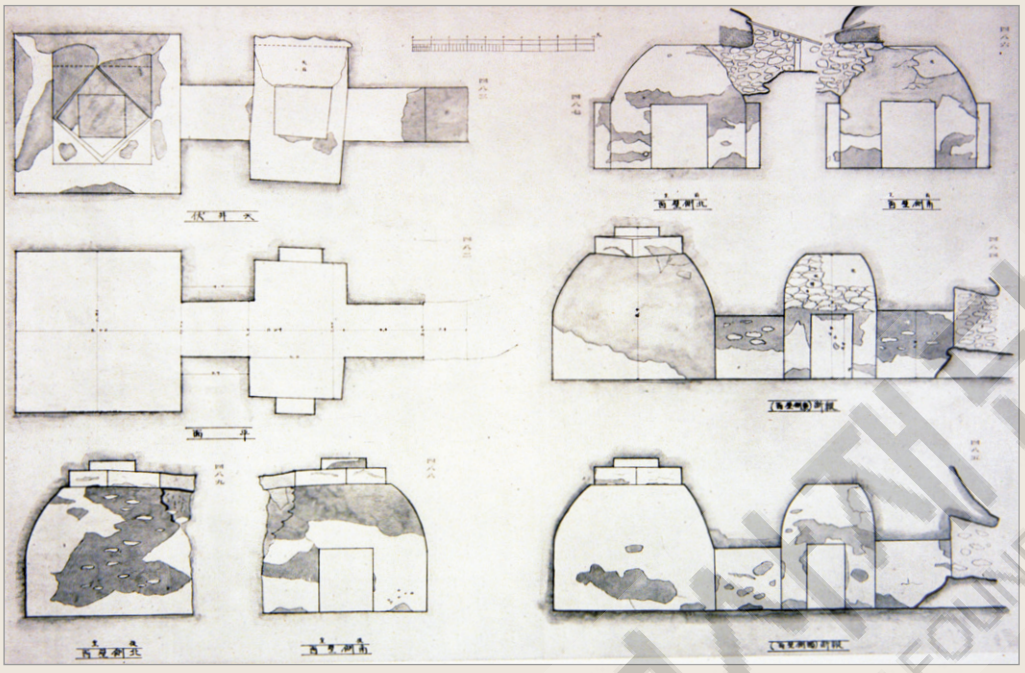


圖 197 _ 대연화총의 실측도 각종



圖 198 _ 대연화총의 내부 투시도



圖 199 _ 인물상(사진)



圖 200 _ 동쪽 감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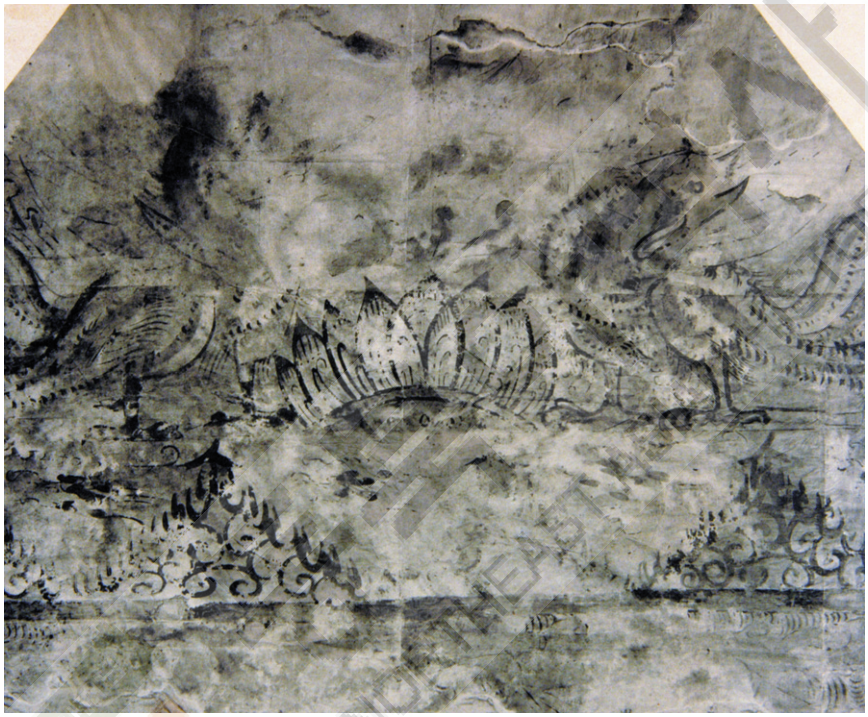


圖 201 _ 현실 남벽 상부의 주작(사진)



圖 202 _ 인물상(모사도)



圖 203 _ 주인공 좌상(모사도)



圖 204 _ 서쪽 감실 좌 · 우벽의 인물상(모사도)



圖 205 _ 전실 북벽 서측의 인물상(모사도)



圖 206 _ 서쪽 연도의 기마 인물상(모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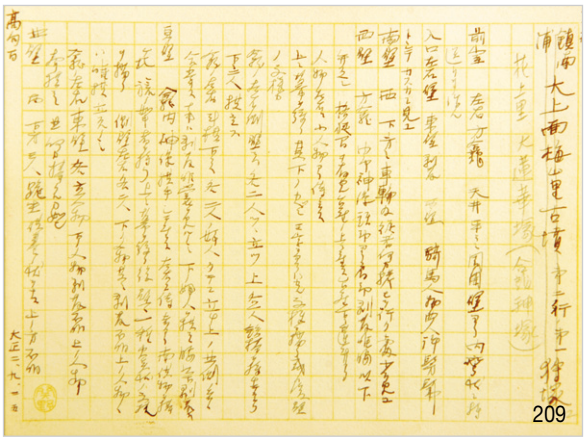


圖 207 _ 전실 남벽 서측의 인물상(모사도)



圖 208_ 각종 인물상(모사도)

『조선고적도보』의 도면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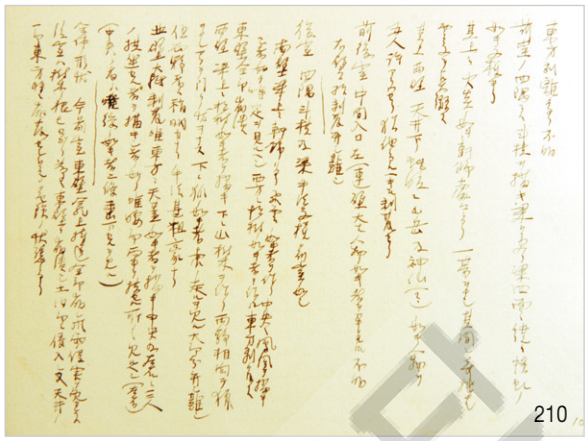


圖 209~210 _ 세키노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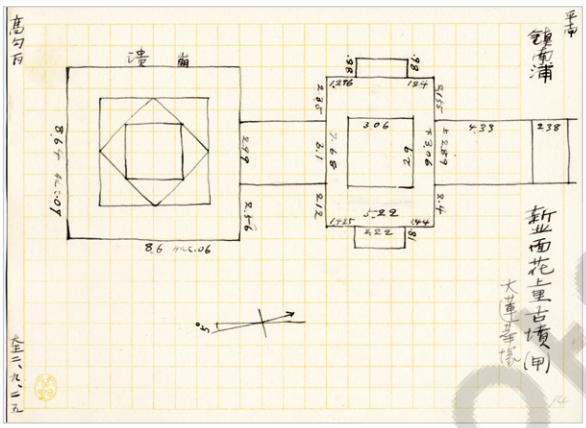


圖 211 _ 석실 천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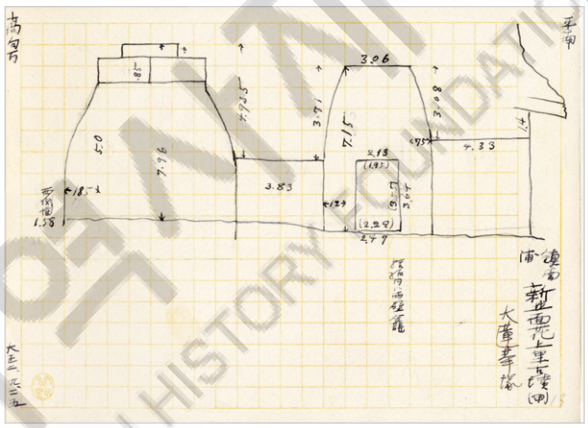


圖 212 _ 측단면도



圖 213 _ 대연화총 부분 벽화



圖 214 _ 대연화총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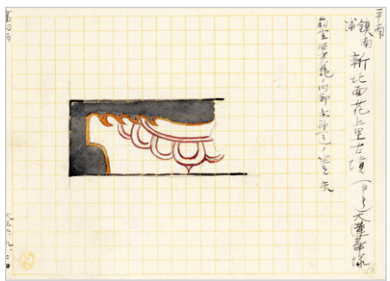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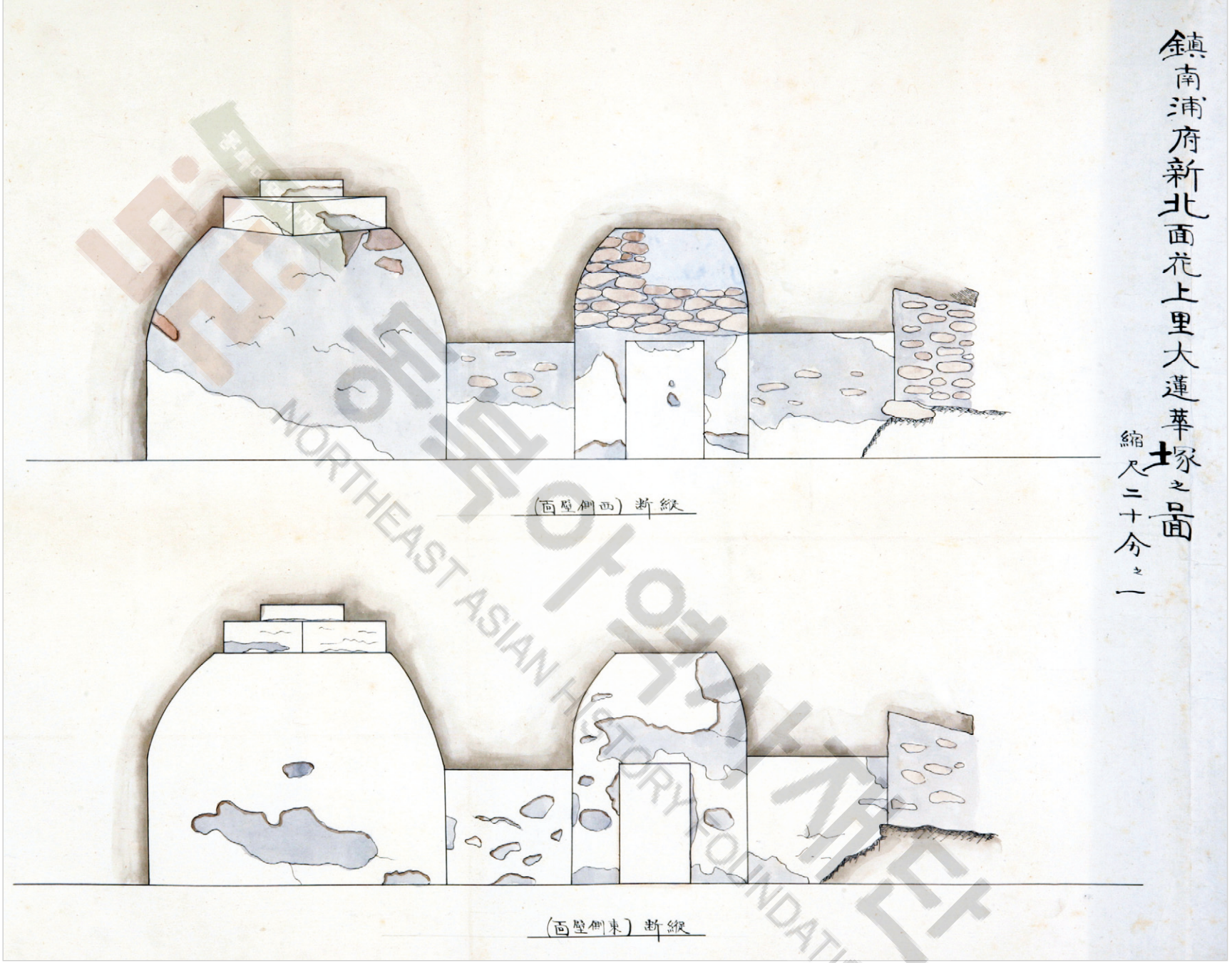


圖 215 _ 대연화총 벽화

세키노의 현장 기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216 _ 대연화총의 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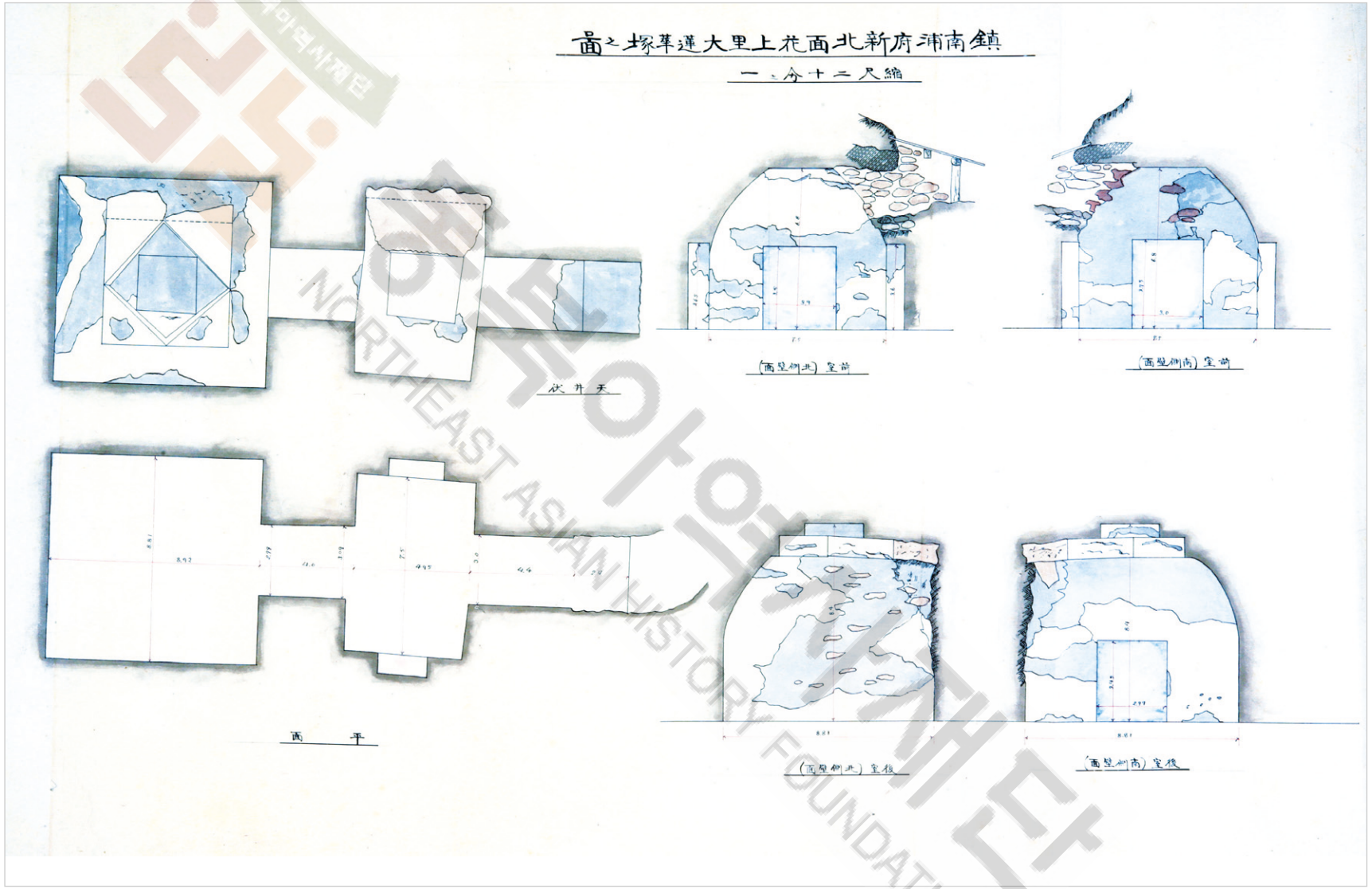


圖 217 _ 대연화총의 실측 도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218 _ 오바의 대연화총 모사도

오바의 벽화 모사도

3) 화상리 성총

화상리 성총(星塚)은 대연화총에서 북쪽으로 16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와이가 그린 고분 실측도를 참고하면 성총은 남쪽으로 달린 연도 입구를 굴착해서 찾아낸 다음 석실 내부로 들어가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성총은 연도가 남쪽으로 달린 단실묘인데 현실 평면형은 장방형이다. 현실은 동서가 198cm 정도, 남북이 238cm인데 바닥에서 천장석까지의 높이는 약 288cm이다.

현실의 네 벽은 상하로 수직적이지만 천장으로 가면서 만곡하다가 천장에 이르러 3단의 평행내어쌓기와 2단의 삼각모줄임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1장의 큰 천장석을 덮어서 마무리하였다. 고분의 네 벽과 천장의 마무리는 정연하지 않은 편이지만 표면은 석회로 말끔이 화장하였다. 문미석은 연도 천장보다 한 단 내려서 쌓았다. 현실에 붙은 연문의 바깥에는 폐쇄석의 흔적이 바닥 쪽에서 확인된다. 연도의 좌우벽에는 일부 석회 미장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자연석을 쌓아서 석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 북벽과 서벽에도 박락된 석회 미장 사이로 고분 축조에 사용된 석재들이 관찰된다(圖 228).

석실 내부에 그려진 벽화를 살피면 우선 네 벽의 모서리에 기둥과 공포를 그렸다. 남벽 입구부 연문 위 쪽에는 주작을, 서쪽에는 연화와 같은 것을 그렸다. 오른쪽에는 간단하지만 인동과 닮은 문양을 표현하였다. 동벽에는 청룡을 닮은 동물이 있는데 뿔과 눈, 꼬리 등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그 위에는 거꾸로 된 연화문을 크게 그려 놓았다. 북벽에는 현무를 그린 것 같지만 분명하지 않다. 연화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듯한 그림 위로 인물이 그려져 있다. 서벽에는 백호를 그린 듯하나 아주 희미하고 중앙에는 연꽃을 배치하였다(圖 223).

화상리 성총의 조사에서 세키노는 고분의 분포 약도, 동벽에 그려진 문양, 남벽 동남 모서리의 기둥과 공포 등을 일부 채색까지 해가면서 그렸으나, 정작 고분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은 도면은 확인되지 않는다(圖 224~227). 고분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석실 도면의 작성은 이와이가 맡았는데 봉토의 형태는 따로 그리지 않았다(圖 228).

벽화는 다른 고분과 마찬가지로 오타와 오바 쓰네키치가 그렸다.



圖219 _ 화상리 성총 연도부 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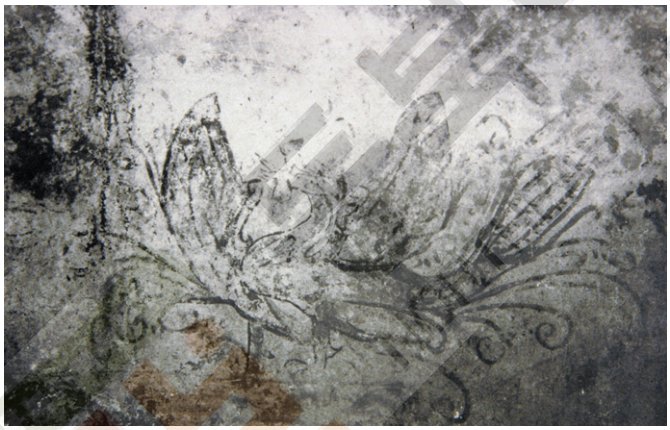


圖220 _ 성총 남벽의 주작



圖221 _ 천장과 모서리의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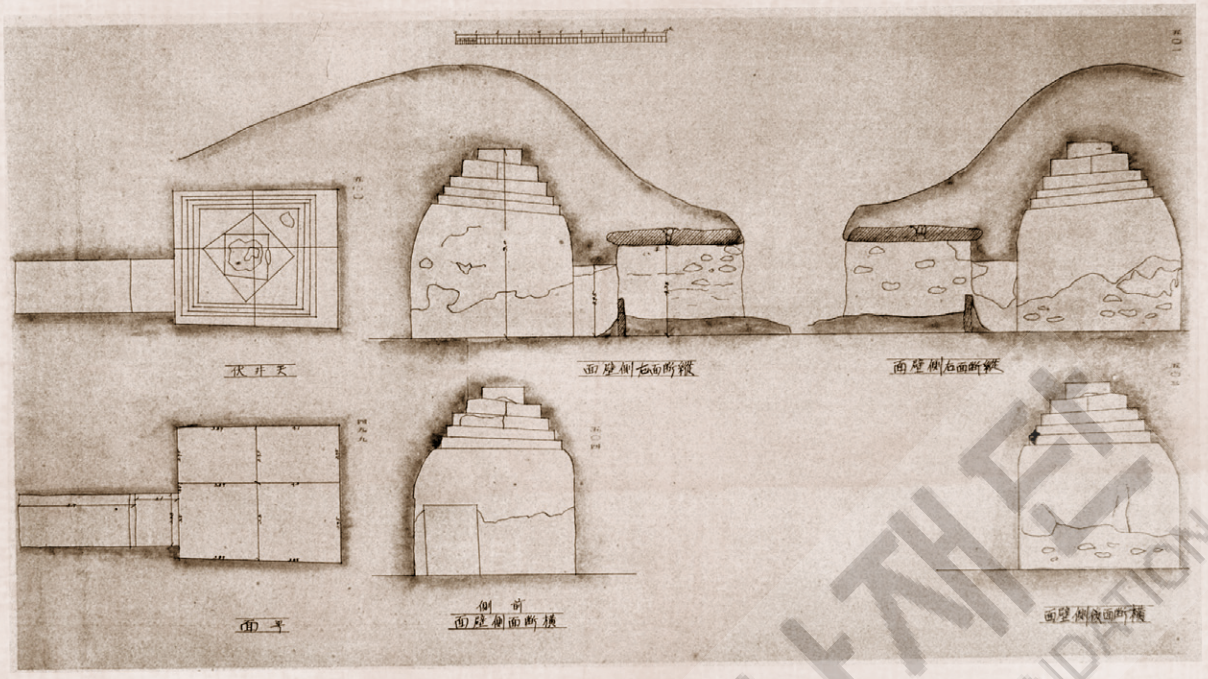


圖 222 _ 성총 석실 실측도



圖 223 _ 석실 내부 투시도(현실에서 바라본 연도)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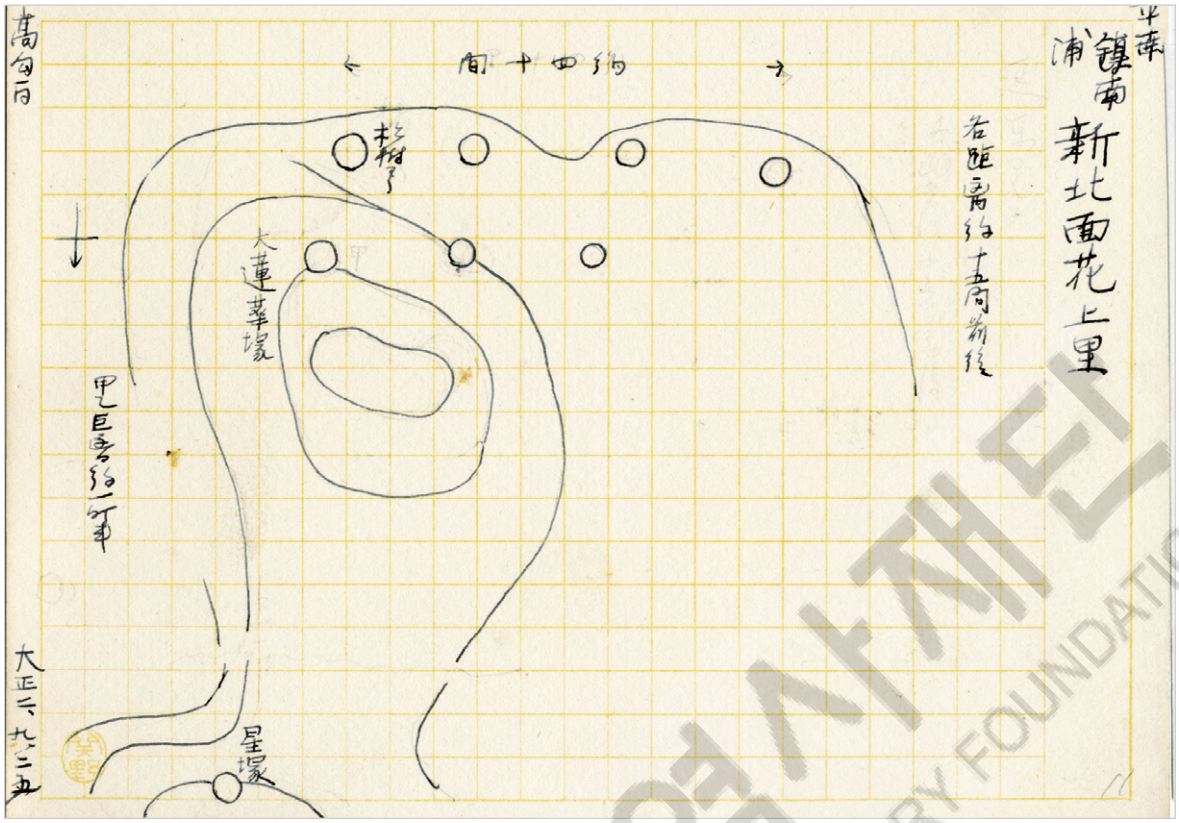


圖 224 _ 화상리 고분군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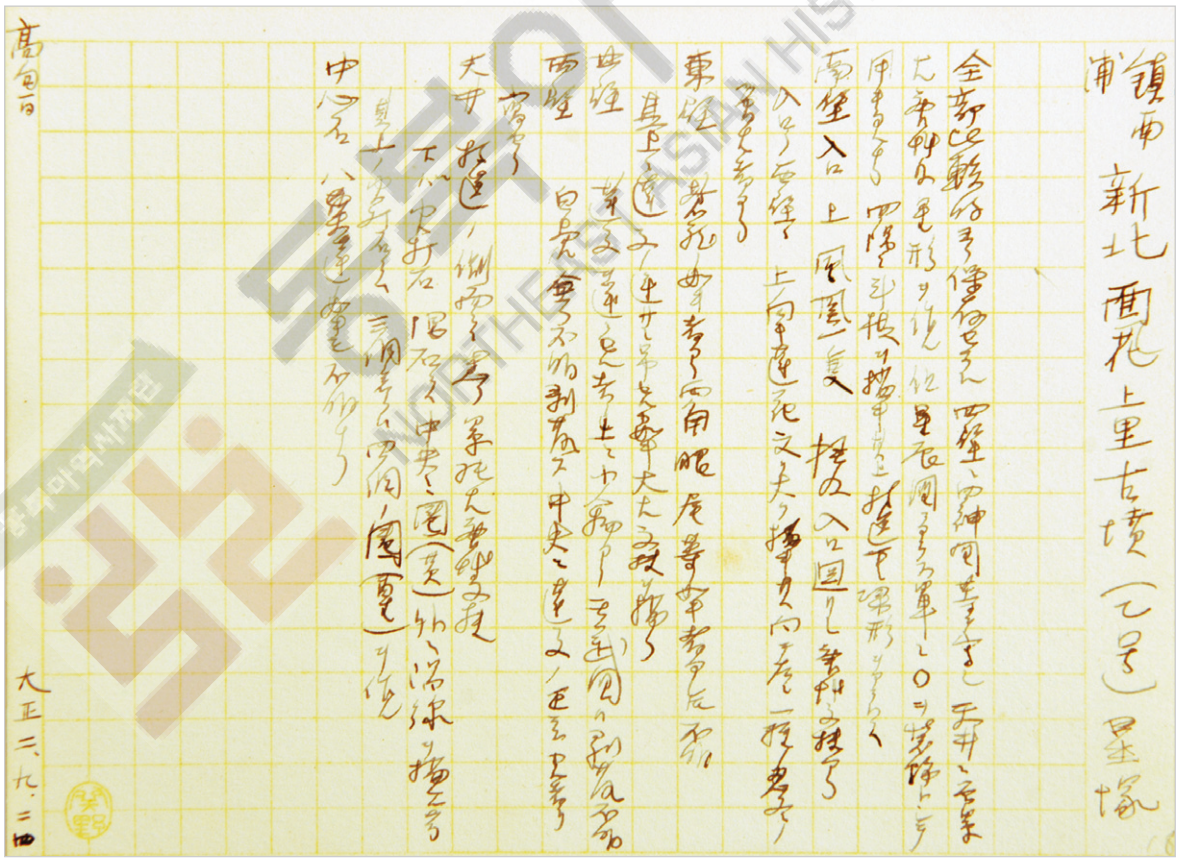


圖 225 _ 화상리 성총의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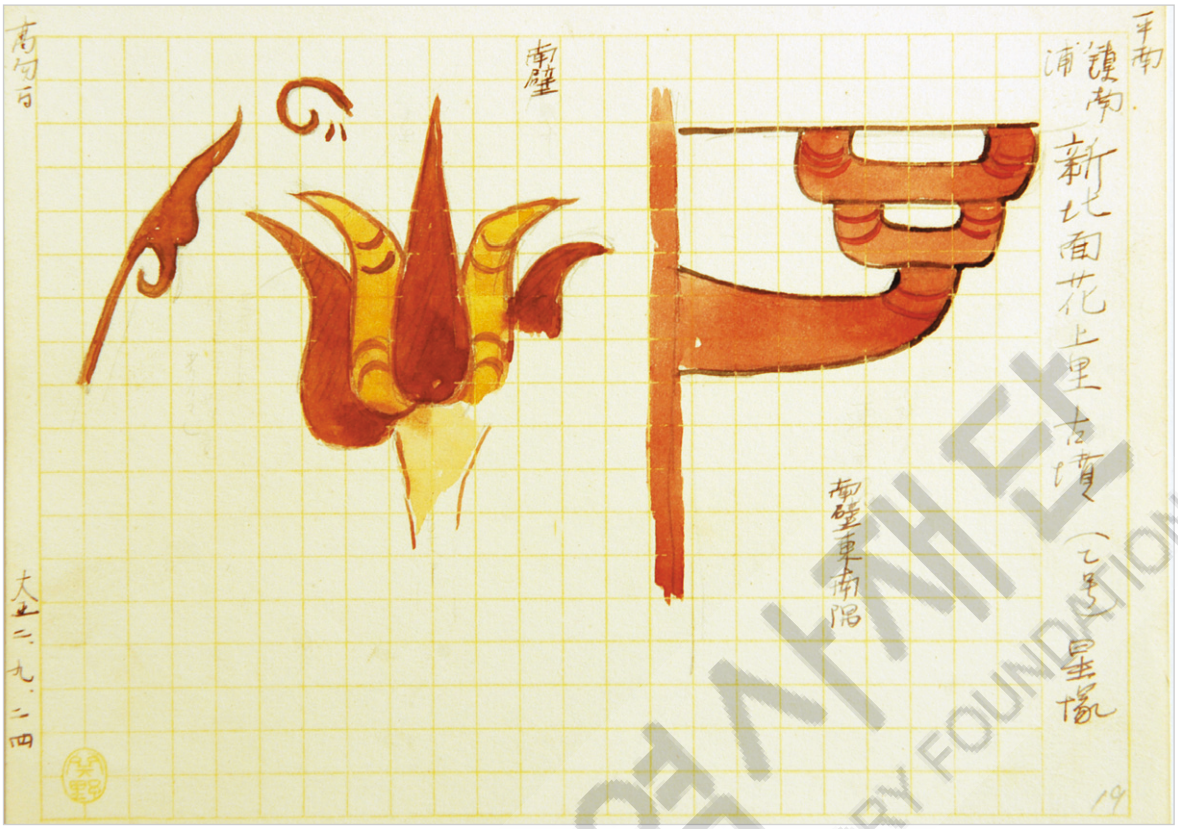


圖 226 _ 남벽 서남 모서리에 그려진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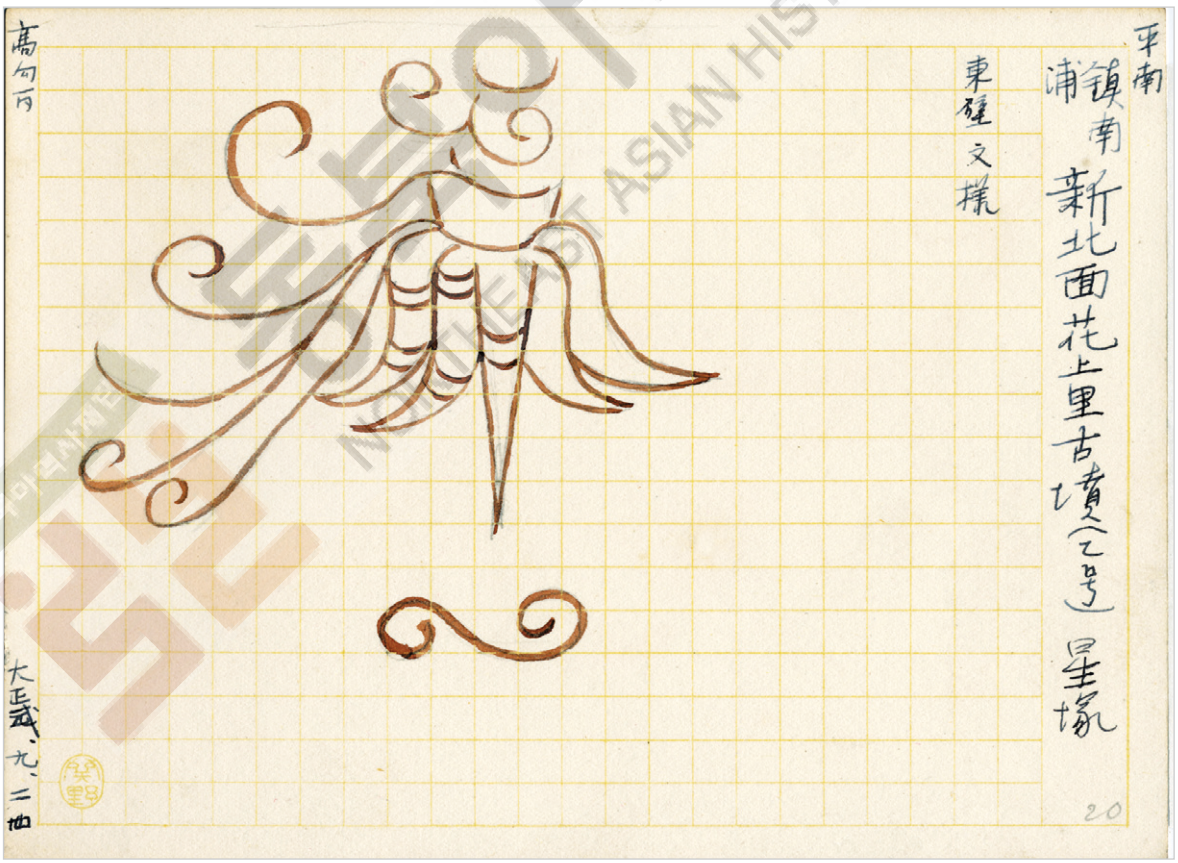


圖 227 _ 동벽에 그려진 벽화

세키노의 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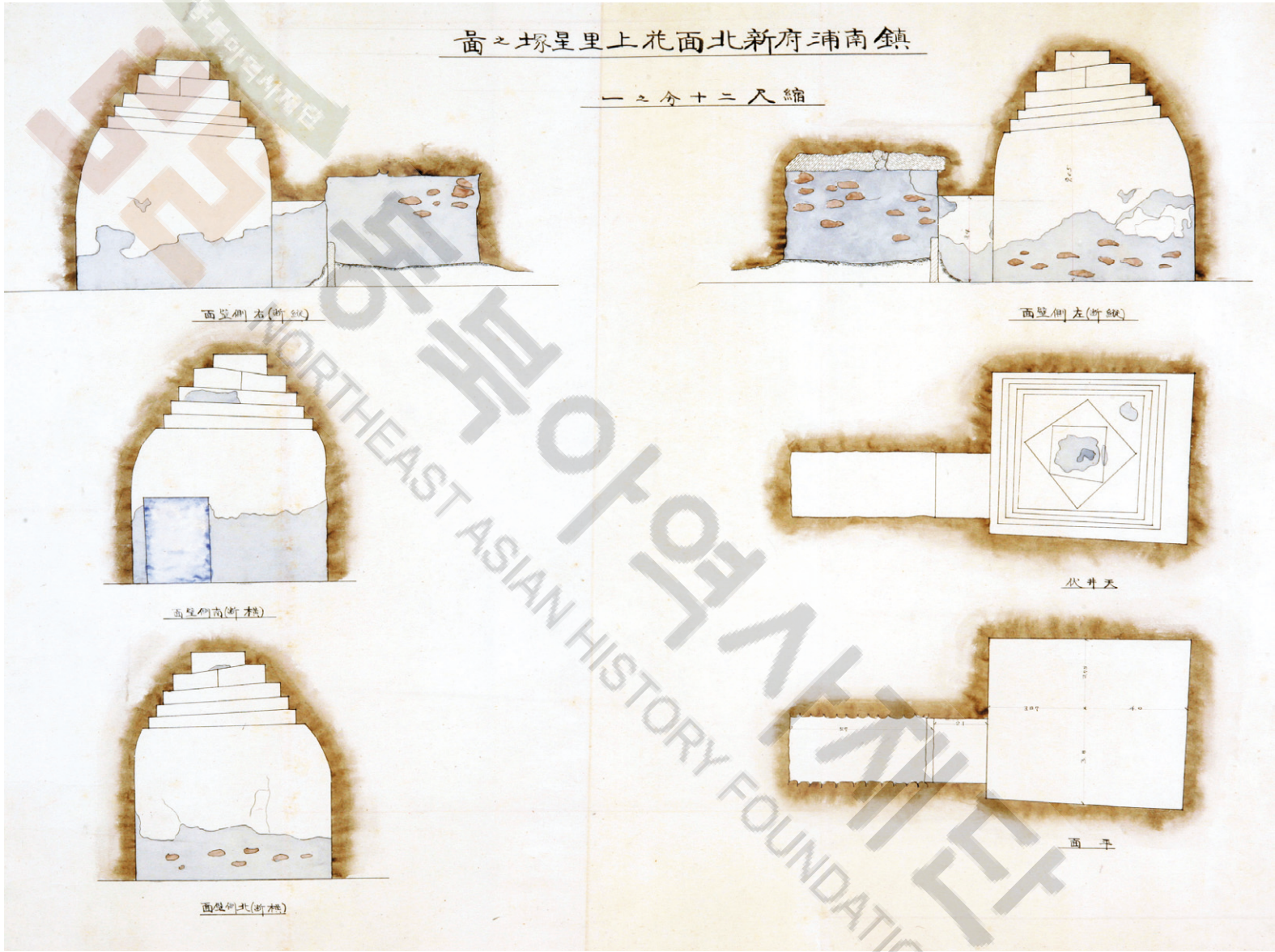


圖 228 _ 화상리 성총의 실측도 각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안성동 대총(용강 대총)과 쌍영총

1) 조사 경과

안성동 대총과 쌍영총은 용강에서 동방으로 약 590m 정도, 평남철도 진지 동역의 서남으로 약 1,580m 지점에 위치하는데, 안성동 대총이 쌍영총보다 서북쪽 높은 구릉 위에 위치한다. 이 두 고분의 조사는 화상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되었는데 조사 참가자는 세키노와 야쓰이, 구리야마, 이마니시이다. 여기에 오바, 오타, 이와이 등이 벽화 모사와 석실 실측도 작성을 맡았다. 세키노에게 고분의 존재를 소개한 것은 평안남도에서 서기를 하던 야마자키 사부로(山岐三郎)인데 세키노를 현장까지 안내하기도 하였다.

고분의 굴착 작업은 세키노가 현장에 도착하기 수 일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세키노와의 사전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야마자키와 연결되는 제3의 인물이 임의로 굴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안성동 대총과 쌍영총의 조사는 석실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우선 확보하고, 먼저 세키노가 들어가 내부를 관찰한 후 간단한 약측과 소견을 적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 이와이는 고분 봉토를 등고선을 넣어서 측량하고 석실 내부의 실측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분의 벽화는 오타와 오바가 담당하였다.

세키노가 고분 내부에서 야장을 정리한 것은 9월 28일로 적혀 있다. 그런데 화상리 고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안성동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한 것이 9월 26일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굴착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거나 주변 유적을 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2) 안성동 대총(용강 대총)

안성동 대총의 조사는 봉토의 남쪽을 크게 굴착하여 연도 출입구를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圖 243). 이는 봉토 상부를 통째로 굴착하여 매장 주체부의 상부를 찾던 한왕묘의 발굴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한왕묘 발굴 이후 연속된 조사 경험에서 고구려 봉토 석실분이 연도를 남쪽으로 낸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일 것이다. 물론 세키노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고분이 도굴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도굴범들도 이미 연도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안성동 대총은 구릉 위에 축조되어 당시 규모가 매우 크게 보였기 때문에 대총(大塚)이란 이름을 얻었다(圖 230).

안성동 대총은 전실과 현실로 이루어진 이실묘이다. 전실에는 남으로 연도가 길게 달리고 현실과는 통로로 연결된다. 전실은 동서로 긴 형태인데 천장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역은 2단에 걸쳐 고임돌로 모서리를 고이고 천장석을 덮어서 높게 처리하였다. 이는 간성리 고분과 구조상 유사하다(圖 232, 241). 전실은 동서가 518cm이고, 남북이 173cm이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370cm로 다른 고구려 고분에 비해 대형이다. 전실 벽면 전체에는 석회를 발랐고 천장도 석회 화장으로 마무리하였다.

현실은 수직으로 축조한 네 벽을 어깨 부위에서부터 만곡시키고 그 위에 3단으로 평행 내어쌓기하였고, 그 위로 다시 고임돌로 모서리를 2번 죽여 천장 면적을 줄인 다음 천장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현실 역시 전실과 마찬가지로 전면을 석회 화장하였기 때문에 내부 석재는 관찰되지 않았다(圖 241, 242). 그 크기는 남북이 392cm, 동서가 324cm이다. 높이는 427cm인데 전실 바닥의 토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다.

전실 입구의 좌우에는 벽감을 설치하고, 네 모서리에는 기둥과 공포를 그렸다. 공포 위에 들보를 얹고 비스듬하게 걸쳐 놓은 목재를 표현하였다(圖 233). 비스듬한 목재 사이에는 측시연화(側視蓮花)가 그려졌으나 박락되어 희미한 상태이다. 전실 천장의 각 구획에는 변형 인동문이 그려져 있다. 전실의 동쪽 벽에는 기둥 위에 걸쳐진 공포의 사이로 3명의 인물이 표현되었는데 박락이 심하다. 고분의 폐쇄 시설은 남아 있지 않으나 현실로 통하는 전실의 북벽 상단 이맛돌에는 폐쇄석을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홈이 관찰된다. 연도가 길게 시작되는 지점에도 폐쇄석의 흔적이 있다(圖 241).

한편 세키노가 조사한 당시 현실에는 토사가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찰 소견은 작성되지 않았다. 세키노는 벽의 박락이 심하여 이렇다 할 벽화의 존재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와이가 작성한 석실 실측도도 현실 내부에 토사가 가득 찬 상태로 그려져 있다(圖 241). 토사가 찬 상태에서 세키노가 내부 조사를 끝낸 다음에 이와이 등이 작업을 계속하여 석실 내부를 정리하고 실측도를 작성하던 기존의 조사와는 분명 다른 점이다. 안성동 대총(용강 대총)의 현실에 쌓였던 토사를 언제 석실 밖으로 치워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최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전실의 동벽 바닥에 세워진 석판에 따로 만들어 고정시킨 직사각형의 석비가 관찰된다. 석비는 쇠못으로 고정시키고 고정 구멍의 빈 틈은 하얀 석회로 메웠다. 그러나 세키노의 설명과 야장에서는 이 벽비에 대한 설명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이와이나 오바 쓰네키치의 실측과 벽화 모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비는 1913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새로 만들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세키노의 야장에는 전실 벽에 그린 측시연화와 변형 인동문이 채색을 곁들여 그려져 있는데 9월 28일에 그린 것이다(圖 239).

현재 안성동 대총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출입구 시설이 폐쇄되고 봉토가 복원되어 관리되고 있다(圖 246,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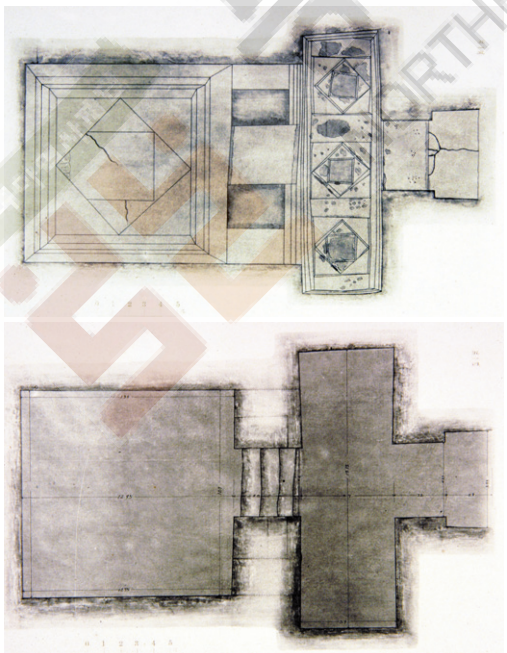
圖 229 _ 안성동 대총 원경



圖 230 _ 안성동 대총 근경



圖 231 _ 발굴 전의 안성동 대총(왼쪽)과 발굴 후의 안성동 대총(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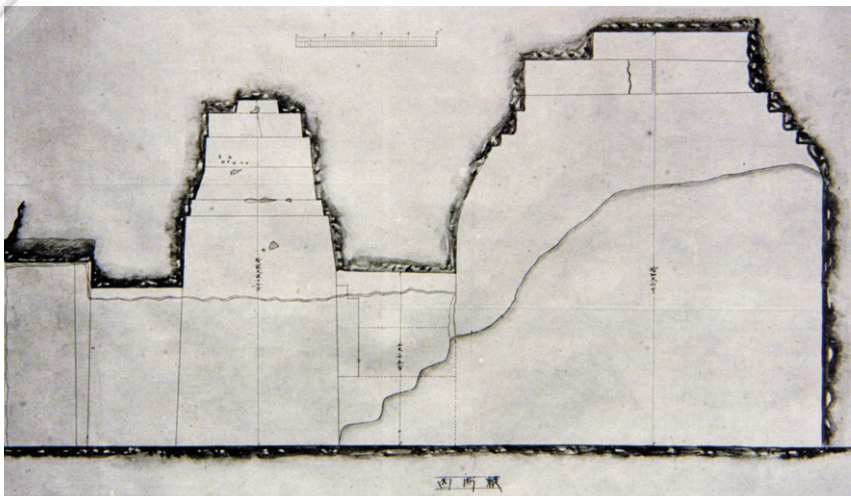


圖 232 _ 석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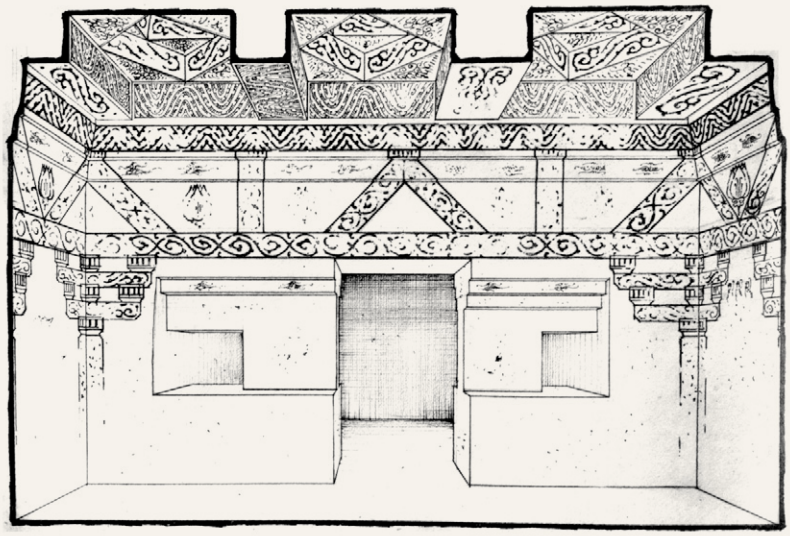


圖 233 _ 용강 대총 내부 투시도



圖 234 _ 드러난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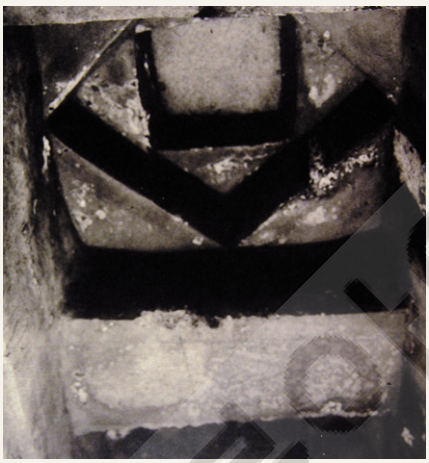


圖 235 _ 천장부



圖 236 _ 전실에서 바로 본 연문



圖 237 _ 석실 모서리

『조선고적도보』의 사진과 도면



圖 238 _ 용강 대총 조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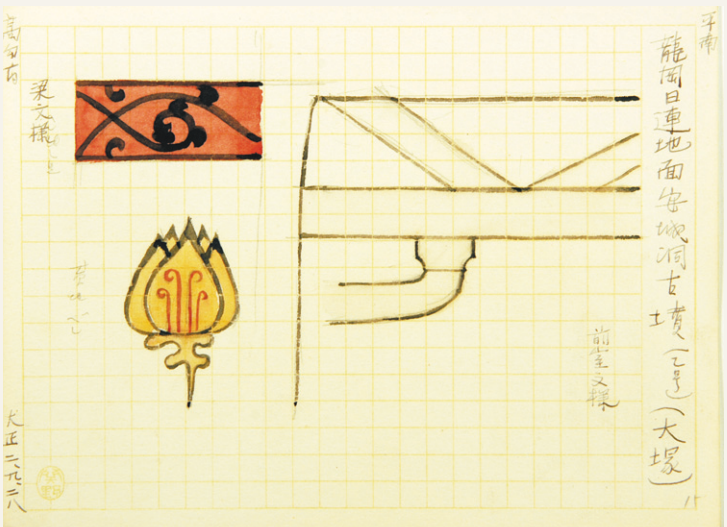


圖 239 _ 용강 대총 세부 기록

세키노의 현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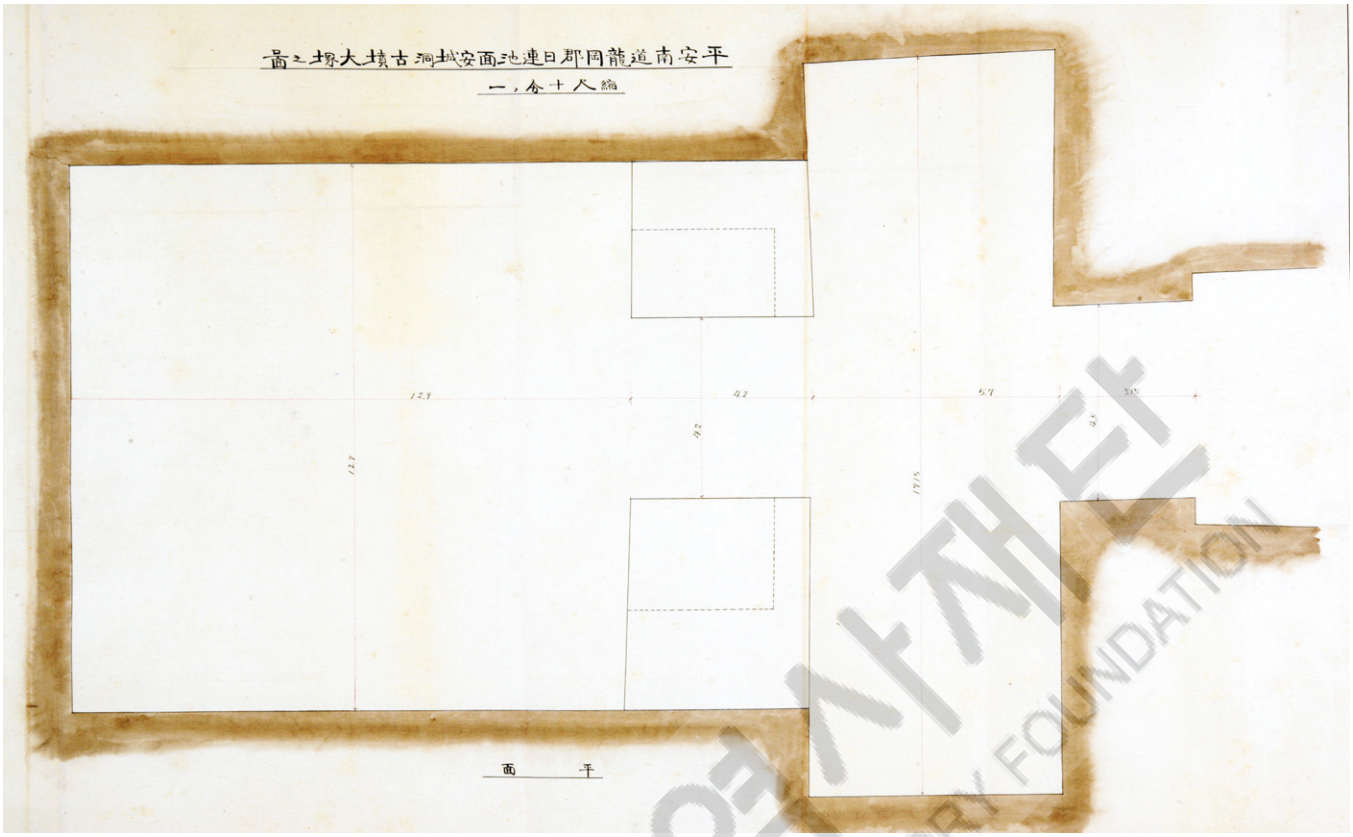


圖240 _ 용강 대총 석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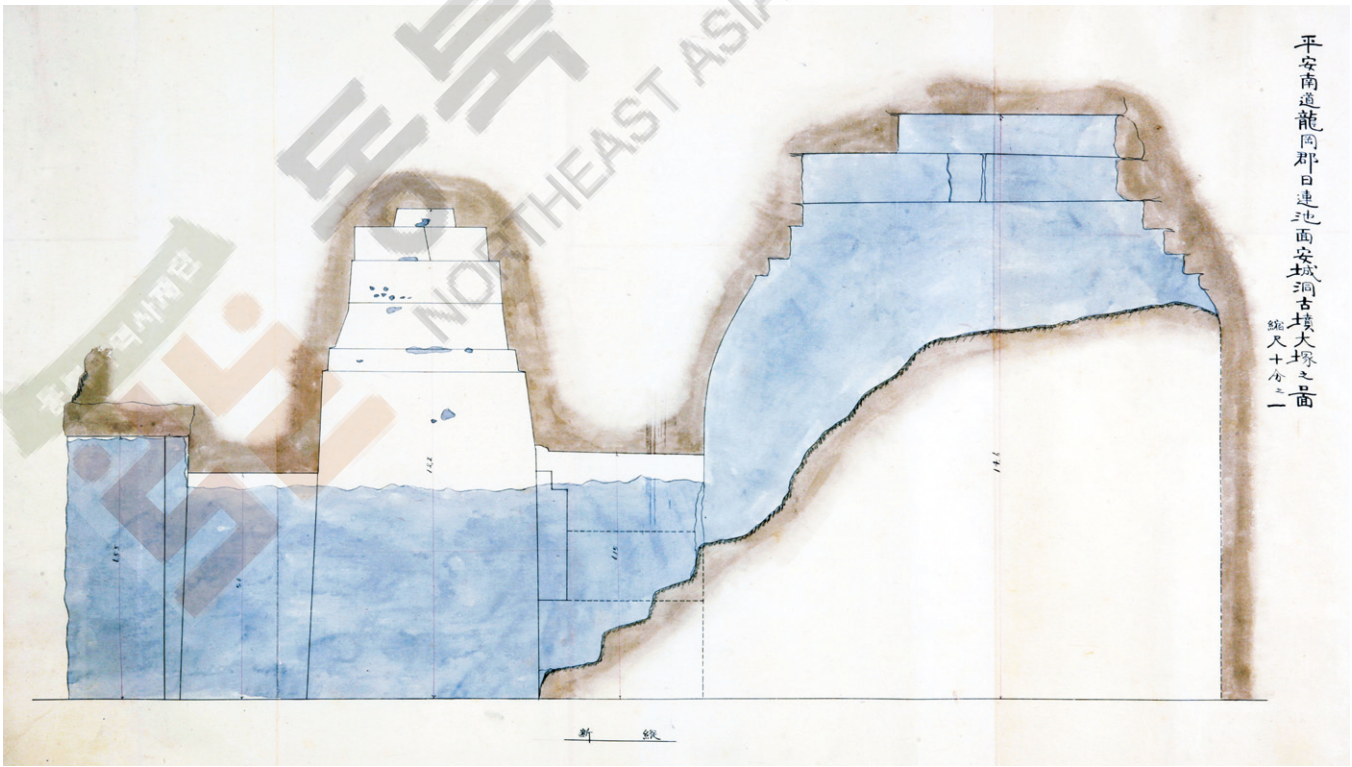


圖241 _ 측단면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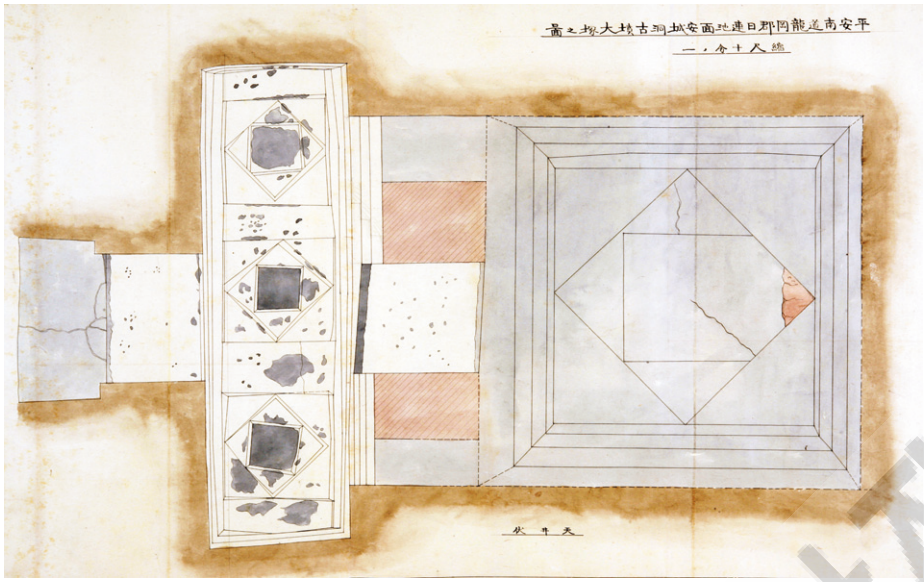


圖 242 _ 안성동 대총 천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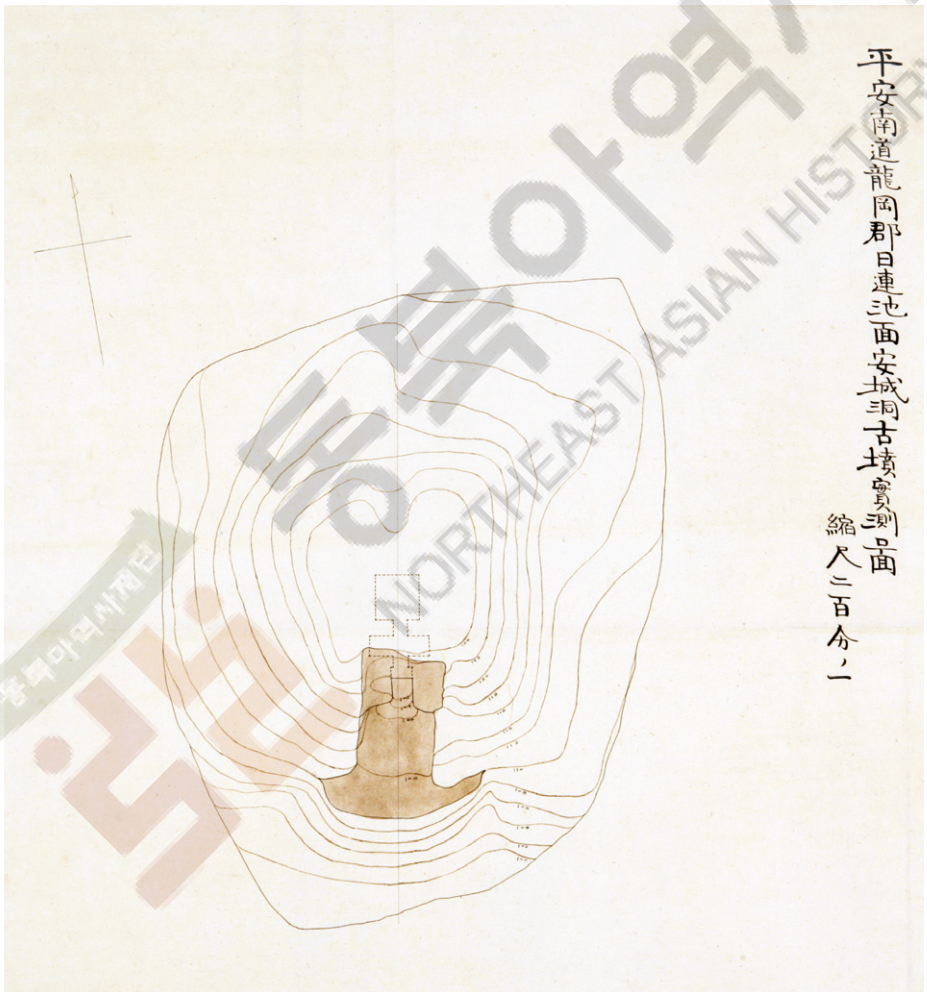


圖 243 _ 안성동 대총 분구 측량도

이와이의 실측 측량도



圖 244 _ 안성동 대총 벽화 모사

오바의 벽화 모사



圖 245 _ 안성동 고분군 위성사진



圖 246 _ 쌍영총에서 바라본 안성동 대총



圖 247 _ 남쪽에서 본 안성동 대총

현재의 용강 대총(田中俊明 제공)

3) 쌍영총

쌍영총은 조사 전 이미 봉토의 외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분의 내부 구조와 장식은 물론 벽화도 화려했기 때문에 조사자들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이와이가 작성한 봉토 측량도를 통해 쌍영총은 연도 입구만을 정확하게 굴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실 실측도에는 조사 시에 봉토 밖에서 연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표시되어 있다. 고분의 굴착에는 조선인 인부가 동원되었는데 이들 역시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있다(圖 248). 이는 앞에서도 살폈듯이 인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석실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와이는 2m 간격의 등고선을 넣어서 봉토를 측량하였다(圖 270). 간성리 고분, 연화리 대총(용강 대총)과 더불어 봉토의 외형이 가장 정확하게 측량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고적 조사에서 본격적으로 평판 측량이 채용된 것은 1916년도에 실시된 낙랑 고분의 발굴부터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미 1913년의 고구려 고분 조사에서 채용되었음이 분명해졌다.

고분의 내부는 전실과 현실로 된 이실묘인데, 양실(兩室)의 연결 통로에 아름다운 기둥이 쌍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쌍영총(雙楹塚)이라 하였다. 전실은 동서 길이가 약 230cm이고, 남북이 225cm이다. 또한 현실은 동서 길이가 약 274cm, 남북 방향의 동벽이 약 299cm, 서벽이 294cm이다. 전실과 현실벽 모두는 약간 내경하는 수직벽에 평행으로 면을 3단이나 줄이고 삼각형으로 모서리를 줄여서 천장석을 덮는 방법으로 마무리하였다. 벽면과 천장은 모두 석회를 두껍게 발라 면처리하였다. 이와이의 도면을 보면 현실과 전실의 서쪽 벽 중앙에는 석회면이 크게 박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안으로 고분 축조에 사용된 석재가 보인다. 이를 보면 고분은 약간 가공된 돌로 쌓아올린 다음 석회를 두껍게 발라 조정한 것이다. 이는 석실의 동쪽 벽도 마찬가지이다(圖 273~276).

전실과 현실 사이에 세워진 쌍기둥은 단면이 팔각형으로 돌 기둥 위에 두껍게 석회를 바른 것이다. 주좌(柱座)와 주두(柱頭)를 표현했으며 전면에 문양을 시문하였다. 전실에 달린 중앙 연문의 바깥쪽에는 천장 양쪽에 둥근 장부 구멍을 내고 바닥에는 한 단 높은 문지방을 만들어 두었다. 즉 쌍영총의 폐쇄는 전실의 연문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연도의 바깥에서 찍은 사진에는 두꺼운 폐쇄석이 찍혀 있고(圖 272), 실측도에는 연도 끝 좌우로 돌출부가 있는데 이 역시 연실 바깥쪽을 폐쇄하기 위한 고안인 것으로 보인다.

연도의 좌우벽에는 여러 종류의 인물 그림을 그려 놓았다. 동벽에는 우차 2량, 갑주를 입고 말을 타는 사람, 다른 기마 인물 2명, 서 있는 인물상의 남녀 30명 정도를 그려 놓았다. 그 중에는 북을 치는 사람도 끼어 있다. 서벽에는 우차 · 기마 · 인물 외 30여 명 정도의 사람이 그려져 있다. 현실의 네 모서리에는 공포가 얹혀진 기둥이 서 있고, 그 위로 비스듬히 표현된 목재 사이 사이로 화초가 꽂힌 화병이 그려져 있다. 통로의 쌍기둥이 위치하는 곳 위에는 화병 대신 주작을 마주보게 하였다. 연도에서 전실로 가는 입구의 좌우측에는 역사(力士)를 그려 넣었고, 전실의 동서벽에는 청룡과 백호를 시문했으나 조사 시에는 이미

파손이 심한 상태였다. 남벽의 입구에는 인물의 입상이 있다. 네 벽 모서리에는 기둥을 그리고 그 위에 공포를 나타냈다. 현실 천장의 첫 번째 내어쌓기 면에는 당초문을, 두 번째 내어쌓기 면에는 봉황과 운문(雲文)을 그렸다. 삼각형 줄임의 하단에는 삼족오를 그려 넣었다. 고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천장석의 아래에는 연화문이 크게 그려져 있다(關野 1913b).

북벽에는 중앙에 누각을 그리고 안에 부부를 그려 넣었는데 이 무덤의 주인공임에 틀림없다. 누각에는 부석과 계단 등이 그려져 있다. 부처의 좌우에는 남녀 시자들이 늘어서 있다.

전실과 현실의 천장 중앙에는 연화문이, 현실의 삼각 고임 아래에는 삼족오와 두꺼비가 그려져 있다.



圖 248 _ 발굴 당시 풍경



圖 249 _ 쌍기둥



圖 250~252 _ 쌍영총의 인물도(모사도)



圖 253 _ 천장 모서리의 벽화(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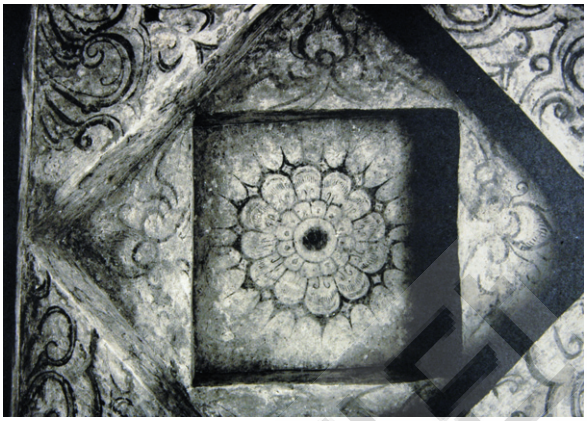


圖 254 _ 천장의 연화(사진)



圖 255 _ 인물도(사진)



圖 256 _ 현실 모서리의 벽화(사진)



圖 257 _ 삼각고임돌의 벽화(삼족오)



圖 258 _ 삼각고임돌의 벽화(사진)



圖 259 _ 조사 후 복원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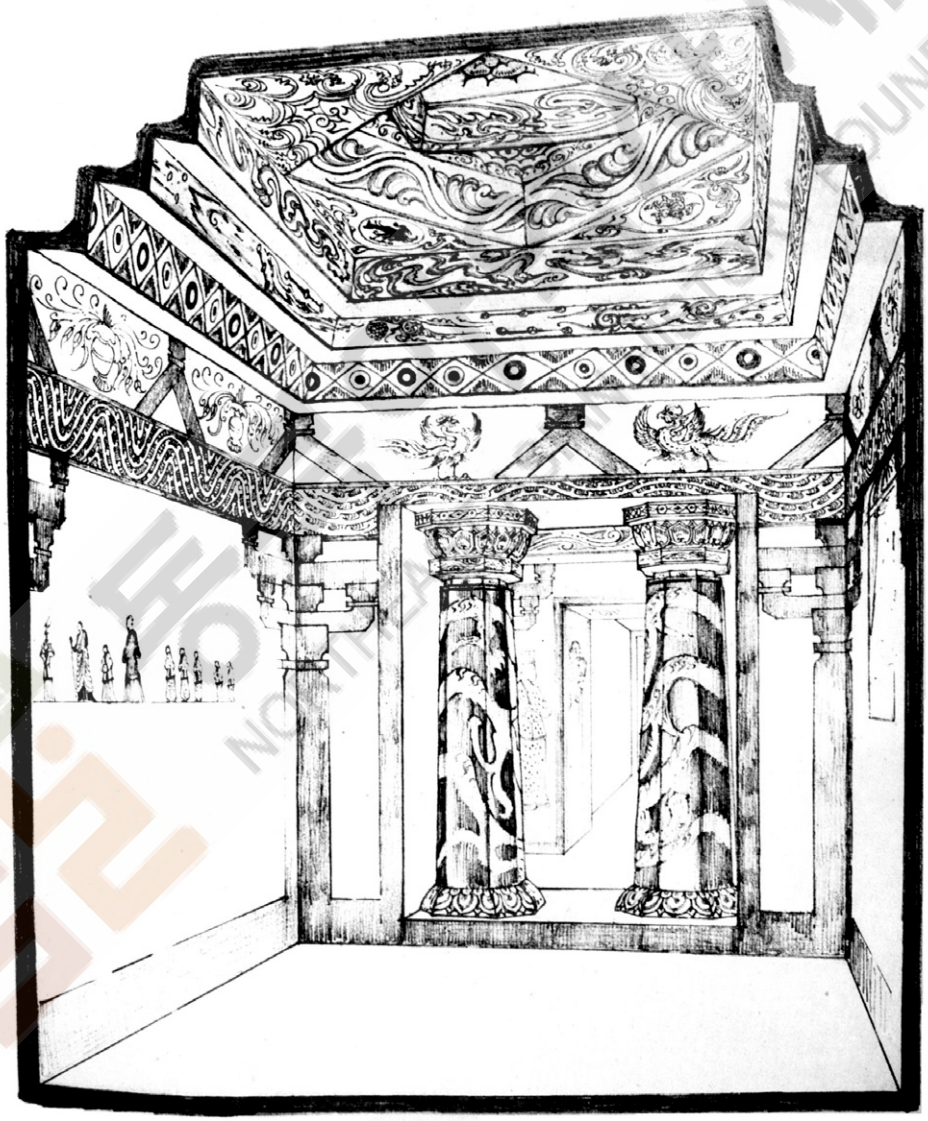


圖 260 _ 쌍영총 내부 투시도

『조선고적도보』에 보고된 사진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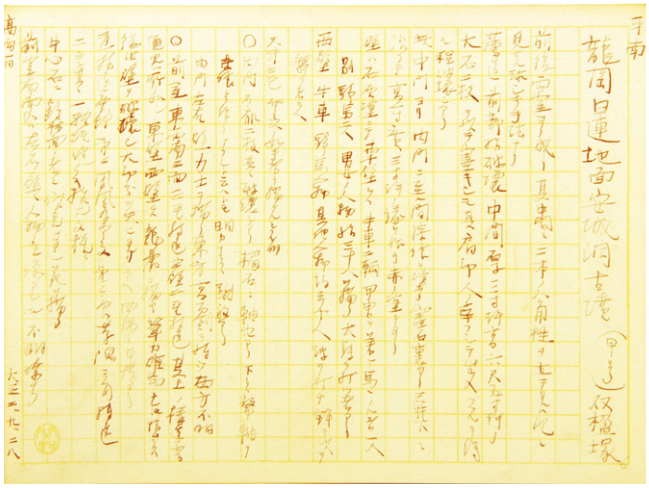


圖 261 _ 세키노의 현장 조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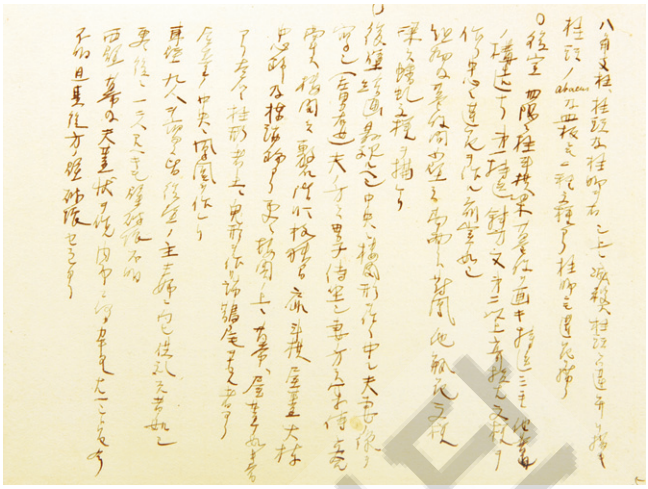


圖 262 _ 세키노의 현장 조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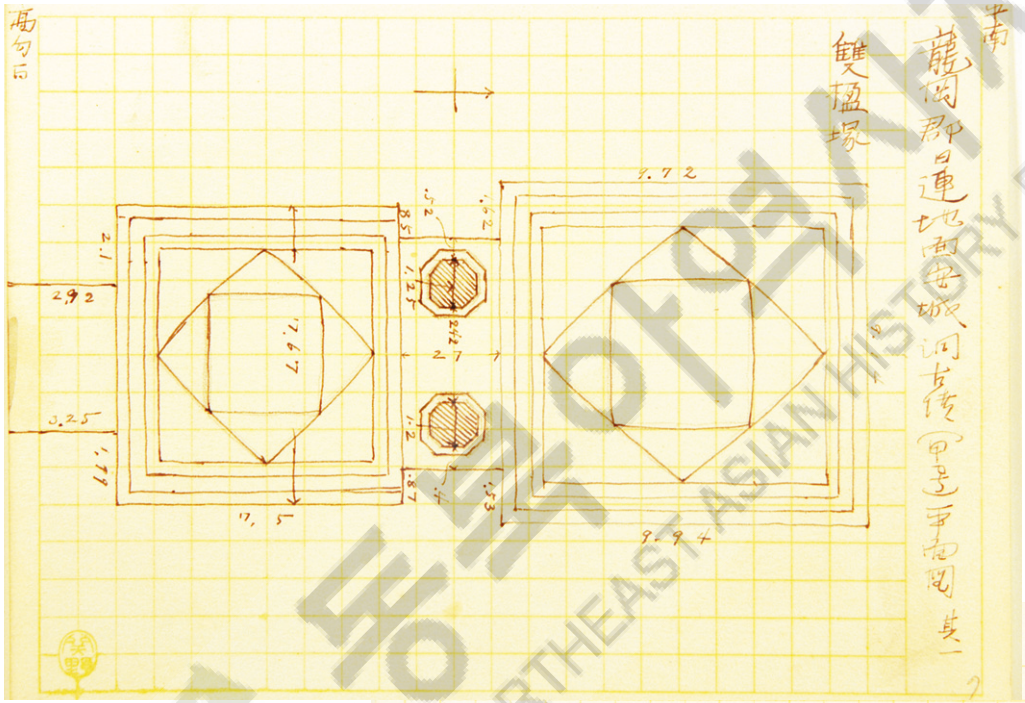


圖 263 _ 쌍영총의 천장 약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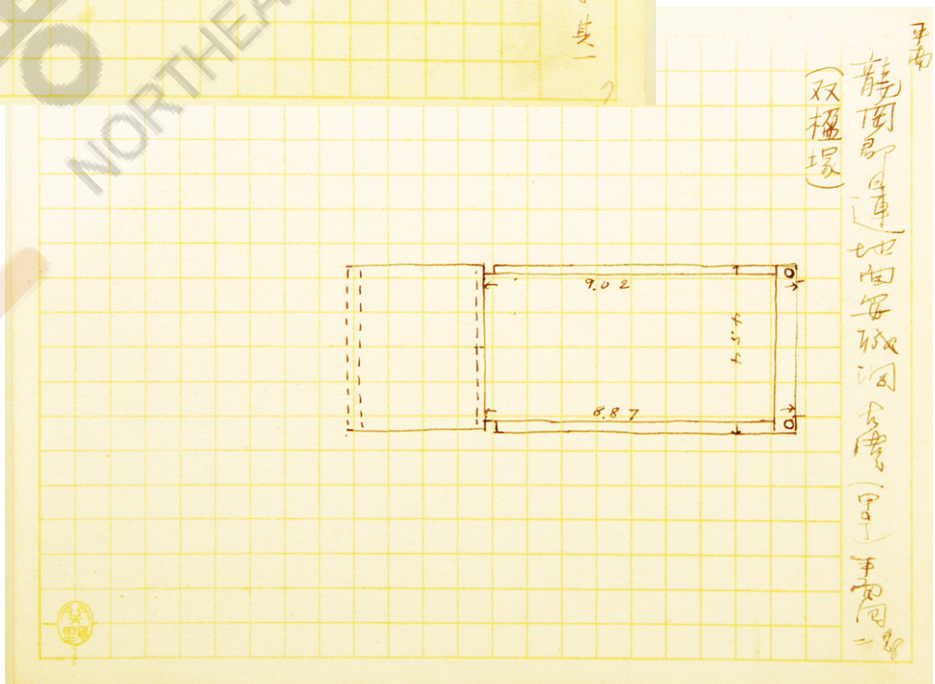


圖 264 _ 쌍영총의 연문 약측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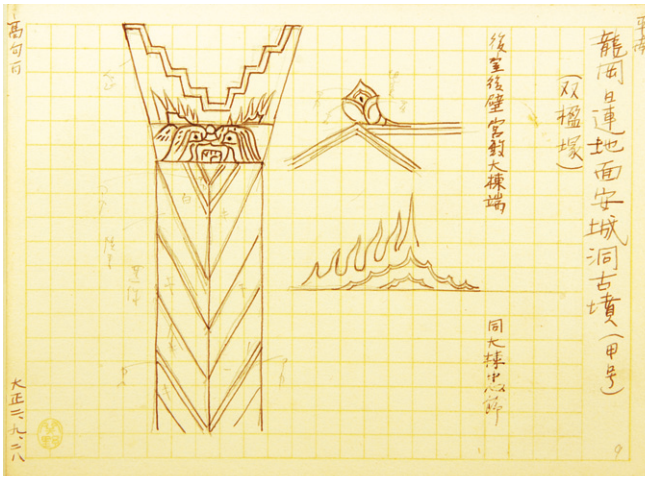


圖 265 _ 쌍영총의 벽화(현실 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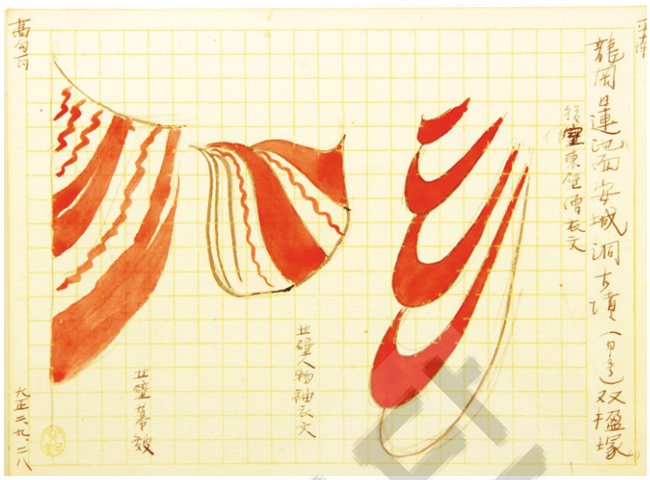


圖 266 _ 쌍영총의 벽화(현실 북벽)



圖 267 _ 쌍영총의 벽화(입구 측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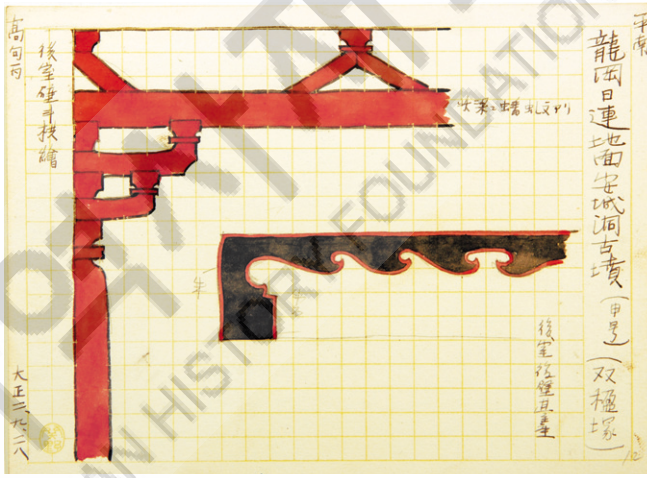


圖 268 _ 쌍영총의 벽화(현실 후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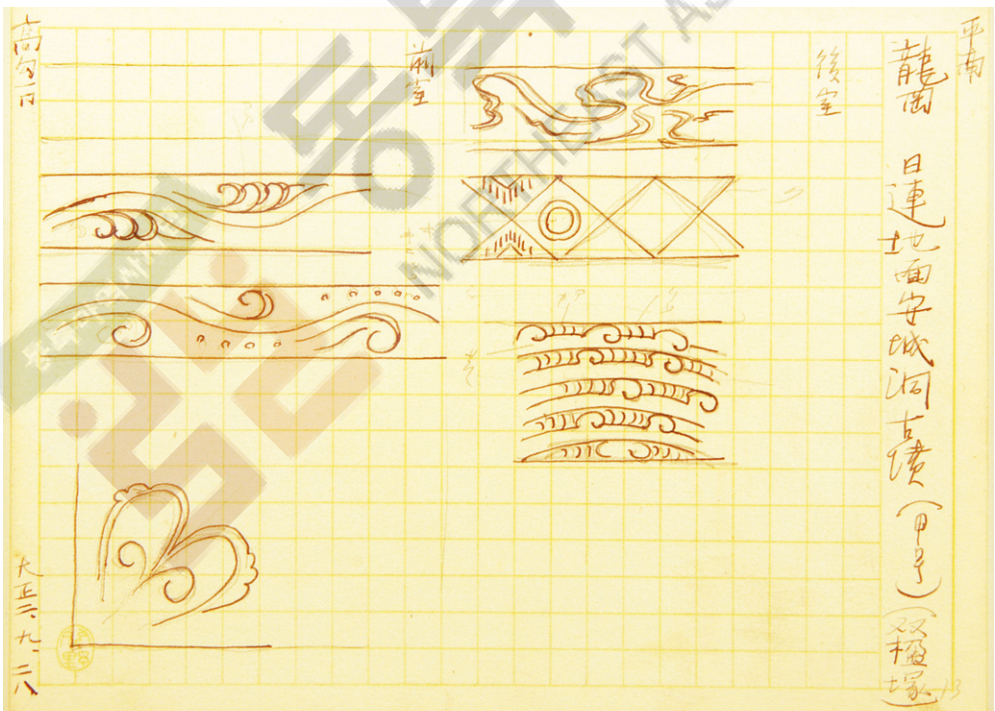


圖 269 _ 쌍영총의 벽화 약측

세키노의 현장 기록



圖 270 _ 쌍영총의 분구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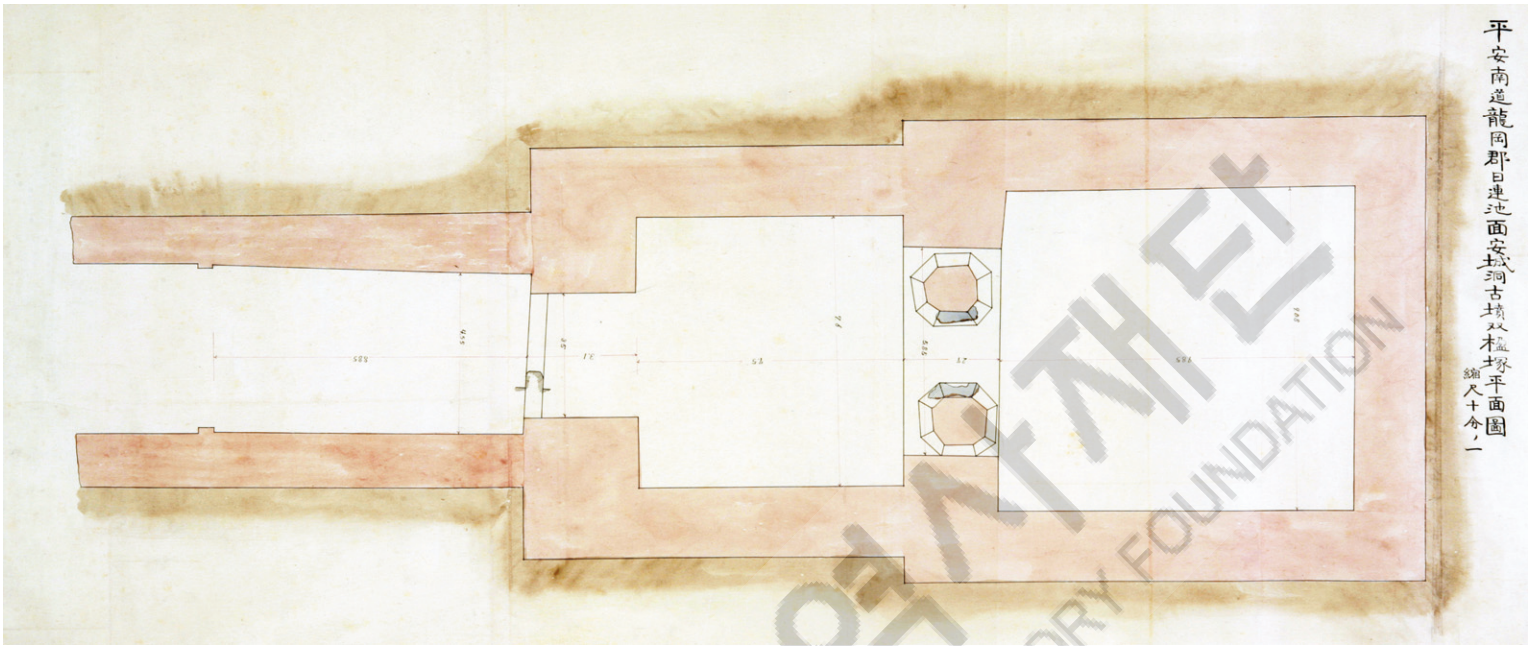


圖 271 _ 쌍영총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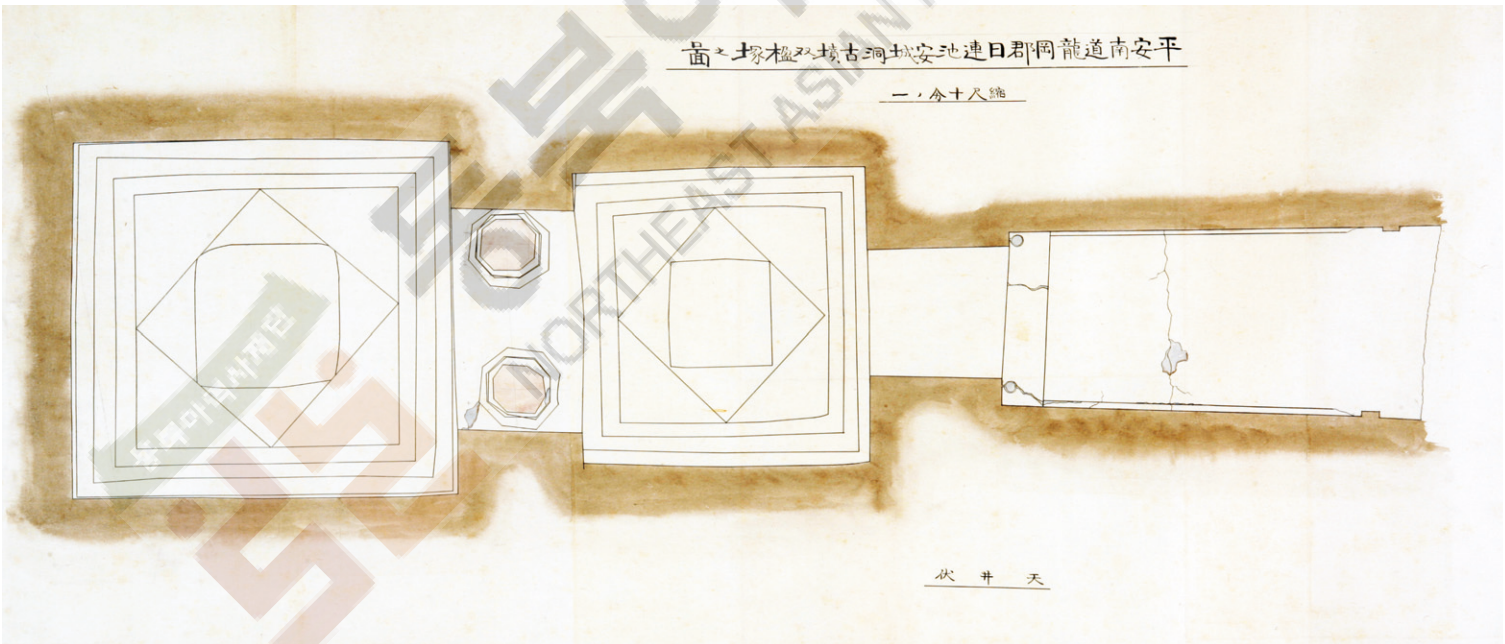


圖 272 _ 쌍영총의 천장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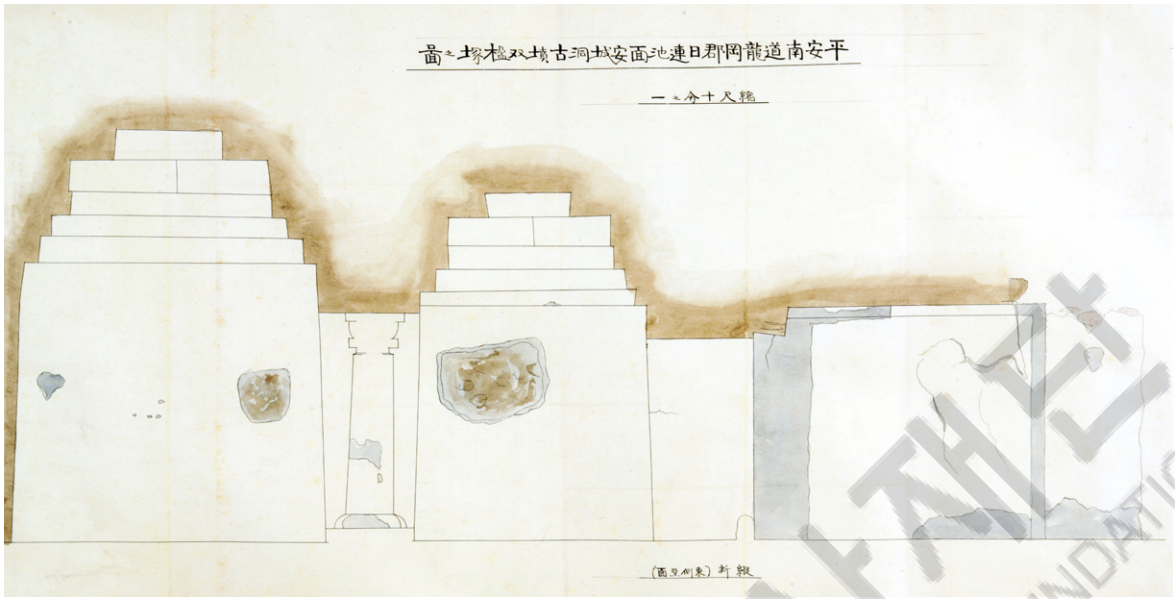


圖 273 _ 쌍영총의 측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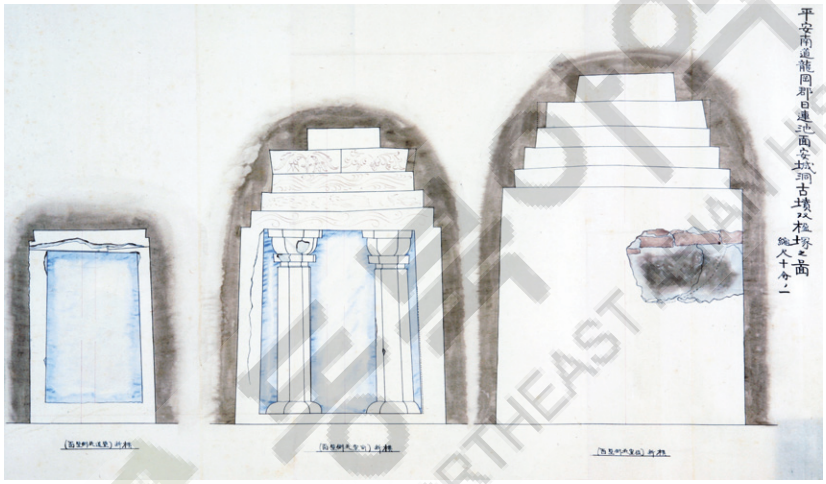


圖 274 _ 쌍영총의 부분 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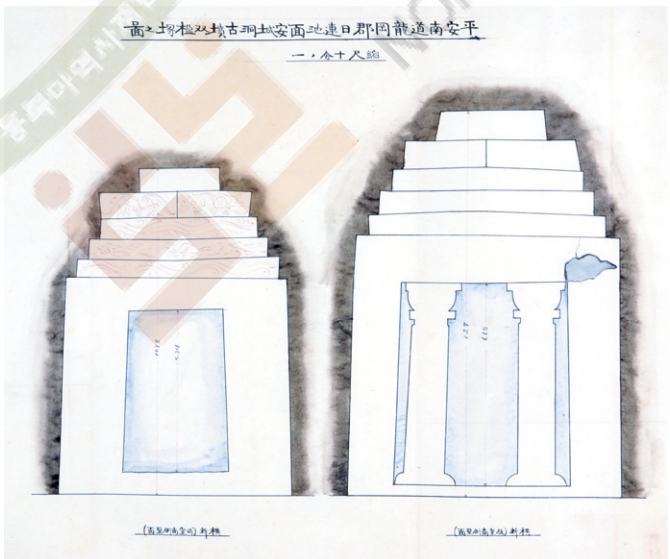


圖 275 _ 쌍영총의 부분 실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276 _ 쌍영총의 측단면도 2

이와이의 측량 실측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 277 _ 쌍영총의 입구

현재의 쌍영총



圖 278 _ 현실 남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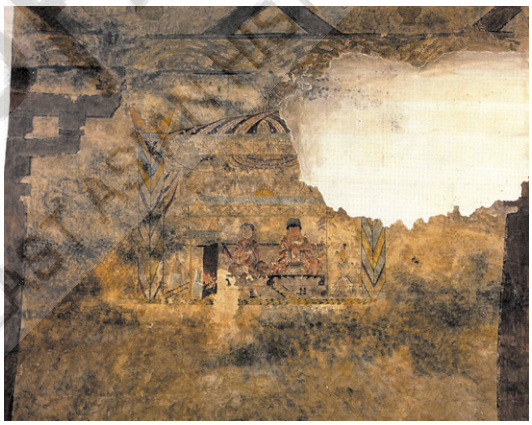


圖 279 _ 현실 북벽의 인물



圖 280 _ 현실 입구의 쌍기둥



圖 281 _ 전실 동벽의 청룡



圖 282 _ 전실 벽화와 내부 투시도

오바의 벽화 모사도

마무리

글머리에서 밝힌 것처럼 중요 고구려 고분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 후 정식으로 보고된 예가 거의 없어 지금까지도 개별 고분의 조사 경과와 조사자,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고구려 고분 조사 후에 제출된 『조선고적도보』Ⅱ의 사진과 당시 일본학계에 보고된 논문과 강연회 원고, 세키노의 원본 야장 등을 종합하여 우선 1913년도까지 평양 부근에서 조사된 개별 고구려 고분의 조사 경과와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침 최근 도쿄대학에서 발견된 세키노의 야장 자료와 총독부에서 파견나갔던 이와이 기수가 그린 고구려 고분의 측량도와 내부 실측도, 오타와 오바 쓰네키치가 그린 고분벽화의 모사가 큰 참고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원본 자료는 그 자체로도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분별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선 1910년부터 시작된 고구려 고분의 조사를 담당한 조사단의 성격이 분명해지고 전반적인 조사 흐름과 방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진만 공개되었던 사동 고분의 조사 내용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매산리 고분군은 알려진 2기만이 아니라 원래 5기가 조사되었음을 새롭게 밝히고,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고구려 고분 3기의 구조와 내용을 미공개 야장 자료와 함께 소개할 수 있었다. 강동(江東)의 대표적인 고구려 고분인 한왕묘에서는 원래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와 유물이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되어 소장되었음을 밝혀냈고, 이를 조사하여 개별 기와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번 정리를 통해 일제강점기 초기 '고적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진행 풍경이 비교적 선명하게 복원되었다. 고적 조사를 수행하는 세키노에게 고구려 고분의 정보를 준 것은 당시 평양에 거류하던 많은 일본인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지역의 유지였다. 군인 신분으로 강서 대묘와 중묘를 굴착한 오타는 물론 당시 고구려 고분에 관심을 가지던 많은 일본인들 대부분이 사전 절차 없이 여러 고구려 고분을 굴착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구려 고분 조사에 동원된 조선인 인부들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머리에 흰색 두건을 씌웠다. 한왕묘의 발굴에서는 인부가 매몰되자 작업 중의 조선 인부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정황이 드러나는데, 당시 조선인의 일반적인 고분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고구려 고분은 19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되었다. 해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된 수많은 고구려 고분 역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재검토 작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총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高橋潔, 2001,「關野貞を中心とした朝鮮古蹟調査行程 - 1909年~1915」,『考古學史研究』第9號.

谷井済一, 1911a,「朝鮮通信(一)」,『考古学雑誌』2-2.

谷井濟一, 1911b,「朝鮮通信(二)」,『考古学雑誌』2-3.

谷井濟一, 1912a,「朝鮮通信(三)」,『考古学雑誌』2-5.

谷井濟一, 1912b,「朝鮮通信(一)」,『考古学雑誌』3-4.

谷井濟一, 1913a,「朝鮮通信(二)」,『考古学雑誌』3-5.

谷井濟一, 1913b,「朝鮮通信(三)」,『考古学雑誌』3-6.

谷井濟一, 1914c,「高句麗時代 雙楹塚(口絵略解)」,『考古学雑誌』4-10.

谷井濟一, 1917,「平安南道江東郡晩達郡 晩達面古墳調査報告書」,『大正五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総督府.

谷井濟一, 1920a,「黄海道鳳山郡·平安南道順川郡及平安北道雲山郡古蹟調査略報告」,『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総督府.

關野貞 外, 1911,『朝鮮芸術の研究続編』, 朝鮮総督府.

關野貞 外, 1914a,「朝鮮古蹟調査略報告」,『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総督府.

關野貞 外, 1914b,「大正元年朝鮮古蹟調査略報告」,『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総督府.

關野貞 外, 1919,『古蹟調査特別報告第一冊 平壤附近に於ける樂浪時代の墳墓』, 朝鮮総督府.

關野貞 外, 1929,『古蹟調査特別報告第五冊 高句麗時代之遺蹟 図版上冊』, 朝鮮総督府.

關野貞 外, 1930,『古蹟調査特別報告第五冊 高句麗時代之遺蹟 図版下冊』, 朝鮮総督府.

關野貞, 1904,『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學.

關野貞, 1909a,『朝鮮藝術の研究』.

關野貞, 1909b,「韓國藝術の變遷について」,『韓紅葉』, 印刷局.

關野貞, 1913a,「新に発見せる高句麗時代の壁画」,『美術新報』12-4.

關野貞, 1913b,「朝鮮江西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古墳」,『考古学雑誌』3-8.

關野貞, 1914a,「平壤付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墳墓及総画 前編」,『朝鮮の建築と芸術』, 岩波書店.

關野貞, 1914b,「朝鮮文化ノ遺蹟 其二」,『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総督府.
關野貞, 1914c,「朝鮮文化ノ遺蹟 其三」,『古蹟調査略報告』, 朝鮮総督府.
關野貞, 1914d,「高句麗時代の壁画(一)」,『国華』294.
關野貞, 1914e,「満州輯安県及び平壌付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一)」,『考古学雑誌』5-3.
關野貞, 1914f,「満州輯安及び平壌付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二)」,『考古学雑誌』5-4.
關野貞, 1915,『朝鮮古蹟圖譜』Ⅱ, 朝鮮總督府.
關野貞, 1915a,「高句麗時代の壁画(二)」,『国華』297.
關野貞, 1915b,「高句麗時代の壁画(三)」,『国華』298.
關野貞, 1917,「平安南道大同郡順川郡龍岡郡古蹟調査報告書」,『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総督府.
關野貞, 1920a,「平安北道及満州高句麗古蹟調査略報告」,『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総督府.
關野貞, 1920b,「丸都城考」,『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総督府.
關野貞, 1932,『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關野貞, 1941,『朝鮮の建築と芸術』, 岩波書店.
近藤義郎, 1964,「戰後日本考古學の反省と課題」,『日本考古學の諸問題』.
近藤義郎, 1965,「朝鮮文化財に思う」,『考古學研究』45.
內田好昭, 2001,「日本統治下の考古學的發掘調査(上)」,『考古學史研究』第9號.
藤田亮策, 1951,「朝鮮古文化財の保存」,『朝鮮學報』1, 朝鮮學會.
藤田亮策・梅原末治, 1959,『朝鮮古文化綜鑑』3, 養徳社.
栗山俊一, 1909,「平壌及開城の古墳」,『韓紅葉』, 度支部建築所.
梅原末治, 1969,「日韓合併の期間に行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った一考古學徒の回想」,『朝鮮學報』5.
梅原末治, 1973,『考古學六十年』, 平凡社.
門脇禎二, 1957,「官學アカデミズムの成立」,『日本歷史講座』8.
樋本杜人 外, 1933,『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永和九年在銘塼出土古蹟調査報告』, 朝鮮総督府.
樋本杜人, 1934a,「平安南道大同郡龍岳面上里遺蹟調査報告」,『博物館報』6, 朝鮮総督府博物館.
三上次男, 1955,「朝鮮考古學の發達」,『日本考古學講座』2.
西川宏, 1966,「在日朝鮮文化財と日本人の債務」,『歷史地理教育』.
西川宏, 1968,「帝國主義下の朝鮮考古學–はたして政策に密着しなかったか–」,『朝鮮研究』7, 朝鮮史研究會.

西川宏, 1970,「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考古學–年表–」,『考古學研究』第16卷 第4號, 考古學研究會.

小場恒吉 外, 1937,「高句麗古墳の調査」,『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会.

小場恒吉, 1938,「高句麗古墳の調査」,『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会.

小泉顯夫, 1938b,「平壤萬寿台及其附近の建築物」,『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野守健 外, 1935b,『昭和五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梧野里古墳調査報告』, 朝鮮総督府.

野守健 外, 1938,「晩達山麓高句麗古墳の調査(概要)」,『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会.

李 某, 1910,「雜報 朝鮮平壤付近古蹟調査」,『東京人類學會雜誌』295.

이선복, 1988,『考古學槪論』, 이론과 실천.

李盛周, 1995,「帝國主義時代 考古學과 그 殘迹」,『古文化』4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희준, 1990,「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硏究 –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2)」,『韓國考古學報』24輯, 한국고고학회.

日滿文化協会, 1938,『通溝』卷上, 高句麗国通化省輯安縣高句麗遺蹟.

日滿文化協会, 1940,『通溝』卷下, 高句麗国通化省輯安縣高句麗壁画墳.

鄭仁盛, 2005,「關耶貞と樂浪遺跡の調査研究」,『關野貞アジア踏査』.

鄭仁盛, 2006,「평양일대 고구려 벽화고분의 고고학적 조사」,『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鳥居龍藏, 1910,「洞溝に於ける高句麗の遺蹟と遼東に於ける漢族の遺蹟」,『史學雜誌』第21編 第5號, 史學會.

鳥居龍藏, 1917,「平安南道黃海道古蹟調査報告書」,『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書』, 朝鮮総督府.

早乙女雅博, 1997,「關野貞の朝鮮古蹟調査」,『精神のエクスペディシオン』, 東京大學創立百二十周年記念東京大學展 學問の過去·現在·未來「第二部」.

早乙女雅博, 2005,「高句麗壁畵古墳の調査と保存」,『關野貞アジア踏査』.

太田天洋, 1913,「朝鮮古墳壁画の発見に就て」,『美術新報』12-4.

黒板勝美, 1916,「朝鮮史蹟遺物調査復命書」,『黒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黒板勝美, 1917,「黃海道殷栗郡鳳山郡平安南道大同郡龍岡郡安州郡平安北道義州郡龍川郡定州郡史蹟調査報告」,『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総督府.

1945年以前の高句麗壁画古墳の調査 Ⅰ

早乙女雅博

Ⅰ．はじめに
Ⅱ．壁画古墳の発見
Ⅲ．壁画古墳の調査 1912～1914年
Ⅳ．壁画古墳の保存
Ⅴ．壁画古墳の調査 1916年，1917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はじめに

高句麗壁画古墳は、現在106基が知られる。中国遼寧省撫順に1基、遼寧省桓仁に1基、吉林省集安に29基(長川を含む)、北韓の平壌とその周辺で74基がある。集安は高句麗第2次の王都であり平壌は第3次の王都で、そこに集中している。桓仁は第1次の王都であるが、そこの壁画古墳は王都が移動した後に造営された。1945年以前に発見あるいは調査された壁画古墳は、集安で29基、平壌とその周辺で19基である[1]。この時の調査に関わったのは、主に日本人研究者で関野貞、谷井済一、栗山俊一、小場恒吉、濱田耕作、梅原末治、小泉顯夫等の名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壁画古墳の殆どは封土墳で、地上に土を盛り上げた高い墳丘をもち、その中央に横穴式石室が造営される。封土墳は人目に付くため、早くから盗掘を受け副葬品は残っていないことが多い。1941年に調査された真坡里4号墳の奥壁には、「咸通十一年庚寅三月七日」(紀元870年)という落書があり[2]、この頃にはもう石室の入口が開かれていた。また、1912年に江西の遇賢里三墓を関野貞とともに調査した谷井済一は、小墓は早く既に渤海の頃に発掘されたようだと見られ、大墓と中墓は度々発掘を経たようだ、と述べている[3]。他の古墳も例外ではなく近代の発見時にはすでに盗掘の痕跡がみられ、副葬された遺物はほとんど持ち去られている場合が多い。

したがって、高句麗壁画古墳に残されたのは石室と壁画であり、それらを対象として考古学・美術史・建築史の分野から関心が寄せられ、石室の構造や壁画文様の研究がなされてきた。

その研究の出発点となったのが、建築史を専門とする関野貞である。1912年9月にはじめて壁画古墳を発掘調査し、その成果を1913年1月の日本考古学会の例会で、「朝鮮江西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古墳」と題して発表した[4]。その後の調査をふくめて、彼は高句麗壁画古墳を

1 集安の折天井塚と平壌の高山洞7号墳(植物園区域9号墳)は、1945年以前に調査されたが壁画が確認されたのは1945年以降なので、1945年以前に発見・調査された古墳の中には数えない。

2 梅原末治、1966、『朝鮮古文化綜鑑』第4巻。

3 谷井済一、1912、「朝鮮通信(1)」、『考古学雑誌』第3巻 第4号。

4 関野貞、1913、「朝鮮江西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古墳」、『考古学雑誌』第3巻 第8号。

「東洋最古の絵画と称すべく、これら古墳に於ける構造手法と共に東洋の建築史芸術史上多大の光明」と評価している[5]。関野貞は東京大学の命令により、1902年に初めて韓半島に渡り古建築の調査を行った[6]。 統監府は妻木頼黄の推薦により1909年に関野貞に依嘱して韓半島全土の古蹟調査を開始した。翌1910年に朝鮮総督府が置かれると、その事業は引き継がれるとともにより強化された。 高句麗壁画古墳の調査も1909年より始まった韓半島全土に及ぶ古蹟調査の一環であった。

統監府度支部そして総督府内務部地方局第一課に引き継がれて行なわれた古蹟調査では、植民地統治のなかで保存すべき古蹟の目録を作成し、その修理保存を行政として行なった。そこでは、保存すべき古蹟を選定するにあたって、古蹟の価値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が問題となる。その評価ため関野貞が中心となった古蹟調査では、写真、図面、簡単な記述などの報告が作成され、学術的な意見を添えて総督府へ提出された。それとともに、関野貞は個人的にフィールドカードを作成し、調査した現地で壁画古墳について観察した内容を詳細に記述したりスケッチをとっている[7]。 このカードは後に、壁画古墳に関する論文の資料となった。

本稿では、関野貞が調査した高句麗壁画古墳について、その発見の経緯や調査の内容、そして保存の対策などについて、これまでに筆者が報告した論文[8]により全体の流れを見るとともに、各古墳ごとのフィールドカードの記述及びスケッチを紹介する。記述には関野貞の論文に見られない内容が含まれたり、スケッチには部分詳細図もあり、今後の研究の基礎資料となる。

Ⅱ 壁画古墳の発見

記録に残る最初の発見は、1902年頃に江西郡守が江西大墓と江西中墓を発掘したことに始まるが、その詳細は不明である。具体的に発見の経緯がわかるのは、1905年に入ってからである。

東京美術学校日本画選科生であった太田福蔵[9]は、1905年に第15師団第58聯隊第3大隊に配属され平壌にいたが、その後、鎮南浦、江西に派遣され、江西には8ヶ月滞在した。太田は古い美術に興味をもっていたので、地元の人から近郊に古墳が3基あることを聞き、ここを発掘することにした。この時、郡守がこの古墳(江西大墓と江西中墓)を1902年に発掘したこ

とを、地元の人より聞いている。発掘を始めて3日後の1905年11月28日には、江西大墓の石室内に入ることができた。蝋燭の明かりで内部を観察し、3時間ほどかけて壁画をスケッチした。自分一人で入ると盗掘の疑いをかけられるので地元の人々も石室内に入り、一緒に遺物を探したが何も発見できなかったという。江西中墓の石室内にも入り、四壁や天井に絵画が描か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いる[10]。

江西大墓、中墓、小墓の三つの大きな墳丘があるこの地域は、三墓里とよばれ昔から王侯の古墳と伝えられて毎年郡守が祭祀を行なってきたという。たまたま郡守李宇栄の知遇を得た江西在住の岡村幸一は、1906年に自費により江西大墓と江西中墓を発掘して壁画文様を見ている。その時、石室入口の石扉の断片を同氏が所蔵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11]。

その後、関野貞が古蹟調査を開始して平壌に滞在していた1909年に、同地の白川正治より江西に3基の大きな古墳があることを告げられた。この年は、調査に行く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1911年の古蹟調査の時に、江西に1日だけ行き古墳を見学した。この時、先年の郡守の発掘に参加した地元の人に質問したところ、四壁は石でもって積み、内部に壁画があるが、副葬品はなかったという。これにより、関野は高句麗時代のものであると推定した。東京に戻って、この年の12月に、関野貞は東京美術学校で講義を終えたあと、生徒であった太田福蔵より1905年に描かれた江西の古墳壁画のスケッチを示された。この絵により、ますます高句麗時代の古墳であることが明確となった[12]。

5 関野貞、1914、「平壌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墳墓」、『建築雑誌』第326号。

6 関野貞、1904、『韓国建築調査報告』、東京帝国大学工科学術報告6号。

7 藤井恵介・早乙女雅博・角田真弓・李明善、2004、『東京大学絵合研究博物館所号　関野貞コレクション　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

8 早乙女雅博、2005、「高句麗壁画古墳の調査と研究」、『関野貞アジア踏査－平等院・法隆寺から高句麗壁画古墳－』、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

9 東京美術学校に、1901年度に日本画選科の1学年に在籍していたが、1905年に兵役に従い、再び1908年9月14日の日本画選科の試験に合格し、1913年3月に日本画科を卒業(『東京芸術大学百年史』、東京美術学校篇学第2巻)。その後 1946年2月24日に没。

10 太田天洋、1913、「朝鮮古墳壁画の発見に就て」、『美術新報』第12巻 第4号。

11 画野貞資料、『江西古墳之記』によると、岡村幸一は当時江西郵便所長であった。

12 野貞、1913、「朝鮮江西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古墳」、『考古学雑誌』第3巻 第8号。

Ⅲ
壁画古墳の調査 1912年~1914年

1912年 9月に、関野貞・谷井済一・栗山俊一は江西大墓・中墓・小墓を発掘調査した。壁画の存在が知られていたので、あらかじめ李王職博物館に頼み、博物館の予算で模写することとして、小場恒吉(当時、東京美術学校助手)と太田福蔵の派遣を依頼した。約70日を費やして詳細に模写し、この模写図は京城(ソウル)の博物館に納められた[13]。その下絵は日本に持ち帰られており、東京大学や東京芸術大学に所蔵されている模写がそれであろう。模写では、ランプや反射鏡を使用して明かりを取ったが大変な困難を伴った。それでも、「壁画の色は緑青が最も多いが、その色は焼けて赤黒い色になっている。最も立派に見えるのは朱色で、鮮やかな色をしている。また、胡粉が使ってある。黄色も盛んに使われ、変色して何の色かわからなくなっているものもある。」という詳しい観察をしている[14]。 高い持送天井をもつ江西大墓は、天井石に2尺四方の孔があいていた。かつての盗掘孔であろうが、小場、太田による模写の作業にとっては格好の明かり採りとなった。この盗掘孔の上は土で埋まっていたが、墳頂から掘り下げたところ盗掘のあとが検出でき、そこから天井石の破片が三個発見され、これにも彩色があった。1913年の模写には盗掘穴の部分が空白となっている。

江西大墓は花崗岩の切石を積んだ単室の横穴式石室で、四壁と持送天井に直接絵画が描かれる。壁には画面一杯に四神もが描かれ、天井には蓮華、忍冬のほか仙人や鳳凰、翼馬が描かれる。

江西大墓フィールドカード (1912年9月26日)

江西・遇賢里第一塚・方約十尺・高約十一尺四寸五分

三塚ノ中最大ナル者高約四十尺、

玄室・南面左右各一石、東壁及西壁三石、北壁二石ヨリ成ル、天井ハ二重持送対角持送及其上ニ一回持送ヲ作リ中心石ヲ覆フコト、普通句麗墓ト同様ナレドモ隅ニ懸持送ヲ作レルハ他ニ見ザル特色ナリ、又壁面ノ上部ヲ少ク外ニ持出セル(斜ニ)モ面白シ、

13 太田天洋(1913)によれば、京城の博物館とは李王家博物館である。

14 注10に同じ。

入口ノ左壁ニハ双鳳他ノ三面ニハ黄龍白虎玄武ヲ作ル魂麗雄渾極メテ偉観トナス、
入口ノ周祿ニハ忍冬唐草ノ文様ヲ作ル、
第一持送、側面ニハ夢殿観音光背ト同種ナル忍冬文様ヲ作ル、
第二持送、下端ニハ中央蓮華ニ忍冬、左右ニ蓮華ヲ描ク、其側面ニハ雲ニ天人又ハ鳳ニ騎シタル赤衣人等及山岳図ヲ作ケリ、
第三隅三角持送、下端ニハ隅ニ蓮華忍冬、左右ニ双鳳ヲ作ル、側面ニハ中央ニ忍冬崩シ文様(法隆寺天蓋天人光背ニ近シ)、左右ハ翼馬ヲ作ル、
第四持送、下端ニハ蓮華忍冬、南北ハ一鳳、東西ハ二鳳ヲ作ル、
中心石、雲及龍ヲ作ル、筆力遒勁雄健ナリ、
是等ノ検画ハ花崗岩上ニ直ニ施セシ者ニシテ、持送リノ縁ニハ一寸許、栗色線ニ黄土塗ノ線ヲ作レリ
入口、今大ナル石ヲ四枚重ネテ巧ミニ塞ギタリ、当初ハ更ニ其上ニ一枚ノ石ヲ重ネシ者アリシ モ、今ハ失ハレタリ(其形跡ヲ存ス)、
墓道ハ甚短シ(或ハ其前部ヲ破壊セシ者カ研究ヲ要ス)、

1912年 9月 26日

江西中墓は江西大墓の天井とは異なり、平行持送二段に大きく平らな一枚の天井石が載る。日本で奈良県の法隆寺調査の経験がある関野貞は、蓮華、忍冬、銀杏唐草などの文様に注目した(図1)。三つの墓は三角形に配置され、南中央に大墓があり、これを第一塚と呼んだ。その北西に中墓が位置し、これを第二塚と呼び、北東の小墓を第三塚と呼んだ。小墓では壁画は発見されていないが、石室構造は三段の平行持送に一段の隅三角持送、そして天井石が載り、大墓に似る。

江西中墓フィールドカード(1912年9月24日)

江西高句麗古墳・第二塚・在遇賢里
玄室、方約十尺、四壁美ナル緻密ノ質ノ花崗岩格一枚ヨリ成ル、其上持送二重亦何レモ一石、更ニ上ニ一枚ノ天井石ヲ以テ覆フ、此天井石ハ中央ニ向テ少クムクリ上カレルニヨリ四隅ニ交会様ヲ作レリ、
南面入口・石扉柄穴ヲ存スレトモ石扉今破壊サレテ下ニアリ、
装飾・南面左右壁ニハ、双鳳相対シ、他ノ三面ニハ蒼龍、白虎、玄武ヲ画ケリ、特ニ朱雀ノ如キハ玉虫厨子ノ者ニ髣髴セリ、
持送第一、下端文様ナシ、側面ニハ忍冬文様ヲ作ル、全ク北朝風ナリ、
持送第二、下端中央ニ一種ノ火炎唐草文様ヲ作ル、側面ハ銀杏唐草文様ヲ作ル、手法尤美、
天井、中央ニ蓮花ヲ描キ、南北ニ鳳凰、東ニハ日輪ト雲、西ニハ月輪ヲ描ク、日輪ニハ三足烏ヲ描ク、月輪ニハ何カカキタルモ明カナラス、更ニ四隅ニハ四分ノ一蓮花ノ外ニ三忍冬文ヲ作

ル、忍冬ハ全ク希式ナリ、
玄武ハ、長キ獣類ノ如キ四足アリ、蛇之巻キタリ、蛇亀共ニ頭部明ラカナラス、而シテ其下ニ岩山状ヲ作ル、
床モ亦一枚石ヨリ成レリ、木棺破片ボロボロニナリ、朱漆ノ零片ト残レリ、
石材ハ極メテ良質ノ花崗岩ヲキレイニ鑿ロキシ、其上ニ黒、朱、黄土、栗色、緑青、藍等ノ顔料ニテ、絵及文様ヲ作ル、・

元　九　二四

その後、江西中墓の保存工事の時に、玄室の入口に設けられた観音開きの扉石の断片が発見され、そこにも壁画が確認された[15]。天井持送と同じ銀杏忍冬唐草文が描かれる。

江西の古墳の調査時、そこより南南東に8.8km離れた(朝鮮総督府大正5年測量5万分1地図に古墳の位置が載っているので、それより計測した)鶴林面肝城里にある蓮華塚がすでに発掘されて玄室に出入りできることを聞き調査した。前室と後室の二室からなり、壁と持送天井には漆喰が塗ってあり、その上に絵画が描かれてあった(図2)。小場、太田はこの壁画も模写したが、それは京城の博物館に納められた[16]。横長の前室には三区分された天井があり、東西の壁に小さな龕室があるのが特徴である。

肝城里蓮華塚フィールドカード(1912年9月25日)

江西・鶴林面干城里古墳
前後二室ヨリ成リ、墓道アレドモ今埋没ス、前室ノ中央天井ヲ破リテ入ル、
前室ハ、長方ニテ後室ノ入口ノ左右ニ小龕アリ、又左右壁ノ前ノ方ニ更ニ小ナル壁龕アリ、入口ノ向テ左ノ龕ニハ向テ右ノ側壁ニ人物像アリ、惜ムラクハ顔面毀損ス、躰部服装当見ルヘシ、其上ニ北朝式ノ天蓋アリ墨書ス、人物ハ衣服ノ如キ者ヲ描ケリ、
天井ハ三区ニ分タレ、西区ニハ今猶蓮華ノ中心飾アリ、赭色ニテ描ク、
前後ノ壁ハ、二重持送リアリ、
壁天井ニハ、黒、赭色ニテ太キ輪廓ヲ画セリ、
入口ノ上ニハ、蛇ノ如キ者ヲ描キシ形迹アルモ毀損、僅ニ上部ヲ遺スノミ、
後室ハ、方形ニシテ、三重持送リ、対角石ヲ用フル等普通句麗式ナリ、
「入口ノ上ニ蛇ノ如キ者、東ニ鹿ノ如キ者(脚ノミ有ス)、西ニ」
入口ノ上ニハ、太キ黒キ帯ニテ、三角形ノ輪廓ヲ作リ、中ニ鳳凰ヲ描キ、其上ニ蛇ヲ作リ、東ニ麟ノ如キ者(足ノミ存ス)、西ニ天人ノ如キ者(一部存)ヲ描キタリ、
内部四隅ニハ、二手先組物ヲ図ス、先壁ニ陰線ヲ画シ斗肘木ヲ画ク、飛鳥式ノ斗ナルハ面白シ、

15　梅原末治、1966、『朝鮮古文化綜鑑』第4巻。
16　関野貞、1913、「新たに発見せる高句麗時代の壁画」、『美術新報』第12巻 第4号。

三重ノ持送リ、赤若クハ黒ニテ太キ帯ヲ作ル
西壁ノ上部ニ小ナル天人図アリ、aニハ図内三足烏、bニハ図アレハ内容不明、cニハ圏内ニ巴文ノ如キ物ヲ作ル、dニハ鳳ノ如キ者少ク見ユ、
中心飾ニ大ナル蓮華アリ、黒クシテヨク見ヘス、
壁ハ、二寸ヨリ四五寸位ノ安山岩ヲ積ミ入口龕等ハ粗質ノ花崗岩ニテ作リ、石少ク漆灰ヲ塗リ、其上ニ彩色ヲ施コセシ者ナリ、灰漆ハ三返塗リ、下塗ニハ窃ヲ混ス、
墳前面地盤ヨリ高約二十五尺、後面小丘漸ク高シ、故ニ墳高約十尺、
東面三十尺、西面十五尺、径約十五間、
墳ハ園山ト秤スル小丘陵ノ南端ニアリ、
位置・上下干城里ノ西約千メートル、園山ノ南端ニアリ、南面ヨリ西方ニ広ク開豁ナル平野ニ臨ム
注意・鳴ロ里(園山ノ西北)ノ西北、東方ノ低平ナル岳ニ(東方二基、西方ニ約十基)大ナル古墳十数基アリ、其高句麗時代ノ古墳ナルヘシ、

1912年 9月 25日

関野貞・谷井済一・栗山俊一が江西での調査を終了し、京城に戻って江原道の調査へ出発しようとした時に、専売局長上林敬次郎よりの電報で梅山里に壁画古墳があることを伝えられた。日程の都合で、関野貞は調査に行くことができず、総督府技師の岩井長三郎(1905年東京帝国大学工科大学建築学科卒業)と壁画模写に従事していた太田福蔵にその調査を依頼した。この時、壁画の写真が撮られ模写も一部分が作成された。関野はこれを日本に帰国後見ている[17]。

1913年9月に関野貞・谷井済一・栗山俊一は、前年に知らされた梅山里狩塚(四神塚)を調査した。梅山里古墳群には18基の古墳が確認され、南から北に向かって第1行~第5行、各行東から西へ第1から2,3へと番号がつけられた。そのうち調査された古墳には、狩塚(第2行第1)、南塚(第2行第2)、中塚(第4行第2)、北塚(第5行第2)の名称が付けられた(図3)。この4基と第5行第1の古墳を除いては、すべて崩塊していた。狩塚は　玄室南壁の一部が破塊され、ここより出入りができた。　西壁に馬に乗って狩猟している姿が描かれているので狩塚と命名されたが、四壁に四神(玄武・蒼龍・朱雀・白虎)を描いているので四神塚とも呼んでいる。梅山里の他の古墳には壁画はないが、南塚は漆喰が殆ど剥落して僅かに下塗りの一部が残るのみで、石面が露出していた。中塚は漆喰がよく残り4回塗りで少し灰色をしている。

狩塚の模写は太田福蔵が1912年に1人で作成したが、人物や馬の場面に限られたものであった。全体の模写は小場恒吉により1913年に作成された。

17 関野貞、1914、「平壌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墳墓」、『建築雑誌』 第326号; 関野貞、1914b、「朝鮮古墳の壁画に就て」、『美術新報』第13巻 第5号。

梅山里狩塚フィールドカード(1913年9月23日)

平南・鎮南浦大上面梅山古墳・第二行ノ第一・狩塚。

方約十尺ノ玄室、南面東ニ偏シテ羨道アリ、

壁ハ上ニ向テ内湾状ヲナシ、其上ニ持送三重、何レモ下端□ヨリ側面内方ニ傾ク、其上ニ三角隅石四枚ヲ置キ、更ニ四枚ノ石材ヲ以テ普通重ネ、其上ニ中心石(今無)ヲ載セテ覆ヒタリ、其構造ハ勿論高句麗タルコトヲ示セドモ、江西江東等ニ比スレバ手法甚雑拙ナリ、

壁ノ構造ハ手頃ノ石材ヲ種ト石材間ハ石灰入レ粘土ヲ以テ塞シ、壁面ニハ漆喰ヲ四返塗リトナセリ、但下塗以上三返ハ粘土ニ少許ノ石灰ト藁窃ヲ混セシ者ヲ塗リ、上塗ハ石灰塗リトナシ、其上ニ絵画文楊ヲ施セリ、下塗上塗共ニ頗堅緻ナリ、

壁画

南面ハ入口ノ西ニ双鳳相対セル者ヲ描キ、東壁ニハ蒼龍ヲ作リ、後ノ稍上部ニ騎馬人物ヲ画キタリ西壁ハ白虎ヲ作リ(剥落汚損多シ)、中央上部ニ一人馬ニ騎シ弓ヲ引クノ状ヲナシ、二鹿其前ニ遁走スルノ状ヲ作リ、

南面　中央ヨリ少ク東ニ偏シテ四人床上ニ坐スルノ状ヲ作リ、左右ノ柱ヲ立テ、上ニ幔幕ヲ吊リ中央及左右端ニ花飾ヲ作リ、又二所曲セル棒ノ端ニ鈴ヲ吊下ルノ状ヲ作ケリ、其東方ニハ一人馬ヲ牽クノ図、西ニハ玄武ヲ作ケリ、惜ムラクハ剥落汚損多ク全体ヲ見ルニ足ラズ、

天井　三重ノ持送ノ中、第一無地、第二各面ニ三ヶ所ツツ一種ノ唐草文楊ノ如キ者ヲ作レリ、第三持送ニハ黄土ヲ以テ唐草文楊ヲ描ク、

三角持送リハ文楊アリ、第二ノ普通三角持送ニハ唐草文楊ヲ作リ、中心石ハ今存セズ、当初ノ文様考フベカラズ、

南壁　鳳凰姿勢手法甚稚拙ナリ、冠頂及嘴下冠手法面白シ、其様式南北朝式ノ基因ヲナセル者ナリ

東壁　鳳凰ト殆ト同様ノ姿勢ヲナセル龍ヲ描ク、是亦甚稚拙ナリ、両角ヲ存シ、長ク真直クニ舌ヲ吐ク、眼ノ附近ハ毀損セラル、前肢右ノ如キハ古拙甚シ、翼ノ形迹ヲ遺セル者前肢ノ辺ニアリ尾ハ体躯ヨリ続キテ蛇ノ如シ、江西ノ如ク躯幹ヨリ支出セル者ト異ナレルハ古式ナルベシ

北壁　玄武ハ蛇ノ蟠結セル者ト亀甲文ヲ見ルヘキモ蛇ノ首、亀ノ体及四肢明カナラス、但蛇ノ蟠結ノ姿勢不自然ニ奇ナリ、

西壁　虎顔面、目ノ下、鼻ト口ノ一部トヲ髣髴スヘク、躰躯ハ背筋ト尾トヲ見ルヘク、他ハ剥落見 難シ

1913年 9月 23日

フィールドカードはもう一枚(1913年9月23日)あり、ここでは壁画の内容について書かれる。

鎮南浦大山面梅山里古墳　第二行ノ第一　狩塚

北壁

人物四人、東方大ニシテ、床上ニ坐ス、次一床、次二人一床、東方人物ノ頭部仏ノ如シ、床ニ格狭間ノ基因ト見ルヘキ錬形アリ、特ニ面白キハ何レモ胸辺及腰辺ヨリ領布如キ者上ニ上リ、飄レルコトニシテ、六朝鏡人物ニ於ケルト同様ナルコトナリ、

此他服飾及馬具、馬ノ描法何レモ六朝式ヲアラハシ、最感興ヲ引クニ足レリ、
東壁ノ上ニハ、日輪ヲアラハス、圏内ニ三足烏アリ、
西壁ノ上ニハ、月ヲアワハス、圏ナキハ奇ニシテ、蟾蜍(?)ハ水中ニ棲ムガマ虫ニ似タリ、
天井持送ノ唐草文楊ハ下ニハ一種雲文ニ似タル唐草文楊ヲ三者描キ、墨ニテ輪郭ヲ作リ、処々ニ川の如キ節ヲ描ケリ、上ノ唐草文様ハ連続文様ニシテ、南北朝ノ性質ヲ帯フ、
年代ハ約千五百年前カ、鎮南浦附近ニ発見セラレシ中、最古式ヲアラハス、
北壁人物四人ノ内、東方最丁寧ニ大ク画ケルハ、墓ノ主人カ他ハ其従者カ

1913年 9月 23日

1913年は壁画古墳の調査と模写が最も盛んに行なわれた年である。李王職事務官末松熊彦氏が、1912年に花上里大蓮華塚(龕神塚)と花上里星塚の調査をして発表したことを聞き、関野貞・谷井済一・栗山俊一がこの2古墳を発掘調査した。大蓮華塚は壁画の一部に大蓮華があることから命名されたが、前室の左右に龕があり、その中に神像が描かれているので龕神塚ともいう(図4)。

花上里大蓮華塚(龕神塚)フィールドカード(1913年9月25日)

平南　花上里大蓮華塚(龕神塚)
前室. 前室・左右方龕、天井平ラニ周囲壁アリ、内弯状ニ持送リヲ作ル、
入口左右壁・東壁剥落、西壁騎馬人物四人許髣髴トシテカスカニ見ユ、
南壁・西下方ニ、車輪及従者何カ持チテ行ク処少々見ユ、
西壁　方龕内部・神像頭部ヨリ肩部剥落唯腰以下并立シ、格狭間ヲ有セル台座ノ上ニ座ス、台座下ニ蓮弁アリ、人物左右ニ小人物アリ侍立ツ、上ニ幕ヲ絞リ、其下ニカベニ王字ヲアラハセル文様ヲ描ク、或ハ後壁ノ文様カ、龕ノ左右側壁ニハ各二人ヅて立ツ、上各一人鉄棒ヲ持チテ立リ、下ノ二人拱立ス、龕ノ左右斗拱下ニハ各二人ノ婦人タテニ立チ、上ノ北側ノ者ハ合掌ス、南ハ剥落、唯裳ヲ見ルノミ、下ノ婦人ハ拱ニハ腰以下剥剥落ス、
東壁　龕内部神像拱手シテ座ス、左右ニハ侍者アリ、南供物ヲ捧ケ、北旒ノ如キ者ヲ持ツ、上ニ幕ヲ縛リ、後壁ノ一種火炎状ノ文様ヲ描ク、側壁左右二人下ノ人物共ニ剥落不明、上ノ人物ニハ唯拱立スルノミ、龕ノ左右東壁各立人物、下ノ人物剥落不明、上ノ人物、南拱立、北何カ捧クルカ如シ、
北壁　西下方三人跪座供養ノ状ヲナス、上ノ方不明、
東方剥離多ク不明、
前室ノ四隅ニハ斗栱ヲ描キ、梁ヲ乗リ、梁四面ニ繞リ蟠虬ノ如キ文様アリ、其上ニハ火炎ノ如キ軒飾処々ニアリ、一帯ヲナシ其間ニ奇拙ナル雲文ヲ点凝ス、其上西壁天井下ノ蛇龍ニ山岳及神仙(?)ノ如キ人物ヲ五人許アラハセリ、猶他ニアルヘキ剥落セリ、
前後室中間入口・左(東)壁大ナル人物ノ如キ物ヲカキタルモ不明、右壁ハ殆剥落弁シ難シ、
後室　四隅斗栱及梁手法文様前室ノ如シ、

南壁　梁上ニ軒飾リアリ、飛雲ノ如キ物ヲ作リ、中央ニハ鳳凰ヲ描キシ者ノ如ク唯足ヲ見ルヘシ、西方ニ松樹ノ如キ者ヲ作ル、東方剥落ス、

東壁・全部崩潰

西壁　梁上ニ松樹ノ如キ者ヲ描キ、下ニ山樹木ヲ作リ、両騎相向テ狩ヲナシ、弓ヲ引クノ状ヲナス、下ニ狐ノ如キ者、虎ノ走ルヲ見ル、大部分弁シ難シ、但両騎者ハ稍明カナリ、手法甚粗毫ナリ、

北壁　大抵剥落、唯東方ニ天蓋ノ如キ者ヲ描キ、中央及左右ニ三人ノ拱坐セル者ヲ描キシ者ノ如ク、唯腰部両手ヲ拱セル所ノミ見ルヘシ(左右)、(中央ノ者ハ唯綬ノ如キ者、二条垂下セルヲ見ル)

全体ノ形状・今前室東壁龕上持送全部崩レ、風雨ノ侵害ヲ免カレス、後室ハ樹木ノ根ヒロガリ為ニ東壁ハ崩潰シ、土内部ニ侵入シ、又天井ノ一部東方特ニ崩落セントスルハ危険ノ状態ニアリ、

1913年 9月 25日

星塚は片袖単室の石室で、持送天井に星形文様があることから命名された。ここの壁画の特徴は、丸みを帯びた斗槙と逆さに吊るした大きな蓮華文様にある(図5)。

星塚フィールドカード(1913年9月24日)

平南・鎮南浦新北面花上里古墳(乙号)星塚

全部比較的ヨク保存セラル、四壁ニ四神図等ヲ写シ、天井ニ簡単ナル唐草及星形ヲ作ル、星辰図ヲアラハスハ単ニ○を装飾トシテ用ヒタリ、四隅ニ斗栱ヲ描キ其上持送下梁形ヲアワハス、南壁入口上鳳凰一隻、柱及入口廻リシ唐草文様アリ、入口ノ西壁ニ上向キ蓮華文ヲ大ク描キ、其向テ左ニ一種ノ忍冬ノ簡ナル者アリ、

東壁　蒼龍ノ如キ者アリ、両角眼尾等ノ如キ者アレドモ不明、其上ニ蓮文ノ逆サニ吊セルガ如キ大ナル文様ヲ描ク、

北壁　蓮文ヲ逆ニセル者ノ上ニ小人物アリ、玄武図ハ剥落不明、

西壁　白虎全ク不明剥落ス、中央ニ蓮子ノ正位セル者アリ、写セリ、

天井　持送ノ側面ニハ悉ク単純ナル唐草文様、下バ火打石、隅石ニハ中央ニ圏(黄)外ニ渦線ヲ描ケル者、其上ノ火打石ニハ三個モシクハ四個ノ圏(黄)ヲ作ル、

中心石・八葉蓮華ノ如キモ不明ナリ

1913年 9月 24日

また、関野貞は平壌で平安南道書記の山崎三郎氏からかつて安城洞長が古墳を発掘した

18　1913年度の古蹟調査については、早乙女雅博、2007、「関野貞の朝鮮古蹟調査(二)-大正二年朝鮮古蹟調査略報告-」、『韓国朝鮮文化研究』第10号を参照。

こを聞き、9月24日より安城洞大塚(龍岡大墓)と双楹塚の発掘調査にとりかかり、29日には壁画古墳の調査をすべて終えて平壌に戻った[18]。 安城洞大塚は横長の前室でその天井が三区分され、梁には一種の唐草文様、蟇股の間には半開きの蓮華文が描かれる(図6)。

安城洞大塚フィールドカード(1913年9月28日)

平南・龍岡郡日連地面安城洞古墳(乙号)大塚
前後二室ヨリ成ル、
墓道殆破塊セラル、
前室、長方浅キ二重持送、天井ヲ三区ニ分チ、各区二重三角式天井ヲ設ク、
隅壁ノ処ニ柱、斗栱(三斗)、梁アリ、梁ノ上ニ隅蟇股アリ、中間ハ不明、梁及蟇股ニハ文様ヲ作ル一種ノ唐草文ナリ、梁ニハ下端側面共ニ蟠虬文様、第一持送ニハ鳥ノ如キ者ヲ画ク、
全体ニ黒ク煤フリテ、其他ノ文様明カナラス、
壁画モ唯南面入口西方壁ニ樓閣図アリ面白シ、
又蟇股間ニ、一種ノ蓮花文様ノ如キ者アリ、
此前室ニテ奇ナルハ、ニッチノ手法ナリ、

1913年 9月 28日

双楹塚は前室と後室の二室からなり、その間の通路に八角形の柱が一対立つ。この2つの柱から双楹塚と命名された。関野貞は1896年から1901年の間の奈良県での古社寺調査で は、建造物以外に宝物にも関心を寄せ、仏像の顔や衣文のスケッチをとっている。これは、建造物の年代を考える上で、それと関連する仏像の年代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判断したからである。その仏像の年代を決めるポイントが顔であり衣文と見た。高句麗壁画で も、その特徴として人物の衣文に注目したことがフィールドカードのメモからわかる(図7)。

双楹塚フィールドカード(1913年9月28日)

平南・龍岡郡日連面安城洞古墳(甲号)双楹塚
前後郎室ヨリ成リ、其中間ニ二本ノ八角柱ヲ立テタルハ他ニ見サル珍シキ手法ナリ、
薦道前部殆破壊、中間厚三寸許、高六尺五寸許ノ大石二枚ヲ以テ塞キシモ、其肩部人ノ辛フシテ出入スルヲ得ル程破塊シアリ、
此中門ヨリ内門ニ至ル間漆喰ヲ塗リ、塞石裏ヨリ天井下ニ渡リテ、高一寸、広三寸許ノ椽ヲ作リ、赤ク塗リタリ
壁ハ、石灰塗シテ、東壁ニハ牛車二輛、甲冑ヲ着ケ馬ニノル者一人、別騎馬二人、男女ノ人物殆三十人ヲ描ク、太鼓ヲ打ツ者アリ、
西壁、牛車、騎馬人物、其他人物約三十人、鼓ヲ打チ鉾ヲ以テ舞フ者二人、
天井ニモ雲文ノ如キ者ヲ描ケルモ不明
○内門　石扉二枚共ニ破塊シアリ、楣石ニ軸穴アリ、下ニハ幣軸ヲ□□□□作リアリシト云

ヘトモ明カナラス、□物アリ、
内門左右壁力士ヲ描ク、東方高麗劒ヲ持ツ、西方不明、
○**前室**　東西南三面三重持送、北壁二重持送、其上ノ構造普通見ル所ノ如シ、東壁西壁ニハ龍虎ヲ描キ、筆力雄勁ナレトモ、惜ムラクハ後世壁ヲ破塊シ大部分ヲ失ヒタリ、
第一持送唐草、第二鳳凰雲文、第三唐草、隅三角持送ニ二重、其一種独特奇抜ナル文様、
中心石ニ鶴林面ノ者ニ似タル蓮花ヲ描ク、
前室、南面入口左右壁ニ人物ノ立像アレトモ不明瞭ナリ、
八角石柱、柱頭及柱脚ヲ有シ、上ニ滅殺セル柱頭ニハ蓮弁ヲ描キ、柱頭ノabacus及皿板ニモ二種文様アリ、柱脚ニモ蓮花ヲ描ク、
○**後室**　四隅ニ柱、斗栱、梁、蟇股ヲ描キ、持送三重、他普通ノ構造ナリ、第一持送斜方、又第二以上奇抜ナル文様ヲ作リ、中心ニ蓮花ヲ作ル、前室ノ如シ、
組物及蟇股間ノ小壁ニハ、南面ニハ龍鳳他瓶花文様、梁ニハ蟠虬文様ヲ描ケリ、
○**後壁**絵画最観ルヘシ、中央ニ楼閣形ヲ作リ、中ニ夫妻ノ像ヲ写シ(左男右女)、夫ノ方ニハ男子侍坐シ、妻ノ方ニハ女子侍立合掌ス、楼閣ニハ敷石、階段、格狭間、扉、斗栱、屋蓋、大棟、中心飾及棟端飾アリ、更ニ楼閣ノ上ニ幕、屋蓋ノ如キ者アリ、左右ニ柱形ノ者ノ上ニ鬼形ヲ作リ、端鵲尾ヲナセル者アリ、屋蓋ノ中央ニ鳳凰ヲ作レリ、
東壁、九人ヲ写ス、皆後壁ノ主夫婦ニ向ヒ供礼スル者ノ如シ、更ニ後ニ、一二人アルヘキモ壁破塊不明、
西壁、幕内天蓋状ヲ作ル、内部ニ何カカキタルナルヘシト雖今不明、且其後方ノ壁破塊セラレタリ、

1913年 9月 28日

小場恒吉は東京帝国大学より壁画模写を依嘱され1913年8月2日に出発し京城の博物館で前年の模写絵(江西大墓、中墓)の仕上げをおこない9月30日に船で釜山を出発して帰国した[19]。 関野貞等とは別行動をとり、1913年に新しく発掘した古墳の壁写模画は翌年に行なわれた。

この時作成された江西大墓と江西中墓の模写は、正式模写が李王職博物館に下桧が東京帝国大学工科大学に納められた。そして、李王職博物館の模写は『朝鮮古墳壁画集』として1916年に原色版で出版された。現在、韓国の国立中央博物館で所蔵している模写は、李王職博物館に納められた模国とは異なっている。より精密に描かれているが『朝鮮古墳壁画集』の壁画と比べると一部劣化の様子も見られる。韓国国立中央博物館の崔章烈が述べるように、1930年に本格的な模写を作成した時のものと推定される[20]。

1914年は関野貞がヨーロッパへ留学の予定で、1914年7月3日には海外へ行く送別会に臨んだ。しかし、8月2日を渡欧の予定にしていたがヨーロッパで大戦乱が勃発した為に延期となった。関野貞は、この年をヨーロッパ留学に予定していたため朝鮮には渡っていない。

小場恒吉は、東京美術学校より学術研究のため朝鮮へ出張を命じられ、1914年9月7日に

総督府で壁画模写と写真の打合せをしたあと、8日に平壌に到着し、双楹塚、安城洞大塚、花上里大蓮華塚(龕神塚)、花上里星塚の模写を行なった。11月に入るとさすがに寒くなり、大蓮華塚の石室内でバケツに松葉を入れて火を起こして暖をとっている。18日に星塚の南壁を模写して、すべて終了した[21]。

これらの調査成果をもとに、1913年1月日本考古学会例会で、関野貞による高句麗時代の古墳について講話があった。また、その年の東京帝国大学文科大学の卒業証書授与式を行った際に、伏見宮博恭王殿下が同大学に来られ、李王職博物館より借り入れた壁画模写を御覧に供し、関貞が説明した。そして翌11日には、同好の人々に観覧を許した[22]。 さらに、1914年48日～10日まで 東京帝国大学工科大学建築学科で建築収科が収集した標本を展示する第五回展覧会が開催され、1912年と1913年に制作された江西大墓、江西中墓の壁画模写が展示された[23]。

Ⅳ 壁画古墳の保存

最初の壁画古墳の調査は、考古学者ではなく建築史の関野貞、画家の小場恒吉、太田福蔵(天洋)により行なわれた。

1909～1913年の関野貞による古蹟調査は、甲・乙・丙・丁の等級付けによる保存政策を目的として古建築調査からはじまったが、古建築にとどまらず「著名な古蹟及び工芸的遺物」にまで及んだのは、古建築と関係のある古蹟及び工芸的遺物はともに古代文化の辺遷をよく表しているという認識であった。その背景には日本の奈良県での古社寺調査の経験があった1897年3月には内務省の命を受けて奈良県の古社寺の調査を行ない、早くも6月には「古社寺建築物保存調査復命書」を奈良県知事に提出した。そこでは、①古建築の年代と価

19 佐々木栄孝、2000、「文様に生きる」10、『秋田魁新報』11月11日。
20 国立中央博物館、2006、『高句麗古墳壁画－国立中央博物館所蔵模写図』。
21 佐々木栄孝、2000、「文様に生きる」11、『秋田魁新報』11月18日。
22 「彙報 朝鮮江西古墳壁画模写の御覧」、『考古学雑誌』第3巻 第12号、1913。
23 「工科大学建築学科第五回展覧会」、『建築雑誌』第328号、1914。
24 関野貞、1987、「古社寺建築物保存調査復命書」、『日本の建築と芸術』下、岩波書店所収。

値を判断して、修繕の緩急を計ること、そのために価値を五等級にわけ、破損の程度も五等級に分けた、②世に伝わる図面は不正確なので、正確詳細な図面を作成し、不慮の事変があっても図面により後世に形式手法を伝える、という二点を重視した[24]。この考えは、朝鮮古蹟調査の甲・乙・丙・丁の等級付けと詳細な記録につながる。

特に図面は正確であり、藤島亥治郎は「実測図の作製に当っては先生の専門である建築の実測図作製法を実に厳格に古墳其他にも応用して、以て精密無比の平面・立面・断面などの図たらしめた」と述べ[25]、浜田耕作は、関野貞が古墳研究で完全な実測図を作成したことを、日本の考古学研究上に方法学的に重大な影響を及ぼしたと評価している[26]。これまでの考古学にとらわれず、持送天井をもつ高句麗古墳石室を建築物とみて当然のように測量したのであろう。

1909年と1910年の調査は『朝鮮芸術之研究』『続朝鮮芸術之研究』に報告され、1911年と1912年は「古蹟調査略報告」が1914年に刊行され、1913年の調査は筆者がまとめた[27]。これらは、朝鮮総督府に提出した年度ごとの調査報告であるため、壁画古墳の内容は詳しく書かれていない。それにかわって、関野貞は高句麗古墳の詳しい調査報告を『考古学雑誌』『建築雑誌』『国華』など複数の雑誌に発表した。

調査後の江西大墓と江西中墓に対しては、他の学者の研究のため埋め戻しをしないで、総督府に依頼して適宜の設備を施してもらうこととした。大墓と中墓は前方の封土を復旧せず羨道の入口に設備を付けて出入り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関野貞の請求により総督府は岩井技師に保存設計を依頼した[28]。そのために関野貞は『古墳保存ニ関スル覚書』をこの年に総督府に提出したと思われる。その内容の一部を抜粋す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

『古墳保存ニ関スル覚書・大正二年・月 朝鮮総督府嘱託 工学博士・関野貞』(月日は不明であるが1913年9月の古蹟調査以前と推定される。文中の明年度は大正2年度(1913))をさす)

当時出張ノ岩井技師ト協議、此等ノ古墳修築ノ設計方針ヲ定メタリ、明年度ニ於テ左ノ二項ヲ実行セラレンコトヲ望ム

(イ)此等古墳ノ修理及入口設備

(ロ)此等古墳内壁画ノ模写及写真撮影

江西遇賢里古墳及前記古墳修理後取扱上ノ注意

25 藤島亥治郎、1936、「関野先生を偲ぶ」、『宝雲』第16冊。

26 浜田耕作、「朝鮮と考古学一」、『中外日報』1924年6月28日。

27 注(18)に同じ。注(18)に同じ。

28 「彙報朝鮮江西遇賢里「三墓」の加工事業」、『考古学雑誌』第3券 第9号、1913。

此等古墳ノ壁画ハ啻ニ我国ノミナラス、世界ノ至宝ナリ、吾人ハ其保存ニ関シ出来得ル丈ケノ手段ヲ尽シ以テ後昆ニ無事ニ伝フルノ義務ヲ有ス、此等壁画ノ保存ノ取締ニ関シ、左記事項ニ注意セラレンコトヲ望ム

(イ)入口ノ鍵ハ道郡庁若シクハ便宜地方ノ巡査駐在所憲兵分遣所ニ保管スルコト

(ロ)関覧希望者ハ官庁ノ許可ヲ受クヘキコト

(ハ)関覧者ハ必ス官庁ノ付添監督ヲ要ス

(ニ)関覧者ハ直接壁面ニ手ヲ触ルルコトヲ禁ス

(ホ)内部ニテ喫煙ヲ禁ス(玄室ニテ喫煙ヲ許ストキハ煙ノ為メ次第ニ壁画ヲ損スル患アリ)

(ヘ)内部ニテ「マクネシウム」ヲ燃シテ撮影スルコトヲ禁ス(同上ト同様ノ理由)
写真ハ成ヘク禁シタシ、撮影希望ノ者ハ総督府ニテ撮影セシ者ヨリ複写セシムルヲ可トス

(ト)壁画ノ模写ハ厳禁スヘシ(幾十百回ト模傷ヲ重ヌルトキハ、漸次壁画ノ損傷ヲ増スヘシ、又先般李王家博物館ニテ、鎮南浦新北面花上里大蓮華塚ヲ拙塚ナル画工ニ命シテ模写セシメ、為メニ壁画ヲ汚損シテ不明瞭ナラシメンカ如キ痛恨事ナキヲ保セス)希望者ニハ総督府ニテモ模写セシ者ヲ模写セシメテ可ナリ

(チ)関覧料ヲ徴収シ以テ保管ノ経費ニ充ツヘシ(関覧料ハ少ナキニ過キサルヲ要ス、多額ナレハ研究者以外ニ単ニ物好キノ見物人ノ数ヲ減スコトヲ得ヘシ)

(リ)雨期、酷暑酷寒ノ季節ハ厳ニ閉鎖ヲ要ス(雨期酷暑ノ時ハ壁画ニ湿気ヲ招クノ患アリ、酷寒ノ時ハ壁面凍傷ノ懼レアリ)

同じ覚書には、古墳の発掘に対する姿勢も書かれている。これは関野の古蹟調査方法を特徴付けるものでもあった。すなわち、写真、実測図、説明書の三点組合せをつねに作成することを義務付けていた。

元来古墳ハ其ノ構造ト副葬品ノ如何ニヨリ、古代文化ノ状態諸種民族ノ特質及相互ノ関係ヲ闡明シ、以テ暦史ノ缺漏ヲ補フヘキ貴重ノ資料タルヘキ者トナレハ、妄ニ発掘スル事ヲ厳禁スルハ勿論、発掘ヲ許可スル場合ヲモ左ノ事項ニ拠ラシムルヲ可トスヘシ

(イ)古墳発掘前、発掘中、並ニ発掘後ノ状態ヲ説明スルニ足ルヘキ写真ヲ提出セシムルコト

(ロ)古墳ノ実測図(平面図、立面図、縦断面、横断図)及副葬品分布ノ実測図並ニ古墳発掘ニ関スル巨細ノ設明書ヲ提出セシムルコト、但図面ニハ詳細寸尺ノ記入ヲ要ス

(ハ)副葬品ハ無論国有タルヘキ性質ノ者ナレハ総督府ヘ提出セシムヘシ

(ニ)古墳発掘ノ際ニハ、総督府ヨリ技師或ハ必要ノ官吏ヲ立会サシムヘシ

(ホ)発掘後ハ官庁ノ指揮ニ随ヒ跡仕末ヲナスヘシ

発掘調査をした翌1913年には保存修理に取りかかり、総督府技師の岩井長三郎の考案に

より玄室への出入り口を設け、特別の観覧者に公開することにした。この時作成された「修理其他設計図」には、現状の古墳・石室断面図、その修理断面図、修理平面図、修理正面図、入口断面図、入口平面図、門および鉄条網、鉄扉其他詳細図が書かれている。

それから9年後の1922年に関野貞は平壌で「江西遇賢里三墓保存の方針」をフィールドカードに残している。その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

(一)大墓中墓共ニ入口扉、扉辺ヲ改造

(二)入口ハセメント塗替

(三)中墓ノ鉄扉ヲ外開キトスル事(内開シタ後ニ附加セシ木框案内ハ充分開クニ能ハズ・肥満セル人ハ入ルニ能ハズ)

(四)鉄条網ノ支柱ノ或者ヲ取替、鉄条網ヲ直スコト成ルヘクハ支柱全部取替ル事

(五)壁画保存ノ状況、内壁ハ全部乾燥シテオリ退色破損等ノ説アルモ、カカル形迹ハ殆ト無シトイフモ可ナリ、唯中墓ノ持送ノ忍冬文様ヲ摩擦シテ汚損セル形迹ハ或ハ後ノ所為カ、中墓ノ西方第二ノ持送ノ漆喰ヲ以テ石面ヲ補ヒ、文様ヲ施セシ者一部剥落シタル形迹アリ、是亦後ノ結果ナラン

(六)要スルニ、壁画ノ保存ニツキテハ見物人ノ触接ヲ防クノ外、当分別ニ憂フルヘキ状況ヲ見ス

(七)大墓ノ棺坐石及床面ニ点々黴ノ生セルヲ見ル如何ナル理由ガルカハ不明、コレハ早ク掃徐シ去ルヲ要スヘシ

(八)最近ハ水利組合却テ此墓附近一対ヲ水田トナスノ計画アリ、至急此三墓ノ周囲ノ耕地ヲ買収スルヲ要スヘシ

(九)中墓ノ外扉ト内扉トノ間ニ数匹ノ蛇蟠リテオリ、コレハ駆除ノ法ヲ講スルヲ良トセシ

これとほぼ同じ内容を別のフィールドカードにも残している。さらに詳しくかかれるが内容からみて1922年のものと同じ時期に書か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

(一)保存の方針

一、三墓ノ立テル周囲ノ敷地ヲ購入スルコト

三墓ハ今耕地ノ間ニ鼎立セルニ、目下水利組合組織セラレ、此附近ノ耕地一帯ハ近々水田ニ変更サレシトス、若シ三墓ノ周囲カ水田トナル時ハ、内部玄室内ニ湿気ノ浸潤スル事、従来ヨリ壁画ノ保存ニ大害アル者ト認メラルルニヨリ、速カニ之ヲ買収シテ芝地トナシ、適当ナル樹木ヲ栽培スルヲ急務トス。今之ヲ買収スレハ、比較的地価低廉ナルモ既ニ水田トナリシ後ハ之ニ収倍スルニ至ルヘシ

二、現在大墓中墓ノ保存ニ関シテハ

(イ)大墓中墓共ニ入口扉及扉廻破損シタルハ改造ヲ要ス

(ロ)入口壁ノセメント塗替ヲ要ス

(ハ)中墓ノ入口ノ鉄扉ヲ外開ニ改メルコト(現在、内扉ノ鉄扉ハ後ニ附加セシ木框ノ為メ、内ニ向テ充分開クコト能ハス、出入困難ナルノミナラス肥満セル者ハ到底内部ニ入ルコト能ハス)

(ニ)小官ノ実査セシ時ハ、中墓ノ外扉ハ内扉トノ間ニ数匹ノ蛇蟠居シテオリ、コレハ駆除ノ法ヲ講セル迄ナシ

(ホ)大墓中墓共ニ鉄条網ニ支柱ノ腐朽セル者ヲ取替ルコト(成ルヘク全部)、及鉄条網ヲ補修スルコト

(二)壁画保存ノ状態

小官ノ臨検セシ時ハ、古墳玄室内ノ壁ハ其前二日間ノ降雨アリタリシモヨリ乾燥シテイルハ壁画ノ色彩ハ世間往々退色変色剥落等ノ説アルモ、カカル形迹ハ殆ト認メカタシ、小官最初ニ発掘セシ時ト大正五年頃二回目ニ実査セシ時ハ格別ノ相違アルヲ認メカタシ、故ニ壁画ノ保存関シテハ見物人ノ触接ヲ防ク外別ニ憂フヘキ外況ヲ見ス、

然ルニ、大墓ノ棺坐石及床面ニ点々黴ノ生セルヲ見タリ、如何ナル理由ニ基クヤ不明ナレハ、コレハ早ク相当ノ処理ヲナスヲ要ス、

(三)将来壁壁保存ノ方針トシテ

(一)総督府又ハ道庁ハ鍵ヲ保存スルコト

(二)観覧拝料ヲ徴スルコト(コレハ五円乃至拾円位道府ヨリノ案内者ノ手当ニ供スルコト)

(三)春期(四月一日ヨリ五月二十日マテ)㎜秋期(九月二十日ヨリ十月三一日マテ)ニ於テ一般ノ観覧ヲ許シ㎜其他ノ時季ハ厳ニ閉鎖スルコト

(四)閉鎖ノ時ハ㎜内外扉ノ中間ニ藁ヲ填塞シテ寒気湿気ノ侵入ヲ防クコト

この年は4月28日に釜山着、6月14日に釜山発の日程で朝鮮に渡り、6月6日に古蹟調査委員会に出席している。5月16日前後の日程をみると、14日に安鶴宮に行き、18日に平壌城中城の礎石を見ている。この前後平壌に滞在しているので、平壌でこの「保存の方針」が書かれたと推定される。

関野貞の保存に対する考えは、壁画に直接処置を施すのではなく、その環境をよい状態に保つことを第1に考えた。そのために人的被害からの防止として入口に鍵付き扉を設け、墳丘のまわりを鉄条網で囲い墳丘へ登ることを防いだ。環境の変化では温湿度の変化に気を使い、通路に藁を敷いたり、周辺の水田化から守ろうとした。その

一方で、季節のよい時期に公開することを認めている。1936年に平壌博物館の館長であった小泉顕夫が、朝鮮美術展覧会の仕事を終えた正木直彦(元東京美術学校長)を江西古墳に案内した時には、古蹟保存会の岡村翁と門扉の鍵を保管する駐在巡査の案内で石室内に入っている[29]。

V
壁画古墳の調査 1916年, 1917年

1915年12月の総督府博物館開館とともに、1916年の4月には古蹟調査が地方局第一課から総務局総務課に移り、地方局第一課の史蹟調査事業<関野貞、谷井済一、栗山俊一>と学務局編輯課の史料調査<鳥居龍蔵、今西龍>を総務局総務課に移管し、博物館がその事業を担当した。

1916年7月10日に『古蹟及遺物保存規則』が施行されると、それに伴い古蹟調査委員会、博物館協議会が設置され1916年から新たに始まる古蹟調査五ヵ年計画が立てられた。この『規則』により総督府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発掘調査ができなくなった。関野貞も黒板勝美、鳥居龍蔵、今西龍(日本側委員)、小田省吾、浅見倫太郎、工藤壮平、劉猛、柳正秀、具義秀(朝鮮側委員)とともに古蹟調査委員となり、これまでの関野貞を中心とする個人調査から古蹟調査委員会を中心とする組織調査へと体制が大きく変わった。

最初の調査で古墳壁画の魅力に取りつかれた小場恒吉は、1916年8月には東京美術学校を退職して朝鮮総督府博物館の嘱託となった。その年の7月に正木校長に朝鮮出張を願い出るが認められず、関野貞が校長に直接会って、不承不承ながらの許可を得たことがその背景 にあるのだろう[30]。

1916年に行なわれた第1年度の調査では、関野貞は谷井済一、栗山俊一、小場恒吉、野守健、小川敬吉とともに、平壌の西の大城山麓の高句麗古墳6基と順川郡の古墳2基

29 小泉顕夫、1989、「正木十三松堂先生の思い出」、『奈良県観光』第387巻。
30 佐々木栄孝、2000、「文様に生きる」15、『秋田魁新報』秋田魁新報社。
31 「大正五年度古蹟調査概要」、『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を調査し、大城山麓に2基(鎧馬塚、湖南里四神塚)と平壌の北16里半にある順川郡に1基(天王地神塚)の壁画古墳を発見した[31]。 直ちに鎧馬塚と湖南里四神塚の発掘を行い実測図を作成するが、壁画の模写は1917年にまわした。

鎧馬塚は、はじめ魯山里第一号墳とよばれ10月28日より発掘が開始された。その『発掘日記』によると、小場恒吉が担当し28日に入口があると想定される南側から掘り始めるが当たらないので、29日には東南に広げて羨道を発見し、そこに堆積している土を運び出し玄室内の壁画を発見した。30日には玄室の土砂を運び出すとともに天井の実測を始めている。31日には小場は土浦里第五号墳の墳丘発測にあたり、鎧馬塚の調査は休んでいる。この古墳は、『発掘日記』 にははじめ土浦里第五号墳と書かれたが、後にその上に縦線が引かれ湖南里四神塚と訂正されている。11月1日から再び鎧馬塚の石室実測を始め5日に終わらせ、8日には谷井済一が壁画の写真を撮影した。

湖南里四神塚は、関野と谷井が11月1日から発掘を始めたが、小場も6日から担当し始めた。4日には羨道入口を発見し土砂を運び出し、玄室内の壁画を発見した。6日まで土砂の運び出しが続き、9日から石室内の実測を始めるとともに、この日に封土の外部にある玉石を発見した。この玉石は、墳丘の裾に 1~2段の外護列石がまわるその外周に敷かれたもので、小場恒吉の作成した実測図によれば幅は約2.5mある。2日間にわたって玉石の調査をしたのちその実測を行い、12日に調査を終わらせた[32]。

以下に、その『発掘日記』全文をあげる(月日と古墳番号は算用数字に直し、讀みやすく讀点を新たに入れた)。

10月28日.

午前8時頃平壌発自動車ニテ長水院へ、午前8時頃着、先着ノ谷井委員ニ会ヒ宿所ナル面事務所ニ至リ、早々支度ヲナシテ発掘スル古墳ノ調査ヲナシ、直ニ魯山里第1号墳ハ小場監督ノ下ニ南方ヨリ発掘ニ着手ス、人夫十人、

土浦里第1号墳ハ小川監督ノ下ニ発掘ニ着手ス、夕方ニ至リ羨道ノ上部ヲ発見ス人九人、

内里第2号墳ハ野守監督ノ下ニ発掘ニ着手ス、夕方ニ至リ羨道ノ上部ヲ発見ス、人夫九人、

10月29日.

魯山里第1号墳ハ小場監督ノ下ニ新ラタニ東南ニ掘広ケタレバ羨道現ハレ、羨道内ノ土砂ヲ運ビ出シ壁画アルヲ発見ス、人夫七名、

土浦里第1号墳、小川監督ノ下ニ前日ニ引続キ発掘シテ発測ヲナス、人夫十人、

32 関野貞資料、『長水院及温井里附近ニ於ケル高句麗古墳発掘日記』。

内里第2号墳、野守監督ノ下ニ前日ニ引続キ発掘シ、羨道内ノ土砂ヲ運ヒ出ス、人夫四名、

10月30日.

魯山里第1号墳、小場監督ノ下ニ玄室内ノ土ヲ運ビ出シツツ、天井ノ上部ノ一部分実測ス、

土浦里第1号墳、小川監督ノ下ニ前日ニ引続キ羨道内ノ土ヲ運ヒ出ス、羨道内ヨリ金銅ノ鏃及釉薬ノ陶器破片ヲ発見ス、

内里第2号墳、野守監督ノ下ニ人夫二名ヲ使役シテ、羨道内ノ地ヲ運ヒ出ス

土浦里第4号墳、小川氏監督ノ下ニ午後ヨリ外形ノ実測ヲナシツツ、新タニ発掘セシニ夕方ニ至リ羨道ヲ発見ス、羨道内ヨリ鉄輪二個発見ス

10月31日.

魯山里第1号墳、休、

土浦里第1号墳、小川外部ニアル礎石ノ調査及実測ヲナス、

湖南里四神塚、小場人夫一名ヲ使役シテ外形ノ実測ヲナス、

土浦里第6号墳、栗山人夫一名ヲ使役シテ外部ノ実測ヲナス

11月1日.

魯山里第1号墳、小場実測人夫一名、

土浦里第1号墳、午後小川監督ノ下ニ底面ノ調査ヲナシ、陶器破片ヲ発見ス、人夫二名

土浦里第4号墳、午前中小川監督ノ下ニ底面ノ調査及実測、人夫二名、

湖南里四神塚、関野、谷井監督ノ下ニ初メテ発掘セシモ変化ナシ。人夫八人、

内里2号墳、午前中野守実測、人夫一名、

土浦里第6号墳、初メテ実掘セシニ午前中ニ羨道ノ入口ヲ発見ス、午後ヨリ栗山、野守監督ス、人夫七名、

11月2日.

魯山里第1号墳、人夫一名ヲ使役シテ実測ヲナス(小場)、

土浦里第1号墳、人夫二名ヲ使役シテ実測ヲナス(小川)、

湖南里四神塚、前日ニ引続キ発掘セシニ漸ク楣石ノ一部分現ハレ、其ヨリ楣石ニ添フテ東方ニ発掘ス、人夫八名、

土浦里第6号墳、前日ニ引続キ発掘シ、羨道内ノ土及石ヲ玄室ニ入ルコトノ出来ルマデノ所マデ運ヒ出ス、午後三時頃漸ク玄室内ニ入リ底面ノ調査ヲナス、発見品金具及純金針金、人夫五人、

11月3日.

休

11月4日.

魯山里第1号墳、人夫一名ヲ使役シテ実測(小場)、

土浦里第1号墳、人夫二名ヲ使役シテ実測(小川)、

湖南里四神塚、野守監督ノ下ニ前日引続キ発掘ス、前日迄楣石ト思ヒシニ楣石ニアラズシテ、羨道ノ入口ヲ塞キシ石ト思ハル、午後三時頃漸ク羨道内ノ上部ヨリ二尺位迄ノ土ヲ運ヒ出ス、玄室ニ壁画アルヲ発見ス、人夫六名、

土浦里第6号墳、玄室ノ一部実測人夫、二名(野守)、

関野、谷井、栗山、大城山ノ高句麗ノ城跡ヲ調査ス、

11月5日.

魯山里第1号墳、小場実測終ル、人夫一名、

土浦里第1号墳、小川実測、人夫二名、

湖南里四神塚、羨道内部ノ土ヲ運ヒ出ス、人夫九名、

土浦里第6号墳、休、

内里2号墳、野守実測、人夫一名、

11月6日.

土浦里第1号墳、小川実測、人夫二名、

湖南里四神塚、羨道内ノ土及石ヲ外部ニ運ヒ出ス、人夫六名(小場)、

土浦里第6号墳、野守実測、人夫一名、

11月7日.

雨ノ為メ休、

11月8日.

魯山里第1号墳、谷井、壁画ノ写真ヲ取リ、後復旧ス、

土浦里第1号墳、小川実測後、古墳群ノ配置図ヲナス、人夫二名、

土浦里第5号墳、小場実測、人夫一名、

土浦里第6号墳、野守実測、人夫一名、

11月9日.

湖南里四神塚、小場実測、谷井封土ノ外部ニ玉石ノアルヲ発見ス、

内里第2号墳、実測

土浦里第1号墳、谷井写真ヲ取リ、後原形ニ復ス、

土浦里第4号墳、原形ニ復ス工事ヲナス、

11月10日.

内里第2号墳、土浦里第1号墳、土浦里第4号墳、復旧ス、

湖南里四神塚、前日発見セシ外部ノ石ニ付キ調査スル為メ、人夫二十三名ヲ使役シテ調査ヲナス(関野、谷井、栗山、小川、野守、小場)、小場玄室及ビ羨道ノ実測ヲナス、

午後ヨリ小川、土浦里第4号墳附近ノ古墳群ノ高底ヲ調査ス、

11月11日.

湖南里四神塚、外部ノ実測(小場)、

土浦里第1号墳、土浦里第4号墳ノ発見品ノ整理(小川)、

内里第2号墳、土浦里第6号墳、発見品整理及実測図ノ整理ヲナス、

関野、谷井、栗山、午前八時半出発、平壌迄ノ旧跡調査シツツ午後五時頃平壌着、

11月12日.

湖南里四神塚、実測ヲナシ、午後二時頃終ル、

土浦里第5号、土浦里第6号、復旧ス、人夫三十二名

11月13日.

午前八時頃出発、午前八時四十分平壌着(小場、小川、野守)、

11月14日.

午前6時50分発ニテ真池洞着、徒歩ニテ滝岡郡ヲ経テ温井里付近ノ発掘スヘキ古墳ヲ調査シテ午後4時頃温井里着、一行、谷井、小場、小川、野守。栗山氏ハ午前11時発ニテ真池洞着、滝岡郡ヲ経テ夕方温井里着、

11月15日.

葛城里甲墳、小川監督ノ下ニ外形ノ実測及発掘ヲ始ム

黄山南麓三室塚、小場外形ノ実測、野守手伝ヲナス、

黄山南麓七室塚、栗山実測、

11月16日.

葛城里甲墳、小川監督ノ下ニ発掘セシニ層ノ沈下セルヲ発見ス、人夫九名、

黄山南麓七室塚、発掘シツツ実測、人夫五名(栗山)、

黄山南麓三室塚、小場監督ノ下ニ発掘、人夫六名、

第4号墳、野守外形ノ実測、人夫一名、

11月17日.

葛城里甲墳、沈下セル層ニ添テ発掘シテ、壁ノ跡ト思ハル所ヲ発見ス、人夫八名、

黄山南麓三室塚、前日ニ引続キ発掘、人夫八名(小場)、

黄山南麓七室塚、前日ニ引続キ発掘、人夫八名、

第4号墳、前日ニ引続キ発掘、人夫五名、

11月18日.

葛城里甲墳、前日ニ引続キ発掘ス、人夫八名、

黄山南麓三室塚、実測及玄室ノ土ヲ運ビ出ス、人夫八名、

黄山南麓七室塚、玄室内ノ土ヲ運ビ出ツツ実測ヲナス、東ヨリ五番目ノ玄室アリ、坩ヲ発見ス(栗山)、

第4号墳、前日ニ引続キ発掘セシニ全部破壊セシ跡ナレバ中止ス、人夫三名、

11月19日.

葛城里甲墳、前日ニ引続キ発掘、底面ノ一部分ニ達ス、人夫六人(小川)、

黄山南麓三室塚、内部ノ土ヲ運ビ出シツツ実測、人夫二名(小場)、

黄山南麓七室塚、栗山実測シツツ玄室ノ内部ノ土ヲ運ビ出ス、人夫四名、

黄山南麓撐石塚、野守実測、人夫一名、

11月20日.

葛城里甲墳、小川実測、人夫二名、夜番ヲ置ク、

黄山南麓三室塚、小場実測、人夫一名、

黄山南麓七室塚、栗山実測、人夫一名、

黄山南麓撐石塚、野守実測、人夫一名、

11月21日.

葛城里甲墳、小川実測、人夫二名、夜番ヲ置ク、

黄山南麓三室塚、小場実測、人夫一名、

黄山南麓七室塚、栗山実測、人夫一名、

黄山南麓撐石塚、野守実測、人夫一名、

11月22日.

葛城里甲墳、小川監督ノ下ニ底面ノ調査ヲナシ坩ヲ発見ス、人夫二名、夜番ヲ置ク、

黄山南麓三室塚、小場実測、人夫一名、

黄山南麓七室塚、栗山南鮮へ出発依テ、野守引続キ実測ス、人夫一名、

関野、順川ヨリ到着ス、

11月23日.

葛城里甲墳、小川底面ノ調査、人夫一名、

黄山南麓三室塚、小場実測、人夫一名、

黄山南麓七室塚、野守実測、人夫一名、

11月24日.

葛城里甲墳、小川監督ノ下ニ土器全部採取及実測、人夫二名、午後ヨリ土器実測、

黄山南麓三室塚、小場実測、人夫一名、

黄山南麓七室塚、野守実測、人夫一名(午前中)、

11月25日.

黄山南麓二室塚(三室の誤りか)、小場場測、

葛城里甲墳、其他全部復旧ス、人夫三十九名

湖南里四神塚のフィールドカードによると、玄室の四壁には四神図(朱雀・玄武・龍・白虎)が描かれ、床には俎板式棺坐石が3個と他に1個の破片があるので4体の遺骸を埋葬したと推定される。盗掘を受けていて副葬品は殆ど残っていなかったが、「遺物目録」をみると次のようなものがある、[33]。

番号	発掘品	個数	備考
4842	飾釘	九本	頭部ハ鍍金ナリシモ二本ノ外ハ今鍍金剥落ス
4843	斧形鉄器及槍	二個	
4844	金銅金具破片	二個	極メテ小サキ断片ナレハ用途不明
4845	金銅透金具	一個	
4846	省略		
4847	漆断片	若干	
	鉄片	二個	用途不明

天王地神塚の断面図スケッチのフィールドカードをみると日付が大正5年10月28日とあり、鎧馬塚のメモのフィールドカードには大正5年10月31日と書かれているので、まず順川郡に行き、それから平壌大城山麓の壁学古墳の調査を行っているようだ。 関野が天王地神塚を知ったのは、総督府山林課技手海老原侃から聞いたというが[34]、別の報文では総督府篠田内務部長から平壌に滞在中に聞いて時間を割いて調査をしたという[35]。 この時は実査のみで実測図と模写の作成は翌年(1917年)に小場恒吉と太田福蔵が行い、同時に総督府技師の岩井によりレンガを積んで出入り口を作り、扉を付けて堅固な鍵をかけた。

その後、1925年10月3日に再び現地を平壌から日帰りで訪れると、鍵を塊して壁画の漆喰が剥が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た。その原因として、壁の漆喰を取って飲むとマラリアその

33 関野貞資料、『長水院大墳(三号墳)及南墳(四号墳)調査日記附遺物目録』のなかの大同郡柴足面湖南里第五号墳の項目。

34 関野貞、1917、「新に発見せられたる高句麗時代の絵画」、『国華』第327号。

35 関野貞、1925、「順川郡北倉面の八角天井塚に就て」、『朝鮮と建築』 第4輯 第11号では、「大正2、3年頃に地元の人が発掘して遺物を取り出し安州で売ったということで、その時に順川郡守の朴相駿氏が篠田内務部長に墓み墓を見てもらった。関野は、1916年11月頃に平壌附近で調査中に、この墓のことを篠田内務部長から聞き、順川に行き調査した」とあり、墓の発見の経緯に1917年報文と1925年報文では違いがみられる。

他の病気に効能があるという迷信が地元にあることを関野貞は述べている。前回と比べると、玄室の北壁に描かれた夫婦図のうち、主人の顔から身体などの漆喰が取き取られて、その姿はまったくわからなくなっていたが妻の顔は明らかに残っていた。

1916年から始まった五ヵ年計画の古蹟調査は1920年で一応の区切りをつけた。これまでに発見調査された壁画古墳には修理が施され木柵などの保存工事が行われ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45년 이전의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사 연구 Ⅰ

사오토메 마사히로
번역 : 주홍규* · 정인성

Ⅰ. 들어가며
Ⅱ. 벽화고분의 발견
Ⅲ. 벽화고분의 조사 1912~1914년
Ⅳ. 벽화고분의 보존
Ⅴ. 벽화고분의 조사 1916년, 1917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어가며

고구려 벽화고분은 현재 106기가 알려져 있다. 중국 요령성 무순에 1기, 요령성 환인에 1기, 길림성 집안에 29기(장천을 포함), 북한의 평양과 그 주위에 74기가 있다. 집안은 고구려의 제2차 왕도였고, 평양은 제3차 왕도였기 때문에 이곳에 고분이 집중되어 있다. 환인은 제1차 왕도였으나 벽화고분은 왕도가 이동한 후에 조영되었다. 1945년 이전에 발견 · 조사된 벽화고분은 집안에 29기, 평양과 그 주변에 19기가 있다.[1] 당시의 조사에 관계된 사람은 주로 일본인 연구자로서 세키노 다다스(關野貞),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오바 쯔네키치(小場恒吉),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등의 이름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벽화고분은 봉토분으로, 지상에 흙을 쌓아 올린 높은 분구를 가지며, 그 중앙에 횡혈식 석실을 조영하였다. 봉토분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므로 일찍부터 도굴을 당해 부장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1941년에 조사된 진파리 4호분의 내벽(內壁)에는 '咸通十一年庚寅三月七日'(870)이라는 명문이 있어,[2] 이 무렵 이미 석실의 입구가 열려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1912년에 강서(江西) 지역의 우현리(遇賢里) 삼묘(三墓)를 세키노 다다스와 함께 조사한 야쓰이 세이이치는 소묘(小墓)가 이미 발해 시대 무렵에 발굴된 것처럼 보이고, 대묘(大墓)와 중묘(中墓)는 몇 번이고 발굴된 것 같다라고 기술하고 있다.[3] 다른 고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근대 발견 당시 이미 도굴의 흔적이 보이고 부장된 유물은 대부분 가져가 버린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고구려 벽화고분에 남겨져 있던 것은 석실과 벽화로,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 미술사 · 건축사 분야의 관심이 높았고, 석실의 구조나 벽화 문양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

이러한 연구의 출발점에 있는 학자가 건축사를 전공한 세키노 다다스이다. 그는 1912년

*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한국조선문화연구실 고고학 박사과정.

1 집안의 절천장총과 평양의 고산동 7호분(식물원 구역 9호분)은 1945년 이전에 조사되었으나 벽화가 확인된 것은 1945년 이후이므로 1945년 이전에 발견 · 조사된 고분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 梅原末治, 1966,『朝鮮古文化綜鑑』第4卷.

3 谷井　一, 1912,「朝鮮通信(1)」,『考古學雜誌』第3卷 第4號.

9월에 처음으로 벽화고분을 발굴 조사하고, 그 성과를 1913년 1월 일본 고고학회의 예회(例會)에서 「조선 강서의 고구려 시대 고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4] 세키노는 그 후의 조사를 포함하여 고구려 벽화고분을 "동양 최고의 회화라고 칭할만하고, 이러한 고분의 구조 · 수법과 함께 동양의 건축사 · 예술사상 최대의 광명이다"라고 평가하였다.[5] 세키노 다다스는 도쿄대학의 명령에 의해 1902년 처음으로 한반도에 건너가 고건축(古建築)을 조사하였다.[6] 통감부는 쓰마키 요리나카(妻木賴黃)의 추천에 의해 1909년 세키노 다다스를 위촉하여 한반도 전 국토의 고적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듬해인 1910년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이 사업은 계승 · 강화되었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사도 1909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전 국토를 망라하는 고적 조사의 일환이었다.

통감부 탁지부(度支部)에서 총독부 내무부(內務部) 지방국(地方局) 제1과에 인계되어 행해진 고적 조사는 식민지 통치 중에 보존해야 할 고적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수리 보존을 행정적으로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보존해야 할 고적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적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그 평가를 위해 세키노 다다스가 중심이 된 고적 조사에서는 사진, 도면, 간단한 기술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학술적인 의견을 첨가해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그와 동시에 세키노 다다스는 개인적으로 야장(필드카드)을 작성하였는데, 현지 조사한 벽화고분에 관한 관찰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스케치도 포함되어 있다.[7] 이 야장는 후에 벽화고분에 관한 논문의 자료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세키노 다다스가 조사한 고구려 벽화고분 발견 경위나 조사 내용, 보존 대책 등에 관해 지금까지 필자가 보고한 논문[8]을 중심으로 전체 흐름을 살펴봄과 동시에 각 고분 야장의 기술과 스케치를 소개하였다. 야장의 기술에는 세키노 다다스의 논문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스케치에는 부분 상세도도 있어서 이후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4 關野貞, 1913, 「朝鮮江西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古墳」, 『考古學雜誌』 第3卷 第8號.

5 關野貞, 1914, 「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墳墓」, 『建築雜誌』 第326號.

6 關野貞,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工科學術報告 6號.

7 藤井惠介 · 早乙女雅博 · 角田眞弓 · 李明善, 2004, 『東京大學ª 合研究博物館所號 關野貞コレクション フィールドカード目錄』,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8 早乙女雅博, 2005, 「高句麗壁Ø″古墳の調査と研究」, 『關野貞アジア踏査－平等院 · 法隆寺から高句麗壁畵古墳－』,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벽화고분의 발견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발견은 1902년경에 강서 군수가 강서 대묘와 강서 중묘를 발굴한 것에서 시작되나 상세한 것은 불명확하며 구체적인 발견 경위를 알 수 있는 것은 1905년부터이다. 도쿄미술학교 일본화선과(日本畵選科) 생도였던 오타 후쿠조(太田福藏)[9]는 1905년에 제15사단 제58연대 제3대대에 배속되어 평양에 갔다. 그 후 진남포(鎭南浦), 강서에 파견되어 강서에서 8개월 간 체재하였다. 오타는 고미술(古美術)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에게서 근교에 고분이 3기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것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이미 강서 군수가 1902년 강서 대묘와 강서 중묘를 발굴했다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들은 때였다. 발굴을 시작한 3일 후인 1905년 11월 28일에는 강서 대묘의 석실 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 촛불을 밝혀 내부를 관찰하고 3시간 정도에 걸쳐 벽화를 스케치하였다. 혼자 들어가면 도굴의 의심을 살까 염려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석실 내 유물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강서 중묘의 석실 안에도 들어가 네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10]

강서 대묘, 중묘, 소묘 세 개의 큰 분묘가 있는 이 지역은 삼묘리(三墓里)로 불리며 옛날부터 왕후의 고분으로 여겨 매년 군수가 제사를 지내 왔다고 한다. 강서에 살던 오카무라 코이치(岡村幸一)는 군수 이우영(李宇榮)의 신뢰를 얻어 1906년 자비로 강서 대묘와 강서 중묘를 발굴하여 벽화 문양을 확인하였다. 그 때 석실 입구의 석비 파편은 오카무라가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그 후 세키노 다다스는 1919년 고적 조사를 개시하여 평양에 체재하는 동안 같은 지역의 시라카와 쇼지(白川正治)로부터 강서에 3기의 큰 고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그 해에는 조사를 할 수 없었고, 1911년 고적 조사에서 강서로 가서 하루동안 고분을 견학하였다. 그 때 예전 군수의 발굴에 참가하였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네 벽은 돌로 쌓았고 내부에 벽화가 있으나 부장품은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으로 세키노는 이 고분들이 고구려 시

9 1901년 도쿄미술대학 日本畵選科의 1학년에 재적하고 있었는데 1905에 징병되었고, 다시 1908년 9월 14일에 일본화선과의 시험에 합격해 1913년 3월에 일본화과를 졸업하였다(『東京藝術大學百年史』, 東京美術學校 篇 第2卷). 이후 1946년 2월 24일에 죽었다.

10 太田天洋, 1913,「朝鮮古墳壁畵の發見に就て」,『美術新報』第12卷 第4號.

11 關野貞의 자료『江西古墳之記』에 의하면 岡村幸一는 당시 강서 우편소장이었다.

대의 것이라 추정하였다. 세키노 다다스는 그 해 12월 도쿄에 돌아와 도쿄미술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당시 생도였던 오타 후쿠조가 1905년에 그린 강서의 고분 벽화 스케치를 보게 되었다. 이 그림으로 고구려 시대의 고분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12]

벽화고분의 조사 1912~1914년

1912년 9월 세키노 다다스 · 야쓰이 세이이치 · 구리야마 슌이치는 강서 대묘 · 중묘 · 소묘를 발굴 · 조사하였다. 벽화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므로 다시 이왕직박물관에 의뢰하여 박물관의 예산에 의해 모사하기로 하고 당시 도쿄미술학교 조수였던 오바 쓰네키치와 오타 후쿠조의 파견을 의뢰하였다. 그들은 약 70일에 걸쳐 벽화를 상세히 모사하였고, 그 모사도는 경성(서울)의 박물관에 안치되었다.[13] 이후 일본으로 가져간 초벌 그림은 현재 도쿄대학과 도쿄예술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모사할 때는 램프나 반사경을 사용해 빛을 비췄으나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의 색은 녹청색이 가장 많으나 그 색이 바래 적흑색이 되었다. 가장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적색으로 선명한 색을 띠고 있다. 또한 호분(胡紛)이 사용되었다. 황색도 많이 사용되었고 변색되어 어떤 색이었는지 모르는 것도 있다"라고 상세히 관찰하고 있다.[14] 높은 고임천장을 가진 강서 대묘의 천장석은 사방에 2척의 구멍이 나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도굴 구멍이었으나 오바와 오타가 행하는 모사 작업에서는 빛을 확보할 수 있는 구멍이 되었다. 이 도굴 구멍 위는 흙으로 덮혀 있었고 분구의 정점에서부터 파내려가면서 도굴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곳에서 천장석의 파편이 세 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도 채색이 되어 있었다. 1913년의 모사에는 도굴 구멍 부분이 공백으로 되어 있다.

강서 대묘는 화강암의 절석(切石)을 쌓은 단실(單室)의 횡혈식 석실로서 네 벽과 고임천장에 직접 회화가 그려져 있다. 벽에는 화면 가득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고, 천장에는 연화(蓮華) · 인동(忍冬) 이외에도 선인(仙人) · 봉황(鳳凰) · 익마(翼馬)가 그려져 있다.

12 關野貞, 1913,「朝鮮江西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古墳」,『考古學雜誌』第3卷 第8號.

13 太田天洋(1913)에 의하면 경성의 박물관은 이왕가박물관이다.

14 주 10과 동일.

강서 대묘 야장(1912년 9월 26일)

강서 우현리 제1총. 한 변은 약 10尺. 높이는 약 11尺4寸5分.

세 고분 중 가장 큰 것으로 높이 약 40尺.

현실 남쪽면 좌우에 각각 1개의 돌. 동벽과 서벽은 3개의 돌, 북벽은 2개의 돌로 되어 있고 천장은 이중고임으로, 그 위를 삼각고임으로 만들고 다시 그 위에 한 번 더 고임을 만들고는 천장석을 덮었다. 보통의 고구려 묘와 동일하나 구석의 현저한 고임 이외에는 볼만한 특색이 없다. 벽면의 상부를 약간 밖으로 내 놓은 것(경사 2)도 재미있다.

입구의 왼쪽 벽에는 쌍봉을, 다른 세 벽에는 황룡, 백호, 현무를 그려 넣었는데 그 정신의 화려함과 웅휘함은 매우 훌륭한 광경이다.

입구의 주위에는 인동당초의 문양을 그렸다.

제1고임의 측면에는 夢殿 관음의 광배와 동일한 인동문양이 그려져 있다.

제2고임의 하단에는 중앙에 연화와 인동을, 좌우에는 연화를 그렸고 그 측면에 구름과 天人, 그리고 봉황을 탄 赤依人 등과 산악도를 그리고 있다.

제3모서리의 삼각고임 하단 구석에 연화 인동, 좌우에 쌍봉, 측면에는 중앙에 흐트러진 인동문양(法隆寺 天蓋天人의 광배와 비슷한), 좌우에 익마가 그려져 있다.

제4고임 하부에는 연화 인동, 남북에는 한 마리의 봉황, 동서에는 두 마리의 봉황이 그려져 있다.

중심석에는 구름과 용을 그렸는데 붓 놀림이 매우 강건하고 웅건하다.

이러한 회화들은 화강암 위에 직접 그린 것이나 고임의 주변부는 1촌 정도의 흑색선에 황토를 칠한 선으로 그려져 있다.

입구는 지금은 큰 돌 4장을 겹쳐 막고 있으나 당초에는 그 위에 1장의 돌을 더 겹쳤던 것으로 지금은 없어졌다(그 형태만 남아 있다).

연도는 매우 짧다(혹시 그 앞 부분이 파괴된 것이지는 연구가 요구된다).

강서 중묘는 강서 대묘의 천장과는 달리 2단의 평행고임에 크고 평평한 1장의 천장석을 놓았다. 일본 나라현(奈良縣)의 법륭사(法隆寺) 조사 경험이 있는 세키노 다다스는 연화 · 인동 · 은행당초 등의 문양에 주목하였다. 이들 3개의 묘는 삼각형으로 배치되었는데 남쪽 중앙에 대묘가 있고 이것을 제1총이라 불렀다. 그 북서쪽에 중묘가 위치하는데 이것을 제2총으로, 북동쪽의 소묘를 제3총으로 불렀다. 소묘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석실 구조는 3단의 평행고임이며 1단의 구석은 삼각고임으로 되어 있고 천장석이 놓여 있는데 대묘와 비슷하다.

강서 중묘 야장(1912년 9월 24일)

강서 고구려 고분 제2총. 우현리에 있다.

현실은 방형으로 약 10척이다. 네 벽은 아름답게 다듬은 질 좋은 화강암 각각 1장씩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 2중의 고임이 1장씩의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그 위에 1장의 천장석을 덮었는데 그 천장석은 중앙을 향해 약간 들리게끔 되어 있고 4모서리에서 교차하고 있다.

남면 입구에는 돌문과 문확이 나 있었는데 돌문은 지금은 파괴되어 바닥에 있다.
장식. 남면의 좌우 벽에는 쌍봉이 마주보고 있고, 다른 3면에는 청룡, 백호, 현무를 그렸는데 특히 주작과 같은 것은 玉蟲廚子(불상을 넣는 상자형의 용기)를 떠올리게 된다.
고임 제1의 하단에는 문양이 없고 측면에는 인동문을 그렸는데 완전히 北朝 풍이다.
고임 제2는 하단 중앙에 한 줄의 화염 당초문을 그렸고 측면은 은행 당초 문양을 그렸는데 수법이 매우 아름답다. 천장 중앙에 연화를 그렸고 남북에는 봉황, 동쪽에는 日輪과 구름을, 서쪽에는 月輪을 그렸다. 일륜에는 삼족오를 그렸고 월륜에는 뭔가 그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네 구석에는 4등분 된 연화의 바깥에 인동문을 그렸는데 인동은 매우 희소한 형식의 것이다.
현무는 긴 길짐승 형태로 네 다리에 뱀을 두른 형태인데 뱀과 거북이 같이 頭部가 명확하지 않다. 그 밑에 바위산 형태를 그렸다.
침상도 또한 1장의 돌로 되어 있는데 목관의 파편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고 붉은 칠의 작은 파편이 남아 있다.
석재는 매우 좋은 양질의 화강암을 깨끗하게 끌과 같은 것으로 다듬고 그 위에 흑색 · 붉은색 · 황토색 · 밤색 · 녹청색 · 감색 등의 안료로 그림이나 문양을 그렸다.

그 후 강서 중묘의 보존 공사를 할 때 현실의 입구에 만들어진 좌우 여닫이 돌문의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벽화가 확인되었다.[15] 고임천장에는 동일한 은행인동당초문이 그려져 있었다.

강서의 고분을 조사할 때 남남동쪽으로 8.8km 떨어진(조선 총독부 大正 5년(1916) 측량 5만분의 1 지도에 고분의 위치가 적혀 있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계측함) 학림면 간성리에 있는 연화총이 이미 발굴되어 현실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조사하였다. 전실과 후실 2실로 되어 있고 벽과 고임천장에는 회반죽이 칠해졌는데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오바와 오타는 이 벽화도 모사하였으며 모사는 경성의 박물관에 수납되었다.[16] 횡장형의 전실에는 3구분된 천장이 있고 동서의 벽에는 작은 감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간성리 연화총 야장(1912년 9월 25일)

강서 학림면 간성리 고분.
전후 2실로 되어 있다. 묘도가 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있어서 전실의 중앙 천장을 깨고 들어갔다.
전실은 장방형이고 후실의 입구 좌우에 작은 龕이 있다. 또한 좌우 벽의 앞쪽에 더 작은 벽감이 있고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측면에 인물상이 있었다. 아쉽게도 안면이 훼손되었으나 신체 부분

15 梅原末治, 1966,『朝鮮古文化綜鑑』第4卷.
16 關野貞, 1913,「新たに發見せる高句麗時代の壁畵」,『美術新報』第12卷 第4號.

과 복장을 알아 볼 수 있다. 그 위쪽에 北朝식의 차양과 묵서가 그려져 있으며 인물은 의복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천장은 3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쪽 구역에는 연화의 중심 장식이 자색으로 그려져 있다.

전후의 벽은 2중 고임식으로 되어 있다.

벽 천장에는 흑색과 적색으로 두꺼운 윤곽선을 그리고 있다.

입구 위에는 뱀과 같은 것을 그린 흔적이 있으나 훼손되어 겨우 윗부분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후실은 방형이며 3중 고임천장인데 대각으로 돌을 이용하는 등 보통의 고구려식이다.

「입구 위에는 뱀과 같은 것이, 동쪽에는 사슴과 같은 것이(다리만 남아 있다), 서쪽에는」

입구 위쪽에는 두껍고 검은 띠로 삼각형의 윤곽을 만들고 가운데 봉황을 그렸다. 그 위에 뱀을 그리고 동쪽에는 기린과 같은 것을(다리만 남아 있음), 서쪽에는 天人과 같은 것(일부만 남음)을 그렸다.

내부의 4 모서리에는 二手先組物(일본의 건축 용어로서 공포의 일종)을 그렸고, 앞 벽에는 陰線으로 그린 斗肘木(사원 건축 용어로서 공포를 구성하는 수평재)을 그렸는데 飛鳥式의 斗와 비슷한 것이 재미있다.

3중의 고임천장에는 적색과 흑색으로 두꺼운 띠를 그려 넣었다.

서벽 상부에는 작은 天人圖가 있는데 a에는 선 안에 삼족오, b에는 그림은 있으나 내용은 불명확, c는 선 안에 파랑개비문과 같은 것을 그렸고 d에는 봉황과 같은 것이 약간 보인다.

중심 장식으로서 큰 연화가 있는데 검게 변진 것 같이 보인다.

벽은 2촌에서 4, 5촌 정도의 안산암으로 쌓았고, 입구의 감실 등은 粗質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돌에 약간 회칠을 하고 그 위에 2가지 채색을 한 것과, 회칠을 3번에 걸쳐 한 것도 있는데 밑의 회칠에는 竊을 섞었다.

분구의 앞면은 지반보다 높은 약 25척 정도이고 후면은 소 구릉이 잘려 나갔으나 옛날에는 분구 높이가 약 10척이었을 것이다.

동쪽면은 30척, 서쪽면은 15척으로 경사는 약 15間이다.

분구는 園山으로 불리는 소 구릉의 남단에 있다.

위치 上下. 간성리의 서쪽 약 1000m, 園山의 남단에 있는데 남쪽보다 서쪽으로 넓게 펼쳐진 평야에 임한다.

주의 鳴□里(園山의 서북)의 서북. 동쪽의 낮고 평평한 산악 지역에(동쪽에 2기, 서쪽에 약 10기) 큰 고분 수십 기가 있는데 고구려 시대의 고분인 것 같다.

세키노 다다스 · 야쓰이 세이이치 · 구리야마 슌이치가 강서 지역의 조사를 마치고 경성으로 돌아와 강원도 조사를 위해 출발하려고 할 때, 전매국장인 우에바야시 케이지로(上林敬次郎)로부터 매산리에 벽화고분이 있다는 전보를 받았다. 일정 관계상 세키노 다다스는 조사에 갈 수 없어 총독부 기사인 이와이 초사부로(岩井長三郎, 1905년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와 벽화 모사에 종사하고 있던 오타 후쿠조에게 그 조사를 맡겼다. 그 때 벽화의

사진이 찍혔고 모사도 일부분이 작성되었다. 세키노는 이것을 일본에 돌아온 뒤 보았다.[17]

1913년 9월에 세키노 다다스 · 야쓰이 세이이치 · 구리야마 슌이치는 전년에 알려진 매산리 수총(狩塚, 사신총)을 조사하였다. 매산리 고분군에는 18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제1~5행, 각 행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제1, 2, 3순으로 번호가 매겨졌다. 이 중 조사된 고분에는 수총(제2행 제1), 남총(제2행 제2), 중총(제4행 제2), 북총(제5행 제2)의 명칭이 붙여졌다. 이 4기와 제5행 제1의 고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붕괴되어 있었다. 수총은 현실 남벽의 일부가 파괴되어 이곳으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서벽에 말을 타고 수렵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수총이라고 명명되었으나, 네 벽에 사신(현무, 창룡, 주작, 백호)이 그려져 있으므로 사신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매산리의 다른 고분에는 벽화가 없었으나 남총은 회반죽이 대부분 떨어져 나갔지만 겨우 회칠한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고 석면(石面)이 노출되어 있었다. 중총은 회반죽이 잘 남아 있었는데 4회에 걸쳐 겹쳐 칠했고 약간 회색을 띠고 있다.

수총의 모사는 오타 후쿠조가 1912년에 혼자서 작성했는데 인물이나 말 장면에 한정된 것들이었다. 전체 모사는 1913년에 오바 쓰네키치가 작성하였다.

매산리 狩塚 야장(1913년 9월 23일)

평안남도 진남포 대상면 매산 고분 제2행의 제1. 狩塚.

사방이 약 10척의 현실. 南面 동쪽으로 편재된 연도가 있다.

벽은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완곡되고 위는 3중 고임천장이다. 하단의 □에서 측면의 안쪽으로 기울었다. 그 위에 삼각의 구석돌을 4장 올리고 그 위에 4장의 석재를 보통으로 겹친 후 그 위에 천장석(지금은 없다)을 올려 덮었다. 이러한 구조는 물론 고구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강서, 강동 등에 비교해 보면 수법이 매우 치졸하다.

벽의 구조는 간단한 석재로서 석재 사이에는 석회를 바르고 점토로 막았다. 벽면에는 회반죽을 4번 반복해서 칠했는데 밑칠의 3번은 점토에 약간의 석회와 짚 등을 섞어서 칠하였다. 맨 위 칠은 석회칠을 하고 그 위에 회화, 문양을 그렸다. 밑칠과 윗칠 모두 매우 견고하고 철저하다.

벽화

남면은 입구의 서쪽에 쌍봉이 서로 마주보게 그려져 있고 동벽에는 창룡이 그려져 있다. 뒤쪽 약간 상부에는 2필의 말과 인물을 그렸다. 서벽은 백호를 그렸고(박락과 오손이 심하다), 중앙 상부에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활을 당긴 모습을 그렸는데 2마리의 사슴이 그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그렸다.

북벽.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편재되게 4명이 침상에 앉아 있는 것을 그렸다. 좌우에는 기둥

17 關野貞, 1914,「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墳墓」,『建築雜誌』第326號; 關野貞, 1914b,「朝鮮古墳の壁畵に就て」,『美術新報』第13卷 第5號.

이 서 있고, 위에는 장막을 드리웠으며 중앙과 좌 · 우 끝에 꽃 장식을 그렸다. 그리고 2군데에는 굽은 봉 끝에 방울을 매단 그림을 그렸다. 그 동쪽에는 한 사람이 말을 다룬 그림, 서쪽에는 현무를 그렸으나 애석하게도 박락 · 오손이 심해 전체를 알아 볼 수는 없다.

천장. 3중의 고임천장 중 제1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제2에는 각 면에 3군데씩 일종의 당초문양 같은 것을 그렸으며, 제3 고임천장에는 황토를 가지고 당초문양을 그렸다.

삼각 고임돌에는 문양이 있는데 제2의 보통 삼각고임에는 당초문양을 그렸으나 천장석에는 남아있지 않아 당초의 문양을 추정할 수 없다.

남벽. 봉황의 자세를 그린 수법은 매우 치졸하나 머리 장식이나 부리 밑 장식의 수법은 재미있는데 그 양식은 남북조식에서 기인한 것일 것이다.

동벽. 봉황과 거의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용을 그렸는데 그 또한 매우 치졸하다. 양 뿔이 있고 길고 곧은 혀를 내밀고 있다. 눈 부근은 훼손되었고 오른쪽 앞발은 매우 엉성하다. 날개의 흔적이 앞발 주변에 남아 있고 꼬리는 체구까지 계속되어 뱀과 같다. 강서와 같은 확연히 몸에서 뻗어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는 古式일 것이다.

북벽. 현무는 뱀이 또아리 튼 것과 귀갑문이 보이는데 뱀의 목, 거북의 몸과 4다리가 확연하다. 단지 뱀의 또아리 튼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기묘하다.

서벽. 호랑이 얼굴면으로 눈 밑과 코 등의 일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몸체와 등의 근육, 꼬리도 보이나 다른 것은 박락되어 찾아보기 어렵다.

또 다른 야장(1913년 9월 23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벽화의 내용에 관해서 적혀 있다.

진남포 대산면 매산리 고분 제2행의 제1狩塚(1913년 9월 23일)

북벽. 인물 4명. 동쪽이 제일 큰 데 침상에 앉아 있다. 침상 다음에 2명이 한 침상에 앉아 있다. 동쪽 인물의 머리 부분이 부처와 같다. 침상 사이가 매우 협소한데 이렇게 그린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무엇보다 가슴 부근과 허리 주위에서 領布와 같은 것이 위로 올라가게 표현되고 표주박 같은 형태도 남아 있는데 육조 때의 거울에 있는 인물에도 동일한 모양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복식이나 마구, 말을 그린 기법 등이 육조 양식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큰 감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동벽. 위에는 일륜을 그렸는데 선 안에 삼족오가 있다.

서벽. 위에는 달을 나타냈는데 선이 없는 것도 기묘하고 두꺼비(?)는 수중에 사는 가마무시(ガマ蟲)와 닮았다.

고임천장의 당초문양은 밑의 한 종류는 일종의 구름 문양과 닮은 당초문양을 3개 정도 그리고 먹으로 윤곽을 만들어 중간 중간에 川과 같은 마디를 그렸다. 위의 당초문양은 연속 문양으로서 남북조의 성질을 띠고 있다.

연대는 약 1,500년 전으로 진남포 부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랜된 형태로 생각된다.

북벽의 인물 4명 중 동쪽에 가장 정성껏 그린 것은 묘의 주인이고 다른 인물들은 그 따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1913년은 벽화고분의 조사와 모사가 가장 융성하게 이루어진 해였다. 이왕직사무관 스에마쓰 구마히코(末松熊彦)가 1912년 화상리 대연화총(감신총)과 화상리 성총을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키노 다다스 · 야쓰이 세이이치 · 구리야마 슌이치가 이 2개의 고분을 발굴 · 조사하였다. 대연화총은 벽화의 일부에 큰 연화가 있는 것에서 명명되었는데 전실의 좌우에 감이 있고 그 안에 신상(神像)이 그려져 있어서 감신총이라고 한다.

화상리 대연화총(감신총) 야장(1913년 9월 25일)

평안남도 화상리 대 연화총(감신총)

전실. 좌우에 방형의 감이 있다. 천장은 평평하고 주위는 벽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완곡하는 고임천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입구의 좌우 벽 중 동벽은 박락되었다. 서벽의 기마 인물도에서는 4명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남벽의 서쪽 밑부분에 車輪과 종자가 뭔가를 들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서벽. 방형의 감 내부에 있는 神像은 머리부분에서 어깨부분까지가 박락되고 허리 밑 부분이 남아 있다. 매우 협소한 대좌 위에 앉아 있다. 대좌 밑에는 연단이 있다. 인물 좌우에 작은 인물이 대립해서 서 있다. 위에는 장막을 쌌고 그 밑의 벽에 王字를 나타낸 문양을 그렸다. 또한 뒷벽의 문양이나 감의 좌 · 우측 벽에는 각 2명씩을 세웠는데 위의 각 1인은 철봉을 가지고 서 있고, 밑의 2명은 시중 든 자세로 서 있다. 감의 좌우 공포 밑에는 각 2명의 부인이 서 있는데 윗쪽 북측에 있는 사람은 합장을 하고, 남쪽은 박락되었으나 겨우 의상을 알아볼 정도이다. 밑의 부인은 양손으로 시중들고 있으나 허리 밑은 박락되었다.

동벽. 감 내부의 神像은 공손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다. 좌우에는 시중드는 자가 있다. 남쪽에는 공물을 바치는, 북쪽에는 큰 깃발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위에는 장막을 드리우고 뒷벽에는 일종의 화염문양을 그렸다. 측벽 좌우 2명의 밑에 있는 인물들은 박락되어 불분명하다. 위의 인물은 단지 공손하게 서 있을 뿐이다. 감의 좌 · 우 동벽에는 각각 인물들이 있는데 밑의 인물은 박락되어 불분명하다. 위의 인물 중 남쪽 인물은 공손하게 서 있고 북쪽 인물은 뭔가를 봉양하는 것 같다.

북벽. 서쪽 밑의 3명은 꿇어 앉아 공양드리는 것 같으나 위는 불분명하다.

동쪽은 박락이 심해 불분명하다.

전실의 4모서리에는 공포를 그리고 대들보를 그렸는데 대들보의 4면에는 번룡과 같은 문양이 있다. 그 위에는 화염과 같은 끝 장식이 군데군데 된 것들이 띠처럼 둘러 있는데 그 사이에 기묘하게 생긴 구름 문양을 촘촘히 두었다. 그 위의 서벽 천장 밑에는 蛇龍과 산악, 신선(?)과 같은 인물을 5명 정도 표현하였는데 대부분 박락되어 남아 있지 않다.

전 · 후실의 중간 입구. 좌(동쪽)벽에는 큰 인물과 같은 것을 그렸으나 불명확하고 우벽은 대부분 박락되어 알기 힘들다.

후실. 네 모퉁이에 공포와 대들보를 그렸는데 수법과 문양은 전실의 것과 차이가 없다.

남벽. 대들보 위에 끝 장식을 한 것이 있고 飛雲과 같은 것도 그려져 있다. 중앙에는 봉황을 그린 것 같은 것도 있으나 단지 다리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쪽에는 소나무 같은 것을 그렸고 동쪽은 박락되었다.

동벽은 전부 붕괴, 유실되었다.

서벽. 대들보 위에 소나무 같은 것을 그렸고 밑에는 山樹木을 그렸다. 양 기수는 마주보고 사냥을 하고 있는데 활을 당긴 상태이다. 밑에는 고독한 듯이 있는 인물과 호랑이가 달리는 것이 보이나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다. 하지만 양 기수는 그런대로 선명한 편이다. 수법은 매우 조잡하다.

북벽. 대부분 박락되었으나 유일하게 동쪽의 장막 같은 것을 그린 것과 중앙과 좌우에 3명이 공손히 앉아 있는 것을 그린 것 같은 것이 남아 있으나 단지 허리 부분이나 양 손을 맞잡고 공손히 있는 정도만이 보일 뿐이다(좌 · 우). (중앙의 사람이 유일하게 綬와 같고 2條를 수직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전체의 형상. 현재 전실의 동벽, 감 위의 고임천장이 전부 붕괴되었고 비바람의 피해를 피할 수 없다. 후실은 나무 뿌리가 확산되어 있고 동벽도 붕괴되었는데 흙이 내부로 밀려 들어왔다. 천장의 일부, 특히 동쪽이 붕괴된다면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이다.

성총은 편축 단실의 석실로 고임천장에 별 모양의 문양이 있는 것에 의해 이름 붙여졌다. 이 벽화의 특징은 둥그스럼한 점을 띠고 있는 공포와 거꾸로 늘어져 있는 큰 연화문양이다.

성총 야장(1913년 9월 24일)

평안남도 진남포 신북면 화상리 고분(을호) 성총.

비교적 대부분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네 벽에는 사신도 등이 묘사되어 있다. 천장에 간단한 당초와 별 모양을 그렸다. 단 20개의 장식으로 星辰圖를 나타냈다. 네 모퉁이에 공포를 그렸고 그 위에 고임천장을, 그 밑에 대들보 형태를 그렸다.

남벽의 입구 위에는 봉황이 1쌍 기둥과 입구를 둘러싸고 당초문양이 그려져 있다. 입구의 서벽에 위로 향해 있는 연화문을 크게 그렸고 그 좌측에 일종의 인동을 간략하게 그린 것이 있다.

동벽. 창룡과 같은 것이 있는데 양 뿔과 눈, 꼬리 등의 대부분이 불명확하다. 그 위에는 연화문을 거꾸로 늘인 것과 같은 큰 문양이 그려져 있다.

북벽. 蓮文을 거꾸로 그린 것 위에 작은 인물이 있다. 현무도는 박락되어 불명확하다.

서벽. 백호는 박락되어 전혀 그 형체를 알 수 없다. 중앙에 연자를 표현한 것들이 있다. 사진 있음.

천장. 고임천장의 측면에는 대부분 단순한 당초 문양이, 밑에는 火打石이, 모서리의 돌에는 중앙에 圈(황색), 바깥에 소용돌이 선을 그린 것, 그 위의 火打石에는 3개 혹은 4개의 圈(황색)을 그렸다.

천장석. 8엽 연화와 같으나 불명확하다.

또한 세키노 다다스는 평양에서 평안남도 서기인 야마자키 사부로(山崎三郎)로부터 안성동장(安城洞長)이 고분을 발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9월 24일부터 안성동 대총(용강 대묘)과 쌍영총의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29일에는 벽화고분의 조사를 전부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18] 안성동 대총은 횡장의 전실로 천장은 3구분되고 대들보에는 일종의 당초문양, 마복(蟇股, 불교 사원 건축에서 사용되는 山 형태의 부자재)의 사이에는 반 개화된 연화문이 그려져 있다.

안성동 대총 야장(1913년 9월 28일)

평안남도. 용강군 일연지면 안성동 고분(乙號) 대총.

전후 2실로 되어 있다.

묘도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전실. 장방형의 얇은 이중 고임천장. 천장을 3구로 분리할 수 있다. 각 구는 2중의 3각식 천장으로 만들었다.

벽의 각 모서리에는 기둥, 공포(三斗), 대들보가 있다. 대들보의 위에는 모서리에 蟇股이 있다. 중간은 불명확하다. 대들보와 蟇股에는 문양을 그렸는데 일종의 당초문이 있다. 대들보에는 하단 측면에 동일하게 번룡 문양, 제1고임천장에는 새와 같을 것을 그렸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쾌쾌하다. 다른 문양은 불명확하다.

벽화도 유일하게 남면 입구의 서쪽 벽에 누각이 있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蟇股 사이에 일종의 연화문양과 같은 것이 있다.

비교적 전실이 기묘하고 벽감(niche) 수법이 보인다.

쌍영총은 전실과 후실의 이 실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의 통로에 8각형의 기둥이 두 개 서 있다. 이 두 개의 기둥에 의해 쌍영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키노 다다스는 1896년부터 1901년 사이에 실시한 나라현에서의 고사원(古寺院) 사찰 조사에서 건조물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 불상의 얼굴이나 법의 등을 스케치해 두었다. 이것은 건조물의 연대를 생각할 때 이와 관련되는 불상의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불상의 연대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얼굴이나 법의 문양이라고 생각하였다. 고구려 벽화에서도 그 특징으로서 인물의 옷 문양에 주목했다고 한 것을 야장의 메모에서도 알 수 있다.

쌍영총의 야장(1913년 9월 28일)

평안남도 용강군 일연면 안성동 고분(甲號) 쌍영총

전후 兩室로 되어 있다. 그 중간에 2개의 8각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18 1913년도의 고적 조사에 관해서는 早乙女雅博, 2007, 「關野貞の朝鮮古蹟調査(二)-大正二年朝鮮古蹟調査略報告-」, 『韓國朝鮮文化研究』 第10號를 참조.

수 없는 진귀한 수법이다.

연도의 앞 부분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중간의 두께가 3촌에 이르고, 높이가 6척 5촌에 이르는 큰 돌 2장을 가지고 막았다. 그 어깨 부분은 사람의 손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어 출입이 가능할 정도이다.

중문에서 안쪽 문에 이르는 사이에 회반죽을 칠하였다. 막은 돌 뒤쪽에서 천장 밑에 이르기까지 높이 1촌, 넓이 3촌에 이르는 緣을 만들고 붉게 칠을 하였다.

벽은 석회를 칠하였다. 동벽에는 牛車가 2대, 갑주를 찬 말에 오른 1명, 남녀의 인물 등 대략 30여명을 그렸는데 큰 북을 치는 사람도 있다.

서벽. 우차, 기마 인물, 기타 인물 약 30명, 북을 치고 창을 들고 춤추는 사람 2명.

천장에도 구름문양과 같은 것을 그렸으나 불명확하다.

안쪽 문. 돌문 2장은 같이 파괴되었다. 楣石에 축 구멍을 내고 밑에는 幣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나 명확하지 않다. □物이 있다.

안쪽 문 좌우 벽에 力士를 그렸다. 동쪽은 고려 검을 가졌으나 서쪽은 불명확하다.

전실. 동 · 서 · 남쪽 3면은 3중의 고임천장이나 북벽은 2중 고임천장이다. 그 위의 구조는 보통 보이는 것과 같다. 동벽 · 서벽에는 용과 호랑이를 그렸는데 필력이 매우 웅건하나 애석하게도 후세에 벽을 파괴하여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제1고임에는 당초, 제2고임에는 봉황과 운문. 제3고임에는 당초를, 모서리의 삼각고임에 2중, 그 한 종류는 독특하고 기발한 문양이다.

중심석에 鷄林面의 것과 비슷한 연화가 그려져 있다.

전실의 남면 입구 좌 · 우벽에 인물의 입상이 있으나 불명료하다.

8각 돌기둥은 柱頭와 柱脚이 있다. 위로 갈수록 줄어들고 柱頭에는 연판을 묘사하였다. 柱頭의 abacus와 皿板에도 두 종류의 문양이 있다. 柱脚에도 연화를 그렸다.

후실. 네 모서리에 공포, 대들보, 蟇股을 그렸다. 3중 들임천장이고 다른 것은 보통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제1들임의 경사면과 제2들임에는 기발한 문양을 만들었고 중심에는 연화를 그렸는데 전실도 비슷하다.

組物이나 蟇股 사이의 작은 벽과 남면에는 용봉과 화병과 꽃문양을, 대들보에는 번룡 문양을 그렸다.

뒷벽. 회화가 가장 장관이다. 중앙에 누각 형태를 그리고, 가운데에는 내외의 상을 옮겨 그렸는데(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남편 쪽에는 남자 시중이 앉아 있고, 부인 쪽에는 여자 시중이 서서 합장을 하고 있다. 누각에는 통로, 계단, 格狹間, 문, 공포, 장막, 대들보, 중심 장식, 대들보 끝 장식 등이 있다. 더욱이 누각 위에는 장막이 집을 덮을 정도로 되어 있고, 좌우에 있는 기둥 형태의 것 위쪽에는 귀신 형태를 만들었다. 치미 같은 것도 있고 장막의 중앙에는 봉황을 그렸다.

동벽에는 9명을 그렸다. 모두 뒷벽의 주인 부부를 향해 예를 올리고 있고 더욱이 그 뒤에 1, 2명이 더 있는 것 같으나 벽이 파괴되어 불명확하다.

서벽. 막 내에 장막을 만들었다. 내부에 뭔가가 그려져 있었던 것 같으나 지금은 명확히 알 수 없다. 점점 후방의 벽 파괴되고 있다.

오바 쓰네키치는 도쿄제국대학으로부터 벽화의 모사를 위촉받았다. 1913년 8월 2일에 출발해 경성의 박물관에서 1912년의 모사 그림(강서 대묘, 중묘)을 완성하였고, 9월 30일에 배로 부산을 출발하여 귀국하였다.[19] 세키노 다다스 등과는 별도로 행동하게 되었는데 1913년에 새롭게 발굴된 고분의 벽화 모사가 다음 해에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 작성된 강서 대묘와 강서 중묘의 모사는 정식 모사가 이왕직박물관에, 초벌 그림이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에 수납되었다. 그리고 이왕직박물관의 모사는 1916년 『조선고분벽화집(朝鮮古墳壁畵集)』으로 원색 출판되었다. 현재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사는 이왕직박물관에 수납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 더 정밀하게 그려져 있으나, 『조선고분벽화집』의 벽화와 비교해 보면 일부 열화(劣化)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장열이 기술한 것처럼 1930년에 본격적인 모사를 작성한 때의 것으로 추정된다.[20]

1914년은 세키노가 유럽에 유학을 갈 예정이었으므로, 1914년 7월 3일에는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8월 2일에 유럽에 갈 예정이었으나 유럽에 대 전란이 발발하여 연기되었다. 세키노 다다스는 이 해에 유럽 유학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건너가지 않았다.

오바 쓰네키치는 도쿄미술학교로부터 학술 연구를 위해 조선 출장을 명 받고, 1914년 9월 7일에 총독부에서 벽화 모사와 사진의 협의를 거친 후 8일에 평양에 도착하여, 쌍영총, 안성동 대총, 화상리 대연화총(귀갑총), 화상리 성총을 모사하였다. 11월부터는 매우 추워 대연화총의 석실 내에서 양동이에 소나무 잎을 넣고 불을 지펴서 온기를 얻었다고 전한다. 18일에 성총의 남벽을 모사하여 전부 완료하였다.[21]

지금까지의 조사 성과를 기준으로 1913년 1월 일본 고고학례회(考古學例會)에서 세키노 다다스 주도로 고구려 시대의 고분에 관한 강연회가 있었다. 또한 그 해에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의 졸업 증서 수여식 후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伏見宮博恭)왕이 이 대학에 방문했는데, 이왕직박물관에서 보내 온 벽화 모사를 관람하고 세키노 다다스가 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11일에는 동호인들에게도 관람을 허락하였다.[22] 더욱이 1914년 4월 8~10일까지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에서 건축학과가 수집한 표본을 전시하는 제5회 전람회가 개최되었는데, 1912년과 1913년에 제작된 강서 대묘, 강서 중묘의 벽화 모사가 전시되었다.[23]

---

19 佐々木榮孝, 2000,「文様に生きる」10,『秋田魁新報』11月 11日.

20 國立中央博物館, 2006,『高句麗古墳壁畵－國立中央博物館所藏模寫圖』.

21 佐々木榮孝, 2000,「文様に生きる」11,『秋田魁新報』11月 18日.

22 「彙報 · 朝鮮江西古墳壁畵模寫の御覽」,『考古學雜誌』第3卷 第12號, 1913.

23 「工科大學建築學科第五回展覽會」,『建築雜誌』第328號, 1914.

Ⅳ
벽화고분의 보존

최초의 벽화고분 조사는 고고학자가 아닌 건축사인 세키노 다다스, 화가인 오바 쓰네키치, 오타 후쿠조(天洋)에 의해 행해졌다.

1909~1913년의 세키노에 의한 고적 조사는 갑(甲)·을(乙)·병(丙)·정(丁)의 등급을 매기고 보존 정책 수립을 위해 고건축 조사부터 시작하였으나, 고건축에 멈추지 않고 '저명한 고적과 공예 유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고건축과 관계가 있는 고적 및 공예 유물이 같이 고대 문화의 변천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 나라현에서의 고사지(古社寺) 조사 경험이 있었다. 1897년 3월에 내무성(內務省)의 명을 받고 나라현의 고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미 6월에는 「고사지 건축물 보존조사 복명서(古社寺建築物保存調査復命書)」를 나라현 지사에게 제출하였다. 거기에는 ① 고건축의 연대와 가치를 판단해서 수선(修善)의 완급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가치를 5등급으로 나누고, 파손의 정도도 5등급으로 나누었다. ② 세간에 전하는 도면은 부정확하므로, 정확하고 상세한 도면을 작성해 예기치 못한 사변(事變)이 있어도 도면을 통해 후세에 형식과 수법을 전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을 중시하였다.[24] 이러한 생각은 조선 고적 조사에서의 갑·을·병·정의 등급 매기기와 상세한 기록으로 연결된다.

특히 도면의 정확성에 대해,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는 "실측도(實測圖)의 작성에 있어서는 선생의 전문인 건축의 실측도 작도법(作圖法)을 매우 엄격히 고분과 그 외의 것에도 응용하여 비교할 수 없이 정밀한 평면(平面)·입면(立面)·단면(斷面) 등의 도면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했고,[25]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는 세키노 다다스가 고분 연구에서 완전한 실측도를 작성한 것은 일본 고고학 연구에 방법학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하였다.[26] 그 당시의 고고학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고임천장인 고구려 고분 석실을 건축물로 보고 측량한 것이었다.

1909년과 1910년의 조사는 『조선예술의 연구(朝鮮藝術之硏究)』, 『속조선예술의 연구(續朝鮮藝術之硏究)』에 보고되었고, 1911년과 1912년의 조사는 1914년에 『고적조사 약보고(古蹟調査

24 關野貞, 1987, 「古社寺建築物保存調査復命書」, 『日本の建築と芸術』 下1999, 岩波書店所.

25 藤島亥治郎, 1936, 「關野先生を偲ぶ」, 『寶雲』 第16冊.

26 濱田耕作, 「朝鮮と考古學一」, 『中外日報』, 1924年 6月 28日.

略報告)』로 간행되었으며, 1913년의 조사는 필자가 정리하였다.[27] 이러한 것들은 조선총독부에 제출된 연도별 조사 보고이기 때문에 벽화고분의 내용은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 그 대신 세키노 다다스는 고구려 고분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를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 『건축잡지(建築雜誌)』, 『국화(國華)』 등 여러 잡지에 발표하였다.

조사 후 강서 대묘와 강서 중묘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원래대로 되묻지 않고 총독부에 의뢰하여 적절한 설비를 갖추게 하였다. 대묘와 중묘는 전방의 봉토를 복구하지 않고 연도 입구에 설비를 달아서 출입할 수 있게 하려는, 세키노의 청구에 따라 총독부는 이와이 기사에게 보존 설계를 의뢰하였다.[28] 이를 위해 세키노는 「고적 보존에 관한 각서」를 그 해 총독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고적 보존에 관한 각서」 大正2年(1913), 朝鮮總督府 囑託, 工學博士 關野貞 (날짜는 불명확하지만 1913년 9월의 고적 조사 이전이라고 추정된다. 文中의 다음 해(내년)라는 것은 大正 2年度(1913)를 가리킨다)

당시 출장 온 이와이 기사와 협의하여 이러한 고분 수축의 설계 방침을 정해 내년도에 다음 2항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가) 이러한 고분의 수리 및 입구 설비.

(나) 이러한 고분 내 벽화의 모사와 사진 촬영.

강서 우현리 고분과 위에서 살핀 고분 수리 후의 취급상의 주의.

이러한 고분 벽화는 우리나라(일본)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보물이다. 우리는 그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도의 수단을 강구해 후세에 이것을 무사히 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벽화의 보존과 단속에 관해서는 하기의 사항에 주의할 것을 바란다.

(가) 입구의 열쇠는 道郡廳 혹은 편의상 지방의 순사 주재소, 헌병 파견소에 보관할 것.

(나) 관람 희망자는 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다) 관람자는 반드시 관청의 감독을 요한다.

(라) 관람자가 직접 벽화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금한다.

(마) 내부에서는 흡연을 금한다(玄室 내에서 흡연을 허가하면 점차 연기로 인한 벽화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바) 내부에서 '마그네슘'을 터트려서 촬영하는 것을 금함(위와 같은 이유).
사진은 가급적 금지하며, 촬영 희망자는 총독부에서 촬영한 것을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 벽화의 모사는 엄격히 금한다(계속적으로 모사를 하게 되면 점차 벽화에 손상을 증가시킨다. 예전에 이왕가 박물관에서 진남포 신북면 화상리 대 연화총을 전혀 실력없는 화공에

27 注 18과 동일.

28 「彙報朝鮮江西遇賢里「三墓」の加工事業」, 『考古學雜誌』 第3卷 第9號, 1913.

게 명하여 모사한 까닭에 벽면이 오손되어 불명료하게 된 것과 같은 통탄할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희망자가 총독부에서 모사한 것을 모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 관람료를 징수하여 보존 경비로 충당할 것(관람료는 소액일 것을 요한다. 다액이면 연구자 외의 단순한 애호 관람객의 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자) 우기, 혹서, 혹한기에는 엄중히 폐쇄할 것을 요망한다(우기와 혹서기에는 벽화에 습기가 차 손상이 되고 혹한기에는 벽면 동상의 위험이 있다).

같은 각서에는 고분 발굴의 자세를 써 놓았다. 이것은 세키노의 고적 조사 방법을 특징짓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사진, 실측도, 설명서'의 세 가지를 조합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원래 고분은 그 구조와 부장품 같은 것에 따라 고대 문화의 상태, 여러 종족, 민족의 특질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따라서 역사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면 안이하게 발굴하는 것을 엄금하는 것은 물론,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따라 허가해야 할 것이다.

(가) 고분 발굴 전, 발굴 중, 그리고 발굴 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충분한 사진을 제출할 것.

(나) 고분의 실측도(平面圖, 立面圖, 縱面, 橫斷面) 및 부장품의 분포 실측도 그리고 고분 발굴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하게 할 것. 단 도면에는 상세한 축척을 기입할 것을 요함.

(다) 부장품은 물론 국유로 할 성질의 것이라면 총독부에 반드시 제출시킬 것.

(라) 고분을 발굴할 때는 총독부에서 기사나 필요한 관리를 입회시킬 것.

(마) 발굴 후에는 관청의 지휘에 따라 뒷처리를 하게 할 것.

발굴 조사를 한 다음해인 1913년에는 보존 수리에 착수하여 총독부 기사인 이와이의 고안에 의해 현실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특별한 관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 때 작성된 「수리 기타 설계도(修理其他設計圖)」에는 현 상태의 고분 · 석실 단면도, 그 수리 단면도, 수리 평면도, 수리 정면도, 입구 단면도, 입구 평면도, 문 및 철조망, 철문, 기타 상세도가 그려져 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922년에 세키노는 평양에서 「강서 우현리 삼묘 보존 방침(江西遇賢里三墓保存方針)」이라는 야장을 남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묘 · 중묘는 모두 입구의 문과 문 주위를 개조.

(2) 입구는 시멘트로 새로 칠함.

(3) 중묘의 철문을 밖으로 열리게 할 것(안쪽으로 열리게 만든 후에 뒤에 木框을 덧붙여 안쪽으로도 충분히 열리게 해야 비만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4) 철조망의 지주와 다른 것들을 교환. 철조망을 고치려면 철조망 전부를 갈 것.

(5) 벽화 보존의 상황. 내벽은 전부 건조되어 있고 퇴색, 파손 등의 설도 있으나 눈에 띄게 변한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중묘 내에 들임천장 부분의 인동문양 같은 곳에는 마찰에 의한 오손된 흔적이 있는데 혹시 이는 후대의 소행인지 모르겠다. 중묘의 서쪽 제2들임 천장부는 회반죽으로 석면을 보충했는데 문양을 시문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역력하다. 이 또한 나중의 결과일 것이다.

(6) 즉 벽화의 보존에 있어서는 관람객의 접촉을 막는 것 외에 달리 좋은 방법이 없음.

(7) 대묘의 관좌석, 침상에는 오른쪽과 상면에 점점이 미생물과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는 어떤 이유인지 불명확하지만 가능한 빨리 이것을 청소하기를 꾀한다.

(8) 최근 수리 조합에서 무덤의 부근을 논으로 만드려는 계획이 있는데 하루 빨리 삼묘 주위 경작지의 매수를 요한다.

(9) 중묘의 바깥문과 안쪽 문과의 사이에는 몇 마리의 뱀이 있는데 이는 구제하는 것이 좋다.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을 별도의 야장에도 남기고 있다. 보다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내용면으로 보아 1922년의 것과 같은 시기에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보존 방침

1. 三墓가 입지한 주위의 부지를 구입할 것

삼묘는 지금 경작지 사이에 정립되어 있으므로 황급히 수리 조합을 조직시켜야 한다. 그 부근의 경지 일대는 점차 논으로 바뀔 것이다. 만약 삼묘의 주위가 논이 되면 현실 안에는 습기가 침투할 것이다. 종래부터 벽화의 보존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므로 재빠르게 그것을 매수하여 잔디밭으로 하거나, 적당한 나무의 재배를 급선무로 한다. 지금 매수하면 비교적 지가는 낮은데, 나중에 논이 되어버리면 지금보다 수 배나 더 비싸지게 될 것이다.

2. 현재 대묘 · 중묘의 보존에 관해서는

(가) 대묘 · 중묘 모두 입구문과 회전문의 파손된 부분은 개조를 요함.

(나) 입구벽의 시멘트는 다시 칠할 필요가 있음.

(다) 중묘 입구의 철문을 바깥으로 열 수 있게 바꿀 것(현재 안쪽 문의 철문은 나중에 부가한 木框 때문에 안으로 충분히 열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 출입이 곤란해질뿐만 아니라 비만한 사람은 도저히 내부로 들어갈 수 없음).

(라) 내가 實査했을 때에는 중묘의 외문과 내문 사이에 수 마리의 뱀이 있었는데 이것은 빨리 구제해야 함.

(마) 대묘 · 중묘 모두 철조망의 지주가 부식된 것은 바꾸고(가능한 한 전부), 철조망은 보수할 것.

(2) 벽화 보존의 상태

내가 검사했을 때는 고분 현실 내의 벽은 그 전 이틀 간 강우가 있었음에도 더 건조되어 있었고 벽화의 색채는 항간에 퇴색, 변색, 박락 등의 설이 있지만 그러한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내가 최초로 발굴했을 때와 대정 5년(1916)의 두 번째 실시한 때가 특별히 서로 다르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때문에 벽화의 보존에 관해서는 방문객이 만지는 것을 막는 것 외에 특별히 우려할 상황은 볼 수 없다.

대묘의 관좌석과 상면에 점점의 미생물이 보이는 데 이유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이에 대한 빠르고 상당한 처리가 요구된다.

(3) 장래 벽화 보존의 방침으로서

1. 총독부 및 도청은 열쇠를 보존할 것
2. 관람료를 징수할 것(이것은 5원에서 10원 정도, 道府에서의 안내자 수당으로 할 것)
3. 春期(4월 1일에서 5월 25일까지), 추기(9월 20일에서 10월 31일까지)에는 관람을 허용하고 기타의 계절에는 엄중히 폐쇄할 것
4. 폐쇄시에는 내외 문의 중간에 짚을 채워 한기와 습기의 침입을 막을 것

이 해에는 4월 28일 부산에 도착하여 6월 14일에 부산발 일정으로 조선에 건너와 6월 6일 고적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 5월 16일 전후의 일정을 보면 14일 안학궁에 가고 18일 평양성 중성의 초석을 보았다. 이 전후에 평양에 체재하였으므로 평양에서 이 '보존방침(保存方針)'이 쓰여졌다고 추정된다.

세키노는 보존에 있어 벽화를 직접 처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이라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 피해 방지를 위해 입구에 열쇠를 채우는 문짝을 설치하고 분구의 주위를 철조망으로 둘러 분구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환경의 변화에는 습·온도의 변화에 신경을 써, 통로를 짚으로 덮는다던지 주변이 논으로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계절이 좋은 시기에 공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36년 평양박물관의 관장이었던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조선미술전람회의 업무를 마친 마사키 나오히코(正木直彦, 전 도쿄미술학교 교장)를 강서 고분에 안내했을 때에는 고적보존회의 오카무라 코이치와 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주재순사의 안내를 받아 석실 내로 들어갔다.[29]

V
벽화고분의 조사 1916年·1917年

1915년 12월의 총독부박물관 개관과 함께, 1916년 4월에는 고적 조사가 지방국 제1과에서 총무국 총무과로 옮겨져 지방국 제1과의 사적 조사 사업(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29 小泉顯夫, 1989,「正木十三松堂先生の思い出」,『奈良縣觀光』第387卷.

과 학무편집과의 사료 조사(鳥居龍藏, 今西龍)를 총무국 총무과로 이관시켜 박물관이 이 사업을 담당하였다. 1916년 7월 10일에 「고적(古蹟) 및 유물 보존 규칙(遺物保存規則)」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고적 조사위원회, 박물관협회가 설치되어 1916년부터는 새롭게 시작된 고적 조사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 이 '규칙'에 의해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발굴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세키노도 구로사카 가쓰미(黒板勝美), 토리이 류조(鳥居龍藏), 이마미시 류(今西龍, 이상 일본측 위원), 오다 쇼고(小田省吾),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 구로 쇼헤이(工藤壯平), 유맹(劉猛), 유정수(柳正秀), 구희수(具義秀, 이상 조선 측 위원)와 함께 고적조사위원이 되어, 지금까지 세키노를 중심으로 했던 개인 조사에서 고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조사로 체제가 크게 변하였다.

최초의 조사에서 고분벽화의 매력에 매료된 오바 쓰네키치는 1916년 8월에는 도쿄미술학교를 퇴직하고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촉탁되었다. 그 해 7월에는 마사키(正木) 교장에게 조선 출장을 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세키노가 교장을 직접 만나 어렵게 허가를 얻었던 것이 그 배경에 있었을 것이다.[30]

1916년에 행해진 제1년도 조사에서 세키노 다다스는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마 슌이치, 오바 쓰네키치, 노모리 겐(野守健),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등과 함께 평양의 동쪽 대성산면의 고구려 고분 6기와 순천군의 고분 2기를 조사하여 대성산록의 2기(鎧馬塚, 湖南里四神塚)와 평양의 북쪽 약 16리 반(약 2.5km)에 있는 순천군의 고분 1기(天王地神塚)의 벽화고분을 발견하였다.[31] 즉시 개마총과 호남리 사신총의 발굴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지만 벽화의 모사는 1917년으로 미루었다.

개마총(鎧馬塚)은 처음에는 노산리 1호분이라고 불렸는데 10월 28일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다. 『발굴일기』에 의하면, 오바 쓰네키치가 담당하며 28일에 입구가 있다고 상정한 남쪽부터 파기 시작하였지만 입구가 나오지 않아 29일에는 동남으로 넓힌 결과 연도를 발견하고 그곳의 퇴적된 흙을 운반해 내고 현실 내부에서 벽화를 발견하였다.

30일에는 현실의 토사를 운반해 내면서 천장의 실측을 시작하였다. 31일에 오바는 토포리 제5호분의 분구 실측을 시도하고 개마총의 조사는 중지하였다.

즉시 개마총과 호남리 사신총의 발굴을 심사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지만 벽화 보존은 1917년으로 미루었다.

이 고분에 대해 『발굴일기』 처음에는 토포리 제5호분이라고 쓰여 있었으나, 나중에 그 위에 세로줄을 긋고 호남리 사신총이라고 정정하였다. 11월 1일부터 다시 개마총의 석실

30 佐々木榮孝, 2000,「文様に生きる」15,『秋田魁新報』, 秋田魁新報社.

31 「大正五年度古蹟調査概要」,『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실측을 시작해 5일에 끝냈고, 8일에는 야쓰이 세이이치가 벽화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호남리 사신총은 세키노와 야쓰이가 11월 1일부터 발굴을 시작했으나, 오바는 6일부터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4일에는 연도 입구를 발견해 토사를 옮기고 현실 내의 벽화를 발견하였다. 6일까지 토사를 옮기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9일부터 석실 내의 실측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 날에 봉토의 외부에 있는 자갈돌을 발견하였다. 이 자갈돌은 분구의 끝부분에 1~2단의 바깥 호열석(護列石)이 돌아가는 그 바깥 주위에 놓여 있던 것으로 오바 쯔네키치가 작성한 실측도에 의하면 폭이 약 2.5m 정도이다. 이틀에 걸쳐 자갈돌을 조사한 후 실측을 실시하여 12일에 조사를 끝마쳤다.[32]

다음 『발굴일기』의 전문을 소개한다(날짜와 고분 번호는 산술 숫자로 바꿨고 읽기 쉽게 논점을 새롭게 넣었다).

10월 28일

오전 8시경 평양 출발의 자동차로 장수원에 감. 오전 8시경에 도착. 이미 도착한 야쓰이 위원과 만나 숙소로 정한 면사무소에 도착함. 재빨리 준비해서 발굴할 고분의 조사를 실시함. 나중에 노산리 제1호분은 오바의 감독 하에 남쪽에서부터 발굴에 착수함. 인부 10명.

토포리 제1호분은 오가와의 감독 하에 발굴에 착수함. 저녁 무렵에 연도의 상부를 발견함. 인부 9명.

內里 제2호분은 노모리의 감독 하에 발굴에 착수함. 저녁 무렵에 연도의 상부를 발견함. 인부 9명.

10월 29일

노산리 제1호분은 오바의 감독 하에 새로 동남쪽을 발굴해 넓혔더니 연도가 나타났음. 연도 안의 토사를 들어내어 벽화가 있는 것을 발견함. 인부 7명.

토포리 제1호분. 오가와의 감독 하에 전날에 이어 발굴하고 실측을 했음. 인부 10명.

내리 제2호분. 노모리의 감독 하에 전날에 이어 발굴함. 연도 내의 토사를 들어냄. 인부 4명.

10월 30일

노산리 제1호분. 오바의 감독 하에 현실 안의 흙을 들어내면서 천장의 상부 일부분을 실측함.

토포리 제1호분. 오가와의 감독 하에 전날에 이어 연도 안의 흙을 들어냄. 연도 안에서 금동촉과 유약 발린 도기의 파편을 발견함.

내리 제2호분. 노모리의 감독 하에 인부 2명을 부려 연도 안의 흙을 들어냄.

토포리 제4호분. 오가와의 감독 하에 오전에 외형의 실측을 해 나가면서, 새로 발굴을 실시해서 저녁 무렵에 연도를 발견함. 연도 안에서 鐵輪 2개를 발견함.

10월 31일

노산리 제1호분. 쉼.

32 關野貞 資料, 『長水院及溫井里附近ニ於ケル高句麗古墳發掘日記』.

토포리 제1호분. 오가와가 외부에 있는 초석의 조사와 실측을 실시함.

호남리 사신총. 오바가 인부 1명을 부려 외형의 실측을 실시함.

토포리 제6호분. 구리야마가 인부 1명을 부려 외부의 실측을 실시함.

11월 1일

노산리 제1호분. 오바 실측. 인부 1명.

토포리 제1호분. 오전에 오가와의 감독 하에 밑면의 조사를 실시함. 도기 파편을 발견함. 인부 2명.

토포리 제4호분. 오전 중 오가와의 감독 하에 밑면의 조사 및 실측. 인부 2명.

호남리 사신총. 세키노, 야쓰이의 감독 하에 처음으로 발굴을 했으나 변화 없음. 인부 8명.

내리 제2호분. 오전 중 노모리가 실측. 인부 1명.

토포리 제6호분. 처음으로 발굴해 오전 중에 연도의 입구를 발견함. 오후부터 구리야마, 노모리가 감독함. 인부 7명.

11월 2일

노산리 제1호분. 인부 1명을 부려 실측을 실시함(小場).

토포리 제1호분. 인부 2명을 부려 실측을 실시함(小川).

호남리 사신총. 전날에 이어 발굴을 해 겨우 이맛돌(楣石)의 일부분을 발견함. 그로부터 이맛돌을 따라 동쪽으로 발굴함. 인부 8명.

토포리 제6호분. 전날에 이어 발굴함. 연도 안의 흙과 돌을 현실에 출입이 가능해지는 부분까지 들어냄. 오후 3시경에 겨우 현실 안에 들어가 밑면의 조사를 행함. 발견품은 金具와 순금의 針金. 인부 5명.

11월 3일

쉼.

11월 4일

노산리 제1호분. 인부 1명을 부려 실측(小場).

토포리 제1호분. 인부 2명을 부려 실측(小川).

호남리 사신총. 노모리의 감독 하에 전날에 이어 발굴함. 전날까지는 이맛돌로 생각했으나 이맛돌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연도의 입구를 막은 돌로 생각함. 오후 3시경에 겨우 연도 안의 상부에서 2척 정도에까지 흙을 들어냄. 현실에 벽화가 있는 것을 발견함. 인부 6명.

토포리 제6호분. 현실의 일부를 측량. 인부 2명(野守).

세키노, 야쓰이, 구리야마. 대성산의 고구려 성 유적을 조사함.

11월 5일

노산리 제1호분. 오바가 실측을 끝냄. 인부 1명.

토포리 제1호분. 오가와가 실측을 끝냄. 인부 2명.

호남리 사신총. 연도 내부의 흙을 들어냄. 인부 9명.

토포리 제6호분. 쉼.

내리 2호분. 노모리 실측. 인부 1명.

11월 6일

토포리 제1호분. 오가와 실측. 인부 2명.

호남리 사신총. 연도 안의 흙과 돌을 외부에 들어냄. 인부 6명(小場).

토포리 제6호분. 노모리 실측. 인부 1명.

11월 7일

우천으로 쉼.

11월 8일

노산리 제1호분. 야쓰이. 벽화의 사진을 찍은 후 복구함.

토포리 제1호분. 오가와 실측 후 고분군의 배치도를 작성함. 인부 2명.

토포리 제5호분. 오바 실측. 인부 1명.

토포리 제6호분. 노모리 실측. 인부 1명.

11월 9일

호남리 사신총. 오바 실측. 야쓰이는 봉토의 외부에 자갈돌이 있는 것을 발견함.

내리 제2호분. 실측.

토포리 제1호분. 야쓰이가 사진을 찍은 후 원형으로 복원함.

토포리 제4호분. 원형으로 복구하는 공사를 실시함.

11월 10일

내리 제2호분. 토포리 제1호분. 토포리 제4호분 복구함.

호남리 사신총. 전날 발견된 외부의 돌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인부 23명을 부려 조사함(關野, 谷井, 栗山, 小川, 野守, 小場). 오바가 헌실과 연도의 실측을 실시함.

오후부터 오가와는 토포리 제4호분 부근 고분군의 高低를 조사함.

11월 11일

호남리 사신총. 외부의 실측(小場).

토포리 제1호분, 토포리 제4호분. 발견품 정리(小川).

내리 제2호분, 토포리 제6호분. 발견품의 정리 및 실측도의 정리를 실시함.

세키노, 야쓰이, 구리야마. 오전 8시 반 출발. 평양 주위의 옛 유적을 조사하면서 오후 5시경에 평양 도착.

11월 12일

호남리 사신총. 실측을 행해 오후 2시경에 끝마침.

토포리 제5호분, 토포리 제6호분 복구함. 인부 32명.

11월 13일

오전 8시경 출발. 오전 8시 40분 평양 도착(小場, 小川, 野守).

11월 14일

오전 6시 50분에 출발해 진지동에 도착. 도보로 용강군을 거쳐 온정리 부근의 발굴할 고분을 조사함. 오후 4시경 온정리 도착. 일행은 야쓰이, 오바, 오가와, 노모리, 구리야마는 오전 11경에 출발하여 진지동에 도착. 용강군을 거쳐 저녁 무렵에 온정리에 도착.

11월 15일

갈성리 甲墳. 오가와의 감독 하에 외형의 실측 및 발굴을 개시.

황산 남면의 삼실총. 오바가 외형을 실측. 노모리가 도움.

황산 남면의 칠실총. 구리야마가 실측.

11월 16일

갈성리 갑분. 오가와의 감독 하에 발굴을 하던 중 층이 침하된 것을 발견함. 인부 9명.

황산 남면의 칠실총. 발굴하면서 실측. 인부 5명(栗山).

황산 남면의 삼실총. 오바의 감독 하에 발굴. 인부 6명.

제4호분. 노모리가 외형을 실측. 인부 1명.

11월 17일

갈성리 갑분. 침하된 층을 따라서 발굴해 벽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곳을 발견함. 인부 8명.

황산 남면의 삼실총. 전날에 이어 발굴. 인부 8명(小場).

황산 남면의 칠실총. 전날에 이어 발굴. 인부 8명.

제4호분. 전날에 이어 발굴. 인부 5명.

11월 18일

갈성리 갑분. 전날에 이어 발굴함. 인부 8명.

황산 남면의 삼실총. 실측과 현실의 흙을 들어냄. 인부 8명.

황산 남면의 칠실총. 현실 안의 흙을 들어내면서 실측을 행함. 동쪽에서 5번째의 현실에서 도가니 발견(栗山).

제4호분. 전날에 이어 발굴을 했으나 전부 파괴된 흔적뿐이므로 중지함. 인부 3명.

11월 19일

갈성리 갑분. 전날에 이어 발굴. 밑면의 일부분에 도달함. 인부 6명(小川).

황산 남면의 삼실총. 내부의 흙을 들어내면서 실측. 인부 2명(小場).

황산 남면의 칠실총. 구리야마가 실측하면서 현실의 내부 흙을 들어냄. 인부 4명.

황산 남면의 석총. 노모리 실측. 인부 1명.

11월 20일

갈성리 갑분. 오가와 실측. 인부 2명. 야간 보초를 세움.

황산 남면의 삼실총. 오바 실측. 인부 1명.

황산 남면의 칠실총. 구리야마 실측. 인부 1명.

황산 남면의 석총. 노모리 실측. 인부 1명.

11월 21일

갈성리 갑분. 오가와 실측. 인부 2명. 야간 보초를 세움.

황산 남면의 삼실총. 오바 실측. 인부 1명.

황산 남면의 칠실총. 구리야마 실측. 인부 1명.

황산 남면의 석총. 노모리 실측. 인부 1명.

11월 22일

갈성리 갑분. 오가와의 감독 하에 밑면의 조사를 실시해 도가니 발견. 인부 2명. 야간 보초를 세움.

황산 남면의 삼실총. 오바 실측. 인부 1명.

황산 남면의 칠실총. 구리야마가 조선의 남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노모리가 이어서 실측함. 인

부 1명.

황산 남면의 석총. 실측. 인부 1명.

세키노. 順川에서 도착함.

11월 23일

갈성리 갑분. 오가와가 밑면 조사. 인부 1명.

황산 남면의 삼실총. 오바 실측. 인부 1명.

황산 남면의 칠실총. 노모리 실측. 인부 1명.

11월 24일

갈성리 갑분. 오가와의 감독 하에 토기를 전부 채집하고 실측. 인부 2명. 오후부터 토기 실측.

황산 남면의 삼실총. 오바 실측. 인부 1명.

황산 남면의 칠실총. 노모리 실측. 인부 1명(오전 중).

11월 25일

황산 남면의 이실총(삼실의 오기?). 오바 실측.

갈성리 갑분. 기타의 전부를 복구함. 인부 39명.

호남리 사신총의 야장에 의하면 현실의 네 벽에는 사신도(주작, 현무, 청룡, 백호)가 그려져 있고, 바닥에는 도마식 관좌대가 3개, 파편이 1개 있으므로 4구의 유해를 매장했다고 추정하였다. 도굴을 당해서 부장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나 「유물 목록(遺物目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3]

번호	발굴품	갯수	비고
4842	飾釘	9개	頭部가 도금되어 있으나 2개 이외에는 지금은 도금이 박락되었음
4843	斧形鐵器及槍	2개	
4844	金銅金具破片	2개	매우 작은 단편적인 파편으로 용도 불명
4845	金銅透金具	1개	
4846	생략		
4847	漆斷片	약간	
	鐵片	2개	용도 불명

천왕지신총의 단면도를 스케치한 야장을 보면 날짜가 대정 5년(1916) 10월 28일로 되어 있고, 개마총을 메모한 야장에는 대정 5년 10월 31일로 메모되어 있어, 먼저 순천군에 간 후 평양 대성산면의 벽화고분의 조사를 실시한 것 같다. 세키노는 천왕지신총을 총독부 산

33 關野貞資料, 『長水院大墳(三號墳)及南墳(四號墳)調査日記附遺物目錄』 중 大同郡 柴足面 湖南里 제5호분의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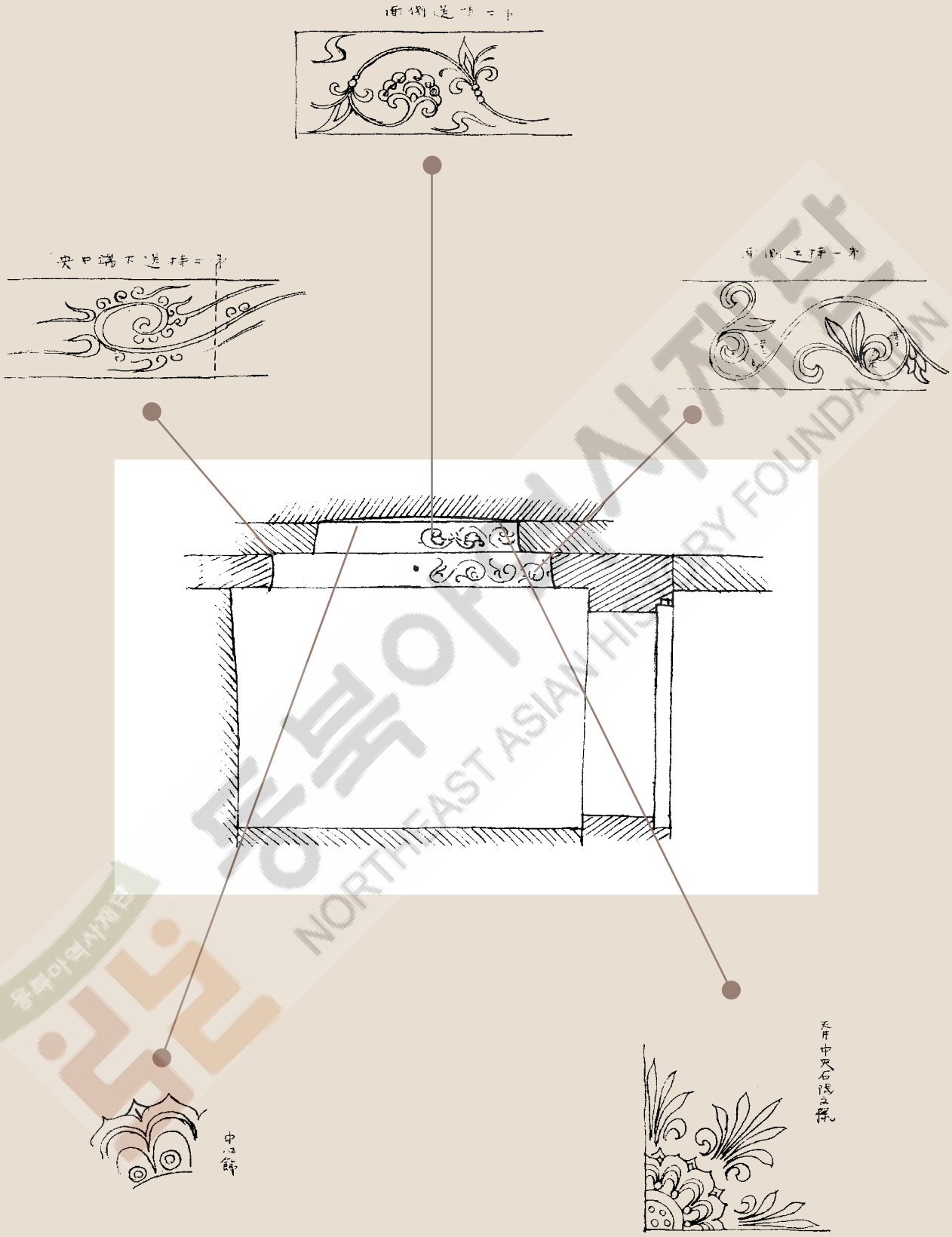
림과 기수 海老原侃에게 들었다고 하나,[34] 다른 보고문에서는 평양 체재 중에 총독부의 시노다(篠田) 내무부장에게서 듣고 시간을 쪼개 조사했다고 하였다.[35] 이 때는 실사만 하고 실측도와 모사의 작성은 다음해(1917)에 오바 쓰네키치와 오타 후쿠조가 하고 동시에 총독부 기사인 이와이가 벽돌을 쌓아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달아 견고한 열쇠를 채웠다.

그 후, 1925년 10월 3일 다시 평양에서 현지를 방문하여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벽화의 회반죽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았다. 그 원인은 그 지방에 벽의 회반죽을 떼서 마시면 말라리아나 다른 병에 효능이 있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세키노 다다스는 서술하고 있다. 지난번과 비교하면 현실의 북벽에 그려진 부부도(夫婦圖) 중, 주인의 얼굴에서 신체까지의 회반죽이 많이 박락되어 그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나, 부인의 얼굴은 명확히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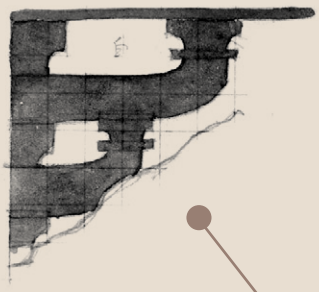
1916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의 고적 조사는 1920년에 일단락되었다. 그때까지 발견 · 조사된 벽화고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시행되어 목책 등의 보존 공사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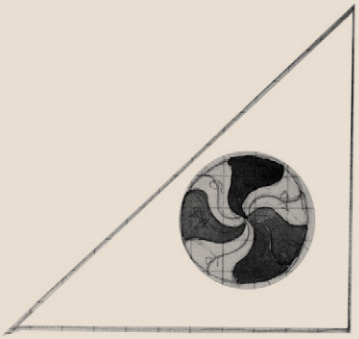
34 關野貞, 1917,「新に發見せられたる高句麗時代の繪畫」,『國華』第327號.

35 關野貞, 1925,「順川郡北倉面の八角天井塚に就て」,『朝鮮と建築』第4輯 第11號에서는 "대정 2, 3년경에 그 지방의 사람이 발굴하여 유물을 빼내 安州에서 팔았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그 당시의 순천군수인 朴相駿이 시노다 내무부장에게 무덤을 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세키노는 1916년 11월경에 평양 부근을 조사하던 중 이 고분의 일을 시노다 내무부장에게서 듣고 順川에 가서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묘의 발견 경위가 1917년의 보고문과 1925년의 보고문에서 차이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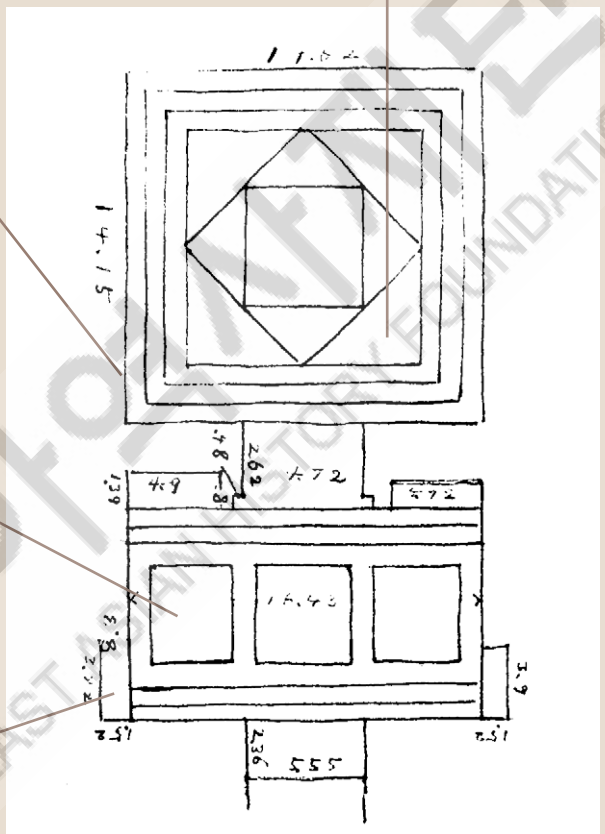


세키노 다다스의 강서 대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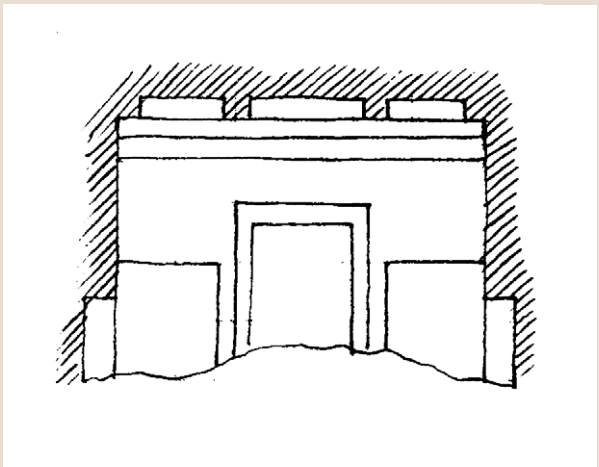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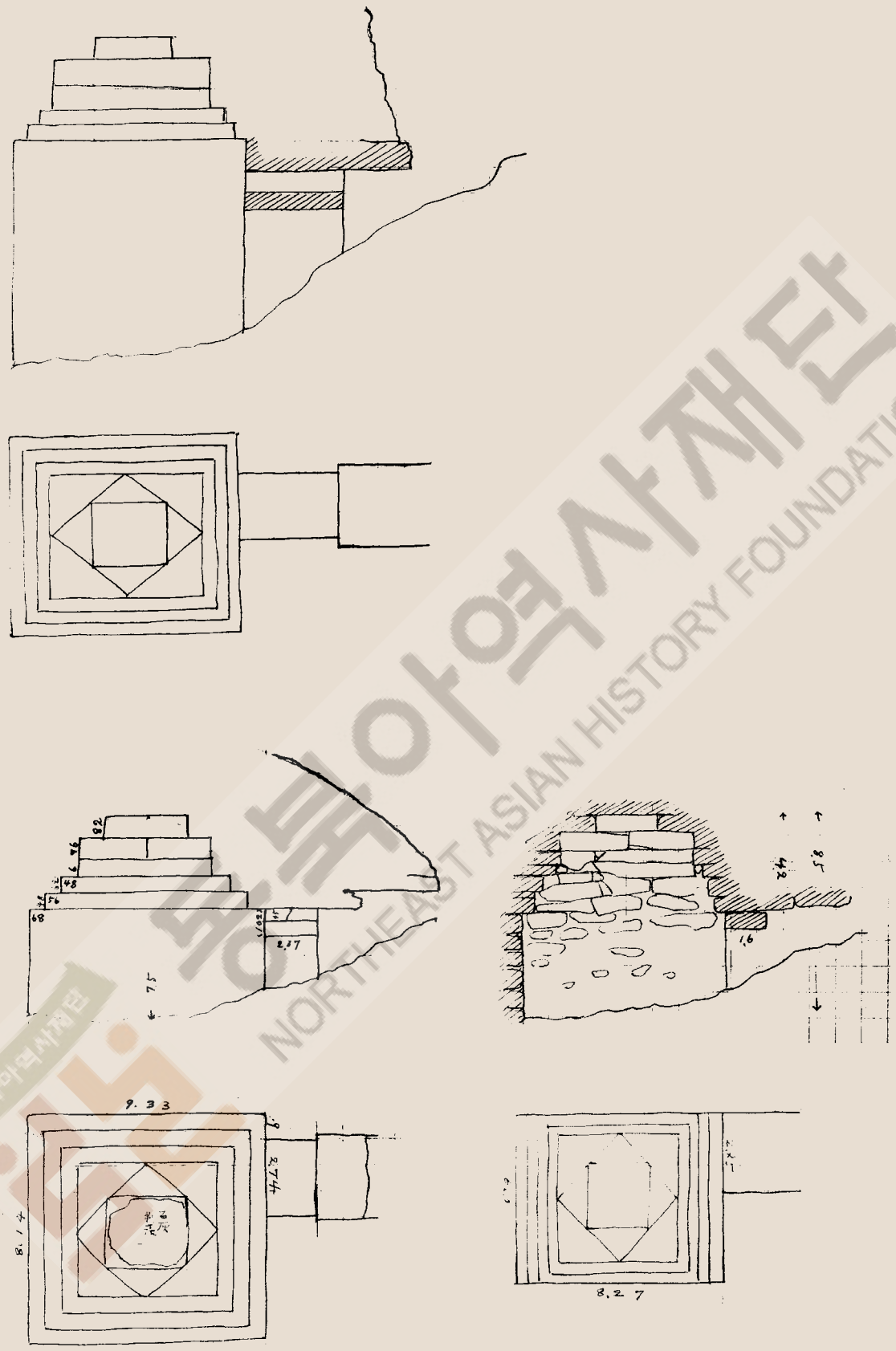








세키노 다다스의 용강 대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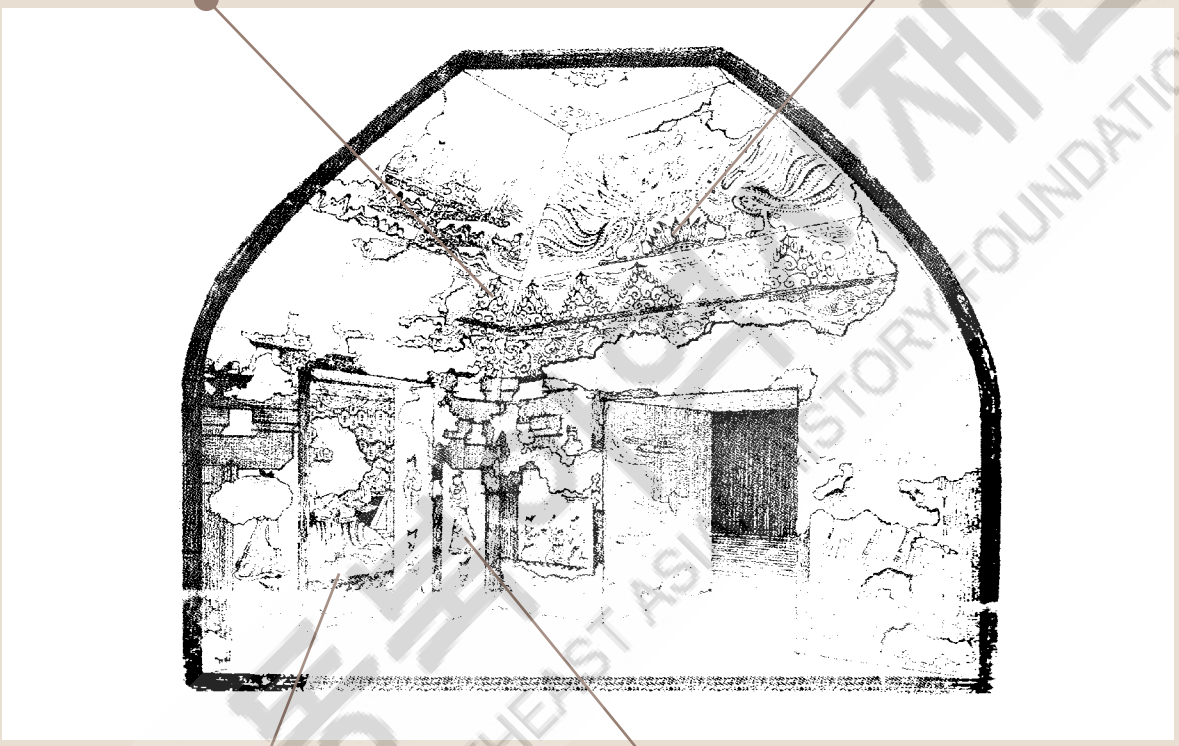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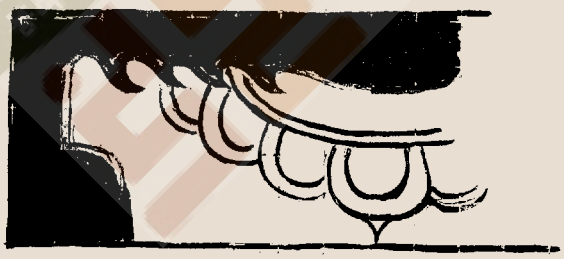
세키노 다다스의 매산리 고분 기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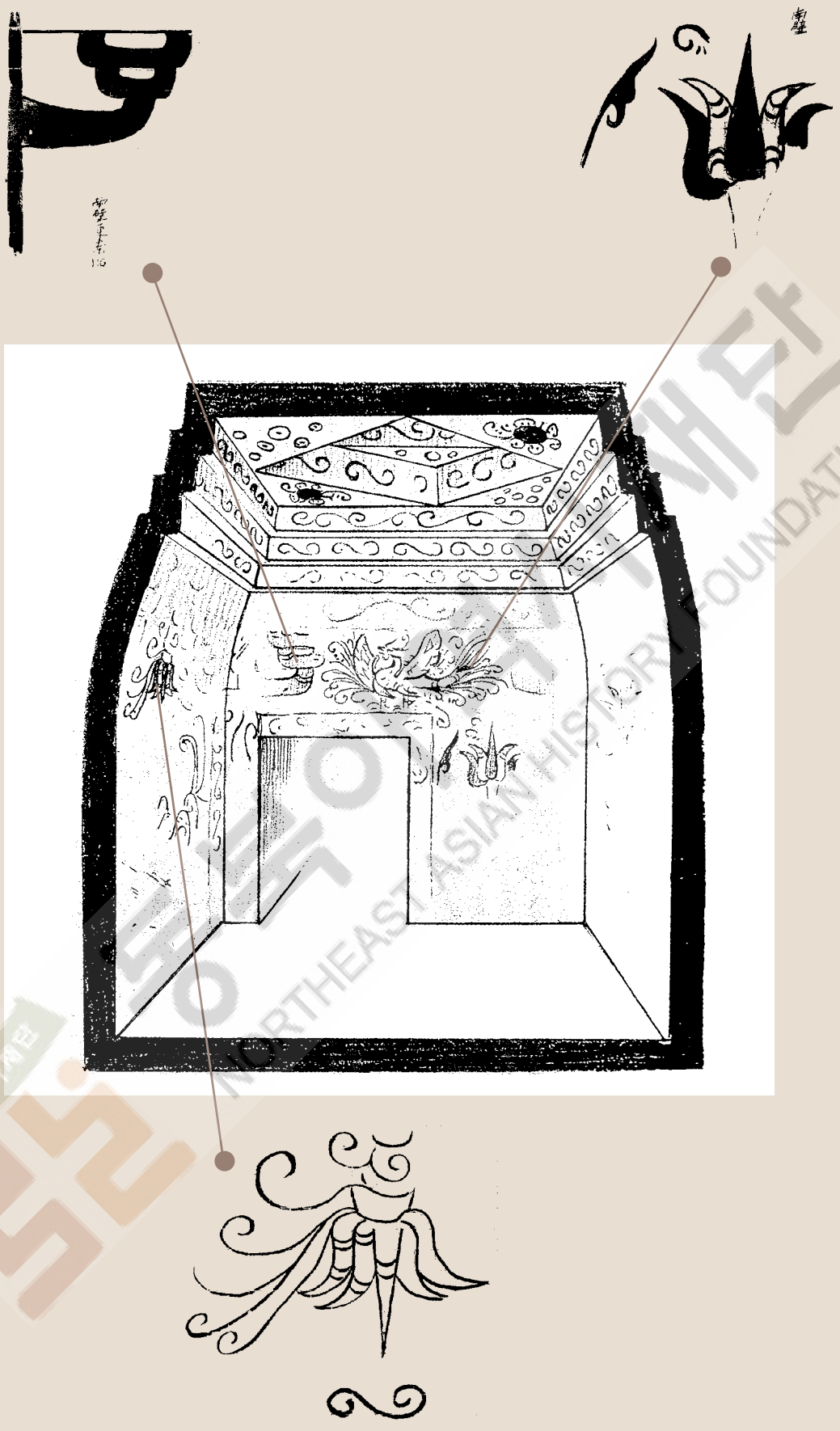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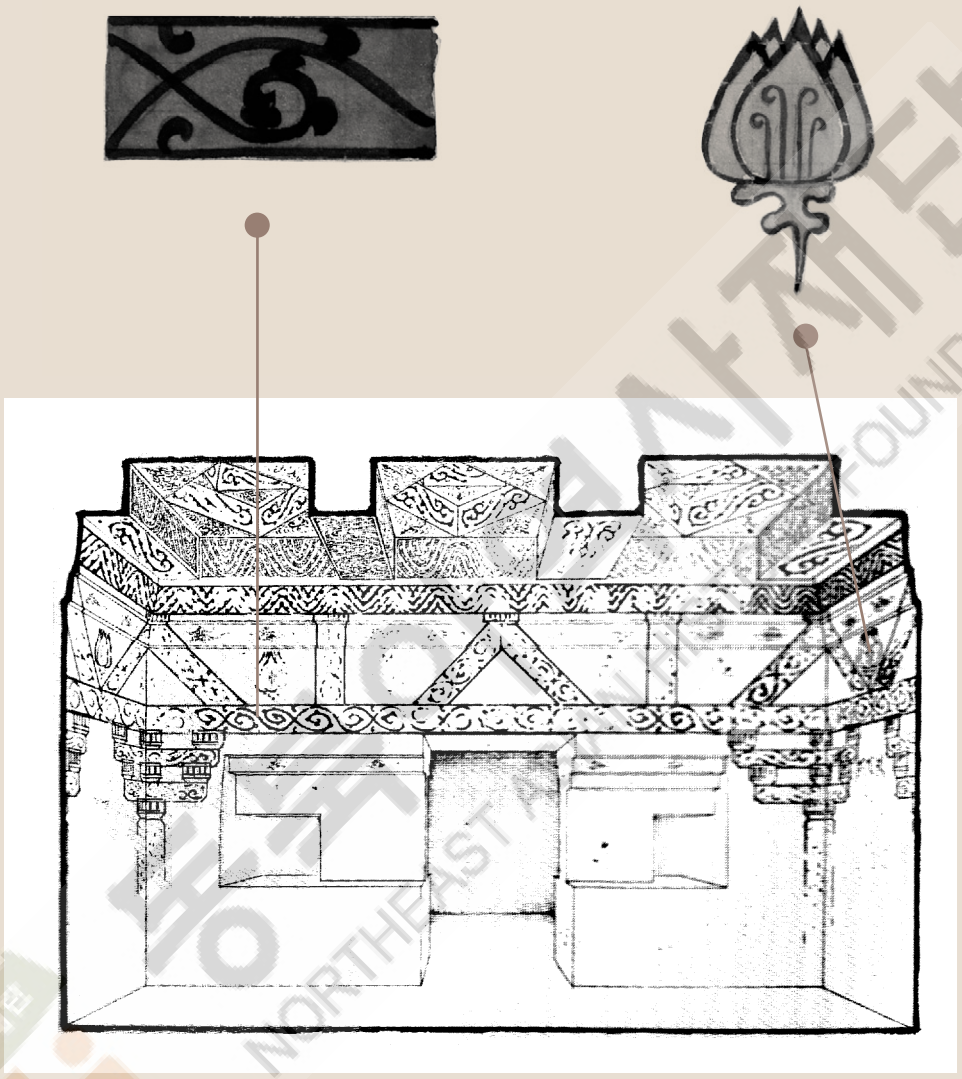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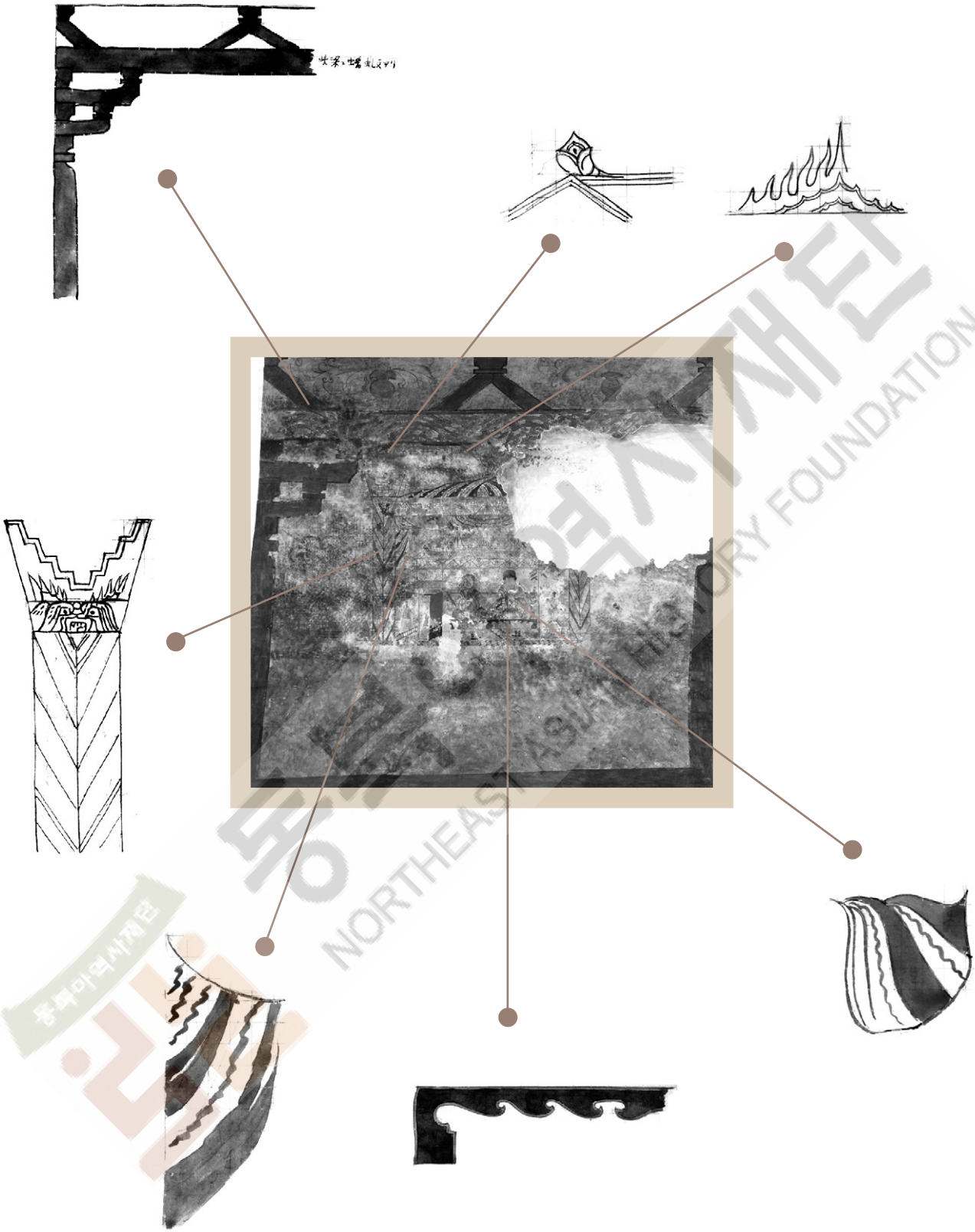
세키노 다다스의 쌍영총 기록



세키노 다다스의 매산리 성총 기록



세키노 다다스의 안성동 대총 기록



세키노 다다스의 쌍영총 기록

A RELIC OF KOGURYO IN THE JAPAN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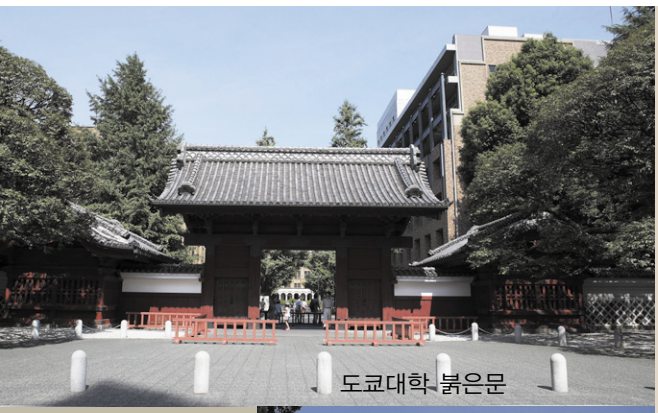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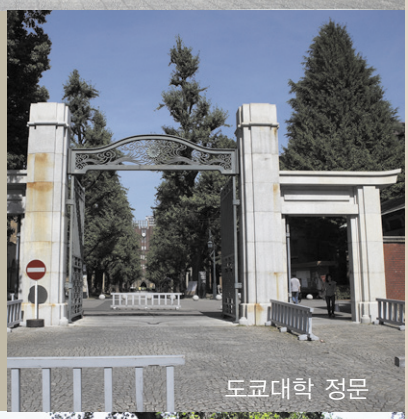
유물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대학


도쿄대학 붉은문


도쿄대학 정문


도쿄대학 문학부


도쿄대학 박물관


도쿄대학 공학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도쿄(東京)대학은 1877년 법학 · 이학 · 문학 · 의학의 4학부와 예비문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다. 1886년에 제국대학으로 개칭하였는데 법학 · 의학 · 문학 · 공학 · 이학의 5개 단대와 1개의 대학원을 갖추어 근대 대학으로서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 후 1897년에는 다시 교명을 도쿄제국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18년에는 기존의 단과대학을 폐지하고 학부제를 채택하고 경제학부도 신설하여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었다. 1946년에 교명을 도쿄대학으로 바꾸었으며 3년 뒤인 1949년에 교양학부를 새로 설치하여 오늘에 이른다.

도쿄대학에 고구려 유물이 보관된 곳은 문학부 열품실과 공과대학 건축학연구실이다. 문학부 열품실이라는 것은 원래 문학부 소유의 유물 보관시설이었으나, 지금은 고고학연구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과대학 건축학연구실이 소장하는 고구려 유물은 현재 도쿄대학 총합박물관(總合博物館)에 공간이 마련되어 보관되고 있으나 관리는 박물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아래에서 건축학연구실이 하고 있다.

1. 건축학연구실(총합박물관 보관)

일제강점기 초기에 한반도에서의 '고적 조사'를 주도한 사람이 세키노 다다스(關野貞)이다. 세키노는 도쿄제국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교수를 역임했기 때문에 초기 '고적 조사' 과정에서 채집한 많은 유물이 건축학과에 보관되게 되었다.

확인되는 고구려 관련 유물로는 평양 외성에서 출토된 와당과 평와가 8점이며, 창광산에서 채집된 유물이 9점 확인된다. 이 외에도 강동의 한왕묘에서 발굴된 다수의 고구려 기와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 때 출토된 목관도 건축학연구실의 관리하에 총합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 사동 고분에서 출토된 쇠못도 건축학 연구실로 반출되었다. 그리고 채집 과정이 분명하지 않은 고구려 와당이 다수 존재하는데 아마도 평양에서 수집가로 이름이 높았던 야마다 자이지로(山田財次郎)가 도쿄대학에 기증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에는 '세키노 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남긴 다수의 야장 기록과 고구려 석실 측량도와 실측도가 남아 있다. 야장 기록은 세키노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당시의 조사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실측도는 당시 총독부에서 파견된 이와이가 작성한 것인데『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실린 각종 도면의 원본이다. 또한 오바 쓰네키치와 오타 후쿠조가 작성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사가 소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고구려시대의 유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가편집 상태의 도판과 탁본 자료 등도 보관되어 있다.

2. 문학부 열품실

문학부 열품실에는 여러 종류의 고구려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와당인데 '세키노 조사단'이 1913년에 집안에서 채집한 고식 와당과 평양과 집안의 성지(城址)에서 채집한 각종 적색 기와도 확인된다. 열품실에는 1911년에 세키노가 주축이 되어 발굴한 한왕묘 봉토에서 출토된 와당도 보관되어 있다. 원래 공과대학 건축학연구실 소장이었던 것인데 일부가 문학부 고고학연구실로 옮겨진 듯하다. 와당은 2차적으로 열을 받아 변색되고 파손된 것인데 아마도 1923년의 관동대지진과의 관련성이 짐작된다. 1923년 이전에 도쿄제국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고적 조사'에서 수집하거나 굴착해서 얻은 많은 유물들이 문학부 열품실에 보관되었는데 1923년 9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문학부 열품실 유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도쿄대학 교내를 발굴 조사하던 중에 고구려 와당편이 출토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관동대지진 때 매몰된 것이다.

문학부 열품실에는 이 외에도 1930년대에 조사된 낙랑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도 포함되어 있다.

· 篠原啓方, 2005,「일본소재 고구려 유물에 대하여」,『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早乙女雅博 · 藤井惠介, 2000,「朝鮮建築 · 考古資料基礎集成(1)」,『朝鮮文化研究』7,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 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
· 早乙女雅博 · 藤井惠介 · 角田眞弓, 2002,「朝鮮建築 · 考古資料基礎集成(2)」,『朝鮮文化研究』9,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 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
· 東京大學總合博物館, 2005,『關野貞アジア踏査』.
· 谷豊信, 1990,「平壤土城里發見の古式の高句麗瓦當について」,『東洋文化研究所紀要』12.
· 朝鮮總督府, 1915,『朝鮮古蹟圖譜』Ⅱ.

1. 건축학연구실 (총합박물관 보관)



총합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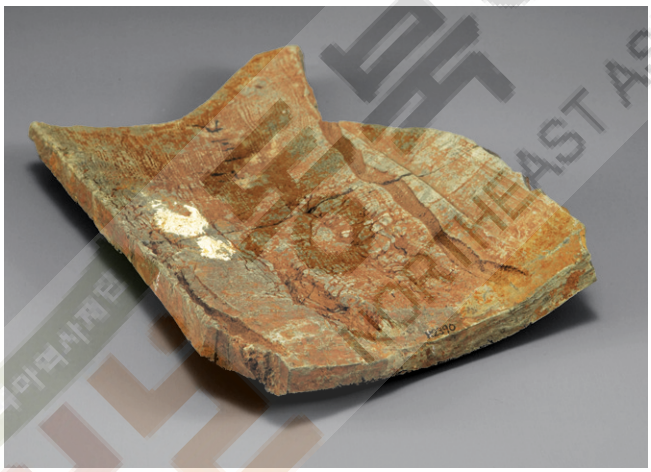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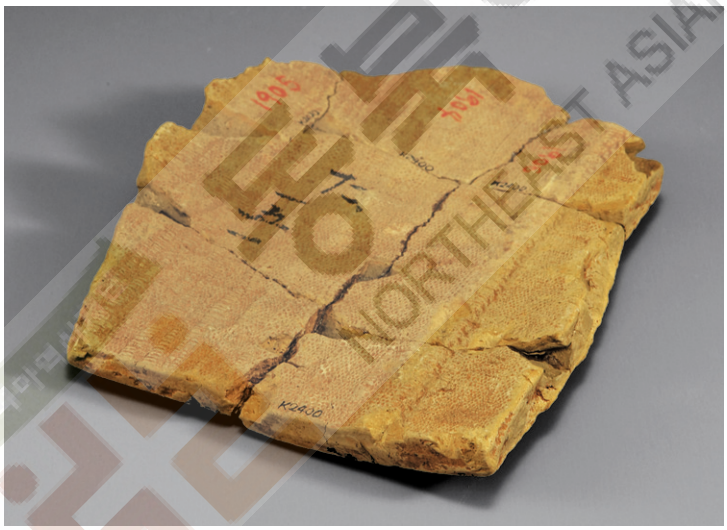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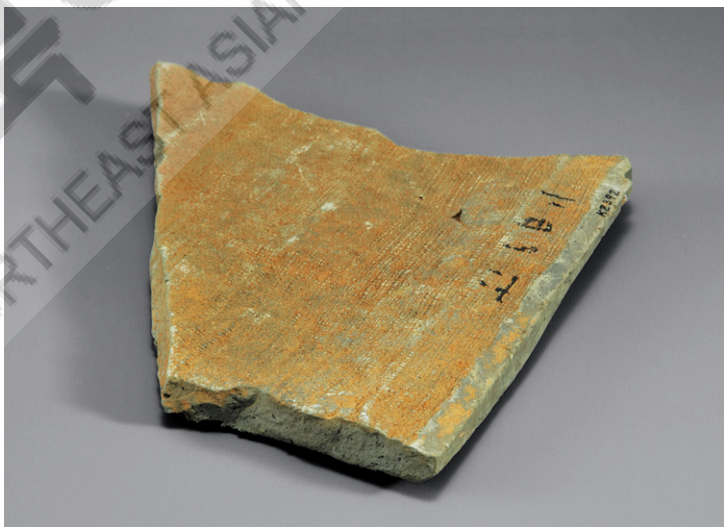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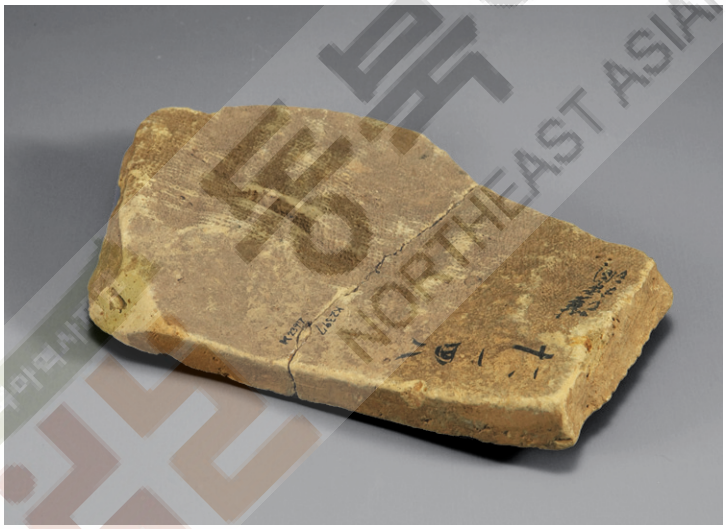
5 6





7 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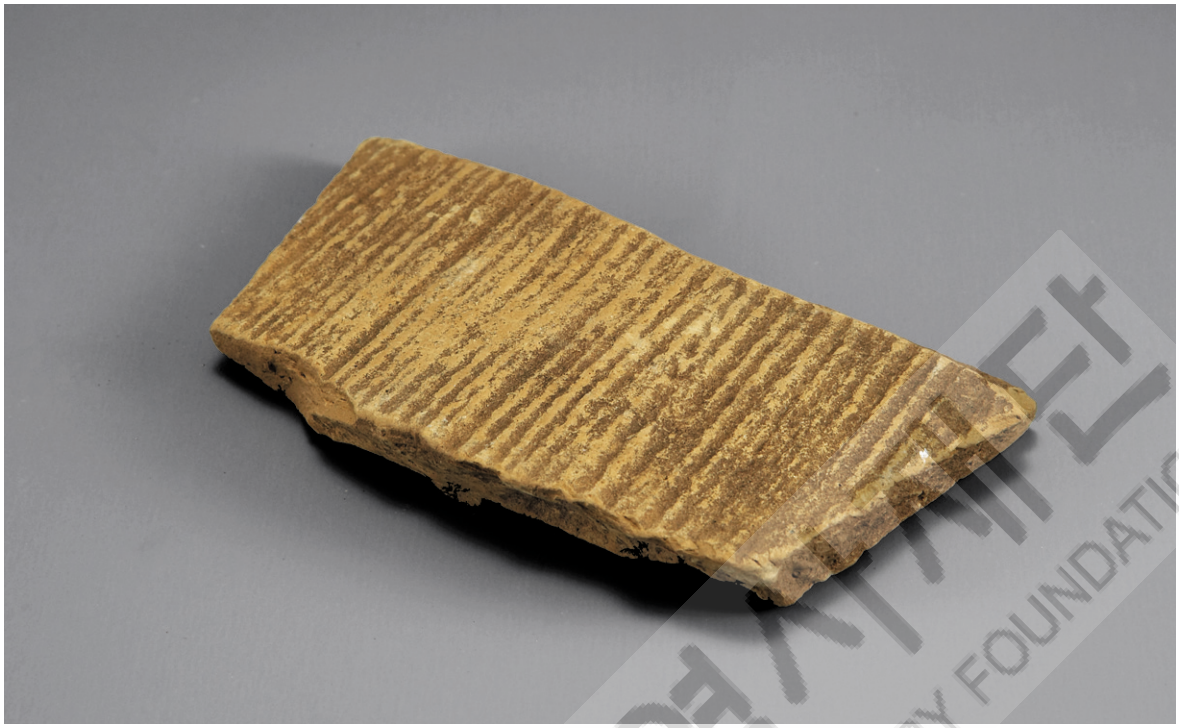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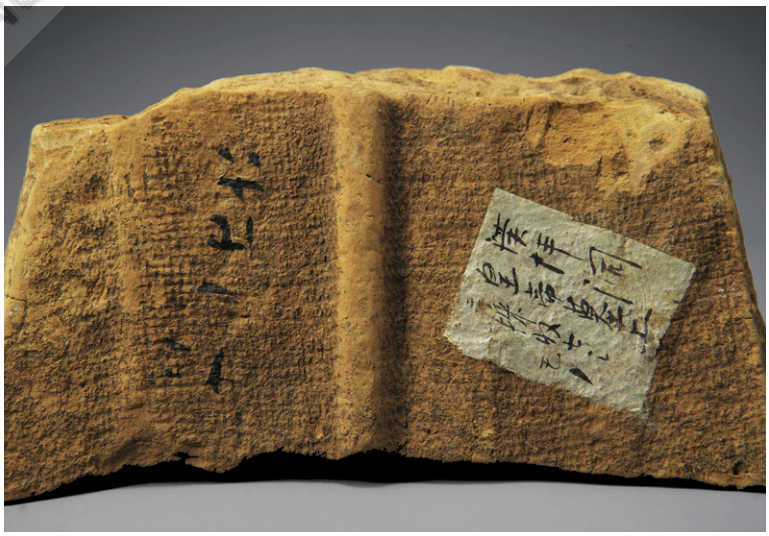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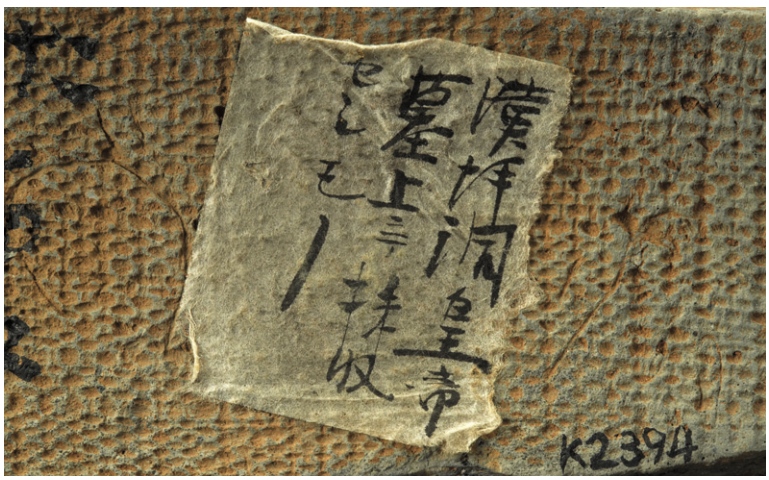




동아시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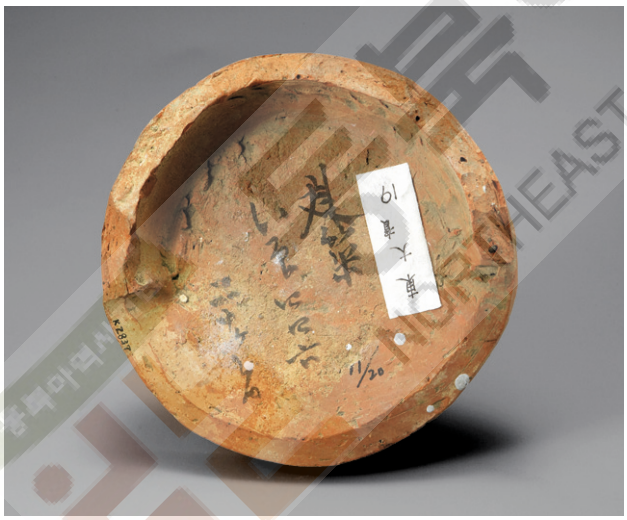






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

18







19 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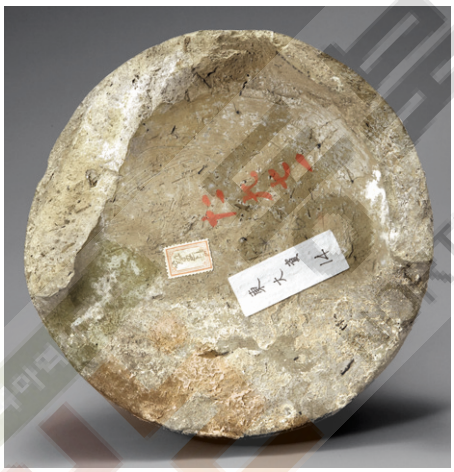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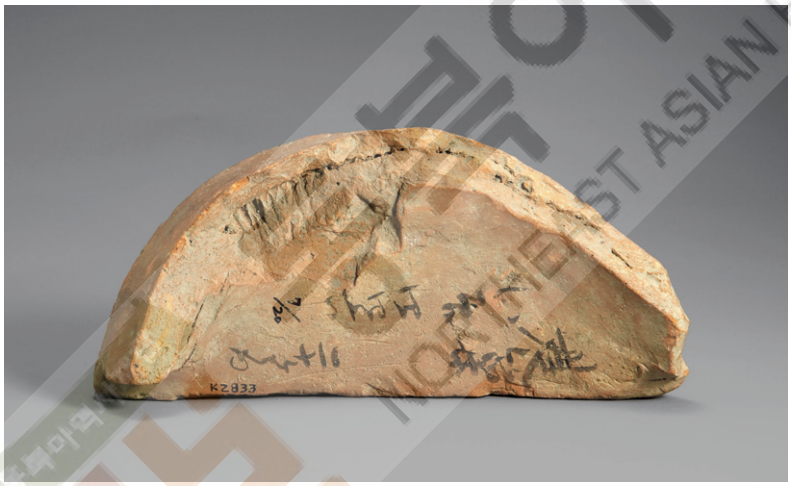






한국역사재단 KORE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3 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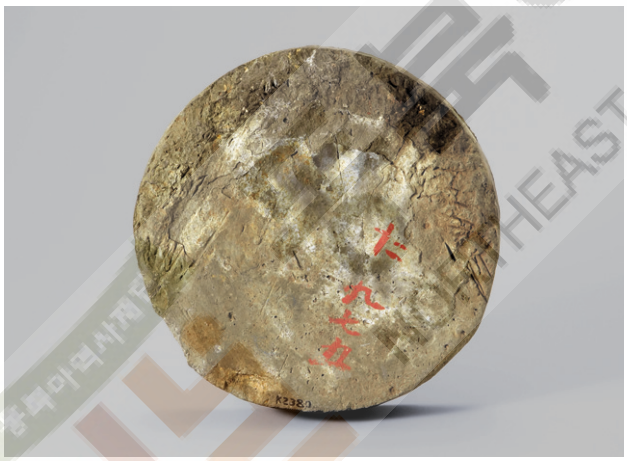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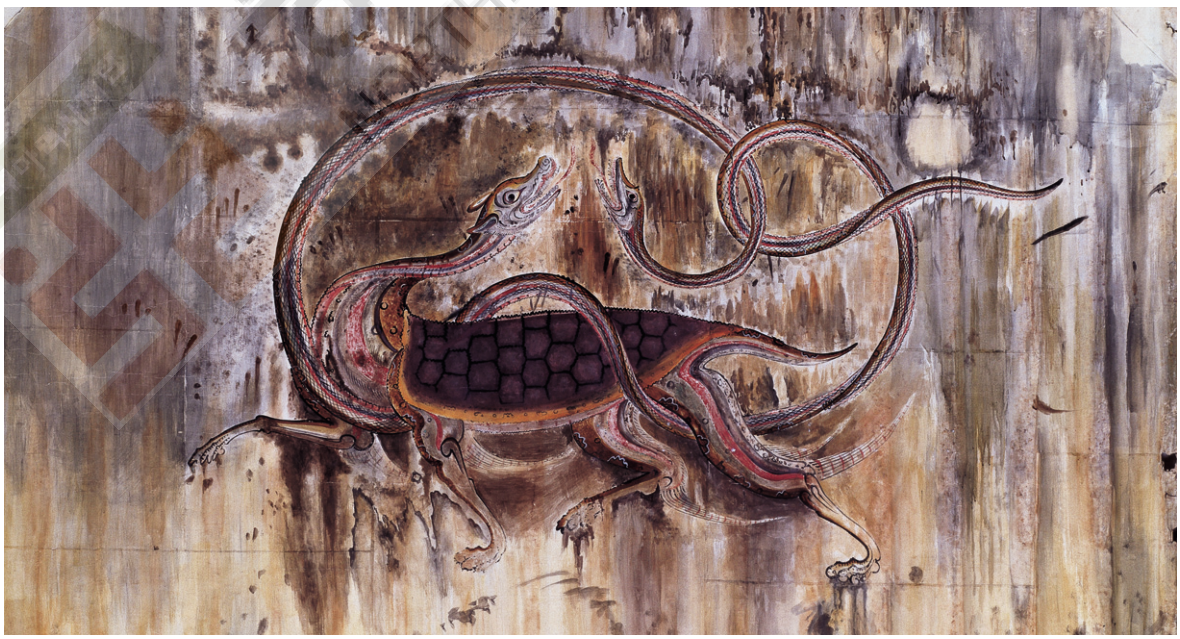
27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 소장 고구려 벽화 모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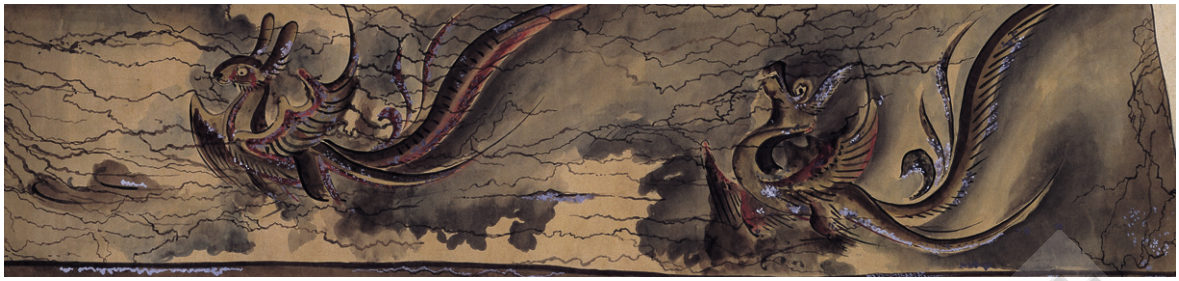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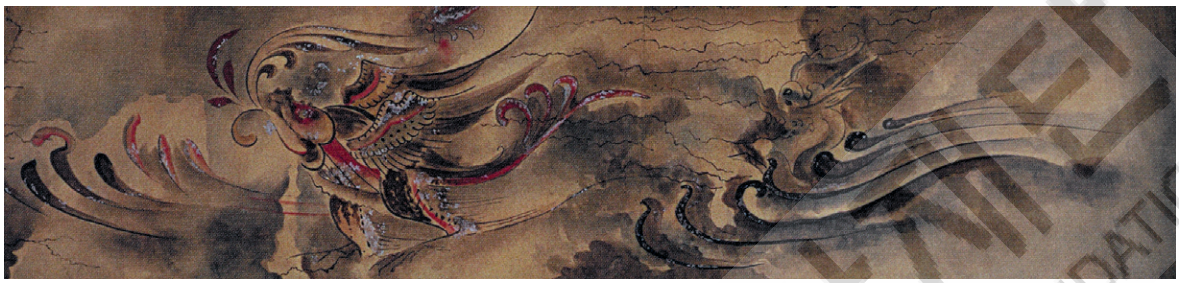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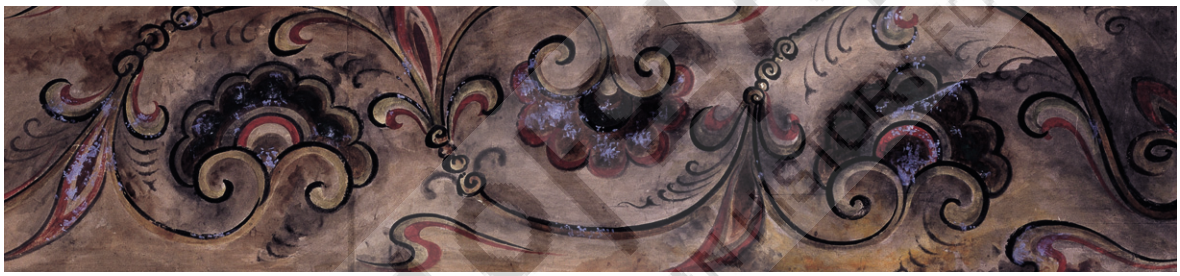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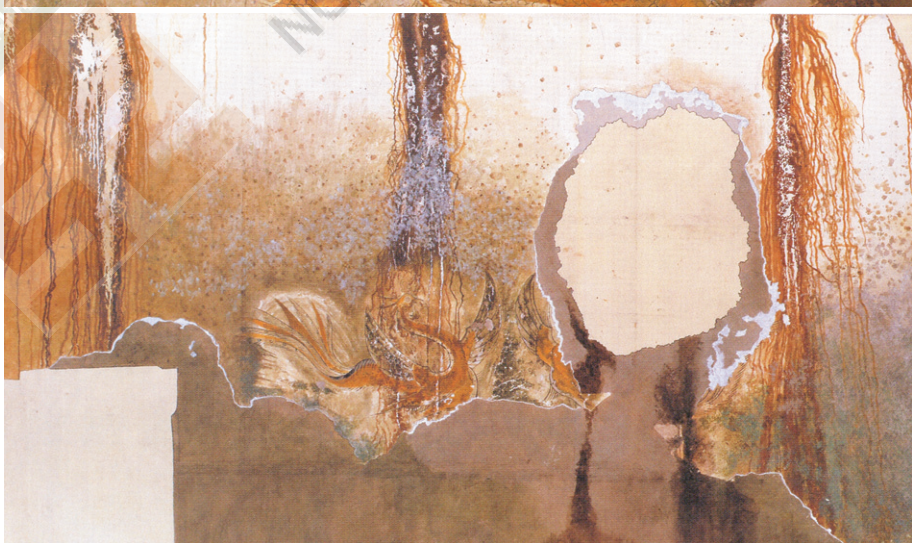












23

24

25





26
27

28 29
30 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2 33
34 35
36 37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8 39
40 41

42

43

44 45

46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7









48 50 51 49 5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5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



도쿄대학 문학부

2. 문학부



문학부 열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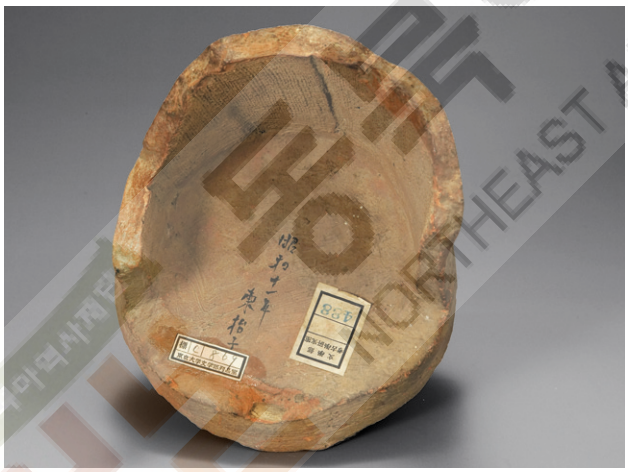






1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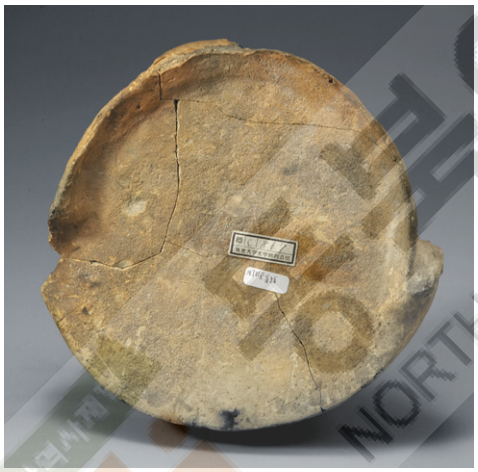






3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6



7 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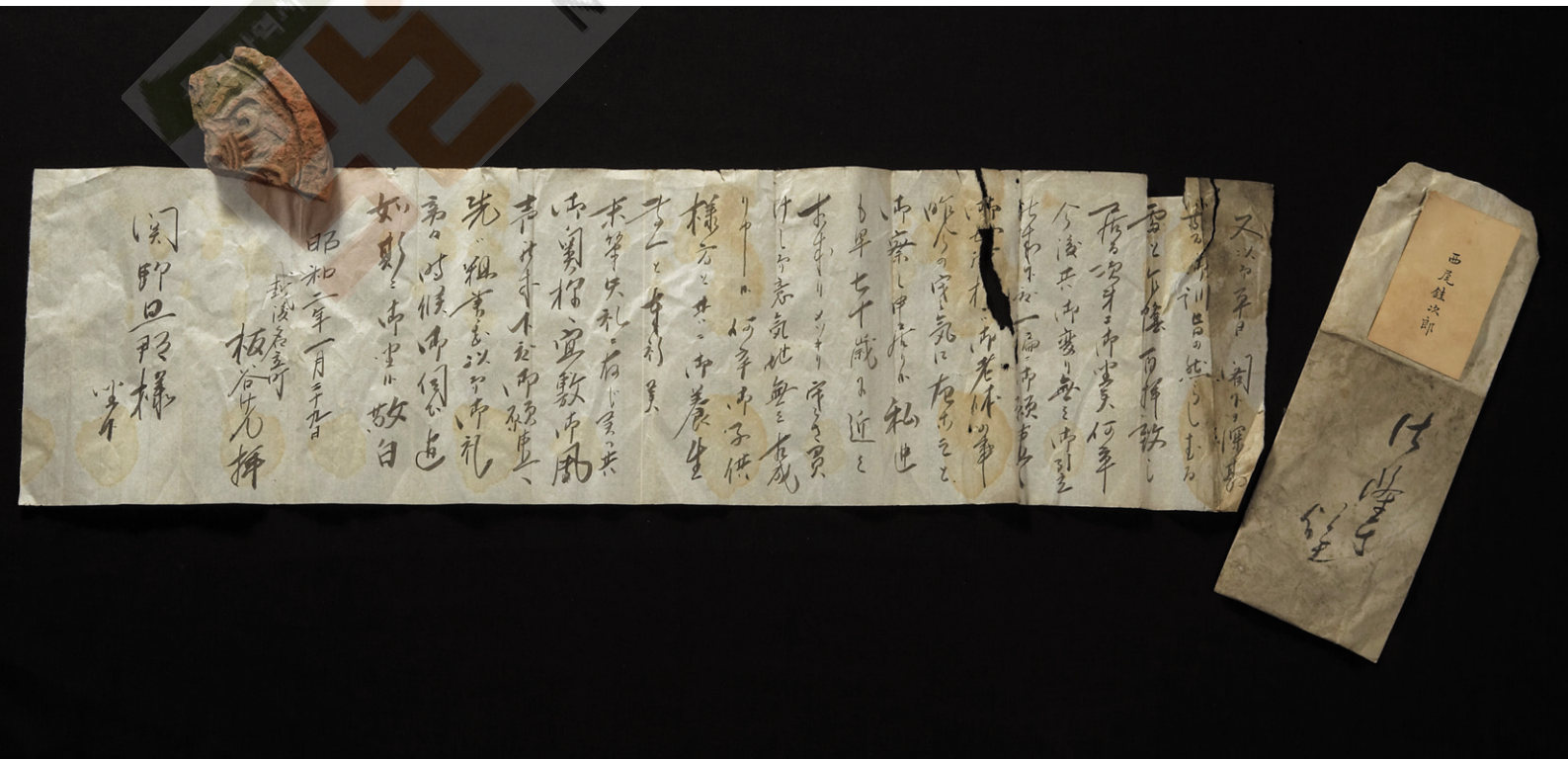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蒼光山


西尾鎌次郎





15 16







17 18




文學部
考古學研究室
420
標
京都大学文学部考古学室





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1

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대학 문학부

도쿄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박물관 전경(정창희 촬영)



도쿄박물관 동양관(정창희 촬영)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1872년에 문부성박물관이 모체가 되어 1889년에 제실박물관, 1907년에는 도쿄제실박물관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난 1947년에 국립박물관이 되었다. 현재의 명칭인 국립도쿄박물관으로 바뀐 것은 1952년이다. 지금은 법인화되어 행정법인 도쿄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關)이 되었다.

1956년에 발간된 도쿄국립박물관의 소장 목록에는 206점의 고구려 유물이 보고되었다. 내용은 수막새 144점, 암막새 30점, 암키와 8점, 전돌 20점, 그리고 니조불과 보살상이 2점, 기타 2점이다. 이들 유물은 1920년대까지 한반도에서 고적 조사를 주도하던 세키노 다다스(關野貞)와 조수인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채집 · 발굴한 것이거나 개인이 모았다가 당시의 제실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篠原 2006).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고구려 유물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 우선 1913년 12월에 세키노 다다스 외 3인이 도쿄박물관에 기증한 와편 30점을 들 수 있다(東京國立博物館 2005). 도쿄박물관에 등록되었을 때의 자료에는 '朝鮮國 平壤 土城洞 發見, 樂浪郡時代' 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30점 모두에 '평양 토성' 이라는 묵서가 있다. 세키노 등이 1913년 9월에 이루어진 '고적 조사' 에서 현재의 평양시 낙랑 구역의 토성동에 있던 낙랑 토성 근처를 답사하면서 발견한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토성동에서 채집된 기와는 집안 지역에서 많이 확인되는 고식 고구려 와당과 형식적 유사성이 높다. 또 1929년에 도쿄박물관이 구입한 낙랑 · 고구려 시대의 와전, 금속기 등이 100여 점 있는데 그 중에 고구려 기와 2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입수된 유물에는 출토지

가 주기된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 '不詳'이라고 적혀 있다. 주기가 있는 것은 모두 지금의 평양시 일대인데 '不詳'인 것도 지금의 지견(知見)으로 보면 평양일 가능성이 높다(谷 2005).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된 대표적인 한국문화재인 '오구라 컬렉션'에도 3점의 고구려 와당이 확인되며 동양사를 전공하며 오카야마대학 교수를 역임한 나이토 슌보(內藤雋輔)의 유족이 2003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중에도 10여점의 고구려 와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키시다 긴고우(岸田吟香)가 기증한 여러 면의 광개토대왕릉비 탁본도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기증은 1886년경에 이루어졌다. 사카와의 탁본이 박물관에 구입되는 시기가 1890년이기 때문에 그보다 4년 빠르다. 키시다는 1874년에 타이완 침략에 종군기자로 참가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아 군부에 인맥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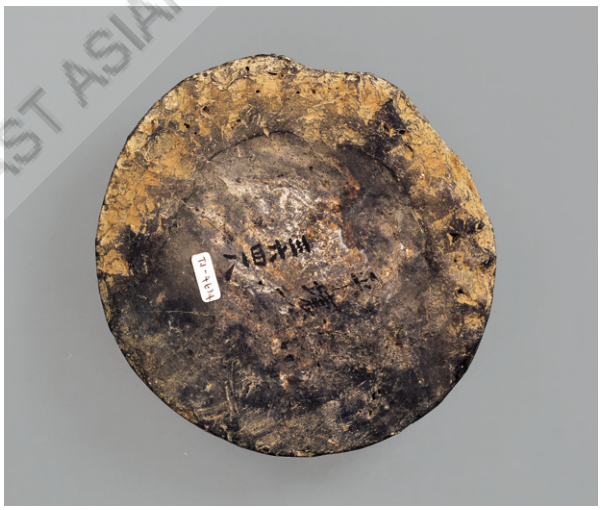
· 篠原啓方, 2005,「일본소재 고구려 유물에 대하여」,『한국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 谷豊信, 2005,「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 關する 覺書」,『MUSEUM』, 東京國立博物館.

· 東京國立博物館, 1956,『收藏品目錄』.





1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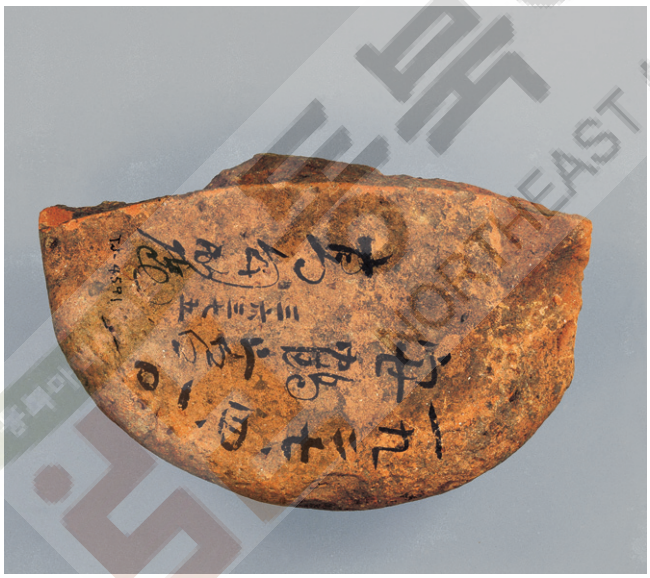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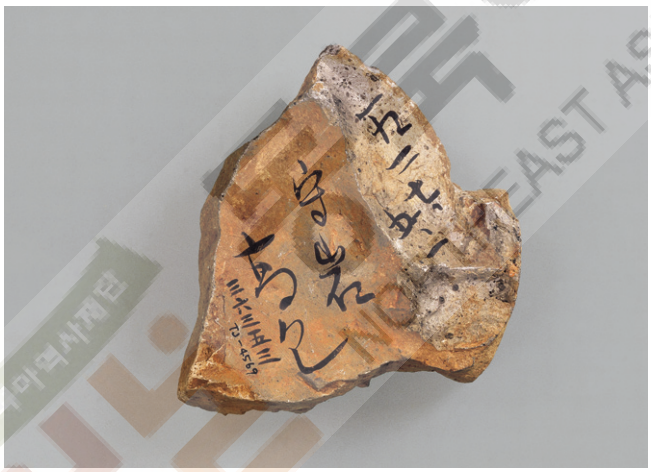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12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	16
15	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 20
19 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22	24
23	25





26 28
27 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0 32
31 3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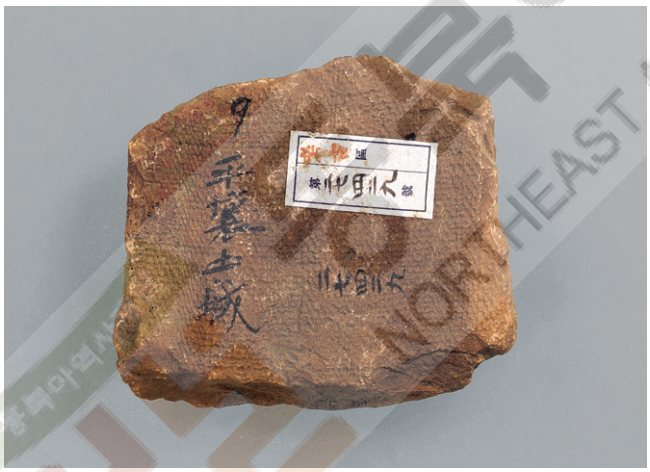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4 36
35 37





38 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 자료 〈낙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 자료〈낙랑〉



도쿄예술대학



도쿄예술대학 정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도쿄예술대학(東京藝術大學)은 1887년에 설립된 도쿄미술학교와 도쿄음악학교를 통합해서 1949년 새로운 대학으로 발족한 것이다. 도쿄대학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 국립대학법인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쿄예술대학 미술관에는 다수의 고구려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자료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키노 조사단'이 고적 조사 과정에서 채집한 각종 고구려 와전(瓦塼)이고, 다른 하나는 오바 쓰네키치가 그린 고구려 벽화의 모사도이다. 고구려 기와와 벽돌은 대부분 1914년 10월에 세키노 다다스가 일괄 기증한 것이다. 도쿄대학 교수인 세키노가 예술대학에 고구려 유물을 기증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세키노와 도쿄미술학교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키노가 처음 미술학교와 인연을 맺는 것은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에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조가학과(지금의 건축학연구실)를 졸업한 세키노는 1896년에 미술학교의 촉탁 교원이 되어 건축사를 강의한다. 그 후 1911년부터 다시 촉탁 교원이 되어 동양 건축사를 강의하는데 그가 사망하는 1935년까지 계속된다.

1914년에 기증된 유물은 세키노 조사단이 1913년도에 중국 집안 부근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면서 채집한 것인데, 1년의 공백을 두고 기증된 것을 보면 원래 도쿄제국대학에서 보관하던 유물 중의 일부임을 추측할 수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모사를 작성한 오바 쓰네키치는 1898년에 미술학교의 예비과에 입학하여 1899년에 본과 도안과 1년생으로 전과한 후 1903년에 졸업하였다. 그 후 이바라키와 아키타 등지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1908년에 도쿄미술학교 도안과(圖案科)의 조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11년에 미술학교의 강사가 된 세키노와 자연스럽게 접점을 가지게 되었다. 1909년부터 해마다 한반도에서 '고적 조사'를 수행하던 세키노는 고구려 고분이 본격적으로 조사되는 1913년부터 오바 쓰네키치를 조사단에 합류시키는데 같은 해에 이루어진 집안의 고구려 유적 조사에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도쿄예술대학에 고구려 와전과 고구려 벽화의 모사가 보관된 경위는 세키노와 오바 쓰네키치의 이러한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 篠原啓方, 2005,「일본소재 고구려유물에 대하여」,『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東京大學總合博物館, 2005,『關野貞アジア踏査』.

· 谷豊信, 1990,「平壤土城里發見の古式の高句麗瓦當について」,『東洋文化研究所紀要』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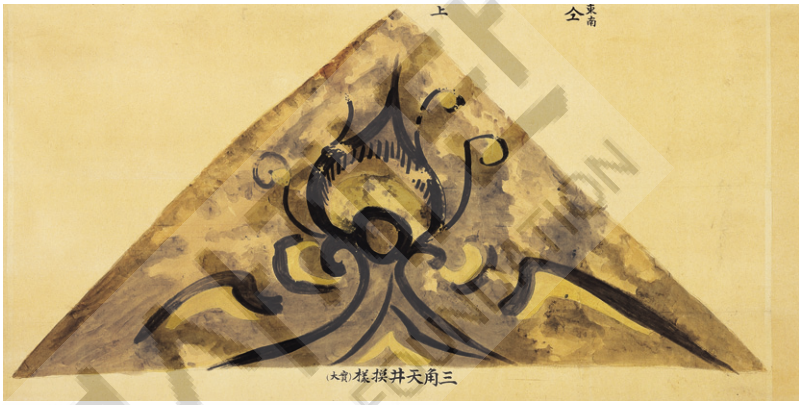
· 朝鮮總督府, 1915,『朝鮮古蹟圖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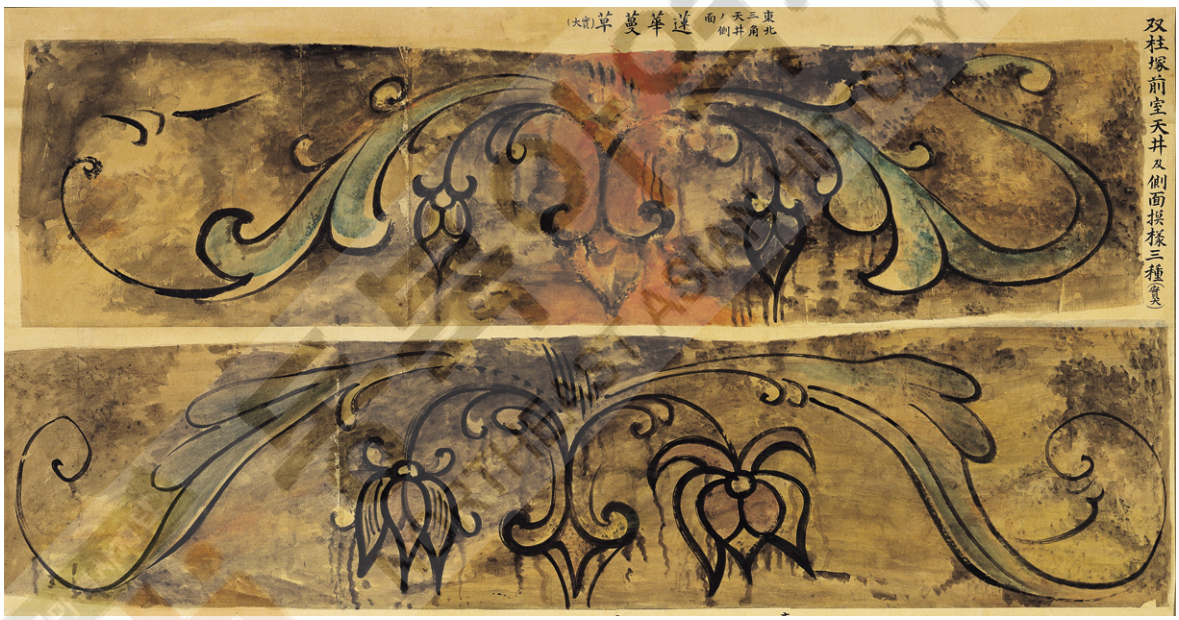
· 大西純子, 2005,「關野貞と東京美術學校」,『關野貞アジア踏査』, 東京大學總合博物館.

東京藝術大學藝術資料館, 1992,『東京藝術大學藝術資料館 藏品目錄 -考古・ガラ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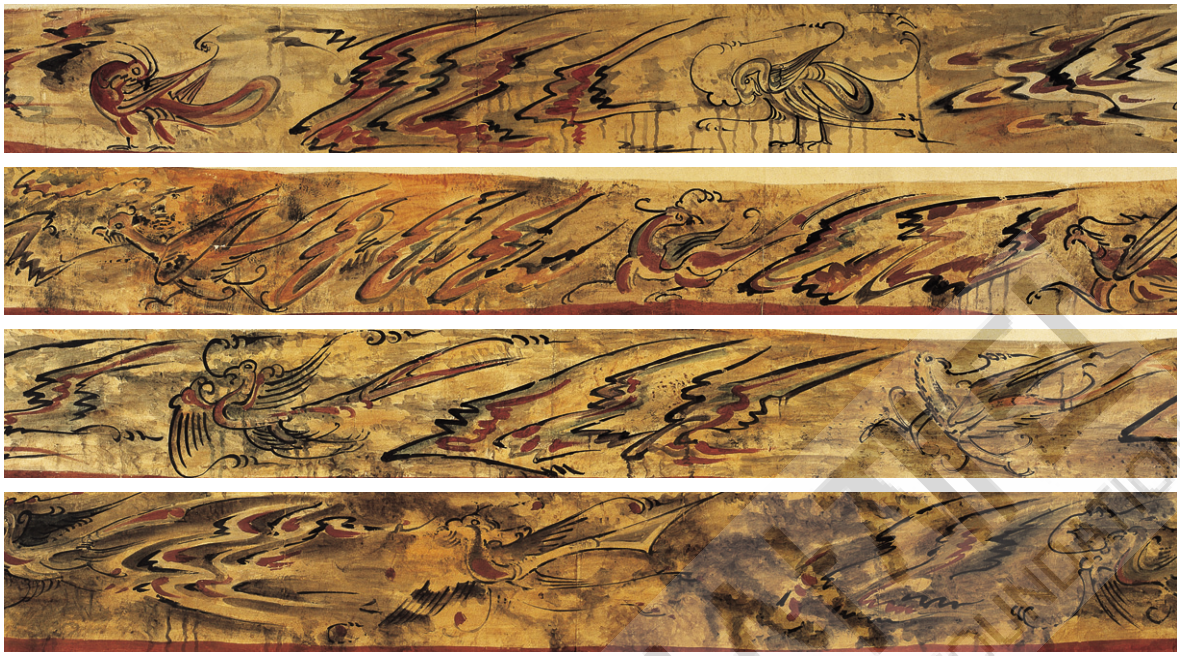
도쿄예술대학 소장 벽화 모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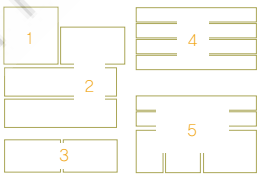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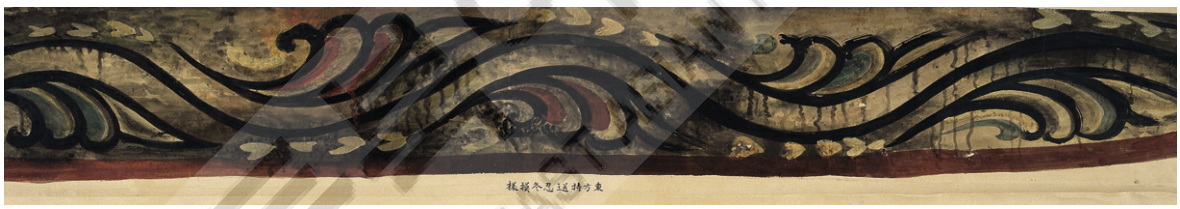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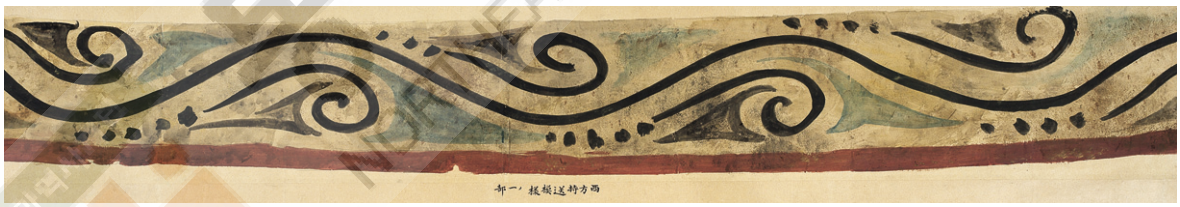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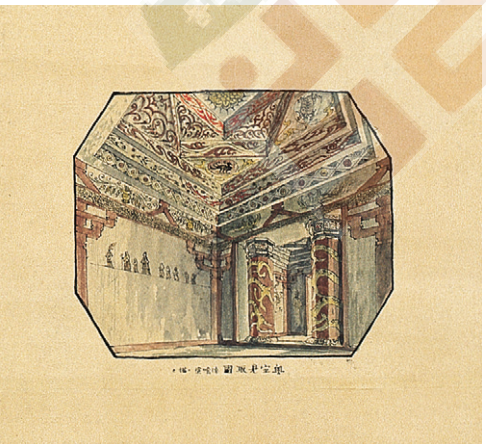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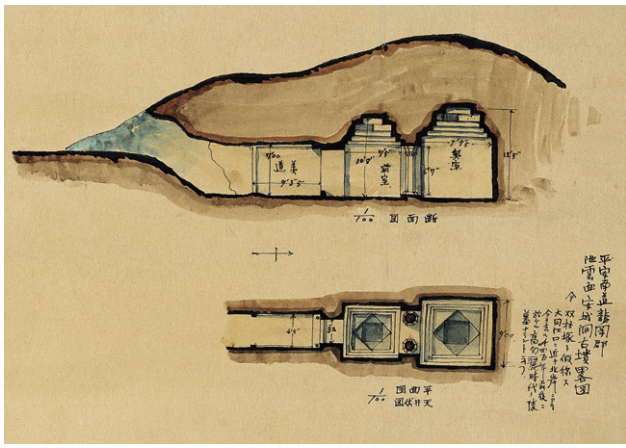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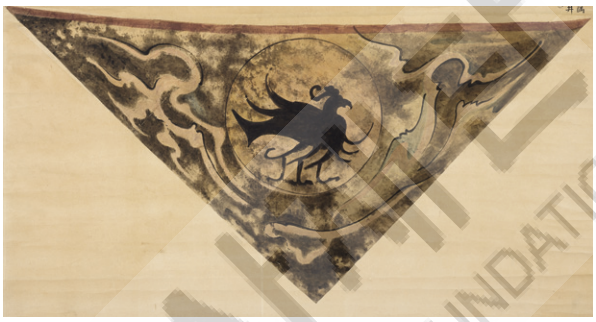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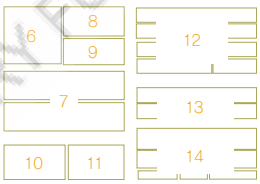




















한국역사재단 KOREA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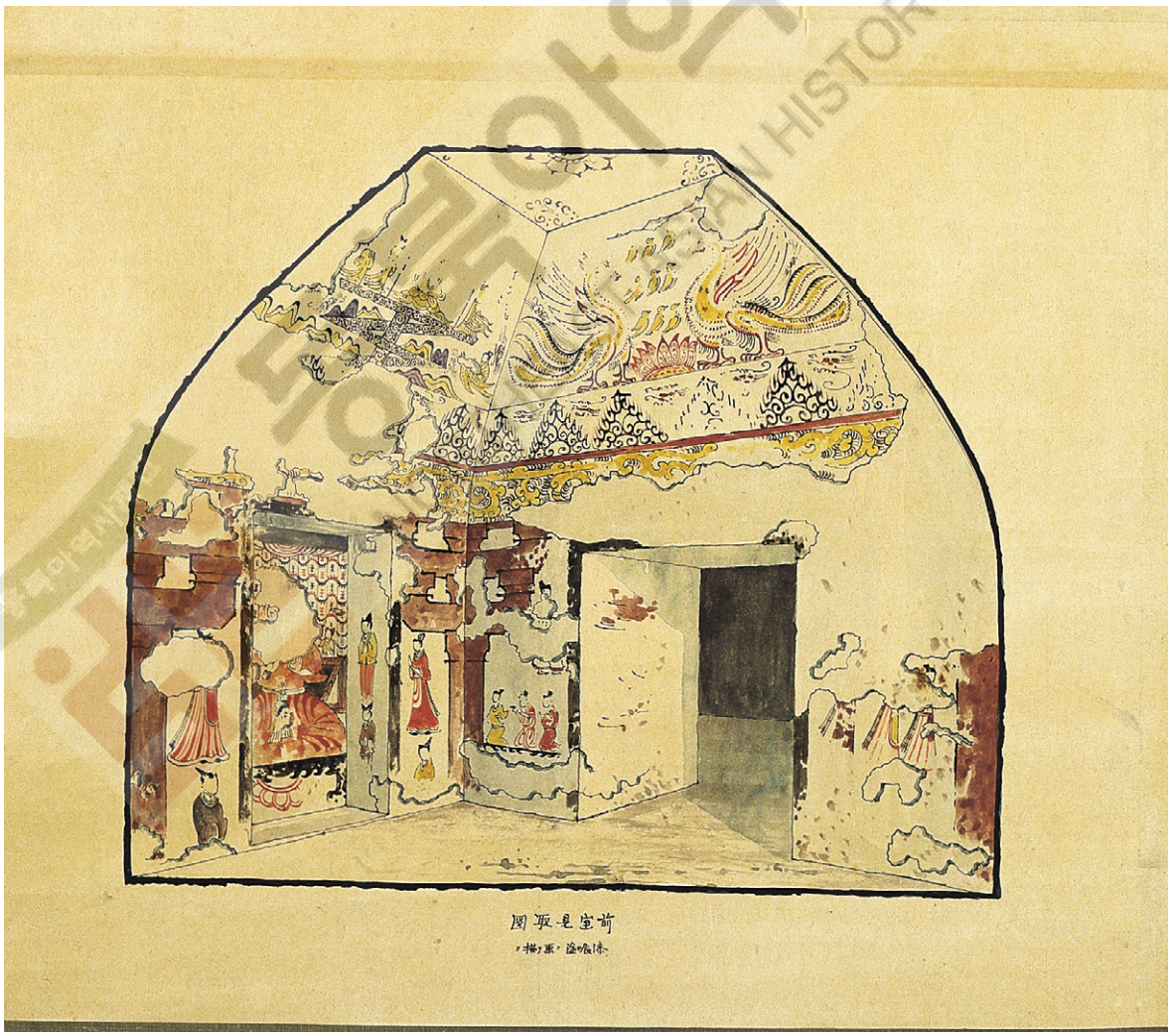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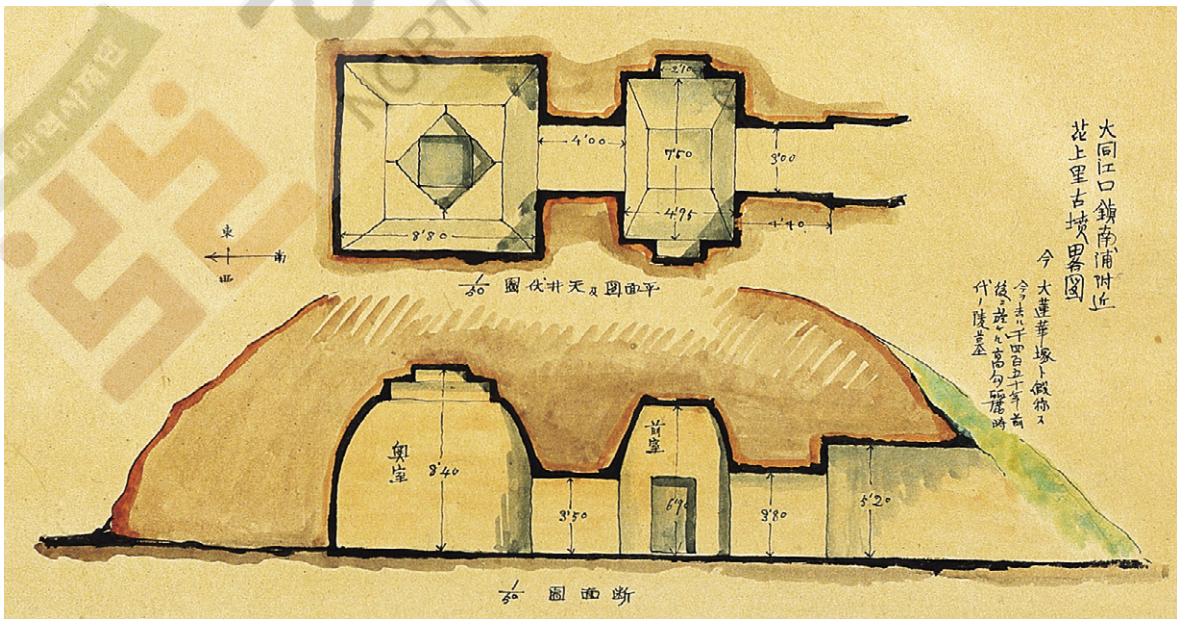


1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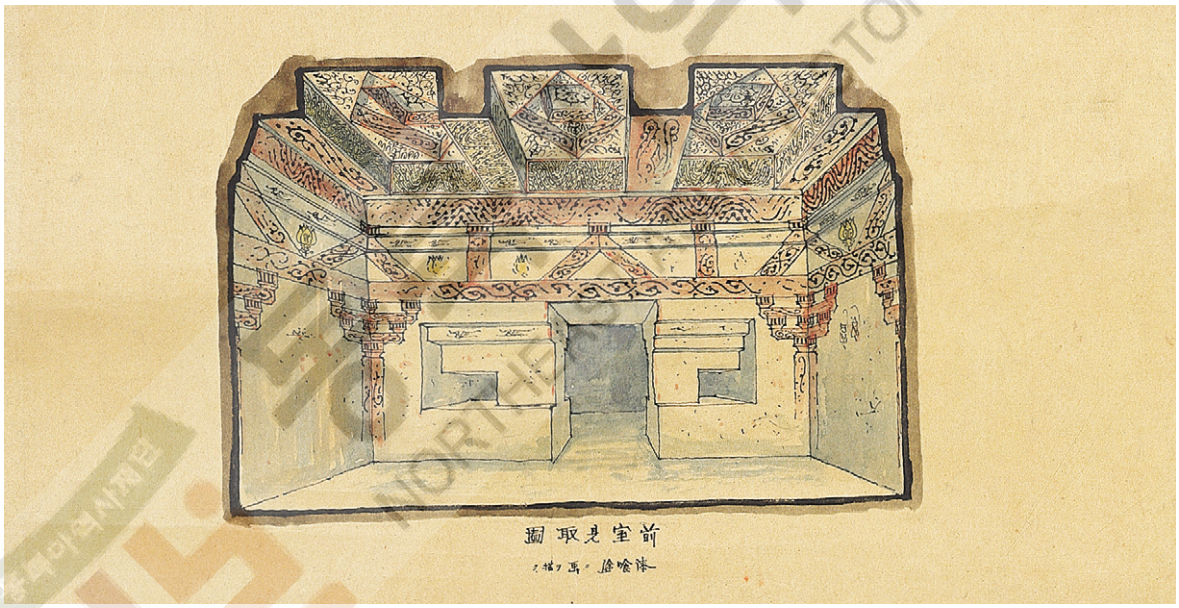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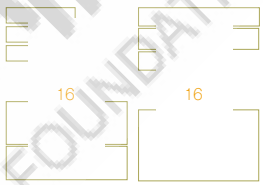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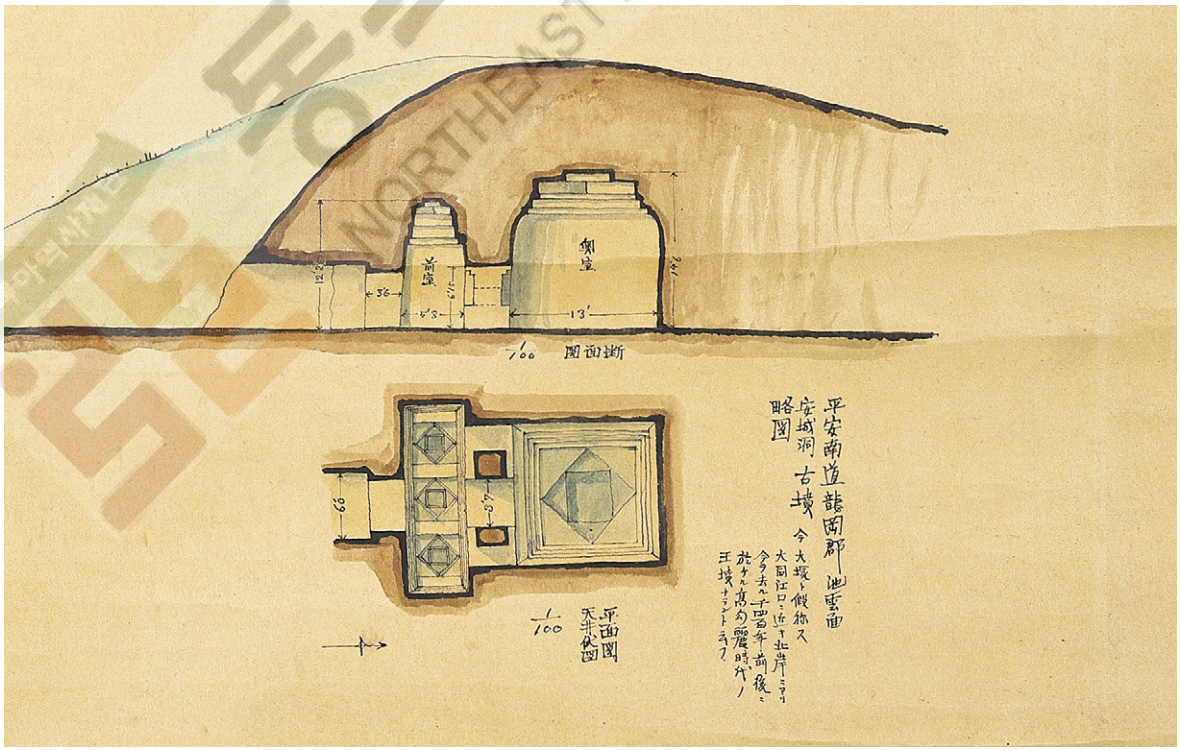


북한역사재단 NORTH KOREA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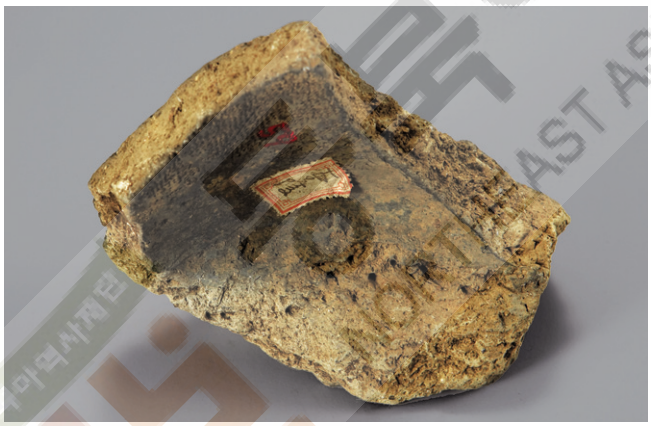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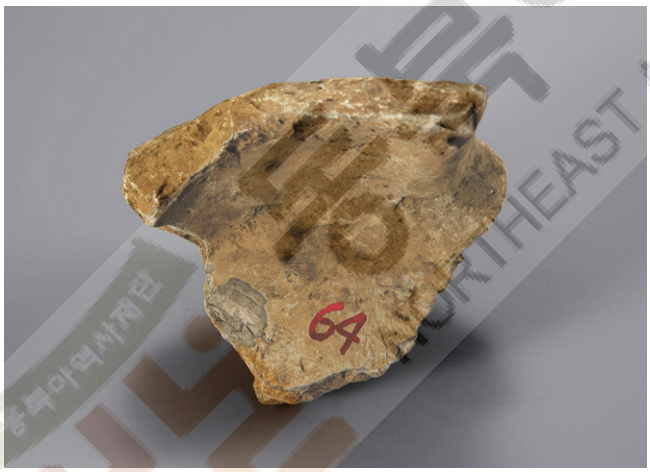






3 4







5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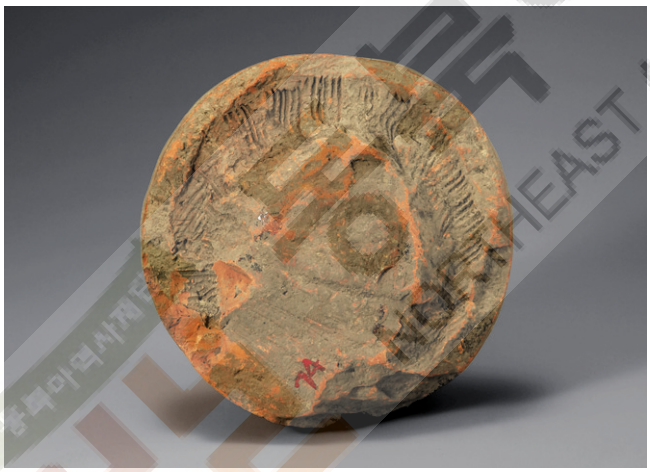






9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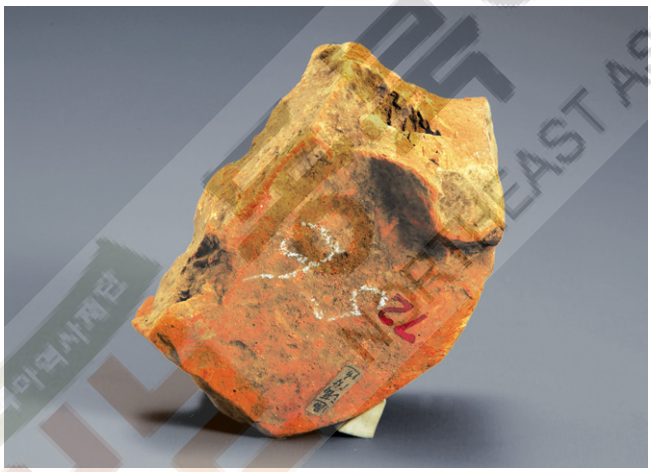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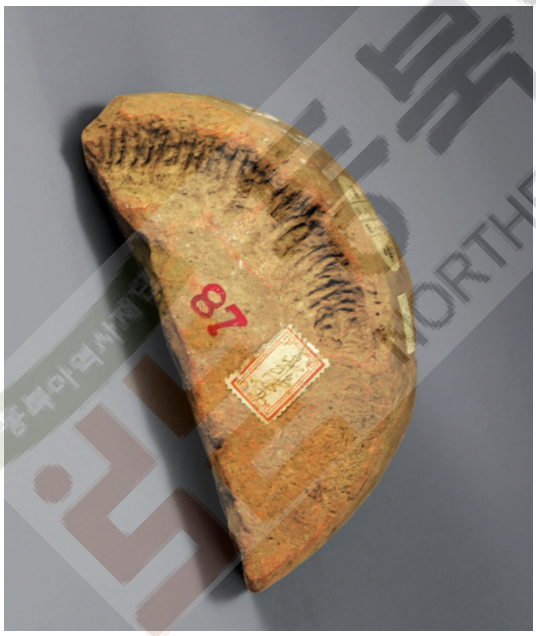






15 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 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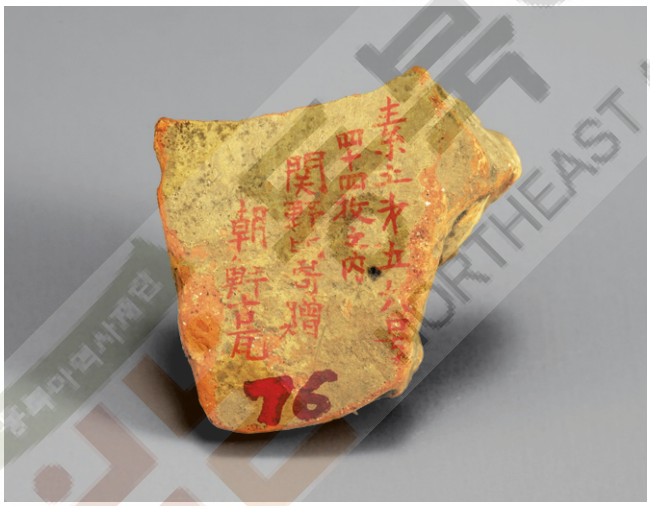




동아시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 20





21 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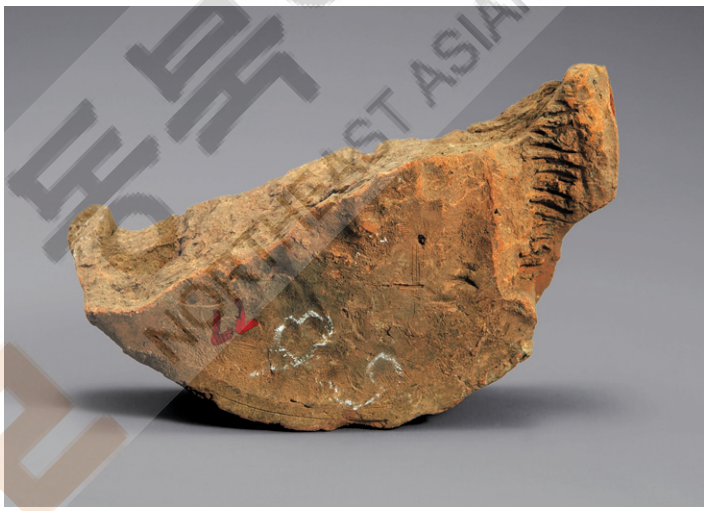
23 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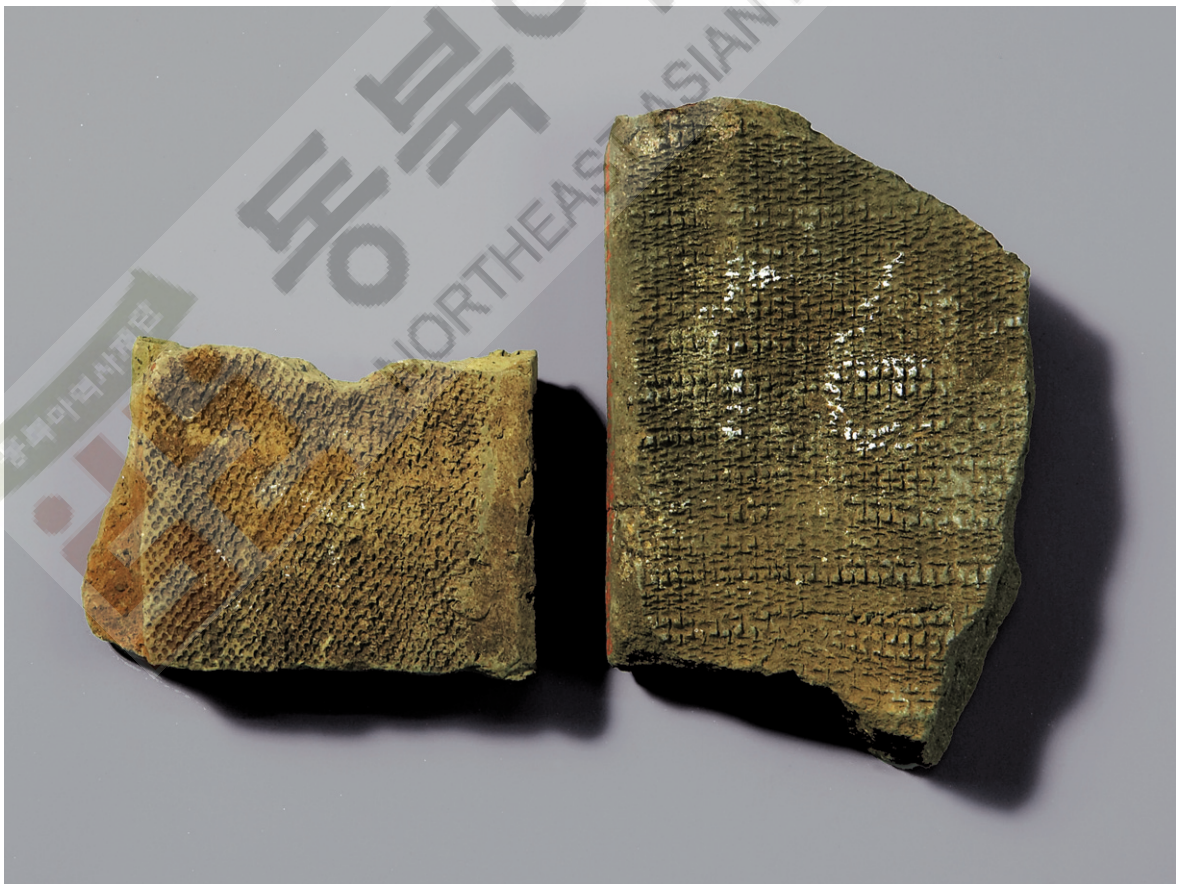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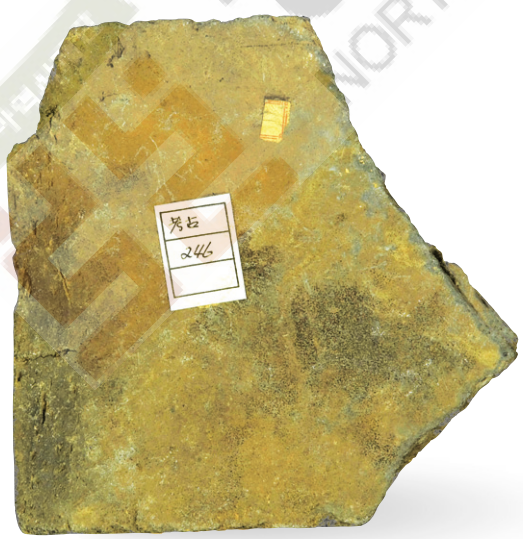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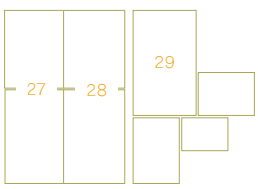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0

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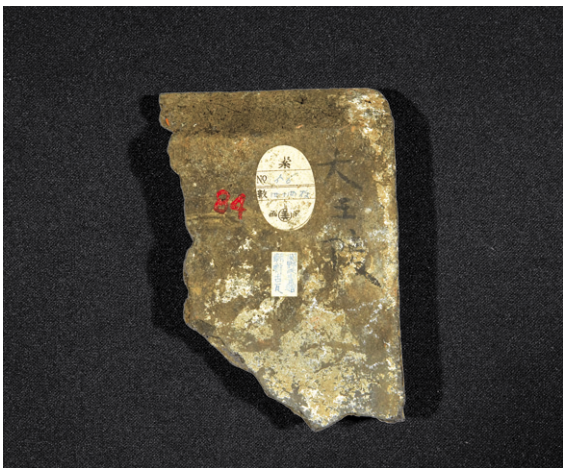
32 33



34

3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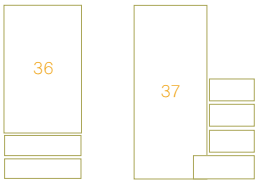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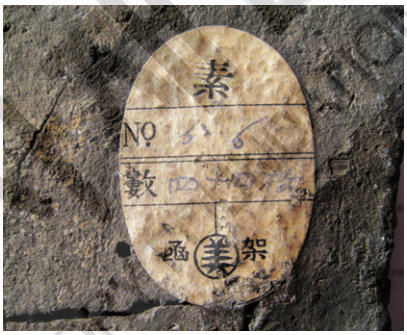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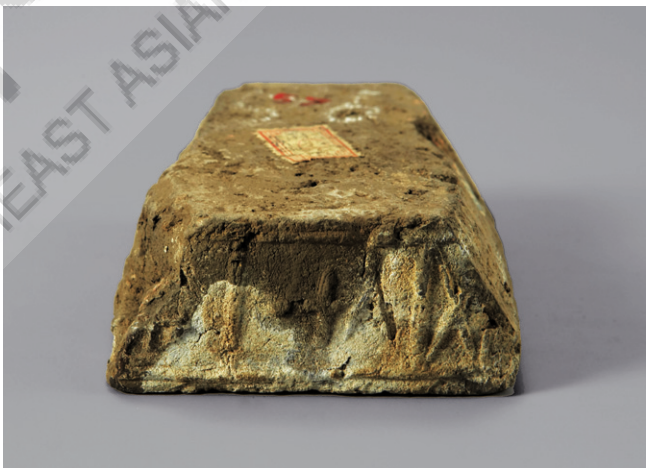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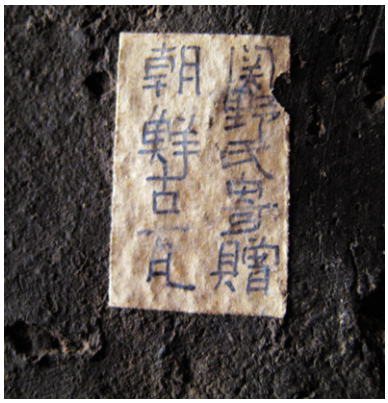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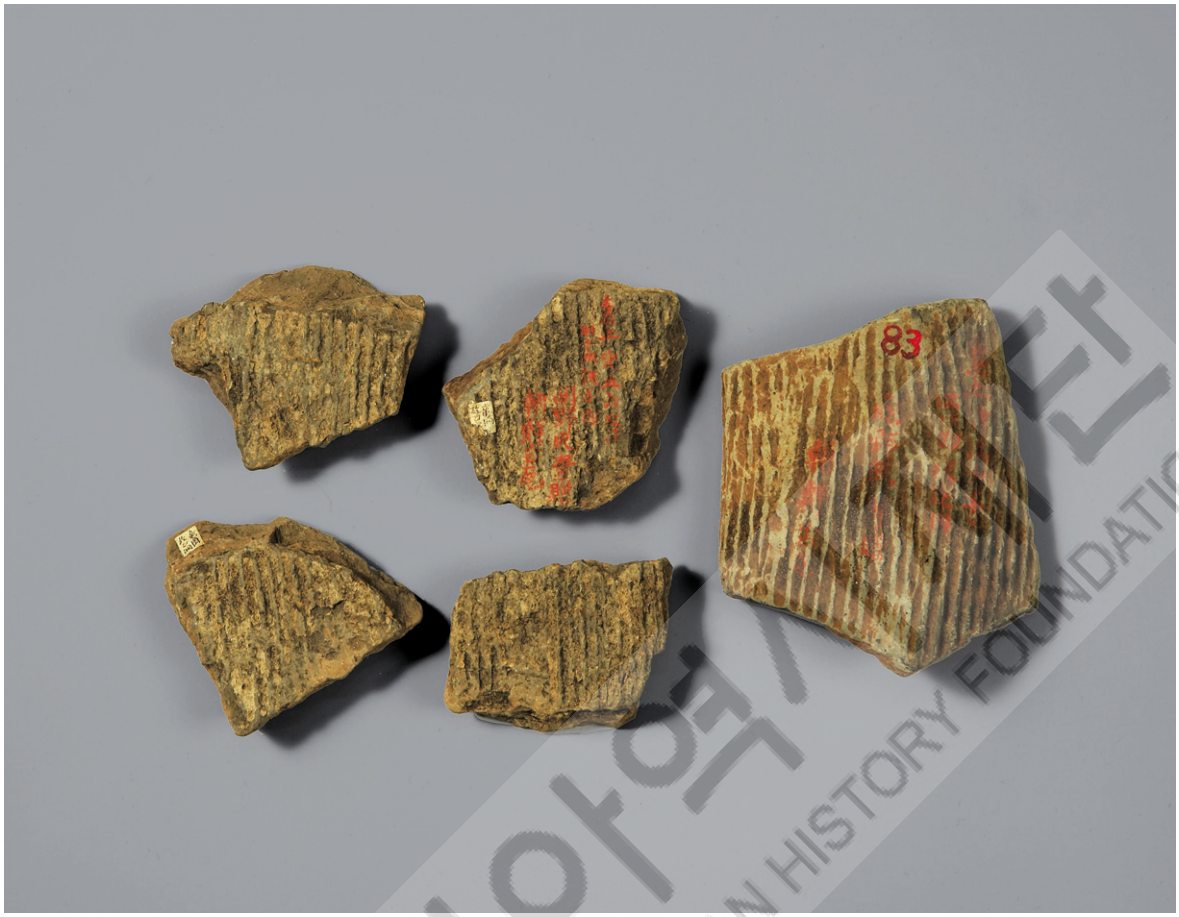


참고 자료 〈낙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40 41



참고 자료〈낙랑〉



4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예술대학

와코대학



와코대학 정문



와코대학 고와(古瓦)자료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장 경위

( )
주 홍 규 도쿄대학

일본의 도쿄도 마찌다(町田)시에 위치한 와코대학(和光大學)에는 치과의사였던 테라카도 시치로(寺門七郎)가 1965년부터 1976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 일본의 나라 · 가시하라 · 규슈 등지를 돌면서 수집하여 1983년에 기증 · 소장한 기와와 전이 있다. 테라카도가 수집한 기와는 전부 156점으로, 일본의 기와가 대다수를 차지하나, 그 중에는 낙랑 · 고구려 · 신라의 기와와 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관련 기와와 전의 수집 경위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본의 각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테라카도는 일본 도쿄의 스기나미(杉竝)구 오기쿠보(荻窪)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1965년에 시골 환자를 돕자는 취지에서 토치기현에 치과 진료소를 개업하였다. 이 시기부터 그는 일본의 각 지역을 돌면서 고대의 기와를 수집하였다.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패전에서 벗어나 고도 경제 성장기에 접어든 시기였고, 골동품이나 고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크게 오르는 때였으므로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집에 걸려 있던 그림들을 팔아서 기와를 구입할 정도로 기와 수집에 열성적이었다고 아들인 테라카도 유우지(寺門有二)는 회상한다. 이 기와들은 테라카도 사후 그 아들인 유우지가 테라카도와 친분이 있었던 미야카와(宮川寅雄)를 통해 아버지의 수집품이 학문의 공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와코대학에 기증함에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테라카도 컬렉션의 특징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기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지역을 제외한 동북아시아의 각 시대나 국가의 기와를 수집해 소장하고 있는 곳은 일본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테라카도 컬렉션 중 한반도 관련 기와와 전은 총 17점이며, 그 소장 유물 중 고구려 시대의 기와는 6점(총 7점이나 접합이 가능한 귀면의 와당이 1점 존재한다)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중국 지역에서도 발견·보고되는 귀면 와당 2점을 제외한 4점은 평양 지역에서의 출토 예가 다수 보고된 것이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고구려 기와로 추정되는 귀중한 유물들이다.

와코대학의 기와 촬영과 수집 경위에는 服部敬史 선생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받았다. 지면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 和光大學人文學部芸術學科 編, 2000,『第3回宮川寅雄講座記念芸術學科34年の歩み』, 和光大學人文學部芸術學科資料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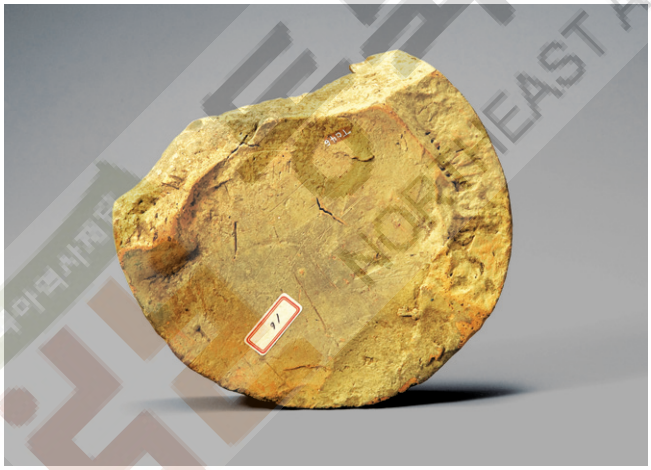






1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4




集安
丸都山城
97









5 6







참고 자료 〈낙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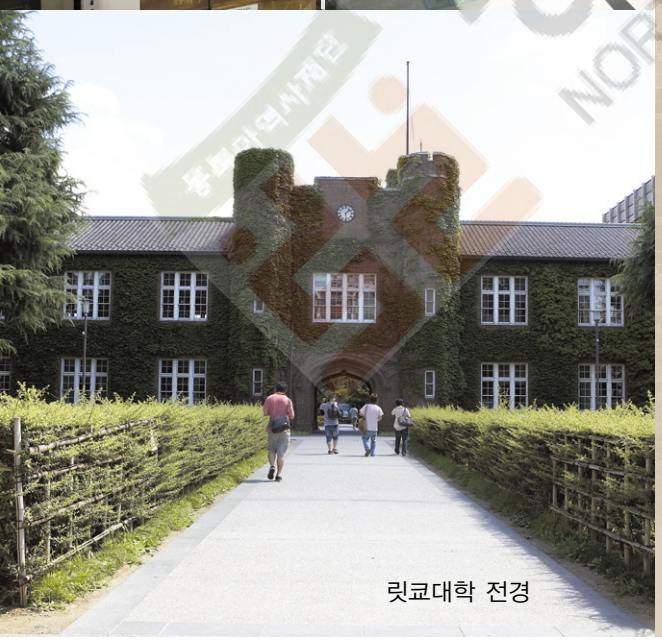
참고 자료 〈낙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릿쿄대학



릿쿄대학 고고자료실



릿쿄대학 전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릿쿄대학(立校大學)은 1874년에 성공회의 선교사인 윌리엄스가 세운 사숙인 성 바오로 학교였는데 1875년 릿쿄학교로 개칭하였다. 1922년 대학령에 의해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49년에 신제대학인 릿쿄대학이 되었다.

릿쿄대학 박물관에는 다수의 한국 관련 고고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고구려 유물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유물이 릿쿄대학으로 소장되는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마이 가즈치카(駒井和愛)라는 인물과 도쿄대학 및 릿쿄대학과의 관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마이는 도쿄에서 1905년에 태어났는데 1915년 와세다대학 문학부의 동양사학과에 입학한다. 대학 입학 후 도쿄제국대학의 하라다 요시히토(原田淑人) 교수에게 사숙하며 고고학회에 입회하고, 졸업 후에는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부수(副手)로 촉탁되어 고고학연구실에 근무하면서 하라다의 지도를 계속 받게된다. 이후 하라다의 배려로 동아고고학회가 시행하던 중국에서의 각종 조사에 참가하게 되는데, 동아고고학회의 1회 유학생으로 1년 간 북경대학에서 유학한다.

고마이는 1934년에 릿쿄대학 문학부의 강사가 되어 고고학을 강의하게 되면서 릿쿄대학과 인연을 맺게 된다. 1935년에는 조선고적연구회의 낙랑연구소 조수라는 자격으로 대동강 남안의 낙랑 토성 발굴의 현장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1937년의 조사에도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릿쿄대학에는 낙랑 청동촉 3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고마이가 낙랑 토성 발굴현장에서 우편으로 부친 유물임이 확인되었다.

1938년에는 도쿄대학에 고고학강좌가 개설되는데 이 때 도쿄대학의 강사가 되어 동아고고학, 만주고고학을 강의한다. 1939년에는 릿쿄대학의 고고학 실습을 주도하고 중국에서 이루어진 각종 발굴에 참가한다.

고마이는 1940년에 도쿄제국대학의 조교수가 되었고 1949년에는 고고학강좌의 담임이 되었다. 1953년에는 다시 릿쿄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4년에 그만둔다.

대학에서는 고구려 유물을 포함하여 발해 와당과 낙랑 유물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원래 도쿄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과 주기가 같은 것이었다. 즉 도쿄대학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이었던 것을 고마이가 릿쿄대학으로 옮겨 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중 발해 유물은 1956년 7월 17일에 고마이가에 기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대학에 출강하면서 일부 유물을 수업교재로 사용하다 1956년에 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추측된다. 1976년과 2003년에 유족이 대학에 기증한 자료 중에 고고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1953년 경의 수업에 사용하던 유물을 3년 뒤에 기증했을 가능성이 크다.

· 立教大學博物館學講座, 1965,『MOUSEION』1965-2.

· 立教大學 學校 · 社會教育講座, 1976,『MOUSEION』1976-22.

· 立教大學 學校 · 社會教育講座, 2003,『MOUSEION』2003-49.

· 駒井和愛博士紀念會, 1977,『琅〞』.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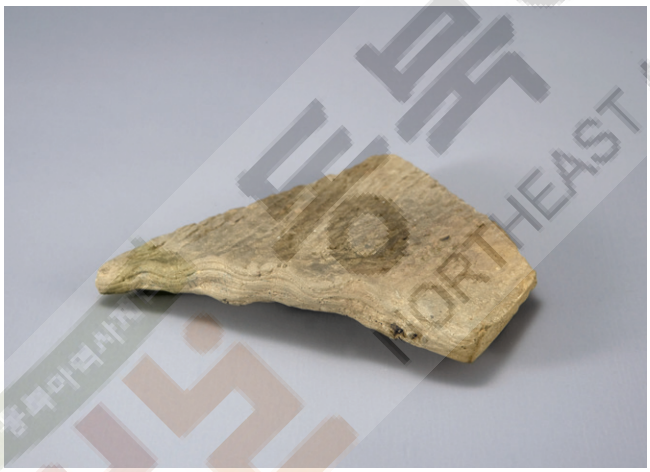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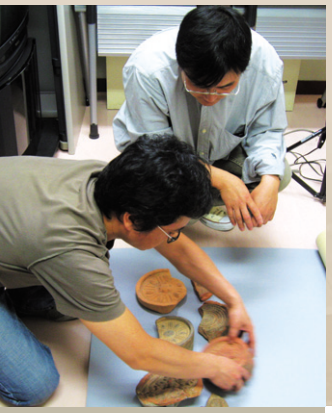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릿쿄대학

사이타마대학





사이타마대학 정문



사이타마대학 전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장 경위

정 인 성 (영남대학교)

사이타마대학(埼玉大學)은 현재 사이타마현에 있는 국립대학이다. 우라와(浦和)고등학교, 사이타마사범학교, 사이타마청년사범학교를 통합해서 1949년에 신제대학(新制大學)으로 발족했는데 2004년에 국립대학 법인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사이타마대학 고고학연구실에는 여러 점의 한국 고고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수점의 고구려 기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고구려 유물은 미토모 쿠니고로우(三友國五郎)가 기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토모 는 1904년 태어나 1931년에 교토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했는데 전공은 지리학이었다. 졸업 후 후쿠오카현 소재의 동축중학교 교사가 되는데 학교장인 아리미츠 교이치(有光教一)가 아버지였다. 어려서부터 고고학에 관심이 있어 경주를 여러번 방문하여 유적을 답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1938년 평양의 제3공립학교에 전근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벌인 관계로 폐교가 된 숭실전문학교 교사(校舍)에 신설된 학교였다. 미토모는 당시 평양에서 교사로 생활하면서 평양에서 전개되던 발굴현장을 자주 찾고 유적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이토 다다시(齊藤忠)가 상오리 고구려 유적을 발굴했을 때 미토모는 생도 40명을 인솔하

고 현장을 찾아 유적 주위의 소학교에서 숙식하며 발굴을 도운 적도 있으며 아리미츠가 낙랑 유적을 조사할 때 견학을 겸해서 도우기도 하였다. 미토모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낙랑과 고구려 기와를 수집 · 소장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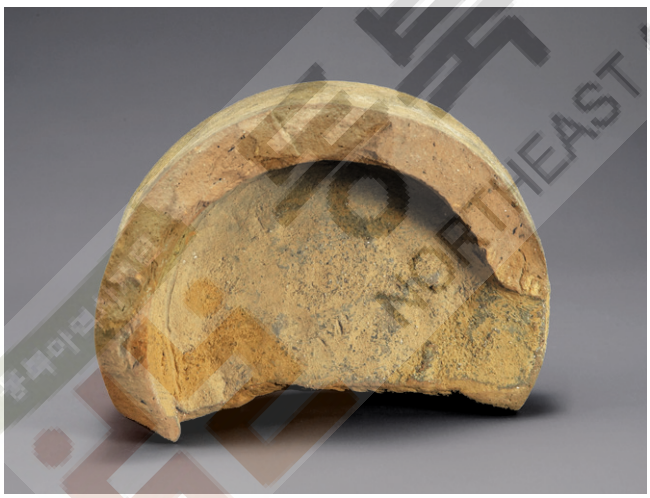
그런데 해방되기 한 해 전인 1944년에 미토모는 규슈의 남단에 있는 가고시마사범학교로 전근하였다. 미토모는 1952년 사이타마대학으로 근무지를 바꾸어 1971년에 은퇴한다. 현재 사이타마대학에 보관된 고구려 유물은 최근 그의 유족이 사이타마대학에 기증한 것이다.

· 三友國五郎, 1971,「私の略歷」,『埼玉考古第 9號』, 埼玉考古學會.

· 有光敎一, 1984,「追想三友國五郎君」,『埼玉考古第 22號』, 埼玉考古學會.

※ 三友國五郎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사이타마대학의 高久健二 선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1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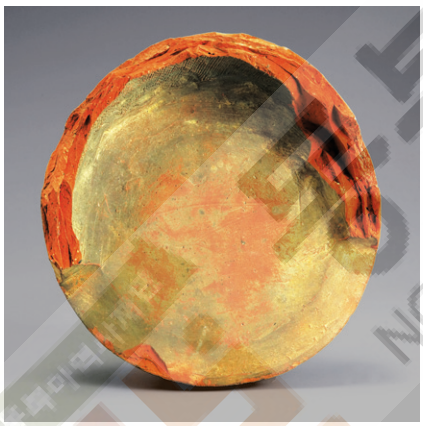






3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이타마대학

A RELIC OF KOGURYO IN THE JAPAN LOC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물설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 소장 유물

유물번호 1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1년 ·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43.7 두께(cm)|2.6 색깔|회색 소성도|上
보고상황|조선고적도보, 谷 논문에 보고
특징|외면에 백색의 석회가 묻어 있다. 외면의 문양은 타날에 의한 굵은 선문이다. 3줄의 선이 횡방향으로 남아 있다.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승문을 타날한 후 횡방향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3줄의 선을 넣고 있다. 승문 타날판의 크기 추정이 가능하다. 방향은 일정하고 거의 겹침이 없이 촘촘다. 하부 외면에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남아 있다. 밑면에도 횡 방향의 조정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점토띠 접합흔이 잘 남아 있다. 하부는 귀접이 흔적이 관찰되고 도구에 의한 측면 조정흔도 남아 있다. 측면에 2번에 걸친 도구에 의한 조정흔이 관찰된다. 통쪽의 흔적도 잘 남아 있다.

유물번호 2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1년 ·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26.6 두께(cm)|2.6 색깔|회색 소성도|上
보고상황|谷 논문에 보고
특징|내 · 외면에 백색의 석회가 묻어 있다. 1줄의 횡선이 관찰된다.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승문을 타날한 후 횡방향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1줄의 선을 넣었다. 승문 타날판으로 방향은 일정하고 거의 겹침이 없이 촘촘하게 타날하였다. 타날의 중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부 외면에 도구를 이용한 깎기흔이 남아 있다. 밑면에도 횡방향의 조정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잘 남아 있다. 점토띠 성형이다. 하부는 귀접이 흔적이 관찰되고 도구에 의한 측면 조정흔도 남아 있다. 측면 조정흔은 도구에 의한 1번의 조정에 그치고 있다. 통쪽의 흔적도 잘 남아 있다.

유물번호 3 기와의 종류|수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1년 ·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39.2 두께(cm)|1.2 색깔|회색 소성도|下
보고상황|谷 논문에 보고
특징|내 · 외면에 백색의 석회가 묻어 있다. 미구와 언강의 구별이 없는 수키와로 완형에 가깝다.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회백색의 태토에 소성도는 낮다. 외면 승문 타날후 물손질로 조정하여 문양을 지웠다.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하부에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깎기 조정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4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1년 ·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27 색깔|회색 소성도|上
보고상황|谷 논문에 보고
특징|내 · 외면에 백색의 석회가 묻어 있다. 외면에는 타날에 의한 굵은 승문이 관찰된다. 1줄의 선이 횡방향으로 남아 있다.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방향은 일정하고 거의 겹침이 없이 촘촘하게 타날하였다. 타날의 중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단에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포목 겹침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점토띠에 의한 소성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잘 남아 있다. 하부에서 귀접이 흔적이 관찰되고 도구에 의한 측면 조정흔도 남아 있다. 측면에는 깎기 조정흔이 남아 있다. 통쪽의 흔적도 잘 남아 있다.

유물번호 5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1년 ·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26.3 두께(cm)|1.6 색깔|회색 소성도|上
보고상황|谷 논문에 보고
특징|외면에 백색의 석회가 묻어 있다. 외면의 문양은 타날에 의한 굵은 승문이다.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타날 방향은 일정하고 거의 겹침이 없이 촘촘하게 타날하였다. 하부 외면에 깎기를 이용한 조정흔이 남아 있다. 밑면에도 횡방향의 조정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잘 남아 있다. 점토띠에 의한 성형임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잘 남아 있다. 귀접이 흔적이 관찰된다. 통쪽의 흔적이 뚜렷하다.

유물번호 6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1년 關野貞
색깔|적색 소성도|上
특징|외면에 승문 타날이 있는 암키와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보통이다. 거친 승문 타날구로 타날 성형된 암키와이다. 측면에는 상하 방향의 깎기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이 잘 남아 있다. 통쪽의 흔적도 잘 남아 있다.

유물번호 7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색깔 | 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 타날이 있는 암키와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승문 타날로 성형되었다. 측면에 2번에 걸친 깎기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잘 남아 있다. 통쪽의 흔적도 잘 남아 있다.

유물번호 8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 타날이 있는 암키와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승문 타날로 성형되었다. 타날 방향이 겹쳐져 있고 촘촘하게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통쪽의 흔적도 잘 남아 있다. 하단 바깥에 물손질에 의한 조정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9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색깔 | 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 타날이 있는 암키와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거친 승문 타날에 의해 제작되어진 암키와. 타날 방향이 거의 일치하고 촘촘하게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잘 남아 있다. 통쪽의 흔적도 잘 남아 있다. 측면은 2번에 걸친 상하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0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색깔 | 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谷 논문에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 타날이 있는 암키와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승문 타날로 성형되었다. 타날 방향이 거의 일치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포겹침 흔적이 잘 남아 있다. 귀접이 흔적이 관찰되며 측면은 2번에 걸쳐 깎기 조정되었다.

유물번호 11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색깔 | 적색 소성도 | 下
보고상황 | 미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의 타날된 암키와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 태토로 소성도는 낮다. 타날 방향이 상하로 거의 일치한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잘 남아 있다. 통쪽의 흔적도 잘 남아 있다. 측면에는 깎기 흔적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2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색깔 | 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 타날이 있는 암키와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굵은 승문 타날구로 타날 성형되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잘 남아 있다.

유물번호 13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谷 논문에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 타날이 있는 암키와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거친 승문 타날 후 손끝으로 문질러 V자형의 와부호를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통쪽흔이 잘 남아 있다.

유물번호 1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6.7 두께(cm) | 1.4 색깔 | 회색 소성도 | 下
보고상황 | 谷 논문에 보고
특징 | 방사선형의 구획선 사이에 배치된 연화문 와당 파편이다. 연판에는 3줄의 선이 두드리지게 표현되어 있다.
와당표면에서 분리사가 관찰된다.

유물번호 15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안남도 강동군 한왕묘에서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1년 · 關野貞
색깔 | 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谷 논문에 보고
특징 | 수키와 파편이다.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질의 태토로 소성도는 높다. 승문 타날한 후 2차조정으로 타날흔을 지웠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6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태왕릉 기증일 | 1913년
색깔 | 회흑색 소성도 | 中
특징 | 연화문 수막새이다. 중방을 중심으로 6분할되고 측시연화를 배치하였다. 주연이 높으며 부분적으로 회가 부착되었다. 수키와 부착면에는 긁어내기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와당턱과 상면에는 부분적으로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7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적갈색 소성도 | 上
특징 | 당초문 수막새이다. 중방을 중심으로 당초문이 회오리처럼 배치되었다. 주연은 중방의 높이와 비슷하고 부분적으로 분리사가 관찰된다. 배면의 수키와는 결손되었는데 접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와당턱은 비스듬하게 깎기 조정되었다.

유물번호 18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적갈색 소성도 | 上
특징 | 연화문 수막새이다. 권선으로 둘러싼 둥근 중방을 8분할되고 그 사이로 연화문이 배치되었다. 주연과 연화문의 사이에는 도드라진 점열문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다. 와당면에는 분리사가 관찰된다. 배면에는 결손된 수키와의 일부가 남아있고 접합방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배면과 배면 하단부는 깎기 조정되었고 상면에는 문지르기 흔적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19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황갈색 소성도 | 中
특징 | 연화문 수막새이다. 권선으로 둘러싼 둥근 중방을 선으로 형상화한 연화문이 배치되었다. 주연은 높지 않아서 중방과 비슷한 높이이다. 주연과 연화문의 사이에는 이중 권선이 배치되었고 권선 사이에는 도드라진 점열문이 일주한다. 분리사가 관찰되고 배면에는 깎기 조정흔이 현저하다.

유물번호 20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회흑색 소성도 | 上
특징 | 연화문 수막새이다. 한 줄의 권선이 둥근 중방을 감싸고 그 바깥으로 측시연화가 4개 배치되었다. 주연은 높지 않고 연화문과의 사이에는 한 줄의 권선이 돌아간다. 와당의 배면에는 즐치상 도구로 긁어내어 접합하였음이 관찰된다. 배면 하단에는 깎기 흔적이 뚜렷하다.

유물번호 21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적갈색 소성도 | 上
특징 | 연화문 수막새이다. 중방을 중심으로 10개의 연잎이 배치되었다. 연화와 주연 아래의 권선 사이에는 마치 성운문경의 외연과 같이 분할처리되었다. 배면의 수키와 접합흔은 분명하지 않다. 배면 하단은 비스듬하게 깎기조정되었다.

유물번호 2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장군총 기증일 : 1913년
색깔 | 회흑색 소성도 | 中
특징 | 연화문 수막새이다. 중방을 중심으로 8분할되고 각각 측시연화를 배치하였다. 중방과 연구의 연화문은 각각 이중의 권선이 감싸고 있다. 주연은 높지 않으나 분리사가 관찰된다. 배면의 수키와는 결손되어 접합방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물번호 2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적갈색 소성도 | 上
특징 | 반와당과 유사한 수막새로 특수기와이다. 반달 모양의 와당면 외연에는 높지 않은 주연이 형성되고 그 아래에는 한 줄의 권선이 돌아간다. 그 중심에는 괴수문이 표현되었다. 중방을 중심으로 6분할되고 측시연화가 배치되었다. 주연이 높으며 부분적으로 회가 부착되었다. 수키와 부착면에는 긁어내기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와당 턱과 상면에는 부분적인 깎기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2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적갈색 소성도 | 上
특징 | 법륜문 수막새이다. 다중의 권선으로 이루어진 중방을 중심으로 외구의 이중 권선 사이에 16줄의 도들선이 배치되었다. 배면의 수키와 접합면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물번호 2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적갈색 소성도 | 上
특징 | 연화문 수막새이다. 중앙에 다중의 권선으로 구성된 중방이 배치되고 내구는 인동문으로 4구획하고 그 사이마다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외구는 이중 권선을 두르고 권선의 사이에 도드라진 점열문을 둘렀다. 주연은 그다지 높지 않다. 배면의 와당 접합부는 빗질로 긁어낸 것이 아니고 대칼과 같은 도구로 듬성듬성하게 상처를 내었다.

유물번호 26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색깔 | 적갈색 소성도 | 上
특징 | 인동문 수막새이다. 권선으로 된 둥근 중방을 중심으로 주연과의 사이에 인동문을 배치하였다. 주연은 낮으며 와당면과 주연면에는 부분적으로 분리사가 부착되어 있다. 배면의 수키와 접합부에는 빗질하여 긁어낸 흔적이 잘 관찰된다.

유물번호 27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천추총 기증일 : 1913년
색깔 | 회흑색 소성도 | 上
특징 | 연화문 수막새이다. 이중 권선으로 둘러싸인 중방을 중심으로 내구를 6분할하고 그 사이에 측시연화를 배치하였다. 주연이 높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회가 부착된 것이 관찰된다. 수키와 부착면에는 무질서하게 긁어 내기한 흔적이 관찰되며 배면 곳곳에도 석회가 묻어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 소장 고구려 벽화 모사도

유물번호 1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동벽의 청룡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01.6×307.3cm
설명 | 동벽의 청룡을 종이 위에 사실적으로 모사하였다. 석재의 이음선도 표시하였고 방형의 종이를 여러 장 붙여서 화면을 만들었다. 고분 축조에 이용한 석재의 이음매까지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2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남벽의 주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06.6×311.1cm
설명 | 현실에서 바라본 연도의 좌우벽에 그린 주작을 모사한 것이다. 주작 뿐만 아니라 연문 테두리의 문양과 상단의 못구멍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3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서벽의 백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08.4×307.0cm
설명 | 서벽의 백호를 사실적으로 모사하였다. 석재의 이음선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화면 곳곳의 누수로 인한 변색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4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북벽의 현무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10.6×297.5cm
설명 | 청룡, 백호와 마찬가지로 석재 이음선을 먼저 표현하고 그 위에 현무를 충실히 모사하였다. 벽면 전체의 누수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5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모줄임 굄돌의 괴조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3.0×214.2cm
설명 | 평행모줄임석에 그려진 괴조를 모사한 것이다. 누수에 의한 변색까지 충실히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6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모줄임 부분의 봉황과 신선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3.2×434.4cm
설명 | 평행모줄임석에 그려진 선인과 운기문 그리고 괴조를 모사한 것이다. 누수에 의한 변색까지 충실히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7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모줄임 부분의 신선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3.5×434.4cm
설명 | 평행모줄임석에 그려진 선인과 운기문을 모사한 것이다. 인물의 움직임이 지금 강서대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뚜렷하다.

유물번호 8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모줄임 부분의 봉황과 기린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3.9×304.4cm
설명 | 평행모줄임석에 그려진 화초와 주작 그리고 기린을 모사한 것이다. 누수에 의한 변색을 충실히 표현했고 문양이 선명하다.

유물번호 9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삼각 모줄임 부분의 봉황과 보상화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77.0×152.2cm
설명 | 삼각모줄임석에 그려진 보상화문과 쌍을 이룬 주작의 모사이다. 삼각모줄임석의 형태도 사실대로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10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천장의 황룡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90.7×970.9cm
설명 | 천장의 황룡을 그린 그림이다. 도굴로 결손된 부분과 금이 간 마감석도 사실대로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11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천장 모서리의 연꽃, 연도 문짝의 문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45.0×135.7cm
설명 | 연문에 달린 돌문의 문양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이 문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와 문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유물번호 12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모줄임부의 보상화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8.0×114.8cm
설명 | 평행내어쌓기 면에 그려진 보상화문을 돌화면의 얼룩과 함께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물번호 13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삼각 모줄임 부분의 보상화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52.6×107.0cm
설명 | 삼각모줄임석에 그려진 보상화문을 모사한 것이다. 삼각모줄임석의 형태도 사실대로 표현하였다.

유물번호 14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동벽의 청룡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84.3×315.6cm
설명 | 벽면의 얼룩과 석재의 이음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다음 그 위에 청룡을 그렸다. 당시 청룡의 발 아래에 얼룩이 심하고 우측으로 누수로 인한 변색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15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남벽의 좌측 주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61.4×91.0cm
설명 | 남벽 연문의 좌측에 그려진 주작을 모사한 것이다. 모사가 그려지는 당시 이미 주작의 왼쪽 위가 누수로 인해 변색되었다. 발 아래도 얼룩이 진행되고 있다.

유물번호 16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남벽의 우측 주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61.3×90.6cm
설명 | 남벽 연문의 우측에 그려진 주작을 모사한 것이다. 모사가 작성될 당시 주작의 오른쪽 아래에 누수로 인한 심한 변색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발 아래로 수평으로 전개되는 석재 이음선이 보인다.

유물번호 17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서벽의 백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88.7×314.4cm
설명 | 화폭을 만들기 위한 종이 이음선이 분명히 드러나는 모사이다. 백호의 선명도로 보아 모사가 작성될 당시는 지금보다 벽화가 훨씬 선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18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북벽의 현무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81.1×303.1cm
설명 | 현실 북벽의 현무도 모사이다. 석재 이음선이 희미하게 표현되었고 모사가 작성될 당시 벽면 전체에 얼룩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19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천장의 연화문과 두꺼비, 삼족오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68.1×186.3cm
설명 | 여러 장의 종이를 덧댄 흔적이 뚜렷하다. 중앙의 연화문을 중심으로 주변의 삼족오와 주작이 선명하다.

유물번호 20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모줄임 턱 부분의 당초문 1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3.4×255.2cm
설명 | 모줄임석에 그려진 당초문이다. 모사가 작성될 당시에는 벽면의 얼룩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21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모줄임 턱 부분의 당초문 2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3.7×188.8cm
설명 | 모줄임석에 그려진 당초문이다. 이 모사도를 통해서도 모사가 작성될 당시에는 벽면의 얼룩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22 벽화고분명 | 강서 대묘 모사 내용 | 모줄임턱 부분의 당초문 3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3.7×381.4cm

설명 | 모줄임석에 그려진 당초문이다. 모줄임석의 꺾임 부분을 전개도처럼 그렸다.

유물번호 23 벽화고분명 | 강서 중묘 모사 내용 | 모줄임 턱의 화염식 당초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6.8×124.8cm
설명 | 모줄임석의 꺾임 부분에 그려진 화염형의 운기문이다.

유물번호 24 벽화고분명 | 매산리 사신총 모사 내용 | 현실 동벽의 청룡, 기마 인물상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99.8×313.5cm
설명 | 작성 당시 벽화 화면의 좌우가 이미 박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누수로 인한 빗물자국과 같은 변색이 있고 용의 머리와 다리 아래의 화면도 크게 박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25 벽화고분명 | 매산리 사신총 모사 내용 | 현실 남벽의 쌍주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78.2×328.7cm
설명 | 남벽에 그려진 주작의 모사이다. 좌측의 주작만이 남았을 뿐이다. 모사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오른쪽의 주작이 표현된 부분의 회면이 크게 박락되었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누수로 인한 변색이 극심하였음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26 벽화고분명 | 매산리 사신총 모사 내용 | 현실 서벽의 백호도, 수렵도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98.6×299.2cm
설명 | 백호를 화면의 하단에 배치하고 그 위의 여백에는 수렵도를 그렸다. 백호는 모사 당시에 등과 머리만을 남기고 변색되거나 박락되었다. 화면 곳곳에 누수에 의한 변색이 마치 나무뿌리와 같다.

유물번호 27 벽화고분명 | 매산리 사신총 모사 내용 | 현실 북벽의 인물상, 마부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91.1×324.1cm
설명 | 현실 북벽의 인물도를 그린 것이다. 모사 작성시 이미 화면 좌우에 누수로 의한 붉은 변색이 확인되고 오른쪽 하단도 크게 박락되었다.

유물번호 28 벽화고분명 | 매산리 사신총 모사 내용 | 천장의 측면 기하문 1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62.4×234.6cm
설명 | 천장의 축약되는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모사시에는 회면의 박락이 없었으나 누수로 인한 부분적인 변색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29 벽화고분명 | 매산리 사신총 모사 내용 | 천장의 측면 기하문 2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62.4×232.2cm
설명 | 천장의 축약되는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모사시에는 회면의 박락이 없었으나 누수로 인한 부분적인 변색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30 벽화고분명 | 매산리 사신총 모사 내용 | 천장의 측면 기하문 3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99.8×313.5cm
설명 | 천장의 축약되는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모사시에는 회면의 박락이 없으나 부분적인 변색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31 벽화고분명 | 매산리 사신총 모사 내용 | 천장의 측면 기하문 4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62.5×216.0cm
설명 | 천장의 축약되는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화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문양을 그렸다. 얼굴에 누수로 인한 변색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32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의 동벽 인물도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56.8×267.8cm
설명 | 현실의 동벽에 그려진 인물에 대한 모사이다. 화면 전체의 얼룩 표현은 물론 인물의 좌우로 크게 회면이 박락된 부분도 사실대로 모사하였다.

유물번호 33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남벽의 주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62.0×252.0cm
설명 | 현실 연문을 바라보는 남벽의 모사이다. 주심포 형식의 기둥이 좌우로 표현되고 주작은 연문 위에 그렸다. 모사가 작성되는 당시에 이미 박락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34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서벽의 백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61.0×298.8cm
설명 | 현실 서벽의 백호를 모사하였지만 모사가 작성되는 당시 이미 얼룩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음이 모사를 통해 확인된다. 화면의 중단 오른쪽과 그 아래에 회면이 크게 떨어져 나간 부분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35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의 북벽 인물, 화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60.0×281.6cm
설명 | 현실의 북벽에 그린 건물과 묘주를 모사한 것이다. 모사가 작성되는 당시 이미 화면의 오른쪽 상단이 크게 박락되었음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36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입구 동쪽 기둥의 문양 전개도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04.2×144.0cm
설명 | 현실 입구의 서쪽에 위치하는 기둥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주좌에는 연화가 그려지고 기둥에는 용문이 그려졌는데 모사시에는 이를 전개도처럼 펼쳐서 그렸다.

유물번호 37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입구 서쪽 기둥의 문양 전개도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15.4×160.9cm
설명 | 현실 입구의 동쪽에 위치하는 기둥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주좌는 연화문으로 장식하고 기둥에는 용문을 그렸는데 이를 전개도처럼 펼쳐서 그렸다. 주좌와 기둥 등을 별도로 그린 다음 이를 조합하여 배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물번호 38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천장의 연화문과 삼족오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98.0×216.3cm
설명 | 현실 천장의 중앙에 그려진 연화문과 그 주위의 삼각모줄임부의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삼각모줄임부에는 원을 표현하고 그 안에 두꺼비와 삼족오를 그려 넣었다. 현재 고분 내에 남아있는 천장의 연화문은 많이 퇴색되어 원형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학술적으로 중요한 모사라 할 수 있다.

유물번호 39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 동벽의 청룡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16.9×219.9cm
설명 | 전실의 동벽에 그려진 청룡이다. 좌우로 대들보가 표현되고 그 안에 용을 그렸다. 모사 당시 이미 몸통 부분이 크게 박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화면 전체에 얼룩이 심하다.

유물번호 40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 남벽 연문 좌우의 인물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15.2×218.6cm
설명 | 전실 남벽의 연문 좌우에 그려진 인물이다. 모사를 작성할 때에도 얼룩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인물의 생김새는 물론 복식의 형태와 색이 잘 드러나 있다. 현재 쌍영총의 인물은 퇴색이 심하여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학술적으로 중요한 모사이다.

유물번호 41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 서벽의 백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15.9×221.0cm
설명 | 전실 서벽에 그려진 백호를 모사한 것이다. 백호의 4다리가 세밀하게 모사되었으나 몸통과 머리는 석회면이 박락되면서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모사 당시 회면의 곳곳에 진행되던 얼룩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여러 장의 종이를 덧대어서 그대로 캔버스를 만들었다.

유물번호 42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 입구 동쪽의 역사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74.5×107.1cm

설명 | 전실의 동쪽 입구에 그려진 역사상이다. 모사 당시에도 화면 모서리 부분의 박락과 전반적인 얼룩이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인물의 생김새를 비교적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 그 보존 상태가 지극히 나쁜 점을 고려하면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모사임에 틀림없다.

유물번호 43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 입구 서쪽의 역사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78.8×99.8cm
설명 | 전실의 서쪽 입구에 그려진 역사상을 모사한 것이다. 화면을 구획하는 좌우 대들보 부분의 박락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화면 전체의 퇴색이 현저하다. 지금 쌍영총의 서쪽 역사상은 그 형태를 알아 보기 힘들지만 이 모사를 통해 그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물번호 44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의 천장 연화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73.8×166.2cm
설명 | 전실의 천장에 그려진 연화문을 모사한 것이다. 천장 중앙의 연화문은 빠짐없이 그렸으나 그 아래의 삼각모줄임부에 그려진 연화는 전체 4면이나 2면을 생략하여 그렸다. 그 다음 단의 문양은 4면을 빠짐없이 이를 모사하여 조합한 다음 배접하였다.

유물번호 45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의 천장 측면에 그려진 문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99.2×102.6cm
설명 | 전실의 천장 측면에 그려진 운기문을 모사한 것인데 모사시의 박락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유물번호 46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 모줄임 부분의 서쪽 문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53.2×210.4cm
설명 | 전실의 모줄임부 서측에 그려진 인동문의 모사이다. 모사시 문양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회벽을 따라 흘러내린 채색의 번짐 현상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47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 모줄임 부분 사방의 문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25.9×749.6cm
설명 | 전실의 최하단 평행모줄임부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전실의 사방에 그려진 문양을 각각 그려서 배접해 두었다. 현재 특히 그 잔존 상태가 불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사를 통해서 원상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유물번호 48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 천장 모줄임부 측면의 연화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34.0×519.0cm
설명 | 전실의 천장 모줄임부 측면에 그려진 벽화를 모사한 것이다.

유물번호 49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모줄임 부분의 북쪽 3단 문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38.9×678.0cm
설명 | 현실의 평행모줄임부 북쪽 3단의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벽화의 현존 상태보다 선명하게 모사되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유물번호 50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모줄임 부분의 동쪽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53.7×225.2cm
설명 | 현실의 평행모줄임부 동쪽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운기문과 별자리가 잘 그려져 벽화가 제작된 당시의 형태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물번호 51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모줄임 부분의 남쪽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53.4×216.6cm
설명 | 현실의 평행모줄임부 남쪽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별자리와 운기문이 확인되고 회면을 따라 문양표현에 이용된 안료의 흘러내림 현상이 관찰된다. 모줄임 최하단의 측면에 그려진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유물번호 52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현실 모줄임 부분 서쪽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54.2×227.0cm

설명 | 현실의 평행모줄임부 서쪽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최하단을 제외하고 별도로 그린 다음 상하로 편집하여 배접한 것이다.

유물번호 53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천장의 측면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43.2×503.0cm
설명 | 현실 천장의 삼각모줄임 사방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모사 당시 누수로 인한 변색과 안료 흘러내림 현상이 현저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대학 문학부 소장 유물

유물번호 1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환도산성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명적색 소성도|中

특징|6판의 연판 사이에 역 삼각형이 배치된 문양 구성으로 선형의 연판은 주위에 선이 둘러져 있다. 판 사이가 넓다. 중방은 작다. 내부 권선은 없고 외부 권선만 남아 있다.

연질의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파내고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는 형식이다. 와당의 끝부분까지 파 낸 것이 아니라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내었다. 주연부의 측면에 깎기 조정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2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동대자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적색 소성도|上

특징|8판의 연판 사이에 작은 역 삼각형의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판은 넓고 후육하다. 중방은 넓은 반면 높이가 낮다. 두툼한 내부 권선이 있으나 외부 권선은 남아 있지 않다. 거푸집의 빈번한 사용에 의해서인지 전체적으로 문양이 정돈되지 못하다.

수키와의 내면에 포목흔이 남아 있다. 와당에 수막새를 접합한 후 보강토를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보강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와당 배면의 하부에 깎기 조정흔적이 남아 있다. 주연부의 측면에는 긁기 조정 흔적이 보인다.

유물번호 3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동대자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명적색 소성도|上

특징|인동 문양의 수막새. 외부 권선이 시문되어 있다. 작은 중방 주위를 얽힌 인동문이 둘러 싸고 있는 형태이다. 인동문은 굵은 편이다.

연질의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한 후에는 보강토를 이용하여 메웠다. 주연부의 측면을 긁어서 정면한 흔적이 있다. 도구를 이용한 배면 조정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유물번호 4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안남도 한왕묘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2.5 두께(cm)|1.3 색깔|적갈색 소성도|上

보고상황|조선고적도보, 谷 논문에 보고

특징|중방에 1+5의 주문에 배치되어 있다. 방사선 형의 2개의 구획선이 있는데 내 · 외부 권선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6개의 구획선 내부에는 연판이 있고 그 좌우에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와당의 배면을 파내고 수키와를 접합한 후 보강토를 이용하여 보강했다. 접합을 위한 긁어내기 흔적이 전사되어 있다. 배면 조정흔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유물번호 5 기와의 종류|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적색 소성도|上

특징|6판의 연판으로 추정된다. 연판의 형태가 하트형을 이루고 있다. 입체감이 있는 연판이 아니라 윤곽선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형태이다. 판간에는 휘어진 선을 배치하고 있다. 내부 권선과 외부 권선이 있다.

와당에 거푸집의 잔형이 남아 있다. 수키와와 접합한 부분이 결실되어 자세한 제작 기법은 알 수 없다. 와당 배면의 주위를 와도를 이용한 깎기 흔적이 보인다.

유물번호 6 기와의 종류|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적색 소성도|上

특징|행인형의 연판 사이에 귀면을 배치한 형태의 수막새이다. 외부 권선과 주연부 사이에 빗살 문양을 시문하였다. 고운 연질의 태토로 제작된 수막새이다. 수키와를 접합한 후 보강토를 이용하여 보강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유물번호 7 기와의 종류|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적색 소성도|上

특징|이중의 내부 권선으로 둘러싸인 중방으로 되어 있다. 외부 권선과 주연부 사이에 주문이 시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인형의 연판 주위를 선으로 둘렀다. 판간에는 단순화된 파르멧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유물번호 8 기와의 종류 | 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 | 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특징 | 주연부와 와당의 하부 남아 있어서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귀면 와당이다. 다른 문양 부분보다 양 눈과 코가 두드러지게 튀어 나온 형태이다. 눈은 2중으로 된 형태이다. 입은 크게 벌린 형태로 양쪽 상하의 어금니가 가늘게 표현되어 있다. 상하의 6개의 이빨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입의 밑부분이 외부 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연질의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 한 후 보강토를 이용해서 보강하였다. 목판을 이용한 긁기에 의해 정면한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파내고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후 수키와를 접합하는 형식이다. 와당 배면 전체를 긁어 낸 것이 아니라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내었다.

유물번호 9 기와의 종류 | 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 | 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특징 | 행인형의 연판에 2줄의 침선과 중앙에 능선을 넣은 형태이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을 배치하며, 내 · 외부 권선과 독립되어 있다. 2중의 내 · 외부 권선은 2중의 방사선 모양의 구획선과 떨어져 있다. 중방의 중심보다 약간 밑으로 치우쳐서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와당을 주연부에 끼워 넣은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주연부의 측면에 횡방향의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남아 있다. 수키와를 접합하고 보강토를 이용해 보강하였다.

유물번호 10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산성자산성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특징 | 승문타날된 암키와이다. 타날은 2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 통쪽의 흔적이 남아 있고 포목흔도 보인다.

유물번호 11 기와의 종류 | 암키와 기증일 · 기증자 | 1935년 ,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특징 | 사격자 문양의 암키와이다. 타날판이 겹쳐지는 부분이 외면에서 관찰된다. 내부에 포목흔이 남아 있다. 통쪽의 흔적도 발견된다. 물손질로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져 있다. 와도에 의해 측면이 분할되었는데 완전 분할이 아닌 부분 분할이다.

유물번호 12 기와의 종류 | 수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환도산성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특징 | 외부를 깨끗이 지우고 새 문양을 침선으로 그려 두었다. 내부에 포목흔이 발견된다. 부분 측면 분할을 이용해서 와도로 잘라 내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르고 있다.

유물번호 1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태왕릉 부근에서 구입 기증일 · 기증자 | 1935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422 색깔 | 회색 소성도 | 高
보고상황 | 谷논문에 보고
특징 | 6판의 연화문으로 구성되었다. 연판에는 3줄의 침선이 튀어나온 형태이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었다. 방사선이 3중 구획선으로 구성되고, 구획선은 외부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내 · 외부 권선이 2중으로 되어 있고, 중방의 중심에 주문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와당배면에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서 수키와 접합면을 파내었다. 이후 수키와를 붙인 후 보강토를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유물번호 14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태왕릉 부근에서 구입 기증일 · 기증자 | 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 | 회색 소성도 | 上
특징 | 외면에 백색의 석회가 묻어 있다. 6개의 침선이 새겨져 있다. 사립을 많이 포함한 회색 경질의 태토로 만들어진 암키와이다. 6개의 침선은 종방향으로 깊게 새겨져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통쪽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의 하부에는 횡방향의 압흔이 보인다. 측면을 와도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3번에 걸쳐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번호 1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창광산 (채집)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특징 | 와당과 주연부의 대부분이 결실된 수막새의 파편이다. 문양부가 평면처럼 얕게 표현되었다. 중방도 낮다. 중방에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권선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외부 권선은 한줄이다. 판간의 문양은 파르멧 문양을 단순화시킨 것이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였다. 주연부의 측면에 깎기 조정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16 기와의 종류|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연판의 좌우에 2개의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중방은 둥글고 높다. 내부 권선과 외부 권선은 한줄로 시문되어 있다. 방사선형의 구획선은 2줄로 되어 있고 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였다.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 내었다.

유물번호 17 기와의 종류|암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에서 발견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3.6 두께(cm)|1.8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지두문이 시문되어 있는 암막새이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친 태토이다. 지두문의 방향은 오른쪽 위로 일렬 배치되어 있다. 외면은 정면하여 문양이 남아 있지 않지만 측면은 와도로 완전 분할을 한 후 한번 더 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면에 포목흔과 통쪽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유물번호 18 기와의 종류|암키와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추정)직경 · 잔존길이(cm)|7.6 두께(cm)|2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노끈을 감은 봉을 눌러서 문양을 시문한 암막새이다. 회색 경질의 태토에 소성도가 높다. 오른쪽 위쪽으로 문양을 넣고 있다.

유물번호 19 기와의 종류|문자 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천추총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相畢」의 문자가 확인되는 전이다.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친 태토로 만들어졌다. 타날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한쪽 방향으로 깎아낸 흔적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20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낙랑토성 출토
색깔|적색 소성도|上
특징|미구와 언강이 잘 남아 있다. 승문 타날 점토띠가 성형된 암키와이다. J자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외면의 승문 타날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언강은 한 방향으로 타날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통쪽 흔적이 보인다.

유물번호 21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낙랑토성 출토
색깔|적색 소성도|上
특징|미구와 언강이 잘 남아 있다. 승문 타날로 만들어진 암기와이다. 외면의 승문 타날은 오른손 잡이 공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점토띠 성형이다. 언강은 타날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2번 이상에 걸쳐 조정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통쪽 흔적이 보인다. 와도를 사용하여 내면에서 불완전 분할하였다. 내면의 하부에는 물손질 조정흔이 보이고 한 줄의 침선도 보인다.

유물번호 22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낙랑토성 출토
색깔|적색 소성도|上
특징|승문 타날성형으로 제작된 암키와이다. 외면의 승문 타날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통쪽 흔적이 보인다.

유물번호 23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낙랑토성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35년, 36년 濱田耕作 · 池內宏 · 梅原末治 · 三上次男 · 齊藤菊太郎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선문의 타날로 성형된 암키와이다. 외면에 2방향의 타날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통쪽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점토띠 타날 성형으로 제작된 기와이다. 와도를 이용하여 측면을 완전 분리하였다.

도쿄박물관 소장 유물

유물번호 1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일대 (추정) 기증자 · 구입자 | 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및 구입일 | 1948년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6 두께(cm) | 2.3 색깔 | 흑회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은 반구형으로 한 가운데에 주문이 남아 있다. 중방의 주위로 2줄의 내부 권선이 시문되어 있다. 연판이 6개 배치되어 있고 연판의 좌 · 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었다. 연판에는 2줄의 홈이 파여 있다. 판간은 2줄의 방사선으로 구획되어 있다. 방사선의 구획선은 내,외곽 권선과 접하고 있다. 외부 권선도 2줄의 복선이다. 천추총에서 거의 흡사한 문양 배치의 수막새가 발견되었다.
태토는 불순물이 거의 없고 경질의 소성이고 와당에는 거푸집의 갈라진 흔적이 전사되어 잘 남아 있다. 주연부가 중방이나 문양부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다. 주연부를 포함한 와당면을 만든 후 덧대는 식으로 주연부를 두껍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번호 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일대 (낙랑토성 부근으로 추정) 기증자 · 구입자 | 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및 구입일 | 1948년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복원경 18 두께(cm) | 2.4 색깔 | 회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의 대부분이 남아 있어 완형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반원형의 중방 한 가운데에는 주문이 시문되어 있다. 중방의 주위로는 2중의 내부 권선이 시문되어 있고 외부 권선도 2중이다. 6개의 연판에는 2줄의 홈이 파여 있고 그 좌 · 우로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판간에는 3줄의 방사선에 의해 구획되어 있다. 구획선과 내 · 외부 권선은 연결되어 있다. 와당 뒷면에 남아 있는 주기로 보아 1926년 6월 4일 낙랑토성 부근에서 채집된 기와로 추정된다. 천추총에서 출토된 기와와 매우 흡사하다.
회색 경질의 니질 태토이다. 주연부가 중방이나 문양부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다. 와당 뒷면에 수키와를 접합한 후 보강토를 이용하여 접합을 마무리하였다.

유물번호 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추정) 기증자 · 구입자 | 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및 구입일 | 1929년 2월 직경 · 잔존길이(cm) | 17 두께(cm) | 2.6 색깔 | 회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완형으로 남아 있는 수막새의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방이 잘 남아 있다. 중방의 한 가운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중방의 주위로 이중의 내부 권선이 돌아 간다. 2줄의 방사선에 의해 4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다. 외부 권선도 이중으로 되어 있다. 권선과 방사선은 접합되어 있다. 문양부에 배치된 연판에는 2줄의 홈이 있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문양 배치를 가진 기와는 평양의 토성리 이외에서는 출토 예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회색 니질의 태토이다. 주연부가 중방과 문양부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고 수키와를 와당에 접합한 후 보강토를 이용하여 마무리 하였다. 와당 뒷면을 도구로 정면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유물번호 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추정) 기증자 · 구입자 | 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및 구입일 | 1929년 2월 직경 · 잔존길이(cm) | 16.5 두께(cm) | 2.6 색깔 | 담갈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와당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다. 중앙의 중방은 낮은 편인데, 중방을 둘러싼 내부 권선은 2중이다. 2중으로 된 내부 권선의 바깥쪽 권선이 2줄의 방사선으로 된 구획선과 연결되어 있다. 구획선은 외부 권선의 안쪽 선과 연결되어 있다. 연판의 끝은 외부 권선의 안쪽 선과 맞물려 있고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중방과 연판, 그리고 연판의 좌우에 배치된 주문에 눌린 흔적이 남아 있다. 눌린 문양부를 고쳐 잡아 와당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연부는 중방과 문양부보다 높다. 와당에 수키와를 접합할 때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격자로 긁어 낸 흔적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일대 (낙랑토성 부근으로 추정) 기증자 · 구입자 | 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및 구입일 | 1948년 두께(cm) | 2.5 색깔 | 회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이 결실된 수막새이다. 중방을 둘러싼 내부 권선은 2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중으로 된 내부 권선의 바깥쪽 권선이 2줄의 방사선으로 된 구획선과 연결되어 있다. 구획선은 외부 권선의 안쪽 선과 연결되어 있다. 연판의 끝은 외부 권선의 안쪽 선과 맞물려 있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1927년 4월 2일 낙랑토성 근처에서 채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색이며 소성도는 경질이다. 중방이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문양 구성을 가지는 기와와 비교해 볼 때 주연부가 중방과 문양부보다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키와의 접합부분은 와당 뒷면의 표면과 일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번호 6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일대 (추정) 기증자 · 구입자|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및 구입일|1948년 두께(cm)|2.7 색깔|명회색
보고상황|谷 논문에 소개
특징|와당 중앙에 반원형의 중방이 위치하고 그 한 가운데에 주문이 있다. 중앙의 주문을 둘러싸듯이 4개의 주문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다. 중방을 둘러싸고 한줄의 내부 권선이 시문되고 2줄의 방사선으로 된 구획선과 내부 권선, 외부 권선이 연결되어 있다. 외부 권선도 한 줄로 시문되어 있다. 연판의 좌우에 주문이 배치된 형상이다. 연판에는 3줄의 능선이 표현되어 입체감이 있다. 1926년 6월 30일 임원면 청암리에서 수집된 기와로 추정된다.
와당 표면에 가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데 거푸집에서 쉽게 분리해 내기 위해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 주연부가 중방과 문양부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다. 와당의 뒷면에는 도구 조정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7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일대 (추정) 기증자 · 구입자|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및 구입일|1948년 두께(cm)|2.3 색깔|적갈색
보고상황|谷 논문에 소개
특징|와당의 중앙에 배치된 중방이 원형이 아닌 별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중방을 둘러싸고 두꺼운 2중의 내부 권선이 시문되어 있다. 외부 권선은 한 줄로 표현되었고 2줄의 방사선으로 된 구획선과 내 · 외부 권선이 연결되어 있다. 연판은 단순화되어 표현되어 있고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된 형상이다. 연판의 수는 6개로 판단된다. 1927년 4월10일 안학궁에서 채집된 것이다. 동형의 와당이 『高句麗時代之遺蹟』에 실려 있다. 거친 태토에 연질 소성이고 와당의 형태로 보아 거푸집의 형태가 원형보다는 타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번호 8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안학궁 (추정) 기증자 · 구입자|內藤 기증 기증일 · 구입일|2003년 두께(cm)|2.8 색깔|회색
보고상황|谷 논문에 소개
특징|반원형의 중방 중앙에 배치된 주문을 중심으로 6개의 방사선이 시문되어 있다. 중방의 주위에 3중의 내부 권선이 배치되었다. 외부 권선도 2줄이다. 3줄의 방사선의 구획선은 내 · 외부 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연판은 3줄의 능선이 시문되어 있어 입체적이다. 6개로 추정되는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와당 뒷면의 안학궁 출토란 주기로 미루어 안학궁에서 발견된 기와이다.
주연부의 두께는 1.5㎝, 주연의 높이는 1.2㎝정도인데 주연부가 중방과 문양부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다. 와당의 표면에는 분리사가 부착되었다. 와당에 수키와를 접합할 때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데 전형적인 고구려 기와의 제작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번호 9 기와의 종류|암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일대 (추정) 기증자 · 구입자|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및 구입일|1948년 두께(cm)|3.4
보고상황|谷 논문에 소개
특징|암막새의 중앙 부분에 연판 형상의 문양이 배치되고 그 좌우로 소용돌이 형태의 당초 문양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막새의 파편이다. 동일한 기와는 북한의 안학궁 발굴 보고서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당초 문양의 끝부분은 꽃봉우리 형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와당 뒷면의 주기로 미루어 1927년 4월 1일 안학궁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에 배치된 연화 문양과 상하 주연부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정확한 제작 방법 등을 알 수는 없으나 와당면을 만든 후 암키와를 끼워 만들었다. 정선된 태토로 소성도는 경질이다.

유물번호 10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일대 (추정) 기증자 · 구입자|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 구입일|1948년 직경 · 잔존길이(cm)|복원경 16.5 두께(cm)|2.7 색깔|회색
보고상황|谷 논문에 소개
특징|1913년 12월에 채집
고운 태토에 경질소성이다. 중방이 주연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다. 파편인 관계로 정확한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없다.

유물번호 11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일대 (추정) 기증자 · 구입자|도쿄박물관 구입 기증일 · 구입일|1948년 두께(cm)|3 색깔|회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반원형의 중방 주위를 내부 권선이 한줄 둘러싸고 있다. 연판은 융기선에 의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판간에는 연꽃이 피기 전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1927년 5월 15일에 수암에서 채집된 기와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양 배치를 가진 기와는 안학궁에서도 그 발견 예가 보고되고 있다. 정선된 회색의 태토이며 소성도는 높다.

유물번호 1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회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반원형의 중방 한 가운데에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중방 주위를 2중의 권선이 둘러싸고 있다. 2줄의 방사선의 구획선은 내 · 외곽 권선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부 권선도 2중이다. 주연부는 소실되어 확인 할 수 없고 연판도 마모가 심하다. 4개의 연판 좌우에 주문이 배치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선된 회색의 태토이고 파편으로 정확한 제작 기법을 알 수 없다.

유물번호 1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크고 넓은 반원형의 중방을 가진 수막새인데, 중방의 주위를 2중의 내부 권선이 둘러싸고 있다. 3줄의 방사선으로 구획된 구획선은 내부 권선과 외부 권선에 연결되어 있다. 외부 권선도 2중이다. 구획 내에는 연판이 배치되어 있고 그 좌우에 주문이 하나씩 놓여 있다. 연판은 마모가 심하지만 홈이 파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연부가 문양부나 중방보다 높다. 파편으로 정확한 제작 기법을 알 수 없으나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기와 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물번호 1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이 결실되고 문양부분과 주연부가 남아 있는 수막새이다. 3줄의 방사선으로 구획된 구획선은 외부 권선에 연결되어 있다. 외부 권선은 2중이고 구획 내에는 연판이 배치되어 있고 그 좌우에 주문이 하나씩 놓여 있다. 연판은 마모가 심하지만 홈이 파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번호 1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이 결실되고 문양부분과 주연부가 남아 있는 수막새이다. 3줄의 방사선으로 구획된 구획선은 외부 권선에 연결되어 있다. 외부 권선은 2중이다. 구획 내에는 연판이 배치되어 있고 그 좌우에 주문이 하나씩 놓여 있다. 연판은 마모가 심하나 눈에 띄게 입체적이지는 않다. 파편으로 정확한 제작 기법을 알 수 없으나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기와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연부는 문양부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다.

유물번호 16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이 결실되고 문양부분과 주연부가 남아 있는 수막새이다. 3줄의 방사선으로 구획된 구획선은 외부 권선에 연결되어 있는데, 외부 권선은 2중이다. 구획 내에는 연판이 배치되어 있고 그 좌우에 주문이 하나씩 놓여 있다. 연판은 마모가 심하나 두드러지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유물번호 17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과 주연부가 결실되고 문양부분만이 잘 남아 있는 수막새이다. 내부 권선과 외부 권선이 한 줄로 시문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양부에는 입체적으로 표현된 연판이 배치되어 있는데 연판에 융기선을 넣었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 판간에는 간략화된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판간의 연화문은 외부 권선과 접해 있고 연화문에는 세 줄의 꽃술같이 보이는 돌기선이 시문되어 있다.

유물번호 18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과 주연부가 결실되고 문양부분만이 남아 있는 수막새이다. 외부 권선은 한 줄로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부에는 입체적으로 표현된 연판이 배치되어 있다. 마모가 심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연판에 융기선을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하나씩 놓여 있다. 판간에는 간략화된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판간의 연화문은 외부 권선과 떨어져 있고 연화문에는 세 줄의 꽃술같이 보이는 돌기선이 시문되어 있다. 파편으로 정확한 제작 기법을 알 수 없다.

유물번호 19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이 결실되고 주연부와 문양부가 남아 있는 수막새이다. 외부 권선은 한줄로 시문되어 있다 연판의 주위를 권선이 둘러싸고 있고 연판은 마모가 심하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하나씩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간에는 간략화된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판간의 연화문은 외부 권선과 떨어져 있고 연화문에는 다섯 줄의 꽃술같이 보이는 돌기선이 곧게 시문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유물번호 20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주연부와 중방이 결실되고 문양부만이 남아 있는 수막새이다. 외부 권선은 한줄로 시문되었고, 연판은 마모가 심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하나씩 놓여 있다. 판간에는 간략화된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판간의 연화문은 외부 권선과 접해 있고 연화문에는 세 줄의 꽃술같이 보이는 돌기선이 시문되어 있다.

유물번호 21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선형의 연판에는 3줄의 융기선이 표현되었다. 연판을 둘러싸고 권선이 시문되어 있으며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한 줄의 내부 권선과 한 줄의 외부 권선이 확인된다. 판간에는 연화문을 간략화시켜 배치하였는데 다섯 줄의 꽃술같이 보이는 돌기선이 시문되어 있고 외부 권선과는 떨어져 있다. 주연부와 중방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유물번호 2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외부 권선이 남아 있고 연판은 선형이며 3줄의 융기선에 의해 입체적으로 보인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판간에는 매우 간략화된 연화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두 줄의 꽃술같이 보이는 돌기선이 휘어지게 표현되었는데 외부 권선과는 떨어져 있다. 주연부가 약간 남아 있다.

유물번호 2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연판만이 남아 있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결실된 와당의 파편이다. 입체적인 연판은 3줄의 융기선으로 두드러져 보인다. 판간에는 간략화된 연화문을 배치한 것이지만 결실이 심해서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렵다.
파손 상태가 심해서 제작 방법을 알 수 없다.

유물번호 2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주연부와 연판 일부가 남아 있는 기와로써 외부 권선의 확인이 가능하다. 판간에는 연화문을 간략화한 형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3줄의 꽃

술같이 보이는 돌기선이 표현되어 있다. 판간의 연화문은 외부 권선과 접해 있는데,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관찰된다. 연판에는 2줄은 융기선으로 인해 매우 입체적으로 보인다. 결실된 부분이 많은 관계로 정확한 제작 방법을 알기 어렵다.

유물번호 2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연판의 형태와 외부 권선, 그리고 판간의 형태가 남아 있다. 연판은 2중의 능선으로 인해 입체적인데, 그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간은 연화문을 간략화한 형태이고 외부 권선과는 접해 있지 않다. 판간의 연화문은 꽃술같은 돌기선이 있고, 가운데는 곧으며 양쪽의 돌기선은 장타원을 그린다.

유물번호 26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연판의 형태와 좌우에 배치된 주문만이 겨우 확인 가능한 파편이다. 주연부도 결실되었으나 외부 권선은 남아 있다. 연판의 중앙에만 능선을 넣었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연판은 매우 입체적이다. 판간에는 간략화된 연화문이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문양을 확인할 수 없다.

유물번호 27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주연부와 연판 일부가 남아 있는 기와이다. 외부와 내부 권선의 확인이 가능하다. 판간에는 연화문을 간략화한 형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외부 권선과는 떨어져 있다. 판간의 연화문에는 꽃술을 형상화한 듯한 돌기선이 있고, 가운데는 곧지만 양쪽의 선은 장타원을 이루도록 표현되어 있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관찰된다. 연판을 권선이 감싸고 있다.

유물번호 28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의 결실이 심한데 연판은 2중의 융기선으로 인해 입체적이다. 판간에는 변형 연화문이 배치되었고 외부 권선과 떨어져 있다. 판간에는 연화문을 간략화시켜 배치했는데 꽃술을 형상화한 3줄의 돌기선이 가운데는 곧고 양쪽의 선은 장타원을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연화문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외부 권선의 확인은 가능하나 내부 권선은 보이지 않는다. 주연부의 일부가 남아 있다.
정확한 제작기법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주연부가 중방과 문양부보다 높다.

유물번호 29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파편인 관계로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다른 보고를 참고하면 4개의 연판과 그 판간에는 귀면 문양을 시문하였다. 연판의 주위에 권선을 둘러서 입체감을 살렸다. 외부 권선은 2중인데 그 사이에 촘촘하게 사선을 넣었다.
주연부가 문양부보다 높다.

유물번호 30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파편인 관계로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다른 보고를 참고해 보면 4개의 연판과 그 판간에는 귀면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판의 주위에 권선을 둘러서 입체감을 살렸는데, 외부 권선은 2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촘촘하게 사선을 넣었다.
제작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다.

유물번호 31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

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파편인 관계로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다른 보고를 참고해 보면 4개의 연판과 그 판간에는 귀면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판의 주위에 권선을 둘러서 입체감을 살렸다. 외부 권선은 2중이고 그 사이에 촘촘하게 사선을 넣었다.
주연부가 문양부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제작상의 특징을 알 수는 없으나 동범의 출토품으로 추정해 보면 와당의 뒷면을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파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고 보강토를 이용하여 보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물번호 3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파편인 관계로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유물번호 3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결실되었으나 반원형의 중방을 가진 기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개의 연판은 2중의 융기선이 표현되어 입체적이다. 판간에는 4개의 파르멧 문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시문되어 있다. 주연부가 결실되어 있으나 주연부가 문양부나 중방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번호 3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명적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은 완전 결실되었고 4개의 연판과 4개의 파르멧 문양을 단순화한 문양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 권선이 관찰된다.
일반적인 고구려 기와보다 소형이다. 파편이어서 정확한 제작상의 특징을 알 수 없다.

유물번호 3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입체적으로 표현된 연판의 좌우에 주문이 배치된 것이나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연판은 2중의 융기선에 의해 도드라져 보이고 연판의 주위를 권선이 둘러싸고 있다. 외부 권선도 확인이 가능하다.

유물번호 36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연판과 외부 권선의 형태가 남아 있으나 마모가 심해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파편인 관계로 제작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다. 주연부는 문양부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다.

유물번호 37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과 문양의 일부가 남아 있다. 중방은 반원형으로 한 가운데에 주문이 남아 있다. 중방에 원형의 융기선이 확인된다.

유물번호 38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적갈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외면에 승문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는 적색 암키와이다. 점토띠 타날 성형으로 제작된 것이다.

유물번호 39 기와의 종류 | 수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적색의 수키와로 문양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樂이라는 주기가 있다. 내면에서 포목흔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40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회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중방은 결실되고 2줄의 방사선에 의해 구획되었다. 고사리 문양 좌우에 주문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주연부에 타날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낙랑의 수막새이다.

유물번호 41 기와의 종류 | 수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낙랑토성 부근 기증자 · 구입자 | 關野貞 · 今西龍 · 谷井濟一 · 栗山俊一 기증일 · 구입일 | 1913년 12월 색깔 | 회색
보고상황 | 谷 논문에 소개
특징 | 외면에는 종방향의 승문이, 내면에는 횡방향의 승문 압흔이 남아 있다. 수키와의 분할은 완전 분할에 가깝게 와도를 넣었다. 와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은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지도

도쿄예술대학 소장 벽화 모사도

유물번호 1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의 천장의 대연화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92.3×84.6cm
설명 | 전실의 천장에 그려진 연화문을 모사한 것이다. 모사시 전실 천장의 연화는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했음을 알 수 있다. 안료의 흘러내림 현상도 관찰되지 않는다.

유물번호 2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의 삼각모줄임부 측면 연화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02.7×113.0cm
설명 | 전실 천장에 붙은 삼각모줄임부 하단(턱)에 그려진 연화문과 그 안쪽 측면에 그려진 연화문을 모사한 것이다. 삼각 모줄임부는 전체 4면 중에서 하나만 모사했으며 측면 역시 2개만 그려서 이를 상하로 편집하여 배접하였다. 모사는 실제 벽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유물번호 3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의 삼각모줄임부 문양 2종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08.9×118.7cm
설명 | 전실 천장에서 2번째 삼각모줄임부 하단의 문양을 그린 것이다. 전체 4면이지만 모사한 것은 2면이다. 이를 상하로 편집하여 배접하였다. 실제 벽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된 모사이다.

유물번호 4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의 모줄임 4방면 운기문과 조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95.4×181.0cm
설명 | 전실 천장의 평행모줄임부의 사방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모사 당시 문양의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방 측면을 각각 모사한 다음 이를 상하 4단으로 편집하여 배접하였다. 실제 크기로 모사되었으며 '쌍주총 전실 모줄임 부분의 운조모양' 이라고 해석되는 주기가 있다.

유물번호 5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전실의 모줄임 문양과 도면 축소도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88.4×161.5cm
설명 | 전실 천장의 평행 모줄임 하단 측면의 문양 중에서 동쪽과 서쪽의 문양 만을 따로 따로 그려서 이를 아래위로 편집하였다. 모사도 하단의 여백에는 묘주화상의 상세도, 전실과 현실의 투시도, 평면과 입단면를 그려 놓았다.

유물번호 6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천장부 대연화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04.7×104.0cm
설명 | 현실 천장의 연화문을 단독으로 그린 것이다. 검은색의 농담을 이용한 연화의 표현이 선명하다. 사방으로 검은 얼룩이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크기로 그려진 모사이다.

유물번호 7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삼각형 천장측면의 문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65.5×103.7cm
설명 | 현실의 천장의 삼각모줄임부 측면에 그려진 화염문을 모사한 것이다. 4면의 벽화 중 2면만을 그려서 아래위로 편집하고 배접하였다. 실제 벽화와 동일한 크기로 그려진 모사이다.

유물번호 8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동북모서리 삼각천장 화염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86.1×138.4cm
설명 | 현실 천장의 동북쪽 삼각모줄임부 하단(턱)에 그려진 화염문을 모사한 것이다. 벽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어 단독으로 배접하였다.

유물번호 9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동남모서리 삼각천장 삼족오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84.9×129.9cm
설명 | 현실 천장의 동남쪽 삼각모줄임부 하단(턱)에 그려진 삼족오를 모사한 것이다. 벽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어 단독으로 배접하였는데 모사의 주기에는 삼족오를 금조라 표현하였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물번호 10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서남모서리 삼각천장 두꺼비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58.8×139.0cm
설명 | 현실 천장의 서남쪽 삼각모줄임부 하단(턱)에 그려진 두꺼비를 모사한 것이다. 벽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어 단독으로 배접하였다.

유물번호 11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서북모서리 삼각 천장 화염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86.2×131.1cm
설명 | 현실 천장의 서북쪽 삼각모줄임부 하단(턱)에 그려진 화염문을 모사한 것이다. 벽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어 단독으로 배접하였다.

유물번호 12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모줄임부 운문과 인동당초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68.7×312.5cm
설명 | 현실의 평행모줄임부 측면에 그려진 별자리와 인동당초문을 모사한 것이다. 모줄임 상단을 2면, 하단을 2면 작성하여 상하로 편집하고 배접하였다.

유물번호 13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모줄임 운문 문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57.2×223.0cm
설명 | 현실의 모줄임부 측면에 그려진 문양을 모사한 것이다. 주기에는 모줄임부 문양 2종이라 되어 있고,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모사하였다. 안료의 흘러내림 현상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14 벽화고분명 | 쌍영총 모사 내용 | 후실의 주작과 연화병, 기하문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07.4×232.0cm
설명 | 현실 벽면의 상단과 모줄임부에 그려진 여러 문양을 각각 모사한 다음 이를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최상단에는 주작이, 중앙 열에는 화병에 꽂힌 연꽃을, 하단에는 현무와 기하문, 파도문 등이 각각 단독으로 모사되어 있다. 이들 모사 역시 실물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유물번호 15 벽화고분명 | 화상리 대연화총 모사 내용 | 석실 내부 투시도와 세부 문양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02.0×77.3cm
설명 | 현실 동벽에 그려진 인물의 좌우에 표현된 시녀 그림을 실제 크기로 모사하고 연문 상단의 화염문, 전실 서측의 문양 등을 각각 모사하여 한 종이에 배접하였다. 그 하단의 여백에는 무덤의 투시도와 평면, 단면도를 채색으로 그려 놓았다.

유물번호 16 벽화고분명 | 안성동 대총 모사 내용 | 현실 내의 각종 문양과 고분 투시도 모사 형태 | 종이 위 채색
보존 상태 | 두루마리 모사의 크기 | 101.5×195.2cm
설명 | 현실 내부에서 관찰되는 문양을 별도로 그려서 모아 편집하고 하단 우측의 여백에는 석실의 투시도와 평면, 단면도를 채색하여 그려 두었다. 개별 문양은 전부를 그린 것이 아니라 특징있는 부분만을 모사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예술대학 소장 외전 유물

유물번호 1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7.5 두께(cm)|4.2 색깔|회흑색 소성도|上
보고상황|도쿄예술대학 예술자료관 소장 목록
특징|6판의 연화문으로 구성되었다. 연판 3줄의 침선이 새겨졌고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었다. 행인형의 연판은 중방쪽이 둥글고 외부 권선쪽이 뾰족한 형태이다. 내 · 외부 권선은 2중으로 되어 있다. 방사선형의 구획선은 2중이고 내 · 외부 권선과 분리되었다. 중방의 중심에는 주문이 배치되었다. 와당의 뒷면에 수키와와의 접합흔이 삼각형으로 남아 있다. 주연부의 측면에 조정흔이 보이고 거친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

유물번호 2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천추총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20.5 색깔|회흑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6판의 연화문으로 구성되었다. 연판에는 Y자형의 문양에 2개씩의 주문을 배치되었는데 연판의 좌우에도 주문이 배치되었다. 방사선의 2중 구획선이 외부 권선과 분리되었다. 내 · 외부 권선이 2중으로 되어 있고, 중방의 중심에는 주문이 배치되었다. 주연부가 박락되었으나 와당의 표면에는 회백색의 화장토가 남아 있다. 주연부의 측면에 조정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3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장군총 기증일 · 기증자|1915년 2월 1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22 색깔|회흑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8판의 연화문으로 구성되었다. 연판에는 3줄의 능선이 배치되었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었는데 방사선은 2중 구획선이고 외부 권선과 분리된다. 내 · 외부 권선은 2중으로 되었고 중방의 중심에 있는 주문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다.
주연부 측면에 상하로 조정흔이 보인다. 와당이 층을 이루고 박리된 것으로 미루어 점토판을 여러 번 겹쳐서 성형하였다. 주연부의 바깥쪽을 따로 만들어 붙인 형태였으며 백색의 화장 흔적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4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2.4 색깔|회흑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행인형의 연판에 2줄의 침선을 넣었는데,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했다. 2중의 내 · 외부 권선은 2중의 방사선형의 구획선과 분리되어 있다.
수키와의 내면에 포목흔이 있고 와당의 뒷면에는 수키와와의 접합을 위한 찌르기흔이 보인다. 접합 후 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번호 5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0 색깔|명회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행인형의 연판에 2줄의 침선을 넣었는데,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을 배치. 연판 중방쪽이 내부 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2중의 내 · 외부 권선은 3중의 방사선형의 구획선과 연결되어 있다. 와당 뒷면에 수키와와의 접합흔이 남아 있는데 수키와 접합 후 보강토를 부착되었다. 와당 표면에 백색 화장이 남아 있다. 수키와 접합 후 주연부를 보강토로 보충하였다.

유물번호 6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토성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1.4 색깔|회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행인형의 연판에 2줄의 침선을 넣었으며 연판의 좌우에 주문을 배치하였다. 행인형의 연판으로 중방쪽이 내부 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2중의 굵은 내 · 외부 권선은 2중의 방사선형의 구획선과 연결된다. 수키와를 접합한 후 점토를 보강하고 깎기조정되었다.

유물번호 7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토성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1 색깔|흑회색 소성도|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행인형의 연판에 2줄의 침선을 넣었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었다. 행인형의 연판이 내 · 외부 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2중의 내 · 외부 권선은 2중의 방사선형의 구획선과 연결된다. 수키와와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긁기 흔적이 남아 있다, 백색의 화장토가 관찰된다. 주연부의 측면에는 깎기 조정흔이 보인다.

유물번호 8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태왕릉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3 색깔 | 흑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연판에는 Y자형의 문양에 2개씩의 주문을 배치했는데, 연판의 좌우에도 주문이 배치되었다. 방사선의 2중 구획선으로 구성되었는데, 구획선은 외부 권선과 분리되어 있다. 내 · 외부 권선이 2중으로 되어 있고. 중방은 결실되었다. 와당면을 제작한 이후에 주연부를 끼워 넣은 형태이다. 와당면을 점토판을 여러번 겹쳐서 성형하였다. 주연부에 조정흔이 남아 있다. 주연부의 측면에는 목판을 이용한 강한 조정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9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태왕릉 기증일 · 기증자 | 1924년 12월 11일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3.5 색깔 | 흑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연판에는 Y자형의 문양에 2개씩의 주문을 배치되었다. 연판의 좌우에도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방사선의 2중 구획선으로 분할된다. 구획선은 외부권선과 분리되며 내 · 외부 권선이 2중이다. 와당면을 제작한 다음에 주연부를 끼워 넣었다. 수키와를 접합한 이후 보강토를 이용하여 보충했고 주연부는 거의 결실되었다.

유물번호 10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토성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7.3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행인형의 두드러지게 튀어 나온 연판 사이에 파르멧 문양을 시문한 형태의 기와이다. 연판의 좌우에는 주문을 배치하고 중방 부분의 결실로 내부 권선은 확인 할 수 없다. 와당의 배면을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파 낸 다음에 수키와를 접합했다. 주연부의 측면에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11 기와의 종류 | 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5.2 두께(cm) | 3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연판 사이에 주문이 아니라 역 삼각형의 문양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중방이 매우 작고 낮으며 내부 권선은 있으나 외부 권선은 없다. 주연부가 고구려 기와로 알려진 것 보다는 낮고 넓으며 원형이 아니라 비뚤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연질의 태토에 미사립이 포함된 정원된 점토로 제작되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파내고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였다. 불규칙하게 긁어냈고 접합 후에는 와당 배면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유물번호 1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4.2 두께(cm) | 1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8판의 연화문 기와로 추정되는데, 연판 사이에 역삼각형의 문양을 배치하고 역삼각형의 아래를 파 낸 형태이다. 중방은 결실되었다. 내부 권선은 있으나 외부 권선은 없다. 선형의 연판에 한 겹 선을 둘렀다. 연질의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파내고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는 형식이다. 와당의 끝부분까지 파 낸 것이 아니라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내었다. 접합 후에는 와당 배면을 도구를 이용한 정면으로 마무리하였다.

유물번호 1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3.7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행인형의 연판 사이에 귀면을 배치한 형태의 수막새이다. 외부 권선과 주연부 사이에 가는 사선이 시문되었다.

유물번호 14 기와의 종류|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복원경 15 두께(cm)|3 색깔|적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6판의 연화문 기와로 추정된다. 연판 사이에 역 삼각형의 문양이 배치되었다. 중방은 결실되었다. 내부 권선은 있으나 외부 권선은 없다.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도구를 이용하여 파내고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했다. 접합 후에는 와당 배면을 깎기 정면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유물번호 15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8.5 두께(cm)|3 색깔|적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연판 사이에 주문이 아니라 역 삼각형의 모양의 간판을 배치되었다. 역 삼각형의 문양 주위는 선으로 둘러쌓여 있다. 연판은 선형이며 중방이 매우 작고 낮다. 내부 권선은 있으나 외부 권선은 없다. 주연부가 고구려 기와로 알려진 것들 보다는 낮고 넓으며 원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니질 태토에 소성도가 높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파내고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였다. 와당의 끝부분까지 파 낸 것이 아니라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내었다. 와당의 배면에 포목흔이 잘 남아있다. 고구려 기와 중에서는 소형의 기와에 속한다. 비슷한 것이 호로고루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유물번호 16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2.5 두께(cm)|2.8 색깔|적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인동문양의 수막새이다. 외부 권선이 시문되어 있다. 작은 중방 주위를 얽힌 인동문이 둘러 싸고 있는 형태이다.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었다. 와당 뒷면을 파내어 접합하고 보강토를 이용하여 메웠다. 주연부의 측면에 도구를 이용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유물번호 17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동대자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4.5 두께(cm)|3.2 색깔|적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인동문 수막새이다. 작은 중방 주위를 얽힌 인동문이 둘러 싸고 있는 형태이다. 미사립이 함유되었다. 와당 뒷면을 파내어 수키와와 접합하였다. 도구를 이용한 배면 조정 후에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유물번호 18 기와의 종류|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4.2 두께(cm)|3.3 색깔|적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인동 수막새이다. 작은 중방 주위를 얽힌 인동문이 둘러 싸고 있는 형태이다.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접합 부위를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내었다.

유물번호 19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동대자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9 두께(cm)|3.6 색깔|적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행인형의 연판이 역으로 배치되어있고 그 양쪽에는 주문이 있다. 문양이 구획선처럼 배치되어 있다. 매우 작은 중방이 있고 그 주위는 내부 권선이 둘러싸고 있다. 연질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었다. 와당 뒷면을 파내어 수키와와 접합했다. 도구를 이용한 배면 조정의 정면 흔적이 있다.

유물번호 20 기와의 종류|수막새의 중방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4 두께(cm)|1.4 색깔|적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중방 부분만 남고 다른 부분들은 결실된 수막새의 파편이다. 중방의 중심에 주문이 두드러진다.

유물번호 21 기와의 종류|수막새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5 색깔|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주연부와 와당 부분 일부만이 남아 있다. 주연부가 좁은 수막새의 파편이다. 미사립이 함유된 태토이다.

유물번호 2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산성자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4.5 두께(cm) | 2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주연부가 대부분 결실되었으나 문양대가 잘 남아 있는 귀면 와당이다. 다른 문양보다 양 눈과 코가 두드러지게 튀어 나왔고, 미간에는 불꽃 형상의 문양이 표현되었다. 입과 양쪽 상하의 어금니가 크게 표현되었고 6개의 이빨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외부 권선이 있다.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어 있음. 와당 뒷면을 파내어 수키와와 접합했다. 와당의 끝부분까지 파 낸 것이 아니라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내었다.

유물번호 2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동대자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2 두께(cm) | 2.5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주연부와 와당의 일부가 잘 남아 있어서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귀면 와당이다. 다른 문양 부분보다 양 눈과 코가 두드러지게 튀어 나온 형태이고, 미간에는 불꽃 형상의 문양이 표현되었다. 입과 양쪽 상하의 어금니가 크게 표현되었고 6개의 이빨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외부 권선이 표현되어 있다. 연질의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고 목판긁기로 정면하였다. 수키와에 약간의 포목흔적이 보이고 와당의 배면에도 포목흔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유물번호 2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산성자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0.7 두께(cm) | 2.5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주연부와 와당이 남아 있어서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귀면 와당이다. 다른 문양보다 양 눈과 코가 두드러지게 튀어 나온 형태이다. 미간에는 불꽃 형상의 문양이 표현되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듯이 위로 뻗어 있고, 외부 권선도 표현되었다.
연질 태토에 미사립이 함유되었고 와당 배면을 파내어 수키와와 접합했다. 와당배면의 전면을 파 낸 것이 아니라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 내었다.

유물번호 2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산성자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4.5 두께(cm) | 3.3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귀면 와당이다. 귀면의 입 부분과 한쪽 눈과 코의 일부가 관찰된다. 상하 좌우의 어금니가 날카롭게 표현되었고 나머지 4쌍의 이빨들은 가지런히 정돈된 형태이다. 이빨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고 혀로 생각되는 부분도 표현되어 있다. 외부 권선이 표현되어 있다. 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빗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와당의 뒷면을 긁어 낸 후 수키와를 접합하는 형식이다.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내었다. 와당은 원형의 실떼기로 점토판을 제작한 후 문양을 넣었다. 주연부에도 도구를 이용한 정면 흔적이 남아 있다. 와당의 배면에 깎기 흔적과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26 기와의 종류 | 암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천추총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2 색깔 | 흑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암막새로 사용된 기와의 파편이다. 소성도와 태토가 천추총 출토의 전과 거의 흡사하다. 암키와를 상하에서 누른 지두문이 잘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27 기와의 종류 | 수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장군총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8 두께(cm) | 1.5 색깔 | 흑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외면에 문양이 남아 있지 않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보인다. 측면 분할 후 도구에 의한 2번에 걸친 조정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28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임강총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1.5 색깔|흑회색 소성도|上
보고상황|同 목록에 보고
특징|외면에 승문이 타날된 암키와. 내면에는 포목 흔적이 보이고 와통 흔적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29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24년 12월 11일 香取秀真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5.4 ×16 두께(cm)|2.3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願太王」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원래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의 문자가 양각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번호 30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24년 12월 11일 香取秀真
(추정)직경 · 잔존길이(cm)|9.3×13.7 두께(cm)|2.3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岳」이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31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24년 12월 11일 香取秀真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0.9×5.3 두께(cm)|2.3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山固如」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32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6.1×9.5 두께(cm)|2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安如山固如岳」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33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9×14.5 두께(cm)|2.4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願太王陵安如山」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34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태왕릉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2.3×8 두께(cm)|2.1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願太王陵」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35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천추총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28.7×10.5 두께(cm)|3.3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千秋萬歲永固」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36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마선구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7×10.8 두께(cm)|2.4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保固乾川相畢」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37 기와의 종류|문자전 출토지 · 추정출토지|집안 마선구 출토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6.8×11 두께(cm)|3.2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萬歲永固」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38 기와의 종류|문자전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8×10.5
두께(cm)|3.7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千」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문자의 좌우가 반대로 양각되어 있다.

유물번호 39 기와의 종류|문자전 기증일 · 기증자|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0×10
두께(cm)|3.1 색깔|회색 소성도|上

특징 | 「永」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40 기와의 종류 | 문자전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1×10.5 두께(cm) | 3.2 색깔 | 회색 소성도 | 上
특징 | 「千秋萬」의 문자가 측면에 양각되어 있는 문자전이다.

유물번호 41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토성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8.1 색깔 | 회백색 소성도 | 下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고사리 문양의 낙랑 기와에서 출토되는 문양으로 추정된다. 2중 방사선 형태의 구획선 사이에 고사리 문양이 배치되었다.
와당의 배면에도 타날흔이 남아 있다. 중방과 그대로 결실되었다.

유물번호 42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황해도 용강 어을동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0 색깔 | 회색 소성도 | 中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이 타날된 암키와이다. 외면에는 종방향, 내면에는 횡방향의 승문 압흔이 남아 있다. 내면의 문양은 내박자 흔적이다. 목록에는 고구려 시대의 기와로 등록되어 있으나 낙랑 혹은 대방의 기와로 추정된다.

유물번호 43 기와의 종류 | 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황해도 용강 어을동 출토 기증일 · 기증자 | 1914년 10월 22일 關野貞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6.7 색깔 | 회색 소성도 | 中
보고상황 | 同 목록에 보고
특징 | 외면에 승문이 타날된 암키와이다. 외면에는 종방향, 내면에는 횡방향의 문양이 남아 있다. 내면의 문양은 노끈을 도구에 묶어 외면을 두드릴 때 내면에서 받쳐 주면서 생긴 흔적으로 추정된다. 목록에는 고구려 시대의 기와로 등록되어 있으나 낙랑 혹은 대방의 기와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자료

와코대학 소장 유물

유물번호 1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청암리 추정 기증일 · 기증자 | 1983년 6월 17일 寺門七郎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7.1 두께(cm) | 2.95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특징 | 4판의 연화문과 연화문 사이에 튜우립 형태의 꽃문양을 판간에 장식한 수막새이다. 주방이 두드러지고 중방은 이중으로 표현되었고 중앙은 평평하다. 보통의 기와는 연판의 문양이 대칭인 예가 많은데 비해 이 기와는 판간의 문양이 대칭이고 연판의 문양이 비 대칭인 것이 특징이다. 청암리 출토 기와로 생각된다.
보통의 고구려 기와보다는 전체적으로 무겁고 큰 느낌의 기와로 와당이 매우 두껍다. 고구려 기와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와당과 수키와의 접합과는 달리 와당의 접합 부분을 도구를 이용하여 깊게 판 흔적이 남아 있다. 수키와가 와당의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남아 있는 것도 독특하다. 와당면에 비해 주연부가 상대적으로 좁다. 와당면의 측면에는 정면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와당 뒷면을 손으로 불규칙하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유물번호 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기증일 · 기증자 | 1983년 6월 17일 寺門七郎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4.3 두께(cm) | 1.7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특징 | 선형의 연화문이 4개 배치되어 있고 판간에 간략화 된 연화문이 4개 배치된 형태이다. 연화문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중방에는 1+8의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내 · 외곽 권선이 표현되어 있다.
와당의 뒷면에는 수키와와의 접합을 위해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파 낸 흔적이 잘 남아 있는데 이러한 제작 당시의 기법은 고구려 기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주연부의 측면에는 도구를 이용한 측면 조정 흔적이 관찰된다. 연판에는 와범이 파손된 흔적을 볼 수 있다. 와당 뒷면을 정면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유물번호 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청암리 (추정) 기증일 · 기증자 | 1983년 6월 17일 寺門七郎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4.6 두께(cm) | 1.9 색깔 | 적색
특징 | 선형의 연화문 4개가 배치되어 있고 판간에 간략화 된 연화문이 4개 배치된 형태이다. 중방과 문양부가 크고 높게 표현되었다. 연화문의 좌우에는 주문을 대신한 화살 형태의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2중으로 된 중방에는 대칭형의 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문양의 내 · 외곽에는 권선이 표현되어 있다. 주연부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동범으로 추정되는 기와가 청암리에서 출토되어 보고된 것으로 미루어 원형 추정이 가능하다. 와당의 뒷면에는 타날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기증일 · 기증자 | 1983년 6월 17일 寺門七郎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1.4 두께(cm) | 1.9 색깔 | 적색
보고상황 |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특징 | 선형의 연화문 4개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연화문의 좌우에는 연화문에서 뻗어나온 문양이 있고 중방과 연화문의 사이에 4개의 주문이 배치된 형태이다. 내 · 외곽 권선이 표현되어 있다. 중방의 중앙은 평평하다.
와당의 뒷면에는 수키와와의 접합을 위해 빗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파 낸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주연부의 측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측면 조정 흔적이 관찰된다. 연판에는 와범이 파손된 흔적을 볼 수 있다. 와당 뒷면을 정면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유물번호 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환도산성 두께(cm) | 2.8 색깔 | 적색
특징 | 주연부와 와당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귀면 와당이다. 다른 문양 부분보다 양 눈과 코가 두드러지게 튀어 나온 형태. 미간에는 불꽃 형상의 문양이 표현되었다. 입은 크게 벌린 형태이고 어금니도 표현되어 있다. 외부 권선이 시문되어 있다. 정선된 태토로 만들어진 기와로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파 내고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는 형식이다. 와당의 끝부분까지 파 낸 것이 아니라 수키와를 끼울 수 있는 부분만 파 내었다. 접합을 위한 수법은 방향을 거의 규칙적으로 긁어 내었다. 접합 후에는 와당 배면을 도구를 이용한 정면 흔적이 남아있다.

유물번호 6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환도산성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5.2 두께(cm) | 2.5 색깔 | 회색
특징 | 주연부와 와당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귀면 와당이다. 다른 문양 부분보다 양 눈과 코가 두드러지게 튀어 나온 형태이다. 미간에는 불꽃 형상의 문양을 표현하고 있다. 입은 크게 벌린 형태이고 어금니도 표현되어 있다. 외부 권선이 두드러지게 시문되

어 있다. 정선된 태토로 만들어진 기와로 수키와와 와당을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배면을 파 내고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낸 다음 수키와를 접합하는 형식이다. 접합을 위해 긁어낸 방향은 규칙적이다.

유물번호 7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기증일 | 1983년 6월 17일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6.8
두께(cm) | 1.5 색깔 | 회색
특징 | 고사리 문양의 낙랑 기와로서 주로 평양토성 등지에서 출토된다. 중방의 크기는 매우 작은 편이고 방사선 형태의 4구획선 사이에 고사리 문양을 배치한 형태이다. 방사선의 구획선은 2중으로 되어 있고 내 · 외곽 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주연부와 주연부의 측면에 타날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수키와를 따로 제작하여 와당면에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 타날을 이용한 원통에 와당면을 끼운 형태의 기와 제작 기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원통의 반은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내는데 이러한 제작 기법은 중국 전국시대 이래의 특징이다.

유물번호 8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기증일 | 1983년 6월 17일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16.9
두께(cm) | 1.4 색깔 | 회색
특징 | 고사리 문양의 낙랑 기와로서 주로 평양 토성 등지에서 출토된다. 중방은 큰 편이다. 방사선 형태의 폭이 넓은 4구획선 사이에 고사리 문양을 배치한 형태이다. 방사선의 구획선은 2중이고 내 · 외곽 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주연부의 측면에 타날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주연에는 타날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주연의 두께가 약 1cm 정도로 매우 얇은 편이다. 와당면이 약 1cm 정도로 얇다. 이 기와도 수키와를 따로 제작하여 와당면에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 타날을 이용한 원통에 와당면을 끼우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원통의 반은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내었는데 와당면보다 약 1.5cm 더 남긴 지점에서 잘라 내었다. 이러한 제작 기법도 중국의 기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릿쿄대학 소장 유물

유물번호 1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추정) 기증자|駒井和愛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3.8
두께(cm)|2.4 색깔|명적색 소성도|中
보고상황|미보고
특징|연화문 기와. 중방을 중심으로 와당면 전체를 4분할 하고 각 구획에 연화를 배치했다. 구획선은 2조로 구성된다. 주연부는 단부가 평탄하며 중방과 높이가 비슷하다.
와당 거푸집에 적당량의 점토를 여러 번 채워 넣은 다음 주연부에도 점토를 둘러 마무리 했다. 와당 배면에는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서 낸 긁어내기 흔적이 현저하고, 접합 후에는 넓게 깎기 조정하여 마무리 하였다.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에는 와당면의 곳곳을 깎기 조정을 하였다.

유물번호 2 기와의 종류|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평양 (추정) 기증자|駒井和愛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6
두께(cm)|2.7 색깔|적갈색 소성도|中
보고상황|미보고
특징|네 겹의 동심원으로 구성된 중방의 주변으로 6개의 연화가 배치되었는데 와당면을 구획하지는 않았다. 주연면이 평탄하며 중방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와당의 배면은 수키와 접합부가 크게 결손되어 접합을 위한 조정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와당면의 점토는 여러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차례에 걸쳐 점토를 거푸집에 부착한 것이다. 수키와를 부착한 다음에는 배면 하단을 깎기 조정하였고 주연의 바깥도 깎기 조정을 하였다. 와당면에는 미세한 사립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분리사를 사용했음이 분명하다.

유물번호 3 기와의 종류|암키와 출토지 · 추정출토지|무순 기증자|駒井和愛 (추정)직경 · 잔존길이(cm)|11×10
두께(cm)|1.2 색깔|회흑색 소성도|中
보고상황|미보고
특징|무순시의 東공원에서 출토된 암키와이다. 내면에는 격자문이 외면에는 승문이 관찰되는데 단부는 손누르기에 의한 홈이 관찰된다.
와통을 사용하지 않고 무와통으로 제작된 기와이다. 내면의 내박자는 격자문이 새겨진 것이며 외면은 노끈을 감은 박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부에는 손누르기에 의한 홈이 물결치듯 관찰되는데 실로떼기 기법에 의한 미세한 요철이 관찰된다. 무와통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고구려 기와인지 분명치 않으나 요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사이타마대학 소장 유물

유물번호 1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추정)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직경 17 색깔 | 청회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보고
특징 | 연화문 기와이다. 중방에 1+6의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3조로 이루어진 방사선 구획안에 6판의 연화문이 배치되었다. 연화문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고 내 · 외곽의 권선과 구획선이 연결되어 있다. 연판의 형태가 행인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와당에 접합된 수키와가 잔존하고 수키와 내면의 포목흔이 보인다. 와당 뒷면에 지두흔 흔적이 관찰된다. 와당과 수키와의 접합 후 도구에 의한 접합 조정흔이 남아 있다.

유물번호 2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추정)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직경 20.1 색깔 | 명적색
소성도 | 下
보고상황 | 미보고
특징 | 연화문 기와이다. 중방에 1+6의 주문이 배치되어 있다. 2조로 이루어진 방사선 구획안에 6판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화문의 좌우에는 주문이 배치되고, 내 · 외곽의 권선과 구획선이 연결되어 있음. 연판의 형태가 행인형이다. 와당과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한 흔적이 약간 남아 있다. 고구려 기와 중에서는 대형의 기와에 속한다. 태토에 약간의 불순물들이 포함되었다.

유물번호 3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추정)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잔존길이 9.5 색깔 | 암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보고
특징 | 집안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귀면문 수막새의 파편이다. 와당과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한 접합흔적이 있고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수키와 접합 후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남았다.

유물번호 4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집안 (추정)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직경 19.7 색깔 | 암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보고
특징 | 집안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귀면문 수막새이다.
정선된 태토로 제작된 고구려의 대형 기와인데 수키와 접합을 위한 흔적이 관찰된다. 접합 후 도구를 이용한 뒷면 조정흔이 관찰되고 와당의 측면에는 도구를 이용한 조정 흔적이 보인다.

유물번호 5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추정)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직경 13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보고
특징 | 평양 지역에서 자주 보고되는 연화문이다. 연화문이 좌우로 뻗어 나온 문양과 연결되어 있고 중방이 중앙이 평평하다. 내부 권선의 외곽에 주문이 4개 배치하고 있으며 외부 권선도 있다. 연화문의 형태는 선형이다. 정선된 태토로 제작된 고구려의 중형 기와이다.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수키와와 와당의 접합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수키와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주연부 측면을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보이고, 와당 뒷면에 깎기 흔적도 관찰된다.

유물번호 6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추정)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직경 15.7 색깔 | 암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보고
특징 | 주로 평양 지역에서 보고되는 기와이다. 둥근 중방과 내 · 외부 권선이 있는데 파르멧 문양이 당초 문양과 결합된 형태이다. 내부 권선의 외곽에 주문이 배치되었다. 정선된 태토로 제작된 중형의 고구려 기와인데 약간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 와당의 뒷면을 파 낸 흔적이 관찰된다.

유물번호 7 기와의 종류 | 수막새 출토지 · 추정출토지 | 평양 (추정) (추정)직경 · 잔존길이(cm) | 직경 13 색깔 | 적색
소성도 | 上

보고상황 | 미보고

특징 | 평양 지역에서의 보고가 있다. 차륜형의 문양 구조이다. 중방이 고구려 기와들에 비해 작다. 정선된 태토로 제작된 중형의 고구려 기와인데 와당과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한 접합흔적은 거의 관찰할 수 없다. 접합 후에 보강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접합 후 도구를 이용한 불규칙한 조정 흔적이 관찰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초판 1쇄 인쇄 2008년 6월 18일
초판 1쇄 발행 2008년 7월 4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75
E - 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8

ISBN 978-89-6187-065-8-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